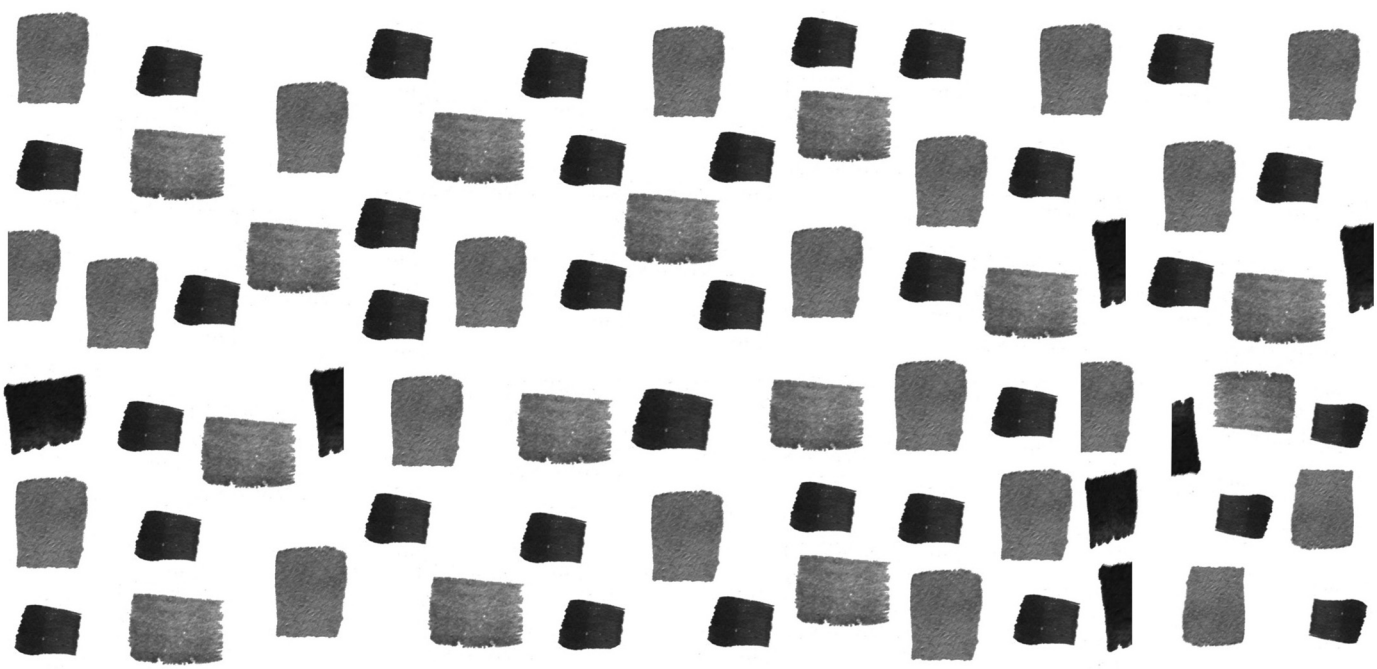
연구보고 RR 2012-05

학생의 학교 부적응 진단과 대책(I)

연구책임자 이 혜 영(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자 손 흥 숙(한국교육개발원)
김 일 혁(한국교육평가연구소)
김 미 숙(한국교원대학교)
연 구 조 원 이 서 현(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머리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은 수업을 비롯한 학교생활을 만족스럽게 영위하기 어렵고 심한 경우 학업 중단이나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여 성공적으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바람직한 삶은 물론 사회의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본원에서는 "학생의 학교 부적응 진단과 대책"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2개년 연구로 계획되어 있다. 1차년도에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2차년도에는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1차년도인 올해 연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학교 부적응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부적응에 대한 개념과 관점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초·중등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질문지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파악하고 부적응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5개 중등학교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부적응의 원인과 유형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부적응 학생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질문지 조사와 사례 조사에 응해 주신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한다.

2012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백순근

연구요약

이 연구는 2개년 연구로 계획된 연구 중 1차년도 연구이다. 1차년도인 올해 연구의 목적은 초·중등학생의 부적응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부적응을 “학교체제 안에서 학교의 요구, 기대와 학생 주체가 갈등, 부조화를 빚는 현상” 으로 보고 “우리나라 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들은 어디에서 기인하며, 학교 부적응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 “학교가 학생들에게 부적응한 부분은 없는가?”,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는 무엇인가?”, “학교생활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지원 실태는 어떠한가?”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학교 부적응의 개념과 연구 관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1990년대 이후 학교 부적응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 부적응 관련 요인을 정리한 후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부적응을, 학교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는 관점에서 학교 부적응 현상을 조명하기 위해 “학교의 교육활동과 주류 문화가 학생 주체와 갈등, 부조화를 빚는 현상” 으로 정의하였다. 부적응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에서는 학생 개인의 심리적 특성보다 환경 요인, 특히 학교와 사회 환경에 더 무게를 두었다.

학생들의 학교와 학교 밖 생활 실태와 부적응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대규모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의 학생 및 교사이다. 표본의 수는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각각 200개교, 특성화고 150개교를 선정하였다. 표집 방법은 각 학교급별로 지역 규모에 따라 층을 나누고 각 층의 학생 수 비율을 적용하여 표본 학교 수를 할당한 다음,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는 유층비율군집표집 방법을 적용하였다. 군집의 선택은 1단계에서 유층별로 학교를 무선표집하였고, 표집된 학교의 각 학년별(초등학교는 6학년, 중등학교는 1~3학년)로 마지막 학급 1개(초등학교는 첫 번째 학급과 마지막 학급 각 1개)를 2단계 군집으로 추출하였다. 교사 표본은 표본으로 뽑힌 학교의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급별 학생용 질문지 회수율은 초등학교 89.6%(9,749명), 중학교 93.7%(18,739명), 일반고

90.8%(19,143명), 특성화고 94.1%(12,190명)이며, 교사용 질문지 회수율은 초등학교 80.9%(6,132명), 중학교 79.8%(5,702명), 일반고 75.8%(9,401명), 특성화고 75.8%(9,401명)이다.

학생의 학교 부적응 실태 분석을 위해서 학교급별로 각 문항에 대해 기초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주요 배경 변수별로 하위 집단간 또는 학교급 간 평균 차이 및 비율 차이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는 척도를 사용하여 하위 집단간 또는 학교급 간 차이를 검정하였다.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2수준 다층모형을 설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제 3장부터 7장에 걸쳐 제시하였다.

제 3장에서는 학교의 제 측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학생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1순위 응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학교급에 상관없이 '학습·성적' 문제이며,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초등학교는 '건강' 문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진로' 문제이다. 교과 수업 참여 정도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생 대다수가 "열심히 참여 하거나, 열심히 참여하지는 않아도 듣는 편" 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 비율은 대체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특성화고 학교에서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수업을 잘 듣지 않는다" 고 응답한 비율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커지고 있으며, 특히 특성화고 학교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에서 60% 이상 학생이 "그런대로 다닐 만하다" 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꼭 다니고 싶다" 는 응답 비율은 대체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고등학교 중에서는 특성화고에서 더 낮다. 반면에 "다니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다",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다" 는 응답 비율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크고 특성화고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종합해 보면 교육내용의 다양성, 개인 적합성, 실용성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편이다. 교육방법의 다양성, 학생 참여 활동 기회, 능력별 수업 등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다. 학교 규칙에 대해서는 그 제정 과정에 학생 참여 정도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 학교 규칙이 자신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며 따라서 규칙이 자신을 화나게 한다든지, 규칙 때문에 학교에 오고 싶지 않다는 등 불만 정도도 꽤 높은 편이다. 교사의 열의와 태도, 교우관계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학교풍토에 대해서는 경쟁적이고 학생들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별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학교에 대한 인식의 학생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에서는 일관된 경향을 찾아보기 어렵다. 각 학교급별로 여러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모든 학교급에서 학업성적과 부모의 학력,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체로 부모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으며, 자신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교의 제측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제 4장에서는 가정환경과 학교 밖 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정환경은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교육지원 정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모든 학교급의 학생들이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관심에 비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점수가 낮으며, 특히 "부모님께 내 고민거리를 거리낌 없이 이야기한다" 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다. 부모와 학교생활, 일상생활, 장래 희망과 진로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 고민거리를 거리낌 없이 이야기 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도 매우 낮다. 부모의 교육지원 정도는 모든 학교급에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 결석, 지각을 하지 않도록 챙겨주신다" 의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건강 유지를 위한 식사와 운동에 신경 써주신다" 의 점수가 높다.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자연이나 문화체험 활동을 한다" 이다. 부모들이 학습 분위기 조성, 학습 태도 형성, 책과 정보 제공, 과제나 준비물 준비, 등교시키기, 식사와 운동 등 건강 챙기기에 비해 자연 체험과 여행, 공연 관람, 박물관 방문 등 문화체험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 차이를 보면 모든 문항에서 초등학생의 부모 지원이 가장 높고, 특성화계 고등학생의 부모 지원이 가장 낮다.

학생들의 학교 밖 경험은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아르바이트 경험, 그리고 유해환경 접촉 정도를 통해 알아보았다. 학생들의 정보통신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사용에 관한 문항 중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하게 된다" 의 평균이 3점 이상이므로 학생들의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꽤 높다고 볼 수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낮다. 정보통신기기 사용으로 인해 잠을 못자거나 학교 공부와 다른 일에 지장을 받는 정도는 일반고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고 응답한 정도는 전반적으로는 낮지만 특성화고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 전체 응답자의 4.4%, 일반고 학생 14.2%, 특성화고 학생 38.8%가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일반고 학생에 비해 특성화고 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높다. 일반고와 특성화고 학생 모두 2~3학년, 성적이 낮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더 높다.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아르바이트 기간은 1~3개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들이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높고, 고등학생 중에서도 일반고 학생보다 특성화고 학생이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 기간이 길다. 학생들의 유해환경 접촉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화방, PC방, 노래방, 비디오/DVD방, 술집, 클럽 출입 정도를 조사하였다. 초·중등학생 모두 '가끔, 자주, 매우 자주'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소는 PC방과 노래방이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출입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만화방, 비디오/DVD방, 술집, 클럽에는 특성화고 학생이 다른 학교급 학생들보다 다소 출입하는 빈도가 높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출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문항 중 "친구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 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으며, 그 중에서도 일반고 학생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다. 대학입시를 지향한 학생들의 학업 중시와 경쟁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4개 문항에서는 초등학생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일반고 학생, 중학생, 특성화고 학생 순이다. 학생들의 사회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자아존중감에 비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다. 자아존중감을 묻는 5개 문항의 평균 점수가 3.64인데 비해, 사회에 대한 인식을 묻는 5개 문항의 평균 점수는 2.81이다. 자신의 학업성적이 직업, 소득 등 장래의 사회적 지위 획득에 미칠 영향보다 대학입학에 미칠 영향을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대학입학이 보다 가까운 미래이고 또 학업성적과의 관련성이 직접적인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문항에서 학교급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미치는 영향을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으로써 학력주의를 더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 5장에서는 학생의 부적응 실태를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 부적응의 유형을 무기력, 수업부적응, 교사관계 부적응, 친구관계 부적응, 학교규범 부적응의 5가지로 유형화하여 학생용 질문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유형별 질문 문항 수는 무기력 3개, 수업부적응 5개, 교사관계 부적응 3개, 친구관계 부적응 3개, 학교규범 부적응 13개(초등은 11개)로 총 27개(초등은 25개)이다. 그러나 요인분석 결과 무기력과 수업이 하나의 유형으로, 친구관계 부적응과 학교규범 부적응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서 3개의 학교 부적응 유형으로 범주화되었다. 각각을 수업부적응, 교사관계 부적응, 학교규범 부적응이라고 명명하였다. 유형별 부적응 정도를 5단계 척도로 조사하

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적응 정도는 3점 미만이므로 부적응 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세 유형의 부적응 중 수업부적응 정도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교사관계 부적응이 높고, 학교규범 부적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부적응 정도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으며, 고등학생 중에서는 일반고보다 특성화고 학생의 부적응 정도가 높다. 교사관계 부적응과 학교규범 부적응 정도는 중학생과 특성화고 학생이 초등학생과 일반고 학생보다 높다. 세 가지 부적응 유형 모두 특성화고 학생이 가장 높다.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는 상당히 낮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특성화고 학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일반고 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교규범 부적응도 매우 낮게 나타났으므로 학생들은 학교의 규범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6개 문항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나는 두발과 복장 규정을 위반한다” (1.70), “나는 자주 지각을 한다” (1.49), “나는 다른 학생을 때린다” (1.48), “나는 다른 학생을 괴롭힌다” (1.37) 등이다.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이 행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5개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부적응을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였다. 그것은 부모 관련 부적응, 친구 관련 부적응, 진로 관련 부적응, 학습 관련 부적응, 훈육 관련 부적응, 용모 규범 관련 부적응이다. 이렇게 유형을 구분한 주요 기준은 부적응을 나타나게 한 원인이다. 하지만 부적응의 원인이 일차적인 원인인지, 이미 나타난 부적응 현상을 강화한 원인인지는 이 연구에서 밝히지 못하였다. 이를 좀 더 명료하게 규명하는 일은 정교한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각 부적응 유형이 상호 배타적인 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한 학생에게 어느 하나의 부적응 유형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유형이 특정 상황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 6장에서는 학교 부적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학교급별로 각각 수업부적응, 교사관계 부적응, 규범부적응을 종속변수로 한 다층모형을 설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 중 성별은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에서 수업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어머니와 동거하는 학생이, 중학교에서는 아버지와 동거하는 학생이, 일반고에서는 동거 부모가 없는 학생이 부모와 동거하는 가정의 학생들보다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모의 교육지원이 낮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에서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학력주의 사회를 의식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수업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일반고에서는 학교 수준의 투입 변수 및 과정 변수 모두가 수업부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특성화고에서는 읍면 지역 학생들이 특별시 학생들보다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교 학생들보다 남녀공학 학생들이 수업부적응 정도가 더 높으며, 남녀공학 학생들보다 여학교 학생들이 수업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관계 부적응 분석 결과를 보면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 중 성별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교사관계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높으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에서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은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어머니와 동거하는 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은 부모와 동거하는 가정의 학생들보다 교사관계 부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교사관계 부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지원이 낮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특성화고에서 교사관계 부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 중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교사관계 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에서 교사관계 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주의 사회를 의식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특성화고에서 교사관계 부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수준의 투입 변수 및 과정 변수 모두가 교사관계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는 읍면 지역 학생들이 특별시,

광역시, 중소 도시 학생들보다 교사관계 부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성화고에서는 읍면 지역 학생들이 특별시 학생들과 광역시 학생들보다 교사관계 부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에서는 공립학교 학생들이 사립학교 학생들보다 교사관계 부적응이 더 높다.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에서 남녀공학 학생들이 여학교 학생들보다 교사관계 부적응이 더 높다. 학교 수준의 과정 변수들은 모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에서 교사관계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에서는 교우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이 교사관계 부적응이 더 높다.

셋째, 규범부적응에 대해서는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 중 성별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어머니와 동거하는 가정의 학생이, 일반고와 특성화고에서는 동거 부모가 없는 가정의 학생들이 부모와 동거하는 가정의 학생들보다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지원이 낮은 학생들이 초등학교와 특성화고에서 각각 규범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에서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초등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주의 사회라고 의식하는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초등학교에서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수준의 투입 변수 및 과정 변수 모두 규범부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는 읍면 지역 학생들이 광역시 학생들보다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는 남학교 학생들이 남녀공학 학생들보다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공학 학생들이 여학교 학생들보다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와 특성화고에서는 남녀공학 학생들이 여학교 학생들보다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의 과정 변수인 교우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중학교와 특성화고에서 규범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고에서는 학생의 자율성이 낮은 학교일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7장에서는 교사 대상 질문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부적응 행동과 원인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학교의 부적응 학생 지도 실태, 부적응 감소·예방 대책을 살펴보았으며, 질적 연구를 통해 수집한 학교의 지도 사례를 제시하였다. 교사들은 이 연구에서 제시한 26개의 행동 모두를 부적응으로 보고 있다. 어떤 행동을 더 '심한' 부적응, '약한' 부적응으로 보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전반적으로 교사들은 무단결석과 조퇴 등 학교 이탈, 교사에 대한 반항과 무례함, 괴롭힘·따돌림 등 폭력 가해와 피해 행동을 부적응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교 부적응에 학교보다는 학생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학교 요인 중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특기, 적성, 진로, 흥미에 부합하지 못하는 학교 교육과정"이 학교 부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의 학교 부적응 여부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기준·방법 중 "교사가 개별 기준에 따라 판단" (30.1%)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학교 교칙 위반 정도로 판단" (28.4%), "학교 차원에서 지표를 만들어 사용" (26.7%)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유무 현황을 보면 67.2%의 교사가 "있다" 고 응답하여 상당수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특성화고, 일반고, 초등학교 순이다. 부적응 지도 학생 지도 프로그램으로 모든 학교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개별 및 집단 상담"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째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학교급 간에 차이가 있다. 중등학교에서는 "교내외 봉사활동" 을 두 번째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초등학교에서는 "심리 진단 및 치료" 를 두 번째로 많이 시행하고 있다. "심리 진단 및 치료" 는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더 많이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중에서는 특성화고에서 더 적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멘토링" 의 비율은 네 학교가 유사한 수준이다.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이외 인력이 있는 학교는 약 62%이다. 학교급 간 차이를 보면 중학교의 비율이 8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특성화고, 일반고, 초등학교 순으로 학교급 간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적응 학생 지도 인력 중 모든 학교에서 "전문상담 교사" 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학교급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일반고, 중학교, 초등학교 순이다. 전문상담 교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사회복지사" 비율

이 다소 높다. 교사들이 부적응 학생을 지도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식은 “직접 훈계” 인 것으로 나타났다. 60.3%의 교사가 “자주 또는 매우 자주한다” 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59.1%의 교사가 “직접 상담”을 “자주 또는 매우 자주한다” 고 응답함으로써 “직접 훈계”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교내 다른 전문 인력에게 도움 요청”과 “학교 밖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 은 각각 18.5%, 5.6%만이 “자주 또는 매우 자주한다” 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이 부적응 감소·예방 대책 중 가장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것은 “교사의 관심과 열의” 이며, 그 다음은 “학교에 전문 인력(전문상담교사 등) 증가 배치”,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진로(직업) 탐색과 준비”, “학급규모 축소”,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 다양화”, “입시준비·경쟁 위주의 교육풍토 지양” 순이다.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이 제안한 것이므로 향후 중앙정부나 교육청에서 대책을 수립할 때 최대한 반영하면 학생의 부적응 완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제 8장에서는 양적 조사와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기초로 논의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논의는 학교 부적응의 양상(유형)과 정도, 학교 부적응의 원인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① 학교의 효율적인 생활지도 체제 구축 ② 학교의 상담인력 확충 ③ 부적응 학생 지도 프로그램 내실화 ④ 진로지도 내실화 ⑤ 학교운영 민주화 ⑥ 학교의 부적응 학생 지도 관점 전환 ⑦ 고졸 취업 지원 강화 ⑧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 등의 정책 제언을 하였다.

CONTENTS

목차

part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 6
3. 연구 방법 ····· 9
4. 전문가 협의회 ····· 17

part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 부적응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 21
2.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6
3. 학교 부적응의 특성·지표 ····· 37
4. 학교 부적응의 유형 ····· 41
5. 연구 모형 ····· 44

part Ⅲ 학생의 학교생활

1.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 ····· 51
2. 학교 및 수업 참여 정도와 이유 ····· 54
3. 학교에 대한 인식 ····· 59

part Ⅳ 가정환경과 학교 밖 생활

1. 가정환경 ····· 79
2. 학교 밖 생활 ····· 84
3.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인식 ····· 90

part Ⅴ 학교 부적응 실태

1. 학교 부적응의 양상과 정도 ····· 97
2. 학교 부적응 유형 ····· 121

part Ⅵ 학교 부적응의 원인

1. 학교 부적응 원인 분석 모형 ····· 135
2. 분석 결과 ····· 137

part Ⅶ 학교의 부적응 학생 지도 실태

1. 교사가 보는 학교 부적응 행동과 원인 ····· 185
2. 부적응 학생 지도 실태 ····· 192
3. 학교 부적응 감소·예방 대책 ····· 204

part Ⅷ 논의 및 정책 제언

1. 논의 ····· 219
2. 정책 제언 ····· 225

참 고 문 헌 ····· 231

Abstract ····· 251

부 록 ····· 263

CONTENTS

표목차

〈표 I-3-1〉 사례 연구 대상 학교 수 ····· 9
〈표 I-3-2〉 면담 참여자 수 ····· 10
〈표 I-3-3〉 학생용 질문지 영역/내용과 문항 번호 ····· 12
〈표 I-3-4〉 교사용 질문지 영역/내용과 문항 번호 ····· 13
〈표 I-3-5〉 학교급별, 지역 규모별 모집단 수 및 표본 수 ····· 14
〈표 I-3-6〉 학교급별 질문지 회수율 ····· 15
〈표 I-3-7〉 학생 응답자의 특성 ····· 15
〈표 I-3-8〉 교사 응답자의 특성 ····· 16

〈표 II-1-1〉 학교 부적응 연구 논문 수의 연도별 변화 ····· 22
〈표 II-1-2〉 1970·80년대 학교 부적응 연구의 경향 ····· 23
〈표 II-1-3〉 1990년대 이후 학교 부적응 연구의 주제별 분류 ····· 24
〈표 II-2-1〉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 ····· 27
〈표 II-2-2〉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요인 ····· 29
〈표 II-2-3〉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 ····· 32
〈표 II-2-4〉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요인 ····· 35
〈표 II-2-5〉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7
〈표 II-2-6〉 46개 학교 부적응 척도에서 사용한 지표 ····· 39
〈표 II-2-7〉 학교 부적응의 특성 ····· 41

〈표 Ⅲ-1-1〉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 ····· 52
〈표 Ⅲ-1-2〉 교사가 보는 학생들의 문제 ····· 53
〈표 Ⅲ-2-1〉 교과 수업 참여 정도 ····· 55
〈표 Ⅲ-2-2〉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56
〈표 Ⅲ-2-3〉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한 생각 ····· 56
〈표 Ⅲ-2-4〉 학교에 다니는 이유 ····· 58
〈표 Ⅲ-2-5〉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 ····· 59
〈표 Ⅲ-3-1〉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 ····· 60
〈표 Ⅲ-3-2〉 수업 방법과 평가에 대한 인식 ····· 63
〈표 Ⅲ-3-3〉 학교 규칙에 대한 인식 ····· 65
〈표 Ⅲ-3-4〉 학교 규칙의 규제 정도에 대한 인식(1) ····· 67
〈표 Ⅲ-3-5〉 학교 규칙의 규제 정도에 대한 인식(2) ····· 69
〈표 Ⅲ-3-6〉 교사들의 열의와 태도에 대한 인식 ····· 70
〈표 Ⅲ-3-7〉 교우관계에 대한 인식 ····· 73
〈표 Ⅲ-3-8〉 학교풍토에 대한 인식 ····· 74

〈표 Ⅳ-1-1〉 부모와의 관계 ····· 80
〈표 Ⅳ-1-2〉 부모의 교육지원 ····· 82
〈표 Ⅳ-2-1〉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 85
〈표 Ⅳ-2-2〉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 87
〈표 Ⅳ-2-3〉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기간 ····· 88
〈표 Ⅳ-2-4〉 유해업소 출입 정도 ····· 89
〈표 Ⅳ-3-1〉 자아존중감 ····· 91
〈표 Ⅳ-3-2〉 사회에 대한 인식 ····· 92

〈표 Ⅴ-1-1〉 학교급별 학교 부적응 양상 ····· 98
〈표 Ⅴ-1-2〉 수업부적응 양상과 정도 ····· 99

〈표 V-1-3〉 수업부적응의 학생 배경 변수별 차이(초등학교) ·····100
〈표 V-1-4〉 수업부적응의 학생 배경 변수별 차이(중학교) ·····101
〈표 V-1-5〉 수업부적응의 학생 배경 변수별 차이(일반고) ·····103
〈표 V-1-6〉 수업부적응의 학생 배경 변수별 차이(특성화고) ·····104
〈표 V-1-7〉 교사관계 부적응 양상과 정도 ·····106
〈표 V-1-8〉 교사관계 부적응의 학생 배경 변수별 차이(초등학교) ·····106
〈표 V-1-9〉 교사관계 부적응의 학생 배경 변수별 차이(중학교) ·····108
〈표 V-1-10〉 교사관계 부적응의 학생 배경 변수별 차이(일반고) ·····109
〈표 V-1-11〉 교사관계 부적응의 학생배경 변수별 차이(특성화고) ·····110
〈표 V-1-12〉 학교규범 부적응의 양상과 정도 ·····112
〈표 V-1-13〉 규범부적응의 학생 배경 변수별 차이(초등학교) ·····115
〈표 V-1-14〉 규범부적응의 학생 배경 변수별 차이(중학교) ·····116
〈표 V-1-15〉 규범부적응의 학생 배경 변수별 차이(일반고) ·····118
〈표 V-1-16〉 규범부적응의 학생 배경 변수별 차이(특성화고) ·····119

〈표 VI-1-1〉 학교 부적응 변수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136
〈표 VI-2-1〉 초등학생의 부적응 원인 분석에 투입된 변수의 내용 ·····138
〈표 VI-2-2〉 초등학생의 수업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141
〈표 VI-2-3〉 초등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144
〈표 VI-2-4〉 초등학생의 규범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146
〈표 VI-2-5〉 중학생의 부적응 원인 분석에 투입된 변수의 내용 ·····148
〈표 VI-2-6〉 중학생의 수업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150
〈표 VI-2-7〉 중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153
〈표 VI-2-8〉 중학생의 규범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156
〈표 VI-2-9〉 일반고 학교 부적응 원인 분석에 투입된 변수의 내용 ·····159
〈표 VI-2-10〉 일반고 학생의 수업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161
〈표 VI-2-11〉 일반고 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164

〈표 VI-2-12〉 일반고 학생의 규범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166
〈표 VI-2-13〉 특성화고 학생의 부적응 원인 분석에 투입된 변수의 내용 ·····169
〈표 VI-2-14〉 특성화고 학생의 수업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170
〈표 VI-2-15〉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173
〈표 VI-2-16〉 특성화고 학생의 규범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176

〈표 VII-1-1〉 교사들이 보는 부적응 행동 ·····186
〈표 VII-1-2〉 교사가 보는 학교 부적응의 원인 ·····190
〈표 VII-2-1〉 학교 부적응 판단 기준·방법 ·····193
〈표 VII-2-2〉 학교 부적응 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의 필요성 ·····193
〈표 VII-2-3〉 학교 부적응 판단 기준 제작 주체 ·····194
〈표 VII-2-4〉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별도 교육프로그램 유무 ·····195
〈표 VII-2-5〉 부적응 학생 지도 프로그램 ·····195
〈표 VII-2-6〉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이외 인력 유무 ·····196
〈표 VII-2-7〉 부적응 학생 지도 인력 ·····196
〈표 VII-2-8〉 교사의 부적응 학생 지도 방식 ·····197
〈표 VII-3-1〉 학생의 학교 부적응 감소·예방 대책 ·····204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II-5-1] 학교 부적응 분석 모형 ····· 48
[그림 VI-1-1] 학교 부적응 원인 분석 모형 ····· 135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전문가 협의회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 국가에서는 고등학교 단계까지의 취학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성장기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 따라서 성장기 아동·청소년이 학교에서 학습을 비롯한 제반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하며, 실제로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각 개인의 성장·발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수준의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구해야 할 핵심적인 교육의 주제이다.

교육계에서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학교 적응 또는 부적응이라는 개념을 통해 조명해 왔다. 학교 적응 또는 부적응이라는 현상 자체가 학교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고, 동일한 현상이라도 보는 이의 입장에 따라 적응으로도 또는 부적응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일이 쉽지 않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학교 적응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상태를, 부적응은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상태를 지칭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학교 부적응을 해소하여 적응을 극대화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수업 시간에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학업성적이 저하되어 좌절감이 누적되고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무단결석, 가출, 흡연, 음주, 폭력 등의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키거나 사회적 고립, 우울 등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학교 중도 탈락, 극단적인 경우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부적응'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중 일반고의 경우 37%, 특성화고의 경우 63%가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생들의 위험 행동

또는 위기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공부에 무관심한 학생, 고의적인 수업 결손 행위를 하는 학생들의 전국 추정치가 180만 명으로 전국 초·중등학생의 25%에 해당되는 비율이다. 또한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도 전체 학생의 8.6%인 6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업 생활이나 심리적, 정서적 상태가 건강하다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차명호 외, 2010).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여 성공적으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업 중단이나 자살 등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의 바람직한 삶은 물론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매우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학교 부적응 연구는 학교 부적응, 위기학생, 위험행동, 학교중단, 중도탈락, 잠재적 학업중단 등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행동의 유형을 구분하거나 부적응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로서 주로 학교에서의 낮은 학업성취와 학교 내외에서의 학생의 문제행동과 연결시켜 다룬 경향이 강하다. 또한 학교 부적응 그 자체보다는 부적응의 결과로서의 학업중단, 중도탈락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부적응 학생의 유형을 다룸에 있어서도 이미 정해진 학교 부적응 유형의 틀 속에서 유형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보다 의미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최대한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적응 학생들을 구분하는 틀에 입각해서 학생들을 유형화하거나 이미 부적응 학생으로 분류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 개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어려움의 유형과 강도를 사전에 점검하는 일이다. 그리고 어려움을 심하게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가능하도록 다방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부적응과 이로 인한 문제행동, 정신 건강상의 문제, 학업 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학생 개인과 학생 가정환경의 입장에서, 그리고 결핍 내지는 병리적인 입장에서 다루던 방식에서 나아가 학교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는 없는가의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잠재적 학업중단', 학생들의 학교중퇴 '의도' 등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과거의 학업중단 또는 학교중퇴가 가정의 빈곤이나 비행 학생에 국한되었던데 비해 근래에는 자발적 학업 중단자 증가 등으로 다원화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학교 부적응을 학생 개인과 가정

환경 결핍의 관점에서 조명하던 전통적 접근을 벗어나서 학교의 변화 지체 또는 학교 실패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혜영, 2001; 조아미, 2002; 박창남·도종수, 2003; 정연순·이민경, 2008). 교육부가 1996년에 5개 시도 중·고등학생 2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36.1%의 학생이 한 번 이상 중퇴 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중퇴 충동을 느낀 이유는 "학교가 재미없어서"가 63.6%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업 성적"(43.1%), "가정 불화"(14.2%)의 순으로 나타났다(교육부, 1997). 박창남·도종수(2003)의 연구에서는 수도권 12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고 학생의 23.7%, 실업고 학생의 21.7%, 중학교 학생의 12.8%가 중퇴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중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변인은 '학습 내용의 불만', '학교교칙의 불만', '교사의 낙인'이었다고 보고하였다.

학교 부적응 개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든 학생이 학교라는 환경 또는 제도와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인 것은 확실하다. 종래에는 학교가 가진 형식과 내용의 틀을 고정되거나 당연한 것으로 보고 이것에 맞추지 못하거나 벗어나는 현상을 부적응으로 규정함으로써 부적응 학생을 결핍된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연구에서는 학교 부적응을 "학교체제 안에서 학교의 요구, 기대와 학생 주체가 갈등, 부조화를 빚는 현상"(류방란 외, 2007) 또는 "학교와 학생의 갈등 또는 기존의 학교문화와 새로운 학생문화의 괴리, 아니면 불일치"(곽종문, 2002)로 보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 학생의 학교 부적응 현상을 규명하고자 할 때 학교와 학생을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즉, 학교 적응을 학생이 학교의 요구와 기대에 맞추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요구와 기대에 맞추지 못하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 학교의 기강과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반사회적 행위를 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들을 이해하기보다는 변화부터 시키려고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학교가 학생의 요구와 기대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그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며, 학교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지 등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들은 어디에서 기인하며, 학교 부적응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 "학교가 학생들에게 부적응한 부분은 없는가?",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는 무엇인가?", "학교생활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학교를 그만 두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지원 실태는 어떠한가?" 등을 밝히고 이에 근거

하여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개년 연구로 계획되어 있다. 1차년도인 올해에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2차년도에는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가. 학교 부적응에 대한 개념화

○ 학생의 학교 부적응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 학교 부적응 개념
- 학교 부적응의 원인
- 학교 부적응의 특성과 유형

○ 학교 부적응에 대한 시각과 개념 정립

나. 학생의 학교생활 실태 분석

○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 이유

○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 태도
- 학교에 다니는 이유
- 수업 참여 정도
- 교육내용
- 교육방법과 평가
- 학교규칙
- 교사의 열의와 태도
- 친구, 교사와의 관계
- 학교풍토

○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의 요구, 기대와의 불일치, 갈등 및 그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
○ 학교 중퇴 학생의 중퇴 이유

다. 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 밖 생활 분석

○ 부모와의 관계
- 부모의 관심
- 부모와의 의사소통
- 부모의 학대

○ 부모의 교육 지원
○ 학교 밖 생활
- 정보통신기기 이용 정도
- 아르바이트 경험
- 유해환경 접촉 정도

라. 학교 부적응 실태 분석

○ 학교급(초, 중, 고)에 따른 부적응 양상
○ 지역 특성(초, 중, 고)에 따른 부적응 양상
○ 학생들의 학교생활 심층 분석에 기초한 학교 부적응 유형 분류
○ 학교 부적응 유형별 특성과 원인 진단
- 가정환경
- 학업 수행과 성적
- 학교규칙에 대한 인식과 행동
- 교사 관계
- 교우 관계
- 학교교육의 가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학교 밖 생활
- 정신 건강

라. 학교 부적응의 원인 분석

○ 학생 개인 요인
- 심리 사회적 특성
- 가정환경 요인

○ 학교 요인
- 교육과정
- 교수·학습 방법
- 학교 규칙, 생활지도
- 교사와의 관계
- 교우관계
- 학교풍토

○ 사회 요인
- 사이버 공간 확대
- 소비문화, 상업주의적 대중문화 확산
- 학력주의

○ 개인, 학교, 사회 요인 간 관계 모형 설정

마. 학교의 부적응 학생 지도 실태

○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 부적응 행동과 원인

○ 학교의 부적응 학생 지도 실태
- 부적응 학생 판별 기준, 방법
- 부적응 학생 지도 프로그램, 담당 인력
- 교사의 부적응 학생 지도 방식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 학교 부적응의 개념, 원인, 결과에 관한 선행 연구
○ 학업중단, 학교중퇴 등에 관한 선행 연구
○ 학교 부적응 대책 관련 문헌

나. 사례 연구[1)]

1) 목적

○ 학교 부적응의 특성, 유형 파악
○ 학교 부적응의 원인 심층 진단

2) 연구 대상

○ 학교 선정
- 지역, 학교급, 학교 유형을 안배하여 학교 선정

〈표 Ⅰ-3-1〉 사례 연구 대상 학교 수

학교급·계열	지역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중학교	1	1	
일반고		1	
특성화고	1		1
합계	5		

1) 사례연구는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별도 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며, 일부 내용은 이 연구 보고서에 발췌 수록하였다.

○ 학생 선정

- 학교별로 “부적응” 정도가 심한 학생과 약한 학생 그리고 “우수학생” 각각 3명 정도를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교장, 교감, 생활지도 부장, 상담 교사, 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
- “부적응”한 것으로 교사가 추천한 학생들은 학교 규칙을 자주 어기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며, 대체로 성적이 낮은 경향을 보임

○ 교직원 선정

- 교장, 교감, 생활지도 부장, 담임 교사, 상담 교사, 학년 부장을 주대상으로 하고, 학교 상황에 따라서 일부 교사를 추가함

〈표 Ⅰ-3-2〉 면담 참여자 수

	누리중	고담중	봉화고 (일반고)	이레고 (특성화고)	한라고 (마이스터고)	합계
학생	18	16	12	13	9	68
교직원	12	7	7	5	9	40

* 학교 이름은 가명임.

3) 연구 방법

가) 면담

○ 생활지도 및 부적응에 대한 학교 방침

○ 교사(담임교사, 상담진로 교사, 교과 교사 등)들의 생활지도 방식

○ 학생들의 학습 태도 (학습 및 학교에 대한 의미와 참여 형태)

○ 학생들의 학교 규칙에 대한 태도(갈등 정도 및 표현)

○ 교사와의 관계(갈등 정도 및 표현)

○ 친구관계(갈등 정도 및 표현)

○ 부모와의 관계(갈등 정도 및 표현)

○ 학생들의 하루 일과

○ 부적응 강화 및 완화 요인

나) 관찰

○ 수업, 쉬는 시간, 방과후 수업, 조회, 종례 등
○ 학교의 허락 정도에 따라서 학교별 차이가 있음

다) 기타 자료 수집

○ 학교교육계획서, 학교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통계, 진학 현황 등 학교 현황 자료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폭대위)의 사안 및 처리 결과, 학생생활지원부의 프로그램 등 학생생활지도 관련 자료

4)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들은 귀납적 분석법(analytic induction)에 의해서 처리하였다. 이 방법은 데이터 분석에서 귀납적 연역적 처리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기법으로서 미완성된 초기 정의와 범주들을 연역적으로 구성한 다음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이 관찰될 때 가설들을 수정하거나, 버리거나, 현상을 재정의하는 것이다(Hatch, 2002). 분석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면 우선 연구자는 일차적으로 수집된 면담과 관찰 자료 그리고 자료 수집 과정 중에 작성한 메모를 정독하였다. 그리고 주요 연구 문제별로 관련 데이터를 범주화하고 표제어를 설정하였다. 범주화와 표제어의 설정 과정에서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했다. 요약 노트에 표제어의 주요 개념을 기록하고, 주요 문제별로 유형과 관계를 찾았다. 원자료를 다시 읽고, 분류된 범주와 영역 그리고 해석에 일치하는 사례와 지지되지 않는 사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부적응의 유형, 원인, 그리고 부적응 표출 맥락에 집중하였다. 연구 문제별로 분류된 범주와 관계들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전체 데이터를 관통하는 주제를 찾아나갔다. 마지막으로 보고를 위한 자료 발췌문을 선정하고 표시하였다(Hatch, 2002; Cresswell, 1998/2005; Berg and Lune, 2011). 분석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용한 주요 방법은 자료원과 이론에 대한 삼각검증법과 동료의 검토였다.

다. 질문지 조사

1) 목적

○ 학교 부적응 학생의 규모 조사

○ 학교 부적응 실태와 원인 파악

2) 질문지 내용

○ 연구진이 3종의 질문지 개발

- 초등학교 학생용 1종
- 중등학교 학생용 1종
- 초·중등학교 교사용 1종

○ 예비조사 실시: 초·중학교 각 2개 학급

〈표 Ⅰ-3-3〉 학생용 질문지 영역/내용과 문항 번호

대영역	하위 영역	중등학생용 문항 번호	초등학생용 문항 번호
개인 특성	고민(문제, 어려움)	1	1
	자아존중감	18-1~5	15-1~5
가정배경	부모와의 관계	13	11
	부모의 교육지원	14	12
학교체제	학교에 대한 태도, 인식	3-5	3-5
	수업 참여	2	2
	교육내용	6	6
	수업과 평가	7	7
	학교규칙	8-9	
	학교풍토	10	8
	교사와의 관계	11	9
	친구와의 관계	12	10
사회환경	아르바이트 경험	15	
	정보통신기기 사용	16	13
	유해 환경 노출	17	14
	학벌주의 사회	18-6~10	15-6~10
학교 부적응	무기력	19-1~3	16-1~3
	학업	19-4~8	16-4~8
	교사와의 관계	19-9~11	16-9~11
	친구와의 관계	19-12~15	16-12~15
	학교규칙	19-16~27	16-16~25

〈표 Ⅰ-3-4〉 교사용 질문지 영역/내용과 문항 번호

대영역	하위 영역	문항 번호
학생들의 문제		1
학교 부적응 행동 특성		2-1~26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1~14
학교교칙의 규제 정도		4-1~6
학교와 교사의 부적응 학생 지도 실태	부적응 판단 기준·방법	5~7
	부적응 학생 지도 프로그램	8
	부적응 학생 지도 인력	9
	교사 자신의 부적응 학생 지도 방식	10-1~5
학교 부적응 감소· 예방을 위한 방안		11-1~11

3)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의 학생 및 교사이다. 표본의 수는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각각 200개 학교, 특성화고 150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표집 방법은 각 학교급별로 지역 규모에 따라 층을 나누고 각 층의 학생 수 비율을 적용하여 표본 학교 수를 할당한 다음,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는 유층비율군집표집 방법을 적용하였다. 군집의 선택은 1단계에서 유층별로 학교를 무선 표집 하였고, 표집된 학교의 각 학년별(초등학교는 6학년, 중등학교는 1~3학년)로 마지막 학급 1개(초등학교는 첫 번째 학급과 마지막 학급 각 1개)를 2단계 군집으로 추출하였다. 교사는 표본으로 뽑힌 학교의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급별, 지역 규모별 모집단 수 및 표본 수는 다음의 〈표 Ⅰ-3-5〉와 같다. 조사 기간은 2012년 6월 5일부터 2012년 6월 15일까지이며, 각 학교로 질문지를 우편 발송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표 I-3-5〉 학교급별, 지역 규모별 모집단 수 및 표본 수

구 분		모집단				표본		
		학교수	학생수	학급당 평균학생수	학생수 비율	학교수	학생수	교사수
초등 학교	특별시	591	535,948	26.81	0.18	37	1,971	1,763
	광역시	1,055	769,698	25.96	0.26	53	2,741	2,183
	중소 도시	1,698	1,305,947	28.60	0.45	90	5,125	3,304
	농산어촌	683	304,116	24.93	0.10	21	1,040	334
	합계	4,027	2,915,709		1	200	10,877	7,584
중학교	특별시	377	330,219	32.84	0.17	35	3,405	1,520
	광역시	613	495,041	34.48	0.26	52	5,360	1,901
	중소 도시	927	810,270	35.04	0.42	85	8,917	3,284
	농산어촌	1,272	275,042	26.72	0.14	29	2,308	441
	합계	3,189	1,910,572		1	200	19,990	7,146
일반고	특별시	178	233,738	35.52	0.17	35	3,682	2,453
	광역시	306	351,099	36.00	0.26	52	5,605	3,213
	중소 도시	551	609,588	35.81	0.45	90	9,683	5,578
	농산어촌	382	158,414	30.13	0.12	23	2,117	680
	합계	1,417	1,352,839		1	200	21,087	11,924
특성화고	특별시	73	55,630	27.55	0.13	20	1,669	1,072
	광역시	115	105,722	29.39	0.26	38	3,384	2,369
	중소 도시	175	160,023	30.84	0.39	58	5,374	3,708
	농산어촌	273	91,859	25.24	0.22	33	2,525	853
	합계	636	413,234		1	150	12,952	8,002

질문지 회수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Ⅰ-3-6〉 학교급별 질문지 회수율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학교	199개교(99.5%)	198개교(99.0%)	193개교(96.5%)	147개교(98.0%)
학생용	9,749명(89.6%)	1,8739명(93.7%)	19,143명(90.8%)	12,190명(94.1%)
교사용	6,132명(80.9%)	5,702명(79.8%)	9,401명(75.8%)	6145명(76.8%)

4) 응답자 특성

질문지에 응답한 학생 응답자 및 교사 응답자의 배경 변수별 분포는 각각 〈표 Ⅰ-3-7〉, 〈표 Ⅰ-3-8〉과 같다.

〈표 Ⅰ-3-7〉 학생 응답자의 특성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빈도	유효%	빈도	유효%	빈도	유효%	빈도	유효%
지역 규모	특별시	1,872	19.2	3,379	18.0	3,307	17.3	1,562	12.8
	광역시	2,662	27.3	4,970	26.4	5,271	27.5	3,267	26.8
	중소 도시	4,651	47.7	8,578	45.6	8,885	46.4	5,061	41.5
	읍면	564	5.8	1,866	9.9	1,680	8.8	2,300	18.9
	합계	9,749	100.0	18,793	100.0	19,143	100.0	12,190	100.0
학년	6학년	9,749	100.0	-	-	-	-	-	-
	1학년	-	-	6,436	34.3	6,477	33.9	4,265	35.0
	2학년	-	-	6,202	33.0	6,365	33.3	3,918	32.2
	3학년	-	-	6,128	32.7	6,271	32.8	3,990	32.8
	합계	9,749	100.0	18,766	100.0	19,113	100.0	12,173	100.0
성별	남자	4,989	51.4	9,450	50.6	10,393	54.5	6,213	51.2
	여자	4,710	48.6	9,235	49.4	8,680	45.5	5,931	48.8
	합계	9,699	100.0	18,685	100.0	19,073	100.0	12,144	100.0
학업 성적	하	1,321	14.0	7,023	38.0	7,269	38.4	4,578	37.8
	중	4,261	45.1	5,001	27.1	6,169	32.6	3,426	28.3
	상	3,869	40.9	6,444	34.9	5,493	29.0	4,103	33.9
	합계	9,451	100.0	18,468	100.0	18,931	100.0	12,107	100.0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빈도	유효%	빈도	유효%	빈도	유효%	빈도	유효%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584	20.3	3,116	19.8	2,796	16.3	3,894	36.0
	201~400 만원 이하	2,991	38.3	6,475	41.1	7,521	43.7	4,726	43.7
	401~600 만원 이하	2,007	25.7	3,763	23.9	4,357	25.3	1,583	14.6
	601만원 이상	1,234	15.8	2,416	15.3	2,522	14.7	620	5.7
	합계	7,816	100.0	15,770	100.0	17,196	100.0	10,823	100.0

〈표 Ⅰ-3-8〉 교사 응답자의 특성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빈도	유효%	빈도	유효%	빈도	유효%	빈도	유효%
지역 규모	특별시	1,391	22.7	1,197	21.0	1,769	19.6	850	13.8
	광역시	1,811	29.5	1,575	27.6	2,482	27.5	1,797	29.2
	중소 도시	2,677	43.7	2,558	44.9	4,307	47.6	2,767	45.0
	읍면	253	4.1	372	6.5	483	5.3	731	11.9
	합계	6,132	100.0	5,702	100.0	9,041	100.0	6,145	100.0
학교 성별 유형	남학교	18	.3	1,124	19.7	3,021	33.4	779	12.7
	여학교	35	.6	913	16.0	2,077	23.0	1,334	21.7
	남녀공학	6,067	99.1	3,661	64.3	3,936	43.6	4,031	65.6
	합계	6,120	100.0	5,698	100.0	9,034	100.0	6,144	100.0
학교 설립 유형	국공립	5,989	97.8	4,509	79.1	4,897	54.2	3,110	50.7
	사립	134	2.2	1,191	20.9	4,134	45.8	3,029	49.3
	합계	6,123	100.0	5,700	100.0	9,031	100.0	6,139	100.0
성별	남자	1,145	18.7	1,758	30.9	4,733	52.5	3,375	55.0
	여자	4,970	81.3	3,934	69.1	4,290	47.5	2,765	45.0
	합계	6,115	100.0	5,692	100.0	9,023	100.0	6,140	100.0
교직 경력	5년미만	1,212	19.8	1,201	21.1	1,739	19.3	1,200	19.5
	5년~15년 미만	2,224	36.3	1,637	28.7	2,802	31.1	1,527	24.9
	15년~25년 미만	1,348	22.0	1,613	28.3	2,493	27.6	1,909	31.1
	25년이상	1,336	21.8	1,245	21.9	1,988	22.0	1,504	24.5
	합계	6,120	100.0	5,696	100.0	9,022	100.0	6,140	100.0

5) 자료 분석 방법

학생의 학교 부적응 실태 분석을 위해서 학교급별로 각 문항에 대해 기초 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학교급과 주요 배경 변수별로 하위집단 간 평균 차이 및 비율 차이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위계적 구조, 즉 개별 학생이 해당 학교 변수의 영향을 받는 구조를 반영한 분석 모형인 2수준 다층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전문가 협의회

- ○ 연구 계획 상세화
- ○ 연구 설계의 적합성 검토
- ○ 질문지 내용 검토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 부적응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2.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학교 부적응의 특성·지표
4. 학교 부적응의 유형
5. 연구 모형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 부적응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1)]

가. 분석 대상 자료

학교 부적응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학술지 논문은 국회 전자도서관, 학술연구 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에서 검색하였다. 국회도서관은 개별 대학 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ISS는 교육과학기술부 출연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국내 학술지 논문 283만 권을 제공(2011년 12월 기준)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학술지 논문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과 RISS에서 놓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기 위해 KISS를 추가적으로 검색하였다. KISS는 한국학술정보에서 운영하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650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90년대 이전 자료는 확인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고, 1990년대 이후의 자료는 등재 학술지와 등재 학술지 후보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논문 검색은 '학교 적응'을 주제어로 설정해 검색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학교 부적응'을 주제어로 설정해 검색하였다. 세 곳의 웹사이트 자료를 모아 중복되는 논문이나 특수사례 논문은 제외하였다.

1970년대부터 2011년까지 수행된 학교 부적응 연구 논문의 주제를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2000년대의 세 시기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1990년대 이후 연구 논문은 학술지에 수록된 연구

1) 이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학교 부적응 연구 동향 내용 중 일부는 제 3차 KEDI-KAERA 교육정책 국제심포지엄(2012. 6. 22)에서 "학생의 학교 부적응 연구 동향과 과제" 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다.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학술지 발행이 활성화되지 않아 관련 연구가 주로 대학과 시도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논문집에 수록되었기 때문에 이들 논문을 수집 분석하였다.

나. 연구 동향

여기에서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학교 부적응 연구의 전반적인 특징과 1970년대와 80년대 연구의 특징에 초점을 두어 기술한다. 1990년대 이후 연구의 특징은 이어지는 2, 3, 4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970년대부터 2011년까지 이루어진 학교 부적응 관련 연구 논문 수는 총 157편이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루어진 연구 수는 2000년대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전체의 약 83%에 해당하는 연구가 2000년대에 이루어졌다. 2000년대 들어서도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매년 10편 이하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07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1년에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해 1993년부터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에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청소년 육성,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학교 부적응 연구 증가의 토대가 된 것으로 짐작된다.

〈표 II-1-1〉 학교 부적응 연구 논문 수의 연도별 변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합계
			2000~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소계	
9	13	5	37	18	10	14	23	28	130	157

1970년대와 80년대 학교 부적응에 관한 논문은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로 대학과 시도 단위 연구원의 논문집에 소개되었다. 이는 당시에 학회지 발행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부적응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보다는 학교 부적응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실천적인 목적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던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송영식(1974), 김현순(1976), 나상우(1985), 김재홍(1987)의 연구는 초등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사례 연구로서 부적응 행동을 수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상규(1985), 김재홍(1987), 유세

정(1988)의 연구는 학급 중심 프로그램, 상담 등 학교 부적응 개선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 부적응의 원인 혹은 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는 박준희 외(1972), 윤기수·문선모(1977), 강문희(1981), 문선모·윤기수(1984), 장호성·문선모(1987), 손희준(1988) 등이 있다.

〈표 II-1-2〉를 보면 이 연구들은 대체로 학교 부적응의 지표를 학교생활의 여러 영역에서의 '문제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적응을 판별하기 위해 4편의 연구는 척도화된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 3편의 연구는 교사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학교 부적응 관련 요인으로는 박준희 외(1972)의 연구에서 환경, 사회적 요인이 고려되고 있으나 대체로 학생 개인의 특성과 가정 배경 요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학교 부적응과 관련 요인 간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도 비교적 단순해서 빈도, 비율 분포를 산출하거나(1편)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을 나누고 연구자가 관심을 두는 여러 특성에서 양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방법(6편)을 적용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이상의 연구 이외에 범죄 수준의 비행(심영희, 1987; 심영희, 1988), 약물 남용(권순경, 1989)과 학교 부적응의 관련을 다룬 연구도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학교 부적응이 비행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실증 분석 없이 학교 부적응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연구도 여러 편 있다.

〈표 II-1-2〉 1970·80년대 학교 부적응 연구의 경향

연구자	연구 제목	부적응 지표	부적응 척도	분석 방법
박준희 외 (1972)	중·고교생의 부적응 행동 및 그 원인 조사	무단 결석, 불건전한 오락(흡연, 극장 출입, 음주, 유흥장 출입), 가출, 도벽, 폭행, 금품 낭비, 성(性)적 비행	교사의 판단	빈도, 비율 분포 부적응 행동과 원인 모두 교사 질문지를 통해 조사
이기돈 외 (1976)	중고등학교 학생 적응의 성격과 연인(聯因)에 관한 연구	교사의 판단	교사의 판단에 의한 적응과 부적응 집단 선별	적응과 부적응 집단간 가치관, 도덕성, 교사의 역할, 학교에 대한 태도, 학교 선택, 직업 선택, 종교적 경험의 차이 분석
윤기수·문선모 (1977)	학생의 배경 특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학교 적응 5개 영역: 교사 관계, 교우관계, 인지 기술, 수업 참여, 자기 통제	Flynn의 초등학교 적응 척도를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	성별, 가정 배경, 지능, 행동 발달 상황,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등 배경 변인에 따른 적응 수준 차이 분석

연구자	연구 제목	부적응 지표	부적응 척도	분석 방법
강문희 (1981)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도와 가정환경 요인에 관한 상관적 일 연구	학업성적, 행동, 태도 등의 문제	교사의 판단에 의한 적응아와 부적응아 집단 선별	적응, 부적응 집단 간 부모의 연령, 결혼 상황, 교육 정도, 종교, 직업의 차이 분석
문선모·윤기수 (1984)	중학생의 배경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	학교 적응 5개 영역: 교사 관계, 교우관계, 인지 기술, 수업 참여, 자기 통제	Flynn의 초등학교 적응 척도를 수정하여 적용	성별, 가정 배경, 지능, 행동 발달 상황,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등 배경 변인에 따른 적응 수준 차이 분석
장호성·문선모 (1987)	자아개념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학교 적응 5개 영역: 교사 관계, 교우관계, 인지 기술, 수업 참여, 자기 통제	Flynn의 초등학교 적응 척도를 수정하여 적용	자아개념 상위와 하위 집단 간 학교 적응 차이 분석
손희준 (1988)	고등학생의 우울 성향과 학교적응과의 상관 연구	학교 적응 영역: 교우관계, 교사에 대한 태도, 학업 성적	김호권, 표준적응검사 문항에서 추출 작성한 질문지	T 검정, F 검정

1990년대에는 논문 편수가 많지는 않지만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2011년까지 학회지에 게재된 학교 부적응 연구 135편을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표 II-1-3〉과 같다.

〈표 II-1-3〉 1990년대 이후 학교 부적응 연구의 주제별 분류

대분류	소분류	논문 편수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72)	개인	14
	가정	17
	학교	9
	사회환경	5
	여러 요인	27

대분류	소분류	논문 편수
학교 부적응 극복 방안(43)	치료 중심	19
	상담 중심	8
	프로그램	10
	학교사회사업	5
	학교제도 개선	1
학교 부적응 학생의 특성과 생활 실태		13
학교 부적응 척도 개발		5
학교 부적응 연구 경향		2
합계		135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이후 학교 부적응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5가지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그 중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은 개인, 가정, 학교, 사회 환경의 4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단일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보다는 두 개 이상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더 많다. 단일 요인으로는 가정 요인이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그 다음은 개인 요인이 많이 다루어졌다. 학교와 사회 환경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요인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2절에서 제시할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는 학교 부적응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들은 치료, 상담, 프로그램, 학교 사회 사업, 학교 제도 개선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치료를 다루고 있는 연구가 가장 많다. 치료 방법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은 '집단 미술 치료'이다. 총 19편의 논문 중 11편이 집단 미술 치료의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밖에 음악, 무용, 놀이, 드라마 치료법이 소개되고 있다. 치료 다음으로는 진로 설계, 자기 성장,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거나 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상담, 학교 사회 사업을 소개하거나 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학교 제도 개선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1편에 불과하다.

학교 부적응 학생의 특성과 생활 실태 분석 연구 13편 중 7편은 부적응 학생의 성격, 인지·언어적 특성, 도덕적 판단, 학습 능력 등을 다루고 있다. 3편은 부적응 학생의 특성에 대한 교사의 인

식을 조사한 연구이다. 부적응 학생들의 생활 실태 분석 연구 3편은 모두 질적 연구로서 부적응 학생의 학교와 학교 밖 생활, 사회적 맥락에서 부적응이 강화되어 가는 과정 등을 밝히고 있다.

학교 부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및 척도 개발 연구는 5편으로, 학교 적응 구성 개념을 규명하고 학교급별 학생용 척도와 교사용 척도를 개발한 연구가 4편, 기존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연구가 1편이다.

2.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생의 학교 부적응은 한 두 가지 요인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을 개인, 가정, 학교, 사회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개인 요인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개인 요인으로는 학생의 성별, 연령(학교급), 학업 성적, 심리적인 특성 등을 들 수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 요인의 항목을 정리하면 〈표 II-2-1〉 과 같다.[2)]

2) 학교 부적응 관련 요인에 관해서는 1절에서 살펴본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이외에 세 개의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은 국내 논문, 학위논문, 교육과 청소년 분야 전문 연구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와 외국의 주요 연구를 함께 분석하였다.

〈표 Ⅱ-2-1〉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

연구자	성	학교급	학업성적	학습태도 동기 기대	자아 존중감 효능감 자신감	공격성	불안	우울감	내적 통제	자아 개념	자아 탄력성	사회성	외모 의식 관리	진로 결정 수준
한인영 외(1996)					★		★	★						
심희옥(1998)					★									
이훈진(1999)					★									
김애경2001)					★									
김희화(2001)					★									
양국선 외(2001)					★	★		★						
김혜영(2002)								★						
조아미(2002)			★											
최은영 외(2002)					★									
황유경(2003)						★	★							
오세현(2003)						★								
오윤자(2003)			★											
김선아 외(2004)					★			★						
류경희(2004)	★	★												
신찬환 외(2005)								★						
윤은종 외(2005)								★						
이윤주(2004)											★			
이경화 외(2005)					★				★					
곽수란(2006)			★											
김혜성 외(2006)		★	★											
양난미 외(2007)	★													
장연심 외(2007)					★									
류방란 외(2008)	★		★											
손미영 외(2009)	★	★							★					
오승환(2009)				★	★		★	★						
이명숙 외(2009)			★							★				
최옥희 외(2009)	★						★	★						
강승희(2010)								★						
김응수 외(2010)								★						
박은민(2010)					★									
윤수익 외(2010)													★	★
이태상(2010)				★										
장성화 외(2010)				★	★							★		
한혜령 외(2010)													★	
김은영(2011)				★	★									
이재선 외(2011)					★									★
Rock(1980)							★	★						
Asarnow et al.(1987)								★						
Rice(1992)	★													
Allen et al.(1994)									★					
Kurdek et al.(1988)	★													
Pope & Bieman(1999)						★								
Zafiriadis et al.(2005)			★	★										

주) 공동연구인 경우 지면 관계상 대표 연구자만 제시함.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으로 가장 부각된 것은 학생의 심리적 특성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주로 언급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이경화·손원경, 2005; 한인영 외, 1996; 양국선·장성숙, 2001; 김선아·김경희, 2004), 우울감(한인영 외, 1996; 양국선·장성숙, 2001; 김선아·김경희, 2004), 불안(한인영 외, 1996; 황유경, 2003), 공격성(양국선·장성숙, 2001; 황유경, 2003; 오세현, 2003) 등이다.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증이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학교 부적응을 초래한다면, 공격 성향은 문제행동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강하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평가적인 신념으로서 자기를 유능하고 중요하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이미리, 2005: 264).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청소년은 건강한 심리사회적인 발달을 보인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긍정적이고 쾌활한 정서 상태로 원만한 대인관계,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 도덕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의 특성을 보인다(김애경, 2001; 김희화·김경연, 2000).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우울증, 학교 부적응, 집단 괴롭힘, 비행, 폭력, 약물 남용 등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최은영·최인령, 2002).

공격성이란 좌절을 경험하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공격 또는 신체적인 구타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문제행동과 관련된다(이익섭·최정아, 2008: 49). 공격성이 높은 학생은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으며, 무단결석이나 다른 문제행동을 표출할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Pope & Bieman, 1999).

또한 집에서 커다란 빌딩의 학교에 오는 두려움, 지능이 평균 이상인 아이들의 경우 낮은 성적에 대한 불안(Rock, 1980)을 비롯한 불안감(한인영 외, 1996; 황유경, 2002), 가족의 죽음이나 질병이 있을 경우, 특히 엄마의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 비교적 우울감이 높게 나타나며(Rock, 1980), 이러한 우울감은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한인영 외, 1996; 양국선·장성숙, 2001; 김선아·김경희, 2004).

내적 통제 소재도 고려되고 있다(이경화·손원경, 2005; 양국선·장성숙, 2001). 내적 통제 소재란 자신과 타인의 행동 및 사건의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나 노력에 있다고 지각하며, 자신이 직면한 문제 상황이나 욕구 좌절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적응적인 가치관, 태도, 행동, 반응 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이경화·손원경, 2005). 따라서 내적 통제 소재 성향의 학생이 학교에서도 보다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손미영·김영희, 2009). 그밖에 자아개념, 사회성, 외모의식 관리, 진로결정 수준 등도 고려되고 있다.

나. 가정 요인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요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 형태, 가정의 사회심리적 특성 등이다.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학력, 직업,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양국선·장성숙, 2001; 정유진, 1999; Bryk & Thum, 1989; Rumberger, 1983).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 가정의 부모는 자녀의 교육 비용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행위로 이어짐으로써 자녀의 발달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양국선·장성숙, 2001).

〈표 Ⅱ-2-2〉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요인

연구자	부모 학력	경제 수준	가족 구조	양육 태도	의사 소통	부모의 관심 지지	부모의 지원	자율성 부여	가족의 화목 갈등	부모의 학대 폭력	가정 스트레스
윤진 외(1989)					★						
김현숙(1999)					★						
서명성(1999)					★						
송영혜 외(1999)			★								
양국선 외(2001)		★									
김혜영(2002)				★							
조미숙(2002)										★	
조아미(2002)						★					
류경희(2004)			★								
이윤주(2004)									★		
강유진 외(2005)						★					
성윤숙(2005)				★							
최희옥 외(2005)			★								
허재경 외(2005)					★						
김혜성 외(2006)		★				★				★	
이봉주 외(2006)			★								
류방란 외(2007)						★					
양난미 외(2007)									★		

연구자	부모 학력	경제 수준	가족 구조	양육 태도	의사 소통	부모의 관심 지지	부모의 지원	자율성 부여	가족의 화목 갈등	부모의 학대 폭력	가정 스트레스
정소희(2007)				★							
김지근 외(2008)				★							
류방란 외(2008)	★	★	★		★		★			★	
배정이(2008)				★							
정연순 외(2008)				★		★					
오승환(2009)				★	★					★	
손미영 외(2009)		★							★		
최옥희 외(2009)	★										
강승희(2010)									★		
김지혜 외(2010)		★									
김현주(2010)		★	★			★					
박은민(2010)									★		
이동훈 외(2010)						★					
조윤숙 외(2010)										★	★
김은영(2011)				★							
양국선 외(2001)		★									
이재선 외(2011)	★	★				★		★	★		
장경문(2011)								★			
정효순(2011)			★								
Hattwick et al.(1936)				★							
Alpert et al.(1986)					★	★					
Ekstrom et al.(1986)			★								
Forehand et al.(1986)	★										
Kurdek et al.(1988)				★							
Amato(1988)				★							
Berndt et al.(1989)				★	★						
Bryk et al.(1989)		★									
Dubow et al.(1989)				★							
Grych et al.(1990)						★					
Astone et al.(1991)					★	★					
Judy(1992)	★			★							
Kurdek et al.(1995)	★										
Bronstein et al.(1996)				★							
Ladd, et al.(1997)				★							
Goldberg(1999)					★	★					
Laible et al.(2000)				★							

주) 공동연구인 경우 지면 관계상 대표 연구자만 제시함.

가족 형태면에서는 양부모 가정보다 한부모 가정의 학생이 발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방임될 가능성이 높으며(이봉주 외, 2006), 가정에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됨으로써 학교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Ekstrom, Goertz, Pollack & Rock, 1986; Rumberger, 1983; 송영혜·박진희, 1999; 최희옥 외, 2005).

가정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기능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심리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결국은 사회 심리적 요인을 통해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모와의 관계 등 가정의 사회 심리적 요인과 학교 부적응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상호작용 즉, 부모와의 의사소통 빈도가 높고 대화 시간이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숙, 1999; 서명성, 1999; 류방란 외, 2008; Alpert & Dunham, 1986; Astone & McLanahan, 1991; Goldberg, 1999).

둘째,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가 학교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아진다(조아미, 2002; 강유진·문재우, 2005; 류방란 외, 2008; Alpert & Dunham, 1986; Astone & McLanahan, 1991; Goldberg, 1999).

셋째, 부모의 양육 태도와 행동(김혜영, 2002; 성윤숙, 2005; 정소희, 2007; Berndt and Ladd, 1989; Dubow and Tisak, 1989; Ladd, Kochendwefer & Coleman, 1997; Laible, Carlo & Raffaelli, 2000) 변인 또한 학교 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지원적이고 의식적(supportive and aware)인 부모의 행동(애정, 찬성, 세심함, 반응적인, 안내자로서의, 그리고 감정호응적인)은 아이들의 학교 적응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Bronstein et al., 1996), 부모의 거부적인 행동,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공포의 경험(Houten, 1948; Hattwick and Sowell, 1936), 그리고 부모와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보살핌을 받을 기회가 없는(예: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경우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낸다(Skeels et al., 1936).

다. 학교 요인

학교 부적응은 학생과 학교 사이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학교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선행 연구에서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학교 요인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2-3〉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

연구자	교사 관계	또래 관계	교사 자질 열의	학교 풍토	교육 과정	학생 구성	학교 적응 지원	진로 지도	학교 만족도
이숙영·남상인(1997)				★					
조혜정(1995)				★					
유성경·이소래(1998)						★			
김용래·김태은(2001)	★								
김희화(2001)		★							
양국선·장성숙(2001)	★	★		★					
김경일·천성문(2002)					★		★	★	★
문은식·김충희(2002)	★								
김혜영(2002)	★	★							
조아미(2002)	★	★							
남영옥·김재한(2003)	★								
최지은·신용주(2003)	★								
박창남·도종수(2003)	★				★		★	★	★
정규석(2004)	★								
성윤숙(2005)	★	★							
이경아 외(2005)		★							
류방란 외(2007)	★			★					
박영숙 외(2007)	★								
류방란 외(2008)	★		★	★					
이익섭·최정아(2008)		★							
오승환(2009)	★								
김응수·김석진(2010)	★			★					
김현주(2010)	★	★							
박은민(2010)	★	★							
박창남(2010)	★								
이동훈 외(2010)		★							
김은영(2011)	★								★
김혜원·정일현(2011)		★							

연구자	교사 관계	또래 관계	교사 자질 열의	학교 풍토	교육 과정	학생 구성	학교 적응 지원	진로 지도	학교 만족도
박정주(2011)	★								
이재선·나승일(2011)			★		★		★	★	★
Rutter et al.(1979)			★						
Colman and Hoffer(1987)						★			
Grant(1988)			★						
Dubow & Tisak(1989)		★							
Rumberger(1995)						★			
Kupersmidt et al.(1996)		★							
Ladd et al.(1997)		★							
Brich & Ladd(1997)	★								
Laible, Carlo & Raffaelli(2000)		★							
Kiuru et al.(2009)		★							
Reich & Flanagan(2010)						★			
Troop-Gordon et al.(2010)		★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은 교사-학생 관계와 또래 관계이다. 교사-학생 관계를 보면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지지적이며 만족스러울수록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류방란 외, 2007; 정규석, 2004; 문은식·김충희, 2002; 최지은·신용주, 2003).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있어서 또래 관계는 학교 적응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또래관계가 원활하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없으나 또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학교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Kiuru et al., 2009; Troop-Gordon, Visconti and Kuntz, 2010; Laible, Carlo and Raffaelli, 2000; 성윤숙, 2005). 학교 부적응과 관련된 또래 관계는 다섯 유형으로 분류된다. 왕따를 당하는 것, 가장 친한 친구가 없는 것, 우정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이 부족한 것, 그리고 반사회적인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 등이다(Kupersmidt et al., 1996: 68-72).

그밖에 교사 자질, 학교풍토, 교육과정, 학생 구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교사 자질은 학교와 학생에 대한 교사의 헌신 정도를 말한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교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류방란 외, 2008; 이재선·나승일, 2011; Rutter et al., 1979; Grant, 1988).

둘째, 학교풍토는 학업 지향적 풍토, 훈육적 풍토로 대별된다. 학업 지향적 풍토란 학교가 부여하는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 정도, 숙제의 양, 좋은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 정도, 주지 교과에 대한 강조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 위주 교육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한 높은 학업성적에 대한 압박은 학생들의 부적응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훈육적 풍토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훈육의 공정성과 효과 정도, 학교 소속감 정도, 학생들의 훈육상 문제 정도, 학교 환경의 안전 정도를 말한다. 류방란 외(2007)의 연구에 따르면 규범을 강조할수록 학생들의 부적응 수준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숙영·남상인(1997)의 연구에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교칙이나 학생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공정하지 못한 교칙들은 학생들의 중퇴 결심을 부추기는 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넷째,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심화과정 수, 학과목의 분화 정도, 주지 교과 시수 비율 정도 등이다. 학업지향적인 학생들은 학업지향적인 교육과정 구성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으나, 학교에서의 친구관계, 놀이, 취미 개발 활동 등에 관심이 높은 학생은 학교생활이 지겹거나 힘든 과정이 될 수 있다. 김경일·천성문(2002)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과정이 획일화되어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학교 부적응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다섯째, 학생 구성이다. 학생 구성이란 소수민족 학생의 비율,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정도, 위기 학생의 비율,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 학급 크기(Rumberger, 1995; Reich & Flanagan, 2010) 등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 중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성경·이소래, 1998; Rumberger, 1995). 또한 공립/사립 등 학교 설립유형 또한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는데, 가톨릭계 사립학교에서 중도탈락 학생 수의 비율이 낮았다(Coleman & Hoffer, 1987). 그밖에 학교가 위치하는 지역, 남녀공학 여부, 평준화 여부 등도 학교 부적응과 관련된 변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박창남, 2010).

라. 사회 요인

학교 부적응이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개인이 속하는 환경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루어진 것은 인터넷·

게임 중독, 아르바이트 경험, 지역사회 유해 환경 등이다.

〈표 Ⅱ-2-4〉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요인

연구자	인터넷·게임 중독	아르바이트 경험	지역사회 유해환경
이호진·이명선(2001)			★
김기헌(2003)		★	
문성호(2003)		★	
이형하(2003)	★		
박남희 외(2004)	★		
성윤숙(2005)			★
유성렬(2005)		★	
이경상 외(2005)		★	
김기헌(2006)		★	
이희정(2006)	★		
정하성(2006)			★
김예성(2007)		★	
류방란 외(2007)		★	
박창남·도종수(2007)		★	
양난미·이지연(2007)	★		
오영희(2007)	★		
류방란 외(2008)		★	
장윤재·김소희(2008)	★		
정연순·이민경(2008)	★		
김순규(2009)	★		
아영아·정원철(2011)	★		
Greenberger & Sternberg(1986)		★	
Mortimer et al.(1996)		★	
Young(1998)	★		

청소년은 인터넷의 주요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이버 문화는 청소년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사이버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은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사회적 기술 획득과 자아정체감 탐색이 가능하고, 자기 정체성의 표현, 탐험, 실험 욕구 충족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이다(최병목, 2002). 반면에 사이버 문화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때문에 책임 회피 행동이 강화된다거나, 반사회적, 비도덕적인 행동이 강화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정보와 집단에 노출되거나 지나친 인터넷 사용으로 인터넷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크다. 오영희(2007)의 연구에서는 사이버 문화 몰입은 학습 태도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적대적이고 도전적인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강함을 밝히고 있다.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수업태도가 좋지 않거나 교우와 교사와의 관계가 조화롭지 않는 등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낸다(아영아·정원철, 2011; 이희정, 2006; Young, 1998).

오늘날의 경제구조는 과거의 대량생산과 제조업 중심에서 다품종 소량생산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1997년의 IMF 구제금융 사태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시간제 노동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시간제 노동의 대부분이 청소년, 여성, 노인과 같은 유휴 노동력에 의해 채워지고 있다.

청소년의 시간제 노동 즉, 아르바이트는 전단지 돌리기, 스티커 부착, 패스트푸드점 근무(서빙, 카운터, 배달 등), 편의점 근무, 상점에서의 판매 혹은 판매보조, 신문 혹은 우유 배달, 주유소 근무,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건설 현장이나 이삿짐센터 등에서의 막노동, 유흥업소 서빙이나 접대, 호객 담당 등이다(전경숙·노재봉, 2003: 16).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낮은 학업성취와 낮은 교육적 열망을 초래하고(Mortimer, Finch, Ryu, Shanahan & Call, 1996), 비행의 증가 등과 같은 학교 부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창남·도종수, 2007; 류방란 외, 2007; 김예성, 2007; 이경상 외, 2005; Greenberger & Steinberg, 1986; 김기헌, 2003; 문성호, 2003; 유성렬, 2005; 김기헌, 2006).

학교 주변의 사회 환경 중 유해 환경의 노출 정도도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이호진·이명선, 2001; 정하성, 2006).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된 이용 및 고용 금

지 업소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유해 시설과 흡연, 음주를 포함하는 유해 약물, 그리고 유해 매체를 통칭하는 개념이다(류중석, 2007).

이상에서 살펴본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요약하면,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은 성, 연령(학교급), 학업성취도, 학습태도·동기·기대,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공격성, 불안, 우울감 등이다. 이러한 요인 중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 부적응과의 관계가 비교적 많이 연구되었다. 가정 요인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학력, 경제 수준, 부모와의 상호작용, 부모의 관심과 지지 등이 다루어졌으며, 이 중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꾸준히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 요인에서는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 또래 관계, 교사자질, 학교풍토 등이 다루어졌으며, 이 중에서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관계가 비교적 많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요인에서 주로 고려된 변인은 인터넷 중독, 아르바이트 경험, 지역사회 유해환경 등이었다. 학교 부적응 관련 요인 중 개인과 가정 요인에 비해 학교와 사회환경 요인은 그다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 정리하면 〈표 II-2-5〉와 같다.

〈표 II-2-5〉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 요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	사회 요인
▪ 성별 ▪ 연령(학교급) ▪ 학업성적 ▪ 학업태도, 동기, 기대 ▪ 심리적 요인: 자아존중감, 불안 공격성, 우울감	▪ 부모의 학력 ▪ 가정의 경제 수준 ▪ 가족구조 ▪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와의 상호작용 ▪ 부모의 관심과 지지	▪ 교사와의 관계 ▪ 또래 관계 ▪ 교사 자질 ▪ 학업 풍토 ▪ 훈육 풍토 ▪ 교육과정 ▪ 학생 구성	▪ 아르바이트 경험 ▪ 인터넷 중독 ▪ 지역사회 유해환경

3. 학교 부적응의 특성·지표

학교 부적응의 개념이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듯이 학교 부적응의 지표(marker) 또한 다양하게 개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외국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는 경

향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어 K-CBCL(오경자 외, 1997)과 T-CRS(정현희 외, 2002), BASC-2(안명희, 2007) 등이 사용되었다.

CBCL(Child Behavior Checklist)은 미국의 Achenbach가 1991년에 개발한 척도로 부모 평정, 청소년의 자기 보고, 교사 평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평정의 경우 불안 행동(14), 과잉 행동(13), 미성숙 행동(9), 비행 행동(9), 공격 행동(9), 위축 행동(12), 사고 문제(9), 신체 증상(9), 기타(8) 등 영역의 10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T-CRS(Teacher-Child Rating Scale)는 Hightower가 1986년에 개발한 교사용 아동 평정 척도로 문제 행동 영역 18개 문항, 유능감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행동 영역은 외현화 문제(6), 수줍음-불안(6), 학업과 관련된 문제(6)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능감은 좌절 인내(4), 자기 주장적 사회적 기술(5), 과제 지향(6), 또래 관계 기술(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BASC-2(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2)는 미국의 개정판 아동 행동 진단 척도이다. 만 6세에서 11세 대상 교사 보고형 척도의 경우 외현화 문제 행동(과잉행동, 공격성, 품행문제), 내면화 문제 행동(불안, 우울, 신체화), 학교 문제(주의 집중 문제, 학습 문제), 행동 증상 지표(과잉행동, 공격성, 우울, 주의 집중 문제, 비정형성, 사회적 철회), 적응 기술(사회적 기술, 리더십, 학습 기술, 기능적 언어소통) 영역의 13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의 척도로는 유윤희(1994), 김기하(1997), 박현선(1998), 배숙진(1998), 김용래(2000)등이 제작한 척도가 각기 4편 이상의 논문에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유윤희(1994) 척도는 교사 관계, 교우 관계, 학교 수업, 학교 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김기하(1997)의 척도는 교사 관계, 교우 관계, 학습 활동, 규칙 준수, 이성 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현선(1998)의 척도는 학교 공부에 대한 인식, 시험 부정 행위, 지각과 무단 결석, 수업 무단 이탈, 다른 학생과 싸움, 학교시설물 손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숙진(1998)의 척도는 교사 관계, 교우 관계, 학교 수업, 학교규칙 등으로, 김용래(2000)의 척도는 학교 환경, 교사, 수업, 친구, 학교생활 적응 등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척도 5개(박원모 외, 2009; 이규미·김명식, 2008; 부경희, 2009; 김지혜, 2008; 이규미, 2004), 54편의 연구 논문에서 활용한 척도 34개(번안 척도 2개 포함), 그밖에 보고서나 학술지 논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척도 7개(권복순 외, 1997; 김택호·김재환, 2004; 류방란 외, 2007; 김일태·허남진, 2004; 안명희, 2007; 정수정·오익수, 2010; 신현숙 외, 2006) 등 총

46개 척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 부적응 지표를 분석하였다(〈표 Ⅱ-2-6〉).[3)]

학교 부적응 척도는 ① 관계 ② 규범 ③ 수업·학습·학업 ④ 학교 ⑤ 정서 등 5개 영역으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각 영역에서 사용한 지표는 대략 48개 정도로 묶을 수 있었다. 교사와 교우관계가 학교 부적응의 지표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 학교 규칙과 수업·학습·활동이 많이 사용되었다. 정서 영역에서는 공격성, 우울, 불안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이들 이외에 다양한 지표가 사용되어 다른 영역보다 훨씬 많은 지표가 사용되었다. 대체로 중등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학교규칙이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데 비해 초등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좀 더 많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Ⅱ-2-6〉 46개 학교 부적응 척도에서 사용한 지표

영역	지표	빈도	영역	지표	빈도
관계 (8)	교사	30	정서 (9)	정서 일반	3
	교우, 친구, 또래, 급우 등	34		자아존중감	1
	폭력	1		우울	5
	부모-자녀	2		불안	5
	비사회적인 행동	1		신체 증상	3
	사회부적응 행동	1		공격성	12
	사회적 능력: 사회성	1		과잉 행동	2
	사회적 위축	1		위축 행동	2
규범 (7)	학교규칙·교칙·규범·규율·질서	20		기타: 좌절, 후회, 감정표현, 공포, 스트레스, 열등감, 자존감, 이상 행동, 자기도취, 자기 비하, 자기중심적, 자신감, 자포자기, 무관심	15
	수업 무단 이탈	1			
	학교시설물 손상	1			
	시험 부정 행위	1			
	지각과 무단결석	1			
	문제행동	6			
	비행	4			

3) 학교 부적응 지표와 척도 분석은 1990년대 이후의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이루어진 학교 부적응에 관한 연구 논문 수가 매우 적고 이 시기의 연구가 학교 부적응의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보다는 학교 부적응 개선 방안 도출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영역	지표	빈도	영역	지표	빈도
수업 학습 학업 (15)	수업 전반	15	학교 (4)	학교생활 전반	8
	수업 태도	1		학교행사 관계, 참여	5
	수업 참여	1		학교환경	4
	수업 이해	2		학교에 대한 태도·가치·인식, 만족도	8
	수업 집중	1			
	수업 시간 만족	1			
	수업에 대한 흥미	1	기타 (5)	이성 관계	1
	학습 노력	1		리더십	1
	학습 동기	1		과제지향성	1
	학습 적응	2		상담교사 유무	1
	학습 태도	5		유능감	3
	학습 활동	3			
	학교 공부	6			
	학업 전반	6			
	학습(업) 능력	5			
합계	48(236)				

이러한 학교 부적응 지표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학교에서의 학업, 규범,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과 부적응의 원인이 되거나 부적응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행동 및 정서상 특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 학업 측면에서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중 대표적인 것은 낮은 학업성취이다. 또한 학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낮은 동기, 불만(Crockett et al., 1989; Eccles et al., 1983; Simmons & Blyth, 1987; 권복순 외, 1997; 이규미, 2004; 신현숙 외, 2006)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수업 참여가 어렵고 수업에 참여하더라도 집중하지 못하며 다른 친구의 수업을 방해하기도 한다(정현희 외, 2002; 정수정·오익수, 2010).

둘째, 인간관계는 교사 및 또래와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부적응 학생들은 이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Coleman, 1961; 권복순 외, 1997; 정현희,

2002; 이규미·김명식, 2008; 이동훈 외, 2010). 또한 친구로부터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류방란 외, 2007; 정수정·오익수, 2010).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교사를 피하고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는 특성을 나타낸다(이규미, 2004; 류방란 외, 2007).

셋째, 규범 측면에서는 흔히 문제행동으로 일컬어지는 무단결석, 중퇴 등의 학교 회피 행동과, 공격·과잉행동, 이상행동(Rudolph et al., 2001; Wentzel et al., 2004; Zimmerman & Schmeelk-Cone, 2003; 이규미, 2004; 정수정·오익수, 2010) 등과 음주와 약물 사용, 흡연, 복장 위반, 물건 빼앗기, 폭력 등이 학교 부적응의 특성으로 파악되고 있다(류방란 외, 2007; 오경자 외, 1997; Kim et al., 2009).

넷째, 정서 측면에서 학교 부적응의 특성으로는 불안감, 우울증, 낮은 자존감(Simmones et al., 1979; Wigfield & Eccles, 1994; 권복순 외, 1997; 이규미, 2004; 오경자 외, 1997; 정현희, 2002; Kim et al., 2009)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표 Ⅱ-2-7〉 학교 부적응의 특성

영역	학교 부적응의 특성
수업·학업	낮은 학업성취, 학습 의욕과 흥미 상실, 수업 참여가 어렵고 집중하지 못하며, 수업(학습) 태도가 좋지 않음 등
관계	교사를 멀리함, 교사의 지시 무시, 동료 학생의 놀림과 거부, 괴롭힘, 왕따, 친구를 못 사귐 등
규범	무단지각, 무단결석, 공격성, 학교 교칙 위반, 폭력 등
정서	낮은 자존감, 우울감, 불안, 공격성 등

4. 학교 부적응의 유형

연구자들은 학교 부적응의 특성을 밝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특성에 따라 부적응의 유형 구분을 시도하였다. 곽종문(2002)은 부적응의 유형을 적극적 탈학교형, 소극적 탈학교형, 잠재적 탈학교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적극적 탈학교형은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자발적 학교 이탈자로서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 나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도 종래의 학교 입장에서는 '부적응' 학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적응하지 못하여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응의 필요 자체를 벗어남으로써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부

적응' 개념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극적 탈학교형은 학교를 떠나는 많은 학생들 중 청소년 범죄나 비행, 교칙 위반, 가정 파탄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 타의에 의해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잠재적 탈학교형은 이른바 '준자퇴생'으로, 몸은 학교에 있으나 마음은 이미 학교를 멀리 떠나 있는 학생들을 의미한다. 수업 시간 내내 잠만 자는 아이들, 초점 없이 멍하니 허공만을 응시하는 아이들, 선생님이 뭐라 하든 끝날 때까지 옆의 짝과 조잘거리거나 다른 일에 몰두하는 아이들, 학교 공부나 성적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 등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학교를 이탈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에 같이 어울릴 친구들이 있거나 학교 이외에 별로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교 현실을 나름대로 꿰뚫고 있기 때문에 냉소적이거나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정연순·이민경(2008)은 학교 부적응 학생의 유형을 학교 밖에서 노는 아이들, 학교 안에서 버티는 아이들, 집으로 숨는 아이들로 구분하였다. 학교 밖에서 노는 아이들은 학교를 떠나지 않은 채 대부분 학교 밖에서 놀며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면서' 학교에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는 학생, 즉 '적만 걸어놓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학교 안에서 버티는 아이들은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를 떠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렇다고 입시공부를 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도 없는 경우이다. 전문계 고등학교(현 특성화고)를 지원했으나 그곳에서도 성적에 밀려 일반계 고등학교로 배정된 아이들의 대부분이 이런 부류에 해당된다. 연구자들은 많은 학생들이 그저 버티고 있다면 이 문제는 학생 개인 차원의 학습 부적응이라기보다 기초 학습력 저하를 구조적으로 생산해 내는 교육 방식, 학교의 교육적 기능 상실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제멋대로 학교를 오가면서 교실에서는 그저 버티고 앉아 있다. 입시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에게 학교는 그저 즐겁고 편하게 놀 수 있는 곳일 뿐이다. 또 다른 유형으로 정신적·정서적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들 수 있는데 학습 장애나 대인관계 장애로 인해 기본적인 학교생활을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대개는 학교에서 버티며 몸만 담그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 등교는 하지만 수업을 피하여 보건실에 눕거나 도서실에서 혼자 지내면서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 기다리는 경우에 해당한다. 집으로 숨는 아이들은 거리로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칩거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다. 우울증, 왕따 등으로 인해 학교 부적응을 겪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등교를 완강히 거부하며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 외톨이는 가정 해체와 가족의 무관심, 게임 중독의 결과이거나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김영행(2011)은 학교 부적응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학교 내의 교육목표, 철학, 내용, 방법, 규칙 등을 위반하면서 학교에 출석하는 경우로서 학생 신분으로 청소년 비행, 일탈행위,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런 증상을 보이는 대부분의 학생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적절하지 않거나 좋지 않은 등 심리적으로 욕구 불만이 누적되어 있으며, 자아 기능도 약하고, 심한 열등감을 느끼며 자아도취감이 높다. 또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목적의식도 없으며, 현실을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 둘째, 부적절한 교우관계,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등으로 학교를 떠나는 경우이다. 서로 다른 개인의 심리적 취향이나 성격 유형 등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가 생겨 교우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내에서 힘있는 학생의 압력, 폭력, 폭언, 집단 따돌림 주도 등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학교 및 교육적 활동 모두를 떠나는 경우이다. 이는 '학교'라는 제도적 교육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 모든 교육 활동의 수용을 거부하거나 회피 또는 도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종의 자기 방어인 셈인데,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이 학생들은 사회에서 바라는 규범이나 가치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적절하게 사회화될 수 없다.

위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연구자들이 학교 부적응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설정한 범주 혹은 영역은 학생 개인의 행동과 정서 또는 심리적 특성과 학교생활 중 학업과 인간관계에서의 인식과 행동 등이다. 연구자에 따라 이들 영역 모두를 포괄하기도 하고 이 중 한 두 가지에 초점을 두어 부적응의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학생의 행동 특성을 학교 공간에 한정하여 도출한 경우도 있고 공격성 등과 같이 일반적인 행동 특성을 규명하려한 연구도 있다. 학교 부적응의 유형 구분에 있어서도 학교를 떠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형을 구분한 연구도 있고, 학교를 떠나거나 학업 자체를 중단한 학생들까지 부적응에 포함시켜 유형 구분을 시도한 연구도 있다.

5. 연구 모형

가. 학교 부적응의 개념

국내외에서 학생의 학교 부적응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학교 부적응의 개념에 대해 누구나가 동의하는 정의를 내리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부적응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들이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학생들에 의해 다양한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적응과 부적응의 경계 설정 자체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적응과 부적응을 질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 정도의 차이로 이해하려는 입장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 부적응 개념을 정의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학교 부적응 개념을 살펴본 후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학교 부적응 개념에 대한 정의를 다루기 전에 '부적응'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교육대사전에서는 부적응을 "개인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그 사회의 질서 규범에 조화되지 못하여서 사회에 대하여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그 개인 자신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남억우 외, 1988). 교육학 용어 사전에서는 부적응(maladjustment)이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사회, 직장, 그밖의 환경적 요구에 자신을 적응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러한 부적응은 흔히 정신병, 신경증, 범죄 등 이상 심리의 원인이 되며, 또한 결과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담과 심리 치료 또는 생활지도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현상 중 하나" 라고 말하고 있다(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1994). 김응수·주석진(2010)은 부적응이란 "개인의 능력과 내적 또는 외적 요구 사이의 불균형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한 개인이 자신의 욕구나 문제를 그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황혜자·황유경(2001)은 부적응은 "개인과 타인의 관계에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나 문제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부적응은 적응 장애의 문제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박장환(1996)은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상 반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를 부적응 혹은 적응 장애"라고 하였다.

종래의 많은 학교 부적응 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은 부적응 개념을 적용하여 학교 부적응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주로 사회화(Bhattacharaya, 2000; Spencer, 1999: 43; Reich & Flanagan, 2010), 개인의 지각과 감정(Ladd, Kochendwefer and Coleman, 1997), 욕구(이경은, 1998; 조은정·이혜

경, 2007; Bower, 김은옥 외, 2008에서 재인용)와 학교환경과의 관계에서 논의된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경은(1998)은 학교 부적응이란 “학교 내 환경과의 관계에서 수용 또는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해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조은정·이혜경(2007)의 연구에서는 학교 부적응을 “학교생활 적응 과정에서 욕구 불만이나 갈등이 심해질 때 이로 인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를 이탈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Bower는 학교 부적응이란 “여러 가지 다양한 부적응 행동 특성이 학교라는 생활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개인의 욕구가 학교 내 환경과의 관계에서 수용 또는 충족되지 못해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거나 친구 또는 교사와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이루고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항상 불행하고 억압된 기분에 빠져 매사에 의기소침하고 소극적이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김은옥 외, 2008: 56에서 재인용). 개인이 학교 및 학급에 적응해 나가는데 있어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학교의 교육적 가치와 규범 그리고 질서에 일치하는 타당한 행동을 못하거나 대인관계나 사회적 환경에 대한 개인의 행동 양식이 불균형한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개인은 자기 비하, 불안감, 초조감, 절망, 소외감, 의욕 저하, 우울 등을 느끼며 소극적이고 자심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심리적인 장애를 겪거나 문제 행동을 보인다(조혜훤, 1999). 이상과 같은 부적응 또는 학교 부적응에 대한 정의들은 부적응을 학생 개인 차원의 문제로 치부하며, 부적응의 원인을 적응 유연성(resilience)이라는 자질의 결여로 환원시킨다.

이와는 반대로 학교 부적응을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문제로 보는 관점도 있다. 즉, 학생이 아니라 학교가 학교 부적응을 낳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학교 부적응 및 이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학업 중단 또는 학교 중퇴 등을 ‘학교 실패(school failure)’로 보는 관점과 궤를 같이 한다. 미국에서 처음에 ‘학교 실패’ 담론이 등장했을 때에는 학생들의 성적 부진, 잦은 결석, 유급, 퇴학 등 학교에서의 학생의 실패에 관심의 초점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실패가 누적되면서 그러한 실패를 유발하는 학교교육 자체의 문제, 즉 ‘학교의 실패’라는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다(나병현, 2001).

곽종문(2002)은 학교 부적응 현상을 보는 시각과 관련하여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학교와 학생에 대한 가정을 재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가정이란 학교는 나름대로 고정된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학교는 교육과정, 학년제와 학급제, 시간표, 시험과 성적, 진급과 진학, 교칙과 질서 유지, 교사와 학생 간 관계 등에서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있으며, '부적응' 학생이란 이러한 틀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반항하는 아이들을 일컫는다. '부적응' 학생이란 말 속에서 기존의 학교 모습은 당연시되며, 여기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학생들은 죄악시 된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의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도 소규모로 운영되는 대안학교에서는 부적응 양상을 보이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오늘의 학교 문제, 청소년 문제를 '부적응'이라는 시각이 아니라 종래의 학교 패러다임을 바꾸어 보려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학교 부적응에 관한 관점은 학생 개인 차원의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학교라는 제도 차원의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대별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학교 부적응이나 학업 중단을 경험한 학생들에 대한 문화 기술적 접근을 통해 학교의 주류적 문화가 학생들의 정체성과 충돌, 갈등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정연순·이민경, 2008)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연구는 적절하게 수행될 경우 학교 부적응을 개인과 제도 중 어느 하나의 차원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양자 간 상호작용을 조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부적응을 학교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고자 한다. 즉, 학교 부적응을 학생이 학교라는 환경 또는 제도와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학생들이 학교의 요구나 기대에 따르지 않거나 못하는 것, 그리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맞지 않는 요구와 기대를 부과하는 것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 학교 부적응 현상을 조명하기 위해 학교 부적응을 "학교의 교육활동과 주류 문화가 학생 주체와 갈등, 부조화를 빚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나. 학교 부적응 분석 모형

앞의 2절에서 보았듯이 학교 부적응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학생 개인과 가정 요인에 초점을 두어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있으며, 학교 요인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지고 있다. 학교 요인을 다룬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은 〈표 II-2-3〉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교사 및 동료 학생과의 관계이며 교육과정, 학교풍토 등 학교의 구조와 과정 측면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드물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생의 학교 부적응이나 학업중단, 잠재적 학업중단 등의 현상을 학교체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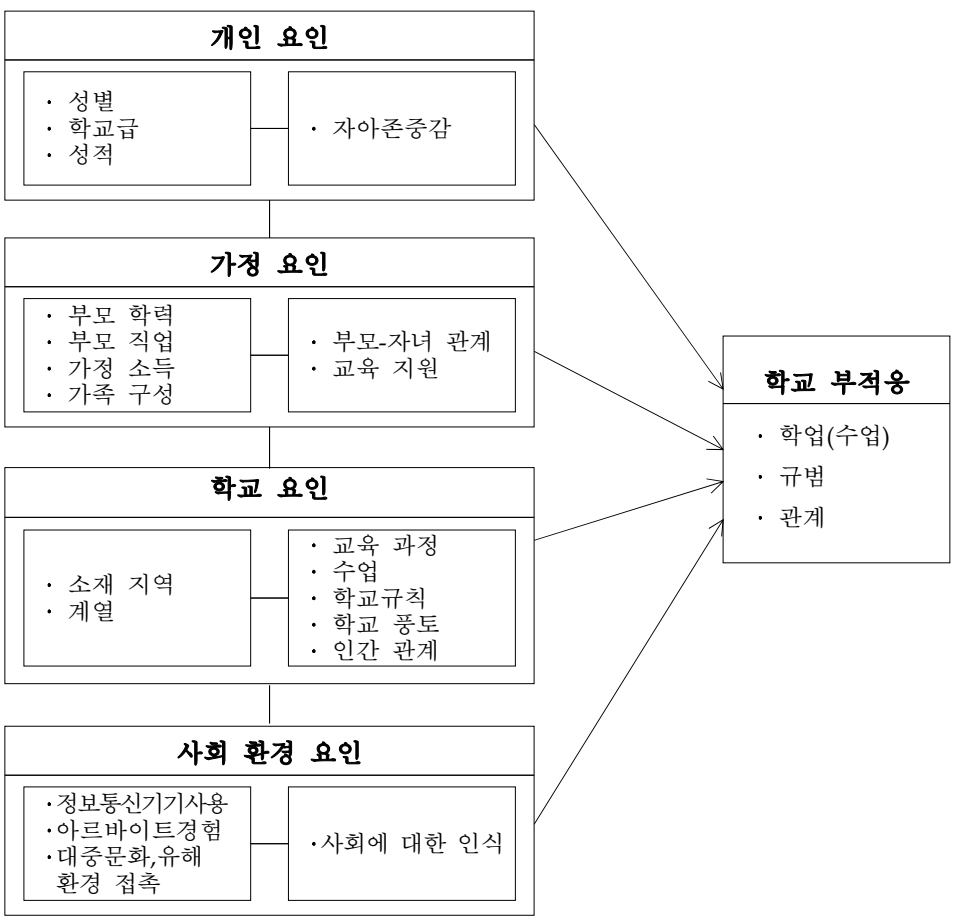
인에 초점을 맞추어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이 문제라는 기존의 인식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학교가 거대화, 관료화, 전문화되면서 인간적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환멸을 촉진하며, 소외를 양산한다는 것이다(Bowers, 1985). 학교교육은 개인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학습의 능동성과 즐거움을 앗아감으로써 학습자인 학생의 소외를 촉진한다. 이러한 비판은 일찍이 섬머힐을 설립한 닐, 탈학교론을 주창한 일리치 등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 위주 교육이 학교 부적응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오승환, 2009; 조혜정, 1995). 교육부가 1996년에 5개 시도 중·고등학생 2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36.1%의 학생이 한 번 이상 중퇴 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중퇴 충동을 느낀 이유는 "학교가 재미없어서"가 63.6%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업성적"(43.1%), "가정 불화"(14.2%) 순으로 나타났다(교육부, 1997). 박창남·도종수(2003)의 연구에서는 수도권 12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고 학생의 23.7%, 실업고 학생의 21.7%, 중학교 학생의 12.8%가 중퇴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중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변인은 '학습내용의 불만', '학교교칙의 불만', '교사의 낙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학교 부적응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개인을 적응하도록 돕는 개입 차원을 넘어서 학교와 학교가 속하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Yoneyama, 2000; 곽종문, 2002)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생 개인의 심리적 특성보다 환경 요인에 더 무게를 두는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Ⅱ-5-1]). 특히 선행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졌던 학교체제 변인과 사회환경 변인을 부각시켜 다루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부적응의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학교 요인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심리적인 특성, 특히 학교 부적응을 학생 개인의 병리적 현상으로 간주하던 종래의 연구에서 많이 다루었던 우울감, 불안, 공격성 등은 연구 변인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자아존중감만을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자아존중감은 학교 부적응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 요인 중 하나로서 학교 부적응에 대한 대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 환경 중 '사회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의 학력주의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 입시 위주 교육이 학생의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입

시 위주 교육은 한국 사회의 강한 학력주의에 기인하며, 학력주의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출세'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주의 사회에 대한 인식을 현재의 학업성적에 비추어 장래의 대학입학과 사회적 지위 획득을 전망해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장래에 대한 전망이 학업성적을 올리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공부에 무관심하거나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림 II-5-1] 학교 부적응 분석 모형

Ⅲ. 학생의 학교생활

1.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
2. 학교 및 수업 참여 정도와 이유
3. 학교에 대한 인식

Ⅲ. 학생의 학교생활

이 장에서는 학교의 제측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 등을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다.

1.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

학생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표 Ⅲ-1-1〉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순위 응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학교급에 상관없이 '학습·성적' 문제이며,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초등학교는 '건강' 문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진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성화고 학생 중 '학습·성적'에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에 비해서 훨씬 낮으며, '진로' 문제에 응답한 비율은 훨씬 높다. 이는 특성화고의 일차적 목표가 대학 진학보다 취업에 있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친구관계'와 '학교폭력' 문제에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순위 응답을 보면 중학교와 일반고에서는 '진로' 문제, 초등학교와 특성화고에서는 '학습·성적' 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에서는 '건강' 문제, 중학교와 일반고에서는 '학습·성적' 문제, 특성화고에서는 '진로' 문제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초·중등학생들은 '학습·성적' 문제, '진로' 문제, '건강'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1〉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

단위: 명, %

	1 순위				2 순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가정	669	1,216	866	1,332	597	1,161	1,163	1,106
	(7.8)	(6.8)	(4.6)	(11.4)	(7.7)	(6.8)	(6.3)	(9.7)
학습·성적	4,640	10,471	12,164	4,194	1,965	4,137	4,056	3,147
	(53.9)	(58.5)	(64.7)	(35.7)	(25.3)	(24.2)	(22.1)	(27.7)
건강	1,270	1,234	607	846	1,767	2,619	2,379	1,651
	(14.7)	(6.9)	(3.2)	(7.2)	(22.7)	(15.3)	(12.9)	(14.6)
정서	249	599	680	504	635	1,256	1,904	977
	(2.9)	(3.3)	(3.6)	(4.3)	(8.2)	(7.3)	(10.4)	(8.6)
성	42	142	192	167	155	353	590	333
	(0.5)	(0.8)	(1.0)	(1.4)	(2.0)	(2.1)	(3.2)	(2.9)
친구관계	522	678	249	290	841	1,282	868	597
	(6.1)	(3.8)	(1.3)	(2.5)	(10.8)	(7.5)	(4.7)	(5.3)
교사와의 갈등	122	132	57	90	163	231	149	151
	(1.4)	(0.7)	(0.3)	(0.8)	(2.1)	(1.4)	(0.8)	(1.3)
학교규칙 위반	-	185	152	256	-	406	296	395
		(1.0)	(0.8)	(2.2)		(2.4)	(1.6)	(3.5)
학교폭력	148	98	23	36	139	167	31	57
	(1.7)	(0.5)	(0.1)	(0.3)	(1.8)	(1.0)	(0.2)	(0.5)
진로문제	950	3,152	3,819	4,019	1,513	5,486	6,943	2,932
	(11.0)	(17.6)	(20.3)	(34.3)	(19.5)	(32.1)	(37.8)	(25.8)
합계	8,612	17,907	18,809	11,734	7,775	17,098	18,379	11,34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구체적 문항 내용은 가정: 가정불화·갈등·경제적 어려움, 건강: 병·외모·신체발달, 정서: 우울·불안·무기력·의욕부진, 성: 이성교제·성충동·성경험, 학교규칙 위반: 두발·복장·음주·흡연 등

** 초등학생용 질문의 답지에는 "학교규칙 위반"이 들어있지 않음.

학생용과 같은 문항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학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심각성에 따라 순위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1] 〈표 Ⅲ-1-2〉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는 '학습·성적'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정' 문제, '친구관계'를 심각한 것으로 꼽았다. 중학교 교사

1) 교사들에게 "귀교 학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두 가지를 순위대로 적어주십시오" 라는 질문을 하였음.

는 '가정' 문제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그 다음으로는 '학습·성적', '정서'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꼽았다. 일반고 교사는 '학습·성적'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정서' 문제, '가정'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특성화고 교사는 '가정' 문제를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정서', '학교규칙 위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일반고 교사들이 '학습·성적' 문제를, 특성화고 교사들이 '가정'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대체로 모든 학교급의 교사들이 '정서' 문제를 비교적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칙 위반'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교사를 제외한 모든 학교의 교사들이 다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특성화고 교사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 교사가 보는 학생들의 문제

단위: 명, %

	1 순위				2 순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가정	1,481 (24.6)	1,387 (24.6)	1,282 (14.3)	2,442 (40.0)	757 (12.8)	725 (13.0)	1,071 (12.0)	1,082 (17.8)
학습·성적	1,629 (27.1)	1,289 (22.9)	4,066 (45.3)	348 (5.7)	1,434 (24.2)	872 (15.6)	1,709 (19.2)	566 (9.3)
건강	28 (0.5)	18 (0.3)	26 (0.3)	14 (0.2)	74 (1.2)	36 (0.6)	87 (1.0)	40 (0.7)
정서	1,181 (19.6)	1,174 (20.8)	1,480 (16.5)	1,280 (21.0)	1,442 (24.3)	1,296 (23.2)	1,764 (19.8)	1,500 (24.7)
성	5 (0.1)	13 (0.2)	29 (0.3)	17 (0.3)	27 (0.5)	60 (1.1)	69 (0.8)	91 (1.5)
친구관계	1,291 (21.5)	511 (9.1)	179 (2.0)	111 (1.8)	1,527 (25.8)	819 (14.7)	604 (6.8)	260 (4.3)
교사와의 갈등	27 (0.4)	73 (1.3)	68 (0.8)	77 (1.3)	62 (1.0)	161 (2.9)	187 (2.1)	184 (3.0)
학교규칙 위반	76 (1.3)	684 (12.1)	1,115 (12.4)	1,123 (18.4)	122 (2.1)	726 (13.0)	1,337 (15.0)	1,335 (22.0)
학교폭력	282 (4.7)	425 (7.5)	112 (1.2)	169 (2.8)	367 (6.2)	602 (10.8)	285 (3.2)	367 (6.0)
진로문제	15 (0.2)	63 (1.1)	613 (6.8)	522 (8.6)	118 (2.0)	290 (5.2)	1792 (20.1)	651 (10.7)
합계	6,015 (100.0)	5,637 (100.0)	8,970 (100.0)	6,103 (100.0)	5,930 (100.0)	5,587 (100.0)	8,905 (100.0)	6,076 (100.0)

2순위 응답을 보면 초등학교 교사는 '친구관계', '정서', '학습·성적' 순으로, 중학교 교사는 '정서', '학습·성적', '친구관계' 순으로, 일반고 교사는 '진로', '정서', '학습·성적' 순으로, 특성화고 교사는 '정서', '학교규칙 위반', '가정' 순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가정', '학습·성적', '정서', '학교규칙 위반'을 학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의 응답 결과를 비교해보면 '학습·성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학생들은 '진로' 문제, '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비해 교사들은 '가정' 문제, '정서' 문제, '학교규칙 위반'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조사 결과는 학생과 교사 상호 간에 기대하고 대처하는데 있어 불일치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학교 및 수업 참여 정도와 이유

교과 수업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를 〈표 III-2-1〉에 제시하였다. 초·중·고등학생 대다수가 "열심히 참여 하거나, 열심히 참여하지는 않아도 듣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 비율은 대체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수업을 잘 듣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커지고 있으며,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방해로 선생님의 지적을 받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교에서 가장 높고, 일반고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거주 지역과 가정 배경에 따른 수업 참여도 차이를 분석하였다(〈부록 표 III-2-1~4〉). 초등학생은 지역, 성별, 학업성적, 부모의 학력과 직업, 가정의 월평균 소득, 부모 동거 여부 등 모든 배경 변인에 따라 수업 참여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시 거주 초등학생의 수업 참여도가 가장 높고 다른 지역은 비슷했으며, 여학생의 수업 참여도가 높았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응답하였고, 아버지의 직업이 있는 경우와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 그리고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중학생과 일반고 학생 역시 모든 배경 변인별로

수업 참여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광역시 거주 중학생의 수업 참여도가 가장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초등학생과 동일한 차이를 보였다. 특성화고의 경우도 다른 학교들과 거의 같은 차이를 보였으나,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직업이 없는 경우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2-1〉 교과 수업 참여 정도

단위: 명, %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합계	χ^2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질문하는 등 열심히 참여	4,242 (43.9)	6,027 (32.3)	6,341 (33.3)	3,249 (26.9)	9,663 (100.0)	1423.039***
열심히는 듣지 않으나 그래도 듣는 편	4,699 (48.6)	9,847 (52.8)	9,682 (50.8)	6,406 (52.9)	18,643 (100.0)	
수업을 방해하지 않을 뿐 잘 듣지 않음	459 (4.8)	2,162 (11.6)	2,759 (14.5)	2,114 (17.5)	19,044 (100.0)	
수업 방해로 선생님의 지적을 받는 편	263 (2.7)	607 (3.3)	262 (1.4)	330 (2.7)	12,099 (100.0)	
합계	9,663 (100.0)	18,643 (100.0)	19,044 (100.0)	12,099 (100.0)	59,449 (100.0)	

*p〈.05, **p〈.01, ***p〈.001

앞의 문항에서 수업을 잘 듣지 않거나 방해 행위를 해서 지적받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Ⅲ-2-2〉와 같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그냥 하기 싫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교 공부에 대한 목표나 의욕이 없는 학생 수의 규모가 경시할 수 없을 정도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지적한 것은 “수업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와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따분하기 때문에”이다. 이 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낮고, 중학교에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잠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10% 이상이다. 이 역시 학교급이 높을수록 커지고 있으며, 특히 특성화고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기 학생들이 잠이 부족한 것은 수업 집중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도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단하여 대처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Ⅲ-2-2〉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합계	χ^2
수업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144 (19.9)	788 (27.5)	751 (24.4)	594 (24.2)	2277 (100.0)	117.459***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따분하기 때문에	158 (21.9)	760 (26.5)	790 (25.6)	570 (23.2)	2278 (100.0)	
공부해 보았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37 (5.1)	162 (5.7)	258 (8.4)	200 (8.1)	657 (100.0)	
그냥 하기 싫어서	255 (35.3)	736 (25.7)	814 (26.4)	699 (28.4)	2,054 (100.0)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힘들어서	51 (7.1)	106 (3.7)	85 (2.8)	62 (2.5)	304 (100.0)	

*p〈.05, **p〈.01, ***p〈.001

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Ⅲ-2-3〉과 같다. 모든 학교에서 60% 이상 학생이 “그런대로 다닐 만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꼭 다니고 싶다”는 응답 비율은 대체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고등학교 중에서는 특성화고에서 더 낮다. 반면에 “다니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다”,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다”는 응답 비율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크고 특성화고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표 Ⅲ-2-3〉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합계	χ^2
꼭 다니고 싶다	2,883 (29.7)	3,531 (18.9)	3,130 (16.4)	1,883 (15.5)	9,696 (100.0)	1514.425***
그런대로 다닐 만하다	5,967 (61.5)	12,458 (66.6)	12,228 (64.1)	7,521 (62.0)	18,710 (100.0)	
다니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다	724 (7.5)	2,363 (12.6)	3,227 (16.9)	2,390 (19.7)	19,082 (100.0)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다	122 (1.3)	358 (1.9)	497 (2.6)	337 (2.8)	12,131 (100.0)	
합계	9,696 (100.0)	18,710 (100.0)	19,082 (100.0)	12,131 (100.0)	59,619 (100.0)	

*p〈.05, **p〈.01, ***p〈.001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를 보면(〈부록 표 Ⅲ-2-5~8〉), 초등학교, 중학교와 일반고는 모든 배경 변인에 따라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한 생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성화고는 지역과 부모의 직업 유무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꼭 다니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특별시 거주 학생이 가장 높고 읍면 지역 거주 학생이 가장 낮은 반면, "어쩔 수 없이 다닌다"와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읍면 지역에서 가장 높고, 특별시에서 가장 낮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꼭 다니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어쩔 수 없이 다닌다"와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꼭 다니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고, "어쩔 수 없이 다닌다"와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다. 아버지의 직업이 있는 경우와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 "꼭 다니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고, "어쩔 수 없이 다닌다"와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다. 그리고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 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나 부모 모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보다 "꼭 다니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중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면 초등학생과 같다. 중학생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꼭 다니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고 "어쩔 수 없이 다닌다"는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가정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당장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고의 경우 읍면 지역 거주 학생이 "꼭 다니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어쩔 수 없이 다닌다"와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낮은 반면, 광역시 거주 학생이 "꼭 다니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낮고 "어쩔 수 없이 다닌다"와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높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꼭 다니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고, "어쩔 수 없이 다닌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다. 아버지의 직업이 있는 경우와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 "꼭 다니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고, "어쩔 수 없이 다닌다"와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다.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꼭 다니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한편, 가장 소득이 높은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다닌다"와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특이하다. 부모 모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꼭 다니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낮고, "어쩔 수 없이 다닌다"와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높다. 특성화고의 경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꼭 다니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고, "어쩔 수 없이

다닌다"와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꼭 다니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고, "어쩔 수 없이 다닌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다.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꼭 다니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어쩔 수 없이 다닌다"는 비율이 낮아지는 한편,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고 학생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

앞의 문항에서 "꼭 다니고 싶다", "그런대로 다닐 만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학교에 다니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모든 학교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며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친구들을 만나 놀 수 있어서"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고등학생은 "졸업은 해야 하니까"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따른 관심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고, 이런 변화를 초래하는 학교교육의 여건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표 Ⅲ-2-4〉 학교에 다니는 이유

단위: 명, %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합계	χ^2
공부하며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서	3,961 (44.7)	5,300 (33.0)	5,551 (35.9)	3,133 (33.1)	3,961 (100.0)	2159.752***
친구들을 만나 놀 수 있어서	2,355 (26.6)	4,983 (31.0)	3,007 (19.5)	1,798 (19.0)	5,300 (100.0)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1,899 (21.3)	3,463 (21.6)	3,253 (21.1)	1,950 (20.6)	5,551 (100.0)	
졸업은 해야 하니까	660 (7.4)	2,312 (14.4)	3,639 (23.6)	2,571 (27.2)	3,133 (100.0)	
합계	8,865 (100.0)	16,058 (100.0)	15,450 (100.0)	9,452 (100.0)	17,945 (100.0)	

*p〈.05, **p〈.01, ***p〈.001

"다니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다",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표 Ⅲ-2-5〉에 제시하였다. 초등학생의 대다수와 중등학생의 약 1/3이 "학교 공부가 재미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중등학생의 약 1/3이

“학교를 다녀도 희망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고등학생들은 “학교의 규칙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도 비교적 많이 지적하였다. “친구들의 폭력과 따돌림이 싫어서”에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학생이 많이 응답하였다.

〈표 Ⅲ-2-5〉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

단위: 명, %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χ^2
학교 공부가 재미없어서	687 (75.2)	1,726 (54.7)	2,106 (50.6)	1,448 (48.5)	207.145***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무시해서	45 (4.9)	77 (2.4)	59 (1.4)	75 (2.5)	
친구들의 폭력과 따돌림이 싫어서	92 (10.1)	167 (5.3)	60 (1.4)	58 (1.9)	
학교를 다녀도 희망이 없어서	90 (9.8)	926 (29.4)	1329 (31.9)	989 (33.2)	
학교의 규칙들이 마음에 안들어서	-	258 (8.2)	611 (14.7)	413 (13.8)	
합계	914 (100.0)	3,154 (100.0)	4,165 (100.0)	2,983 (100.0)	

*p〈.05, **p〈.01, ***p〈.001

* 초등학생용 질문의 답지에는 “학교의 규칙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 들어있지 않음. 따라서 차이 검증은 초등학교를 뺀 세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임.

3. 학교에 대한 인식

가. 교육내용

교육내용의 다양성, 개인 적합성, 실용성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Ⅲ-3-1〉과 같다. 5점 척도를 적용했을 경우 3점 이상을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학교급을 망라해서 보았을 때 교육내용에 관해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한 문항은 “나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이 있다”(3.49)가 유일하며, 그 외 모든 문항에 대한 평균은 3점 이하로 나타났

다. 모든 문항에서 학교급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초등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학교 밖에서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평균이 3점 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교육내용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등학생은 거의 모든 문항에서 평균 3점 이하를 나타냈다. 특히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문항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학교의 교육과정이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만큼 다양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육내용이 학생들의 특기·소질 계발과 진로 설계에 적합한지, 실용성이 있는지, 배울만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에 대해서도 특히 중등학생의 반응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앞에서 학교에 다니기 싫다고 한 초등학생 대다수와 중등학생의 약 1/3이 “학교 공부가 재미없어서”라고 응답하였는바(〈표 Ⅲ-2-5〉), 이런 반응과 교육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 사이에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의 학교 교육내용은 학생 개개인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표 Ⅲ-3-1〉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

문 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과목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	초등학교(a)	9721	3.14	1.102	853.238***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761	2.51	1.070		
	일반고(c)	19120	2.55	1.055		
	특성화고(d)	12171	2.69	1.049		
합계		59773	2.66	1.088		
나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이 있다	초등학교(a)	9721	4.10	.999	1577.564***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736	3.56	1.095		
	일반고(c)	19111	3.30	1.114		
	특성화고(d)	12162	3.17	1.096		
합계		59730	3.49	1.129		
공부이외에 다양한 체험학습과 문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초등학교(a)	9712	3.36	1.084	3158.298***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713	2.77	1.052		
	일반고(c)	19094	2.15	1.007		
	특성화고(d)	12151	2.48	1.036		
합계		59670	2.61	1.119		

문 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다	초등학교(a)	9,707	2.46	1.208	501.994***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725	1.97	1.015		
	일반고(c)	19,098	2.11	1.017		
	특성화고(d)	12,159	2.03	.973		
합계		59,689	2.11	1.054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배우고 있다	초등학교(a)	9,703	3.27	1.129	911.818***	a>b, a>c, a>d, b>c, b>d
	중학교(b)	18,696	2.76	1.091		
	일반고(c)	19,090	2.64	1.013		
	특성화고(d)	12,140	2.61	1.048		
합계		59,629	2.77	1.089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장래의 진로(직업) 설계에 도움이 된다	초등학교(a)	9,678	3.30	1.043	1050.268***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749	2.84	1.046		
	일반고(c)	19,115	2.57	1.032		
	특성화고(d)	12,169	2.93	1.075		
합계		59,711	2.85	1.074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나의 소질과 특기를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초등학교(a)	9,680	3.28	1.039	1745.037***	a>b, a>c, a>d, b>c, c<d
	중학교(b)	18,760	2.75	.964		
	일반고(c)	19,122	2.40	.942		
	특성화고(d)	12,179	2.73	1.001		
합계		59,741	2.72	1.019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실제생활에 도움이 된다	초등학교(a)	9,668	3.47	1.013	2462.094***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749	2.79	1.006		
	일반고(c)	19,114	2.41	.969		
	특성화고(d)	12,170	2.74	.989		
합계		59,701	2.77	1.052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학교 밖에서 더 잘 배울 수 있다*	초등학교(a)	9,673	2.81	1.021	143.949***	a>c, a<d, b>c, b<d, c<d
	중학교(b)	18,710	2.79	.989		
	일반고(c)	19,099	2.65	1.023		
	특성화고(d)	12,160	2.88	1.000		
합계		59,642	2.77	1.011		

*p<.05, **p<.01, ***p<.001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다소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부여 (이하 문항 동일)

2. * 표시 문항은 역코딩하였음.

교육내용 문항 전체를 묶어서 학생들의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부록 표 Ⅲ-3-1~4〉)를 보면, 초등학생은 부모의 직업을 뺀 모든 변인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시 거주 초등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중소 도시 초등학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긍정적이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부모 모두와 동거하고 있을 때 교육내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지역, 성별, 학업성적, 부모 학력과 동거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 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중소 도시 학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업성적, 부모 학력과 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는 초등학교와 동일하다. 일반고 학생의 경우 지역, 성별, 학업성적,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 부모와 동거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읍면 지역 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중소 도시 학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직업이 없는 경우, 부모 모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가장 긍정정인 인식을 보였다. 특성화고 학생은 부모의 직업을 뺀 모든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특별시 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중소 도시 학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남학생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 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는 다른 학교급과 별 차이가 없다.

나. 수업 방법과 평가

수업 방법과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표 Ⅲ-3-2〉에 제시하였다. 수업 방법에 대한 4개의 문항에 대한 평균은 모두 3점 이하로 나타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4개 문항 모두에서 학교급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초등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일반고 학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일반고에서 대학입시 준비 교육이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반응에 비추어 볼 때 학교의 수업에서 학생들의 활동 기회가 많지 않으며, 강의 이외에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지 않고, 학생들이 각자의 능력에 맞는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Ⅲ-3-2〉 수업 방법과 평가에 대한 인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 기회가 많다	초등학교(a)	9,709	3.36	.956	1946.075***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757	2.87	.887		
	일반고(c)	19,113	2.52	.844		
	특성화고(d)	12,181	2.76	.872		
합계		59,760	2.81	.924		
수업 시간에 다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한다	초등학교(a)	9,692	3.52	.996	1681.250***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733	3.10	.930		
	일반고(c)	19,107	2.76	.914		
	특성화고(d)	12,167	2.82	.879		
합계		59,699	3.00	.964		
수업 시간에 강의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한다	초등학교(a)	9,675	3.48	1.021	3786.996***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731	2.74	.968		
	일반고(c)	19,093	2.27	.923		
	특성화고(d)	12,162	2.41	.909		
합계		59,661	2.64	1.038		
수업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자기 능력에 맞추어 공부한다	초등학교(a)	9,688	2.98	.966	1063.619***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732	2.58	.933		
	일반고(c)	19,095	2.35	.915		
	특성화고(d)	12,171	2.45	.899		
합계		59,686	2.54	.950		
학교에서 수업 내용에 따라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초등학교(a)	9,647	3.23	.932	1744.345***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87	2.84	.905		
	일반고(c)	19,074	2.46	.889		
	특성화고(d)	12,152	2.60	.873		
합계		59,560	2.73	.936		
학교에서 시험을 너무 자주 본다*	초등학교(a)	9,691	2.70	1.197	716.366***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731	2.66	1.100		
	일반고(c)	19,101	2.92	1.000		
	특성화고(d)	12,166	3.20	1.011		
합계		59,689	2.86	1.087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학교에서 시험 준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등학교(a)	9,677	2.65	1.077	424.057***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57	2.61	.967		
	일반고(c)	19,052	2.48	.949		
	특성화고(d)	12,134	2.88	.962		
합계		59,520	2.63	.990		

*p〈.05, **p〈.01, ***p〈.001

주) * 표시된 문항은 역코딩하였음.

평가에 관해서는 평가 방법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정적이지만, 시험 위주의 교육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방법의 다양성에 대해서 초등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일반고 학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시험 빈도, 시험 준비 위주 수업에 대해서는 특성화고 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일반고 학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일반고가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성화고가 취업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방법과 평가에 대한 인식에서 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부록 표 III-3-5~8〉), 초등학생은 성별과 아버지의 직업을 뺀 모든 변인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다. 특별시 거주 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광역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순이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긍정적이며, 어머니의 직업이 없고 부모 모두와 동거할 때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중학생은 지역, 성별, 학업성적,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광역시 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중소 도시 학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남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직업이 없을 때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일반고 학생은 지역, 아버지 학력, 가정의 소득,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읍면 지역 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특별시 학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정의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성화고 학생은 지역, 성별, 학업성적, 부모의 학력과 동거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특별시 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중소 도시 학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남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업성적은 '중' 수준 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였

으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에서는 학업성적과 가정의 소득,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거나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다. 학교규칙

학교 규칙의 적절성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표 Ⅲ-3-3〉과 같다. 초등학교에서는 복장, 두발 등에 대한 학교 규칙 준수가 요구되거나 강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문항을 질문지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중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보면 학교 규칙을 만들 때 학생들의 참여 정도가 높지 않으며, 정해진 학교 규칙 준수를 강하게 요구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화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든 문항에서 학교급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규칙 제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도는 중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규칙 준수에 대한 학교의 압력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규칙 적용의 공평성에 대해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규칙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일반고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 규칙 때문에 화가 나고 학교가 싫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특성화고에서 가장 높고 중학교에서 가장 낮다.

〈표 Ⅲ-3-3〉 학교 규칙에 대한 인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우리 학교는 학교규칙을 결정할 때 학생들이 참여한다	중학교(a)	18,739	2.48	1.118	84.609***	a〉b a〉c c〉b
	일반고(b)	19,122	2.34	1.065		
	특성화고(c)	12,178	2.37	1.061		
합계		50,039	2.40	1.086		
학교는 규칙 준수를 강하게 요구한다*	중학교(a)	18,733	2.55	1.023	18.824***	a〉b a〉c
	일반고(b)	19,117	2.49	1.061		
	특성화고(c)	12,170	2.49	1.094		
합계		50,020	2.51	1.055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우리 학교는 학교규칙을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적용한다	중학교(a)	18,718	3.09	1.105	128.133***	a〉b a〉c b〉c
	일반고(b)	19,108	3.03	1.075		
	특성화고(c)	12,156	2.89	1.095		
합계		49,982	3.02	1.094		
우리 학교의 규칙은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	중학교(a)	18,739	2.80	1.093	241.626***	a〉b a〉c c〉b
	일반고(b)	19,116	2.55	1.103		
	특성화고(c)	12,176	2.69	1.104		
합계		50,031	2.68	1.105		
학교규칙은 나를 화나게 한다*	중학교(a)	18,679	3.10	1.188	107.964***	a〉b a〉c b〉c
	일반고(b)	19,076	2.97	1.181		
	특성화고(c)	12,142	2.90	1.224		
합계		49,897	3.00	1.197		
나는 학교규칙 때문에 학교에 오기가 싫다*	중학교(a)	18,612	3.64	1.168	251.533***	a〉b a〉c b〉c
	일반고(b)	19,049	3.57	1.181		
	특성화고(c)	12,109	3.34	1.235		
합계		49,770	3.54	1.195		

*p〈.05, **p〈.01, ***p〈.001

주) * 표시된 문항은 역코딩하였음

학교규칙의 적절성, 공평성 등에 대한 인식의 학생 배경에 따른 차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부록 표 III-3-9~11〉), 중학생은 아버지 직업 이외의 모든 배경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특별시 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광역시 학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남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직업이 없고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학생이 학교 규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일반고 학생은 부모의 직업과 동거 여부를 뺀 모든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읍면 지역 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광역시 학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가정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부모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성화고 학생은 부모

의 학력과 직업을 뺀 모든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광역시 학생이 가장 긍정적이고, 중소도시 학생이 가장 부정적이며, 남학생이 더 긍정적이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가정의 소득이 낮을수록 학교 규칙의 적절성, 공평성 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학교 규칙의 규제 정도에 대한 학생의 인식 조사 결과를 〈표 Ⅲ-3-4〉에 제시하였다. 이 표를 보면 중등학생들은 대체로 학교 규칙의 규제 정도를 다소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규제 정도가 가장 강하다고 느끼는 것은 복장과 두발에 대한 것이며,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것은 음주, 흡연에 대한 것이다. 모든 측면에서 학교급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고 학생들보다 중학교와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 규칙의 규제 정도를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3-4〉 학교 규칙의 규제 정도에 대한 인식(1)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복장, 두발 규제	중학교(a)	18,700	3.34	.980	9.535***	a〉b c〉b
	일반고(b)	19,079	3.30	.977		
	특성화고(c)	12,151	3.33	.998		
합계		49,930	3.32	.983		
음주, 흡연 규제	중학교(a)	18,671	3.08	1.068	178.289***	a〉b c〉a c〉b
	일반고(b)	19,060	2.94	1.011		
	특성화고(c)	12,142	3.16	1.125		
합계		49,873	3.05	1.065		
소지품(휴대폰·잡지·사복·게임기·화장품·액세서리 등) 규제	중학교(a)	18,691	3.37	1.060	261.736***	a〉b a〉c c〉b
	일반고(b)	19,073	3.13	.998		
	특성화고(c)	12,145	3.26	1.066		
합계		49,909	3.25	1.044		
지각, 조퇴, 결석 등에 대한 규제	중학교(a)	18,679	3.25	.896	24.430***	a〉b c〉b
	일반고(b)	19,070	3.21	.847		
	특성화고(c)	12,142	3.27	.936		
합계		49,891	3.24	.888		
일과 중 학교 밖 출입 규제	중학교(a)	18,658	3.28	.966	2.193	
	일반고(b)	19,047	3.27	.941		
	특성화고(c)	12,134	3.30	.984		
합계		49,839	3.28	.961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규칙 위반 학생에 대한 징계(교내 및 사회 봉사·특별교육이수·퇴학 등) 정도	중학교(a)	18,655	3.16	.924	132.022***	a〉b c〉a c〉b
	일반고(b)	19,056	3.06	.845		
	특성화고(c)	12,138	3.23	.951		
합계		49,849	3.14	.904		

*p〈.05, **p〈.01, ***p〈.001

학교 규칙의 규제 정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차이를 배경 변인에 따라 분석하였다(〈부록 표 Ⅲ-3-12~14〉). 중학생은 지역,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소득, 어머니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광역시 학생이 학교 규칙의 규제정도를 가장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유사하다. 여학생이 규제 정도를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정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일반고 학생은 아버지 직업과 부모 동거 여부를 뺀 모든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광역시 학생이 가장 규제 정도를 강하게, 읍면 지역 학생이 가장 약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남학생이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가정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학생은 지역,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소득 수준,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특별시 학생이 가장 강하게, 읍면 지역 학생이 가장 약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여학생이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가정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가장 약하게 인식하고 있다.

학교 규칙의 규제 정도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Ⅲ-3-5〉와 같다. 규제 정도가 매우 약함 1점, 약한 편 2점, 보통 3점, 심한 편 4점, 매우 심함 5점을 부여하여 두 집단 간 차이 분석하였다. 모든 문항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학생들은 규제가 강하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들은 규제가 약하다고 응답하였다. 중·고등학생 모두 학교 규칙 중 '복장·두발 규제'가 가장 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일과 중 학교 밖 출입에 대한 규제', '소지품 규제', '지각·조퇴·결석 등에 대한 규제'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교사들은 '음주·흡연 규제'가 가장 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일과 중 학교 밖 출입에 대한 규제', '지각·조퇴·결석 등에 대한 규제', '복장·두발 규제'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규칙 전반의 규제 정도와 규제를 심하게 느끼는 규칙의 영역에 있어 학생과 교사 사이의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인식의 괴리는 학교규칙을 둘러싸고 두 집단 간에 불일치와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표 Ⅲ-3-5〉 학교 규칙의 규제 정도에 대한 인식(2)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복장, 두발 규제	중학교	교사	5,685	2.73	.692	1887.288***
		학생	18,700	3.34	.980	
	일반고	교사	9,021	2.77	.746	2067.600***
		학생	19,079	3.30	.977	
	특성화고	교사	6,133	2.75	.731	1656.061***
		학생	12,151	3.33	.998	
음주, 흡연 규제	중학교	교사	5,679	2.93	.631	104.534***
		학생	18,671	3.08	1.068	
	일반고	교사	5,679	2.93	.631	104.534***
		학생	18,671	3.08	1.068	
	특성화고	교사	6,128	2.88	.733	319.774***
		학생	12,142	3.16	1.125	
소지품(휴대폰·잡지·사복·게임기·화장품· 액세서리 등) 규제	중학교	교사	5,684	2.78	.663	1586.719***
		학생	18,691	3.37	1.060	
	일반고	교사	9,019	2.64	.746	1713.072***
		학생	19,073	3.13	.998	
	특성화고	교사	6,128	2.62	.760	1738.861***
		학생	12,145	3.26	1.066	
지각, 조퇴, 결석 등에 대한 규제	중학교	교사	5,683	2.85	.587	1030.937***
		학생	18,679	3.25	.896	
	일반고	교사	9,019	2.80	.632	1657.788***
		학생	19,070	3.21	.847	
	특성화고	교사	6,129	2.76	.689	1422.670***
		학생	12,142	3.27	.936	
일과 중 학교 밖 출입에 대한 규제	중학교	교사	5,679	2.91	.623	716.236***
		학생	18,658	3.28	.966	
	일반고	교사	9,010	2.85	.682	1453.801***
		학생	19,047	3.27	.941	
	특성화고	교사	6,127	2.82	.730	1114.466***
		학생	12,134	3.30	.984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규칙 위반 학생에 대한 징계(교내 및 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퇴학 등) 정도	중학교	교사	5,683	2.73	.658	1055.050***
		학생	18,655	3.16	.924	
	일반고	교사	9,022	2.72	.669	1119.593***
		학생	19,056	3.06	.845	
	특성화고	교사	6,133	2.75	.697	1222.213***
		학생	12,138	3.23	.951	

*p〈.05, **p〈.01, ***p〈.001

라. 교사의 열의와 태도

교사의 학생 지도에 대한 열의와 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표 Ⅲ-3-6〉과 같다. 학생들은 대체로 교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부에 신경을 써주신다", "학습 부진 학생들을 별도로 지도해주신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개별 학습 지도가 다소 미흡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학생을 공평하게 대해주신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다소 강하게 나타났다. 학교급 간 차이를 보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교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3-6〉 교사들의 열의와 태도에 대한 인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선생님들은 학생들 한사람 한 사람의 공부에 신경을 써주신다	초등학교(a)	9,705	3.40	1.151	1812.374***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704	2.69	.993		
	일반고(c)	19,070	2.54	.924		
	특성화고(d)	12,153	2.60	.921		
합계		59,632	2.74	1.029		
선생님들은 모든 학생을 공평하게 대해 주신다	초등학교(a)	9,704	3.67	1.120	2120.035***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704	2.89	1.011		
	일반고(c)	19,069	2.73	.922		
	특성화고(d)	12,151	2.81	.930		
합계		59,628	2.95	1.037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믿고 존중해 주신다	초등학교(a)	9,696	3.68	1.052	2043.704***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67	2.95	.963		
	일반고(c)	19,048	2.85	.873		
	특성화고(d)	12,135	2.81	.896		
합계		59,546	3.01	.984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고민, 문제 해결에 신경을 써주신다	초등학교(a)	9,704	3.65	1.076	1505.220***	a〉b, a〉c, a〉d, b〉c, b〉d
	중학교(b)	18,682	3.04	1.008		
	일반고(c)	19,066	2.89	.929		
	특성화고(d)	12,145	2.89	.935		
합계		59,597	3.06	1.017		
선생님들은 학습부진 학생들을 별도로 지도해주신다	초등학교(a)	9,699	3.78	1.056	3787.958***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98	3.06	1.024		
	일반고(c)	19,062	2.54	.960		
	특성화고(d)	12,146	2.64	.944		
합계		59,605	2.92	1.084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친밀하게 지낸다	초등학교(a)	9,693	3.76	1.093	722.464***	a〉b, a〉c, a〉d
	중학교(b)	18,676	3.25	.986		
	일반고(c)	19,060	3.26	.928		
	특성화고(d)	12,141	3.24	.928		
합계		59,570	3.33	.992		
선생님들은 나에게 무관심하다*	초등학교(a)	9,696	4.11	.971	1401.592***	a〉b, a〉c, a〉d, b〉c, b〉d
	중학교(b)	18,686	3.59	.944		
	일반고(c)	19,058	3.41	.883		
	특성화고(d)	12,139	3.43	.888		
합계		59,579	3.58	.950		
선생님들은 나에게 아무 기대를 하지 않으신다*	초등학교(a)	9,695	4.01	.990	1175.702***	a〉b, a〉c, a〉d, b〉c, b〉d
	중학교(b)	18,687	3.54	.948		
	일반고(c)	19,056	3.36	.910		
	특성화고(d)	12,136	3.36	.909		
합계		59,574	3.52	.962		
선생님들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	초등학교(a)	9,700	4.20	.948	780.499***	a〉b, a〉c, a〉d, b〉d, c〉d
	중학교(b)	18,687	3.76	.957		
	일반고(c)	19,059	3.76	.910		
	특성화고(d)	12,141	3.61	.917		
합계		59,587	3.80	.951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선생님들은 나를 무시한다*	초등학교(a)	9,707	4.38	.888	886.610***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92	3.90	.989		
	일반고(c)	19,056	3.87	.952		
	특성화고(d)	12,148	3.76	.970		
합계		59,603	3.94	.978		

*p〈.05, **p〈.01, ***p〈.001

주) * 표시한 문항은 역코딩하였음.

교사의 열의와 태도에 대한 인식의 학생 배경별 차이 분석 결과를 보면(〈부록 표 III-3-15~18〉), 초등학생은 지역, 성별, 학업성적, 부모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특별시 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읍면 지역 학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중학생은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 부모와 동거 여부를 뺀 모든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읍면 지역 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중소 도시 학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남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일반고 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 가정의 소득 수준을 뺀 모든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읍면 지역 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다른 지역 학생들의 응답은 비슷하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이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어머니 학력이 높고 직업이 없는 경우, 그리고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성화고 학생은 부모의 직업과 소득 수준을 뺀 모든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읍면 지역이 가장 긍정적으로, 중소 도시 학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남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마. 교우관계

교우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7〉). 모든 문항에서 학교급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이 가장 긍정적이고 특성화고 학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Ⅲ-3-7〉 교우관계에 대한 인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학생들은 서로 친하게 지낸다	초등학교(a)	9,674	4.03	.949	206.591***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705	3.82	.898		
	일반고(c)	19,080	3.90	.784		
	특성화고(d)	12,154	3.76	.856		
합계		59,613	3.87	.868		
학급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초등학교(a)	9,652	3.58	.920	112.042***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90	3.48	.852		
	일반고(c)	19,070	3.52	.778		
	특성화고(d)	12,150	3.39	.802		
합계		59,562	3.49	.833		
나는 학교에 친한 친구가 없다*	초등학교(a)	9,655	4.56	.840	387.552***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78	4.40	.914		
	일반고(c)	19,064	4.31	.895		
	특성화고(d)	12,141	4.16	.974		
합계		59,538	4.35	.918		
나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	초등학교(a)	9,643	4.21	1.053	376.911***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79	4.00	1.074		
	일반고(c)	19,051	3.86	1.057		
	특성화고(d)	12,139	3.76	1.086		
합계		59,512	3.94	1.078		
나는 학급 친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a)	9,652	4.33	.971	257.435***	a〉b, a〉d, b〈c, b〉d, c〉d
	중학교(b)	18,692	4.19	.981		
	일반고(c)	19,075	4.33	.862		
	특성화고(d)	12,146	4.06	.978		
합계		59,565	4.23	.948		
학급 친구들은 나를 무시한다*	초등학교(a)	9,647	4.47	.874	182.726***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98	4.32	.916		
	일반고(c)	19,077	4.36	.855		
	특성화고(d)	12,151	4.20	.940		
합계		59,573	4.33	.899		

*p〈.05, **p〈.01, ***p〈.001

주) * 표시한 문항은 역코딩하였음.

교우관계에서 학생 배경별 차이를 보면 초등학교는 성별을 뺀 모든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부록 표 Ⅲ-3-19~22〉).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있고 어머니는 직업이 없는 경우, 그리고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중학생은 성별과 어머니 직업을 뺀 모든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특별시 학생이 가장 긍정적이고 그 다음은 광역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순이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는 성별과 어머니 직업을 뺀 모든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지역, 학업성적, 부모의 학력과 소득, 아버지 직업, 부모와 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는 중학생과 동일하다. 특성화고는 부모의 학력을 뺀 모든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지역, 학업성적, 부모의 학력과 소득, 아버지 직업, 부모와 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는 중학생, 일반고 학생과 동일하다.

바. 학교풍토

학교풍토는 입시 위주 교육과 이에 따른 학생들 간 경쟁, 그리고 학생들의 자율성, 주체성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업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판단하고 대우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다소 높으며, 학생들 간 학업 경쟁도 꽤 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학교가 자신들이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도 다소 높다. 이러한 인식 경향은 일반고에서 가장 강하고 그 다음은 중학교에서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고가 그 목적이나 시기상 대학입시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Ⅲ-3-8〉 학교풍토에 대한 인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학교에서는 학업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판단하고 대우한다	초등학교(a)	9,704	2.55	1.122	1762.304***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98	3.13	1.032		
	일반고(c)	19,075	3.48	1.001		
	특성화고(d)	12,149	3.08	1.019		
합계		59,626	3.14	1.080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대학입시(초등학교는시험)에서 중요한 과목(국영수 등)을 공부하기 위해 다른 과목 수업을 안한 적이 있다	초등학교(a)	9,684	2.70	1.310	1003.344***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72	2.21	1.040		
	일반고(c)	19,074	2.75	1.153		
	특성화고(d)	12,142	2.27	.982		
합계		59,572	2.47	1.141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초등학교(a)	9,659	2.97	1.129	946.052***	a〈b, a〈c, b〈c, b〉d, c〉d
	중학교(b)	18,684	3.17	1.025		
	일반고(c)	19,070	3.50	.963		
	특성화고(d)	12,139	2.96	.994		
합계		59,552	3.20	1.041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초등학교(a)	9,655	2.90	1.039	693.707***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82	3.33	.991		
	일반고(c)	19,072	3.46	.979		
	특성화고(d)	12,139	3.26	.977		
합계		59,548	3.29	1.009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을 싫어한다	초등학교(a)	9,626	2.65	1.028	1074.487***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72	3.07	1.009		
	일반고(c)	19,071	3.35	1.017		
	특성화고(d)	12,140	3.19	.987		
합계		59,509	3.12	1.037		

*p〈.05, **p〈.01, ***p〈.001

학교풍토의 학생 배경에 따른 차이를 보면(〈부록 표 Ⅲ-3-23~26〉), 초등학생은 지역, 성별, 가정의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학생이 학교풍토가 경쟁적이고, 자율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높으며, 다른 학교들은 비슷하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쟁적이고, 자율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으며, 가정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경쟁적이고, 자율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다. 중학생은 지역, 성별, 아버지 학력과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중소 도시 학생이 경쟁적이고, 자율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높고, 읍면 지역 학생이 가장 낮으며, 여학생이 경쟁적이고, 자율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고 가정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경쟁적이고, 자율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높다. 일반고 학생은 학업성적과 어머니 직업을 뺀 모든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경쟁적이고, 자율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광역시 학생

이 가장 높고, 읍면 지역 학생이 가장 낮으며, 남학생이 더 높다. 부모의 학력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이 있는 경우 경쟁적이고, 자율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다. 특성화고 학생은 지역, 성별,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다. 특성화고 학생은 지역, 성별,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적이고, 자율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중소 도시 학생이 가장 높고, 읍면 지역 학생이 가장 낮다. 여학생이 더 높으며, 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 가장 높다.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종합해 보면 교육내용의 다양성, 개인 적합성, 실용성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편이다. 교육방법의 다양성, 학생 참여 활동 기회, 능력별 수업 등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다. 학교 규칙에 대해서는 그 제정 과정에 학생 참여 정도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 학교 규칙이 자신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며 따라서 규칙이 자신을 화나게 한다든지, 규칙 때문에 학교에 오고 싶지 않다는 등 불만 정도도 꽤 높은 편이다. 교사의 열의와 태도, 교우관계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학교풍토에 대해서는 경쟁적이고 학생들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별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에 대한 인식의 학생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에서는 일관된 경향을 찾아보기 어렵다. 각 학교급별로 여러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모든 학교급에서 학업성적과 부모의 학력,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체로 부모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으며, 자신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교의 제 측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Ⅳ. 가정환경과 학교 밖 생활

1. 가정환경
2. 학교 밖 생활
3.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인식

Ⅳ. 가정환경과 학교 밖 생활

이 장에서는 초·중등학생들의 가정환경과 학교 밖 생활에 대해 질문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다.

1. 가정환경

가정환경은 선행 연구 검토 결과 학교 부적응과 관계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을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가. 부모와의 관계

학생들의 부모와의 관계를 부모의 관심(2), 부모와의 의사소통(4), 부모의 학대(3) 등 9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표 Ⅳ-1-1〉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학교급의 학생들이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관심에 비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점수가 낮으며, 특히 "부모님께 내 고민거리를 거리낌 없이 이야기한다"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다. 부모와 학교생활, 일상생활, 장래 희망과 진로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 고민거리를 거리낌 없이 이야기 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도 매우 낮다.

부모와의 관계는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다. 9개 문항 모두에서 초등학생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특성화고 학생의 평균값이 가장 낮다. 즉, 초등학생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가장 긍정적으로, 특성화고 학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1〉 부모와의 관계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부모의 관심	부모님은 나의 취미나 특기를 알고 계신다	초등학교(a)	9,669	4.13	1.050	1168.549***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67	3.58	1.129		
		일반고(c)	19,060	3.42	1.095		
		특성화고(d)	12,123	3.31	1.111		
	합계		59,519	3.56	1.134		
	부모님은 내 친구 관계를 알고 계신다	초등학교(a)	9,663	3.98	1.046	717.612***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60	3.60	1.036		
		일반고(c)	19,056	3.45	1.007		
		특성화고(d)	12,113	3.40	1.029		
	합계		59,492	3.57	1.045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님께 내 고민거리를 거리낌 없이 이야기 한다	초등학교(a)	9,655	3.39	1.302	213.291***	a〉b, a〉c, a〉d, b〉d, c〉d
		중학교(b)	18,651	3.09	1.235		
		일반고(c)	19,048	3.06	1.196		
		특성화고(d)	12,108	2.99	1.188		
	합계		59,462	3.11	1.231		
	부모님과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한다	초등학교(a)	9,656	3.60	1.230	182.680***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52	3.38	1.152		
		일반고(c)	19,053	3.42	1.127		
		특성화고(d)	12,114	3.24	1.133		
	합계		59,475	3.40	1.159		
	부모님과 장래 희망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한다	초등학교(a)	9,654	3.59	1.207	88.943***	a〉b, a〉c, a〉d, b〈c, c〉d
		중학교(b)	18,653	3.42	1.139		
		일반고(c)	19,059	3.53	1.077		
		특성화고(d)	12,115	3.39	1.086		
	합계		59,481	3.48	1.123		
	부모님은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신다	초등학교(a)	9,646	3.74	1.160	313.782***	a〉b, a〉c, a〉d, b〉d, c〉d
		중학교(b)	18,642	3.44	1.119		
		일반고(c)	19,049	3.44	1.081		
		특성화고(d)	12,111	3.29	1.085		
	합계		59,448	3.46	1.116		
부모의	부모님은 나를 구박하신다*	초등학교(a)	9,656	4.03	1.090	297.221***	a〉b, a〉c, a〉d
		중학교(b)	18,640	3.66	1.121		
		일반고(c)	19,045	3.69	1.079		
		특성화고(d)	12,108	3.66	1.069		
	합계		59,449	3.73	1.100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학대	나는 부모님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초등학교(a)	9,658	4.20	1.152	280.311***	a〉b, a〉c, a〉d, b〉d, c〉d
		중학교(b)	18,640	3.87	1.225		
		일반고(c)	19,048	3.90	1.210		
		특성화고(d)	12,110	3.73	1.221		
	합계		59,456	3.90	1.216		
	나는 부모님에게 심하게 맞아본 경험이 있다*	초등학교(a)	9,660	4.06	1.235	108.037***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37	3.88	1.240		
		일반고(c)	19,049	4.00	1.191		
		특성화고(d)	12,113	3.81	1.225		
	합계		59,459	3.93	1.224		

*p〈.05, **p〈.01, ***p〈.001

주)* 표시한 문항은 역코딩하였음.

각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배경 변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특별시 학생이 다른 지역 학생보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더 긍정적이다. 아버지는 직업이 있을 때, 반대로 엄마는 직업이 없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Ⅳ-1-1〉). 중학생도 초등학생과 유사하게 여학생, 부모의 학력이 2년제 대졸 이상, 아버지가 직업이 있을 때, 어머니가 직업이 없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더 긍정적이다. 또한 학생의 학업성적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다. 초등학교와는 달리 특별시 거주 학생보다 광역시 거주 학생이 부모와의 관계가 더 긍정적이며, 학년이 낮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더 긍정적이다(〈부록 표 Ⅳ-1-2〉). 일반고 학생은 거주 지역이나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다른 학교급과 마찬가지로 여학생, 부모의 학력이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아버지가 직업이 있고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들이 부모와 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적과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더 긍정적이며, 중학교와는 달리 고학년일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더 긍정적이다(〈부록 표 Ⅳ-1-3〉). 특성화고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는 일반고 학생과 거의 같다. 여학생, 부모의 학력이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아버지가 직업이 있고,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들이 부모와 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반고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년이 높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더 긍정적이다. 다른 학교급에서는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았으나, 특

성화고 학생의 경우는 중간 정도 소득 수준일 경우 부모와의 관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IV-1-4〉).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학교급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대학 졸업 이상일 때, 아버지가 직업이 있으며, 부모와 동거할 때 부모와의 관계가 더 긍정적이다.

나. 부모의 교육 지원

부모의 교육지원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모든 학교급의 학생들이 부모들이 보통 이상의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 결석, 지각을 하지 않도록 챙겨주신다"의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건강 유지를 위한 식사와 운동에 신경써주신다"의 점수가 높다.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자연이나 문화체험 활동을 한다"이다. 부모들이 학습분위기 조성, 학습태도 형성, 책과 정보 제공, 과제나 준비물 준비, 등교시키기, 식사와 운동 등 건강 챙기기에 비해 자연체험과 여행, 공연·박물관 관람 등 문화체험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 차이를 보면 모든 문항에서 초등학생의 부모지원이 가장 높고, 특성화고 학생의 부모지원이 가장 낮다.

〈표 IV-1-2〉 부모의 교육지원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부모님은 내가 집에서 공부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	초등학교(a)	9,678	3.65	1.112	1030.418***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64	3.27	1.075		
	일반고(c)	19,063	3.09	1.050		
	특성화고(d)	12,115	2.89	.988		
합계		59,520	3.20	1.083		
부모님은 내가 바른 학습태도를 갖도록 이끌어 주신다	초등학교(a)	9,674	3.88	1.017	1292.040***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59	3.46	1.015		
	일반고(c)	19,057	3.27	1.005		
	특성화고(d)	12,112	3.08	.980		
합계		59,502	3.39	1.037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부모님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이나 정보를 알려주신다	초등학교(a)	9,668	3.76	1.108	1542.747***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51	3.30	1.108		
	일반고(c)	19,054	3.00	1.108		
	특성화고(d)	12,109	2.83	1.033		
합계		59,482	3.18	1.135		
부모님은 내가 학교의 과제나 준비물을 잘 챙기도록 신경 써주신다	초등학교(a)	9,667	3.73	1.125	981.252***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52	3.32	1.107		
	일반고(c)	19,046	3.09	1.094		
	특성화고(d)	12,115	3.01	1.051		
합계		59,480	3.25	1.121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 결석, 지각을 하지 않도록 챙겨주신다	초등학교(a)	9,662	4.00	1.096	231.587***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55	3.78	1.061		
	일반고(c)	19,051	3.87	1.035		
	특성화고(d)	12,113	3.64	1.098		
합계		59,481	3.81	1.072		
부모님은 나의 건강 유지를 위해 식사와 운동에 신경을 써주신다	초등학교(a)	9,657	4.03	1.044	764.599***	a〉b, a〉c, a〉d, b〉d, c〉d
	중학교(b)	18,522	3.67	1.066		
	일반고(c)	18,995	3.67	1.072		
	특성화고(d)	12,058	3.33	1.104		
합계		59,232	3.66	1.093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자연이나 문화 체험 활동(여행, 공연·박물관 관람 등)을 한다	초등학교(a)	9,650	3.48	1.268	1291.867***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497	3.07	1.241		
	일반고(c)	18,980	2.73	1.196		
	특성화고(d)	12,051	2.56	1.132		
합계		59,178	2.93	1.249		

*p〈.05, **p〈.01, ***p〈.001

학생 배경에 따른 부모의 교육지원의 차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특별시 거주, 남학생, 부모의 학력이 2년제 대졸 이상, 아버지가 직업이 있고, 어머니가 직업이 없으며,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의 경우 부모의 교육지원 정도가 더 높다. 또한 학업성적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지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IV-1-5〉). 중학생은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특별시 거주, 남학생, 부모의 학력이 2년제 대졸 이상, 아버지가 직업이 있고, 어머니의 직업이 없으며,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의 부모의 교육지원 정도가 높다. 또한 학업성적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저학년일수록 부모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부록 표 IV-1-6〉). 일반고 학생도 초등학생,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특별시 거주, 남학생, 부모의 학력이 2년제 대졸 이상, 아버지가 직업이 있고, 어머니의 직업이 없으며,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의 부모의 교육지원 정도가 높다. 또한 학업성적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저학년일수록 부모의 교육지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부록 표 IV-1-7〉). 특성화고 학생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부모의 교육지원 정도가 가장 높다. 다른 학교급의 학생들이 저학년일수록 부모의 교육지원 정도가 높은데 비해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3학년에 대한 교육지원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른 학교급과 마찬가지로 특성화고 학생도 학업성적과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지원이 높다. 남학생, 2년제 대졸 이상의 부모 학력, 아버지가 직업이 있고,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의 부모의 교육지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부록 표 IV-1-8〉).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에 대한 부모의 교육지원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특성화고 학생이 가장 낮으며,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더 높다. 아버지가 직업이 있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들이 부모의 교육지원이 높으며, 학업성적과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지원이 더 높다.

2. 학교 밖 생활

학생들의 학교 밖 생활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선행 연구 결과와 사회 변화 추세 등에 비추어 학생의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통신기기 사용과 아르바이트 경험, 유해 환경 접촉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 정보통신기기 사용

학생들의 정보통신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사용 정도와 이에 따른 생활 태도를 조사하였다. 5개 문항 중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하게 된다”의 평균이 3점 이상이므로 학생들의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꽤 높다고 볼 수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낮다. 정보통신기기 사용으로 인해 잠을 못자거나 학교 공부와 다른 일에 지장을 받는 정도는 일반고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고 응답한 정도는 특성화고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2-1〉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하게 된다	초등학교(a)	9,656	2.93	1.208	685.761***	a〈b, a〈c, a〈d, b〈c, c〉d
	중학교(b)	18,633	3.28	1.103		
	일반고(c)	18,995	3.54	1.035		
	특성화고(d)	12,019	3.26	1.040		
합계		59,303	3.30	1.106		
정보통신기기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가까운 사람들이 불평한다	초등학교(a)	9,639	2.36	1.186	105.046***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16	2.60	1.106		
	일반고(c)	18,991	2.55	1.101		
	특성화고(d)	12,010	2.50	1.006		
합계		59,256	2.53	1.101		
정보통신기기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교 공부와 다른 일에 지장을 받는다	초등학교(a)	9,629	1.93	1.074	1211.554***	a〈b, a〈c, a〈d, b〈c, c〉d
	중학교(b)	18,602	2.55	1.140		
	일반고(c)	18,981	2.77	1.154		
	특성화고(d)	12,008	2.57	1.074		
합계		59,220	2.52	1.155		
밤늦게까지 정보통신기기를 하느라 잠을 못 잔다	초등학교(a)	9,643	1.58	.969	1673.112***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22	2.26	1.187		
	일반고(c)	18,990	2.55	1.188		
	특성화고(d)	12,015	2.48	1.146		
합계		59,270	2.29	1.194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정보통신기기를 하지 않을 때는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초등학교(a)	9,650	1.53	.914	443.359***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23	1.88	1.009		
	일반고(c)	18,992	1.84	.959		
	특성화고(d)	12,011	2.01	1.016		
합계		59,276	1.84	.991		

*p〈.05, **p〈.01, ***p〈.001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대한 학생 배경 변수별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읍면 지역 거주, 남학생, 고졸 이하의 부모 학력, 아버지의 직업이 없고 어머니의 직업이 있으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 집단에서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정보통신기기를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IV-2-1〉). 중학생의 경우 여학생, 어머니가 직업이 있고,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높다. 반면에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학생들의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부모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유무, 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부록 표 IV-2-2〉). 일반고 학생은 학년과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부모의 학력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높다. 반면에 읍면거주 학생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부모의 직업 유무와 부모와 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부록 표 IV-2-3〉). 특성화고 학생도 일반고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년과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부모의 학력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높다. 거주 지역, 부모의 직업 유무,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부록 표 IV-2-4〉). 전체적으로 볼 때 정보통신기기는 고등학교 1학년이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급에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사용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높다.

나. 아르바이트 경험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대한 응답은 〈표 IV-2-2〉와 같다.

중학생 응답자의 4.4%, 일반고 학생 응답자의 14.2%, 특성화고 학생 응답자의 38.8%가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일반고 학생에 비해 특성화고 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높은 것은 각 학교의 목적, 학생들의 개인적·사회경제적 배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대한 학생 배경 변수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은 읍면 지역 거주, 3학년,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 어머니가 직업이 있고,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더 높다. 일반고와 특성화고 학생 모두 2~3학년, 성적이 낮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더 높다. 일반고 학생의 경우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높은 데 비해 특성화고 학생은 특별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더 높다(〈부록 표 Ⅳ-2-5~7〉). 전체적으로 보면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이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높다. 고등학생들에 비해 중학생은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2-2〉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구 분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경험		합계
	있음	없음	
	사례수(비율)	사례수(비율)	
중학교	812 (4.4)	17,703(95.6)	18,515(100)
일반계 고등학교	2,690(14.2)	16,303(85.8)	18,993(100)
특성화 고등학교	4,671(38.8)	7,379(61.2)	12,050(100)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아르바이트 기간을 보면 〈표 Ⅳ-2-3〉에서 볼 수 있듯이 1~3개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들이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높고, 고등학생 중에서도 일반고 학생보다 특성화고 학생이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 기간이 길다.

〈표 Ⅳ-2-3〉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기간

구 분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기간			합계*
	1-3개월	4-12개월	13-24개월	
중학교	621명(84.1%)	88명(11.9%)	29명(3.9%)	738명(100.0%)
일반계 고등학교	1,890명(76.2%)	472명(19.0%)	117명(4.7%)	2,479명(100.0%)
특성화 고등학교	2,789명(63.5%)	1,202명(27.4%)	398명(9.1%)	4,389명(100.0%)

*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 중 일부 학생이 아르바이트 기간을 묻는 문항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 Ⅳ-2-2〉의 사례수와 다소 차이가 있음.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기간에 대한 학생들의 배경 변수별 차이를 보면, 중학생은 거의 모든 변수 즉, 지역 규모, 성적 수준, 부모의 학력, 가정의 월평균 소득, 부모의 직업, 부모와 동거 여부 등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없다. 다만, 1학년 학생과 남학생이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 한 비율이 다소 높다(〈부록 표 Ⅳ-2-8〉). 일반고 학생은 특별시와 읍면 지역 거주 학생, 3학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한 비율이 높다. 또한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이고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 학업성적이 낮고,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성별, 어머니의 학력, 부모의 직업 유무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부록 표 Ⅳ-2-9〉). 특성화고 학생은 특별시 거주, 3학년 학생의 아르바이트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이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기간이 더 길다. 성별,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유무, 부모와 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부록 표 Ⅳ-2-10〉).

다. 유해환경 접촉

학생들의 유해환경 접촉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화방, PC방, 노래방, 비디오/DVD방, 술집, 클럽 출입 정도를 물었다. 질문지 예비조사에서 비디오/DVD방, 술집, 클럽에 출입하는 초등학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 질문지에서 이 두 가지는 제외하였다. 〈표 Ⅳ-2-4〉에서 볼 수 있듯이 초·중·고 학생 모두 “가끔, 자주, 매우 자주” 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소는 PC방과 노래방이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출입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유해환경 접촉이 잦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화방, 비디오/DVD방, 술집, 클럽에는 특성화 고

등학생이 다른 학교급 학생들보다 다소 출입하는 빈도가 높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출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4〉 유해업소 출입 정도

구분	학교급	가본적 없음	거의 가지 않음	가끔 감	자주 가는 편임	매우 자주 감	합계
PC방	초등학교	3,995(41.4)	3,005(31.1)	1,719(18.6)	613 (6.3)	250(2.6)	9,654(100)
	중학교	3,573(19.2)	6,101(32.8)	5,429(29.2)	2,506(13.5)	972(5.2)	18,565(100)
	일반고	1,800 (9.5)	7,967(41.9)	5,638(29.7)	2,673(14.1)	931(4.9)	19,011(100)
	특성화고	655 (5.4)	4,585(37.9)	4,112(34.0)	1,904(15.8)	831(6.9)	12,087(100)
노래방	초등학교	2,465(25.6)	38.3(39.5)	2,645(27.5)	561(5.8)	153(1.6)	9,627(100)
	중학교	2,085(11.2)	5,691(30.7)	7,025(37.8)	2,912(15.7)	852(4.6)	18,565(100)
	일반고	887 (4.7)	4,978(26.2)	8,858(46.6)	3,489(18.4)	801(4.2)	19,013(100)
	특성화고	501 (4.1)	2,335(19.3)	5,508(45.5)	2,790(23.1)	961(7.9)	12,095(100)
만화방	초등학교	7,905(82.2)	1,219(12.7)	382(4.0)	69 (0.7)	42(0.4)	9,617(100)
	중학교	12,610(68.1)	4,194(22.6)	1,396(7.5)	192 (1.0)	137(0.7)	18,581(100)
	일반고	11,360(59.8)	5,985(31.5)	1,357(7.1)	176 (0.9)	105(0.6)	18,983(100)
	특성화고	6,624(54.9)	4,024(33.4)	1,152(9.5)	158 (1.3)	105 (.9)	12,063(100)
비디오/ DVD방	중학교	13,304(71.9)	3,895(21.1)	1,071(5.8)	131 (.7)	95 (.5)	18,496(100)
	일반고	13,922(73.4)	3,879(20.5)	939(5.0)	126 (.7)	93 (.5)	18,959(100)
	특성화고	7,777(64.5)	2,967(24.6)	1,067(8.9)	132 (1.1)	109 (.9)	12,052(100)
술집	중학교	16,847(90.9)	1,124 (6.1)	438(2.4)	43 (.2)	73 (.4)	18,525(100)
	일반고	15,665(82.5)	1,993(10.5)	988(5.2)	195 (1.0)	142 (.7)	18,983(100)
	특성화고	8,230(68.2)	1,845(15.3)	1,417(11.7)	373 (3.1)	200(1.7)	12,065(100)
클럽	중학교	17,669(95.4)	451 (2.4)	273(1.5)	51 (.3)	83 (.4)	18,527(100)
	일반고	17,565(92.5)	805 (4.2)	444(2.3)	66 (.3)	109 (.6)	18,989(100)
	특성화고	10,221(84.7)	947 (7.8)	655(5.4)	101 (.8)	143(1.2)	12,067(100)

학생들의 유해환경 접촉 정도의 배경 변수별 차이를 출입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PC방과 노래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PC방과 노래방 출입을 더 많이 하고 있다. PC방은 남학생이, 노래방은 여학생이 더 많이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Ⅳ-2-11~12〉).

중학생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거주하고, 고학년일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학생, 그리고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은 학생들이 PC방에 “자주”

혹은 “매우 자주” 가는 비율이 더 높다. 또한 편모, 편부 가정 학생의 PC방 출입이 상대적으로 잦다. 남학생이 PC방 출입을 더 많이 하는 반면, 여학생은 노래방 출입을 더 많이 하고 있다(〈부록 표 IV-2-13~14〉). 일반고 학생은 저학년일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학생이 PC방과 노래방 출입이 더 잦다. 읍면 지역 거주 학생은 PC방 출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노래방 출입은 더 잦다. 남학생은 PC방 출입을 더 많이 하고, 여학생은 노래방 출입은 더 많이 하고 있다(〈부록 표 IV-2-15~16〉). 특성화고 학생은 저학년일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PC방과 노래방 출입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읍면 지역 거주 학생은 PC방 출입과 노래방 출입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PC방 출입 비율이 높으며, 편모 혹은 편부 학생의 노래방 출입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부록 표 IV-2-17~18〉). 전체적으로 보면 학업성적이 낮고,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PC방과 노래방 출입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학생은 PC방 출입을 더 많이 하는 데 비해 여학생은 노래방 출입을 더 많이 하고 있다.

3.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인식

가. 자아존중감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5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표 IV-3-1〉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대체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문항 중 “친구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으며, 그 중에서도 일반고 학생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다. 대학입시를 지향한 학생들의 학업 중시와 경쟁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4개 문항에서는 초등학생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일반고 학생, 중학생, 특성화고 학생 순이다.

〈표 Ⅳ-3-1〉 자아존중감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초등학교(a)	9,668	3.70	1.068	378.602***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606	3.37	1.018		
	일반고(c)	19,028	3.33	.984		
	특성화고(d)	12,107	3.26	.997		
합계		59,409	3.39	1.021		
나는 자신을 소중히 생각한다	초등학교(a)	9,668	4.09	.993	526.991***	a〉b, a〉c, a〉d, b〉d, c〉d
	중학교(b)	18,599	3.68	1.001		
	일반고(c)	19,030	3.70	.962		
	특성화고(d)	12,103	3.60	.987		
합계		59,400	3.74	.998		
앞으로 지금보다 공부를 더 잘할 자신이 있다	초등학교(a)	9,664	3.86	1.040	329.704***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597	3.59	1.068		
	일반고(c)	19,026	3.72	1.060		
	특성화고(d)	12,103	3.44	1.057		
합계		59,390	3.64	1.068		
나는 친구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	초등학교(a)	9,659	4.21	.970	242.168***	a〉b, a〉d, b〈c, b〉d, c〉d
	중학교(b)	18,587	4.07	.962		
	일반고(c)	19,027	4.22	.922		
	특성화고(d)	12,100	3.94	1.000		
합계		59,373	4.11	.964		
나는 내 목표나 희망을 이룰 수 있다	초등학교(a)	9,641	4.03	.956	319.542***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572	3.71	.989		
	일반고(c)	19,007	3.84	.977		
	특성화고(d)	12,089	3.67	.984		
합계		59,309	3.79	.987		

*p〈.05, **p〈.01, ***p〈.001

학생들의 배경 변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거주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직업이 있고, 어머니가 직업이 없으며 부모와 동거하고, 학업성적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부록 표 Ⅳ-3-1〉). 중학생은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와 동거하고, 학업성적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 또한 아버지가 직업이 있고,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부록 표 Ⅳ-3-2〉). 일반고 학생은 남학생, 부모

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직업이 있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학생의 성적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다.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서는 집단 간에 차이가 없으며, 광역시와 중소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부록 표 IV-3-3〉). 특성화고 학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학업성적과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부록 표 IV-3-4〉).

나. 사회에 대한 인식

학생들의 사회에 대한 인식은 〈표 IV-3-2〉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자아존중감에 비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다. 자아존중감을 묻는 5개 문항의 평균 점수가 3.64인에 비해, 사회에 대한 인식을 묻는 5개 문항의 평균 점수는 2.81이다. 자신의 학업성적이 직업, 소득 등 장래의 사회적 지위 획득에 미칠 영향보다 대학 입학에 미칠 영향을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대학입학이 보다 가까운 미래이고 또 학업성적과의 관련성이 직접적인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문항에서 학교급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학력주의를 더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급별로 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읍면 지역 거주, 남학생,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 아버지가 직업이 없고, 어머니가 직업이 있으며, 양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들이, 그리고 학업성적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주의를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IV-3-5〉).

〈표 IV-3-2〉 사회에 대한 인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나의 성적으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초등학교(a)	9,655	2.56	1.105	1487.896***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586	3.08	1.097		
	일반고(c)	19,026	3.41	1.096		
	특성화고(d)	12,092	3.37	1.049		
합계		59,359	3.16	1.129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나의 성적으로는 돈을 잘 벌기 어려울 것이다	초등학교(a)	9,659	2.34	1.062	918.485***	a〈b, a〈c, a〈d, b〈c, b〈d
	중학교(b)	18,591	2.89	1.098		
	일반고(c)	19,025	3.01	1.167		
	특성화고(d)	12,093	3.04	1.101		
합계		59,368	2.87	1.141		
나의 성적으로는 좋은 직업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초등학교(a)	9,655	2.27	1.061	911.777***	a〈b, a〈c, a〈d, b〈c, b〈d
	중학교(b)	18,581	2.84	1.109		
	일반고(c)	19,020	2.96	1.182		
	특성화고(d)	12,098	2.96	1.125		
합계		59,354	2.81	1.154		
나의 성적으로는 사회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살기 어려울 것이다	초등학교(a)	9,656	2.17	1.025	919.649***	a〈b, a〈c, a〈d, b〈c, b〈d
	중학교(b)	18,589	2.70	1.089		
	일반고(c)	19,027	2.84	1.172		
	특성화고(d)	12,093	2.86	1.112		
합계		59,365	2.69	1.137		
나의 성적으로는 좋은 배우자(결혼 상대)를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초등학교(a)	9,658	2.15	1.023	501.055***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595	2.56	1.094		
	일반고(c)	19,025	2.62	1.179		
	특성화고(d)	12,099	2.69	1.138		
합계		59,377	2.54	1.134		

*p〈.05, **p〈.01, ***p〈.001

중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도 초등학생과 거의 같다(〈부록 표 Ⅳ-3-6〉). 일반고 학생은 광역시와 중소 도시에 비해 특별시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학력주의를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버지 직업이 없고 어머니 직업이 있으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이, 그리고 학업성적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주의를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부록 표 Ⅳ-3-7〉). 특성화고 학생은 부모의 학력이 낮고, 학업성적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주의를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거주 지역, 성별, 부모의 직업 유무, 부모와 동거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Ⅳ-3-8〉). 학업성적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주의를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모든 학교급에서 공통적이다.

Ⅴ. 학교 부적응 실태

1. 학교 부적응의 양상과 정도
2. 학교 부적응 유형

V. 학교 부적응 실태

이 장에서는 질문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의 학교 부적응 양상과 정도를 살펴보고, 사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부적응의 유형 분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1. 학교 부적응의 양상과 정도

선행 연구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 부적응의 유형을 무기력, 수업부적응, 교사관계 부적응, 친구관계 부적응, 학교규범 부적응의 5가지로 유형화하여 학생용 질문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유형별 질문 문항 수는 무기력 3개, 수업부적응 5개, 교사관계 부적응 3개, 친구관계 부적응 3개, 학교규범 부적응 13개(초등은 11개)로 총 27개(초등은 25개)이다. 그러나 요인분석 결과 무기력과 수업이 하나의 유형으로, 친구관계 부적응과 학교규범 부적응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서 '수업 부적응', '교사관계 부적응', '학교규범 부적응'의 3개 유형으로 범주화되었다.

유형별 부적응 정도 분석 결과를 〈표 V-1-1〉에 제시하였다. 이 표는 부적응 정도를 5단계 척도로 조사하여 평균을 산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적응 정도는 3점 미만이므로 부적응 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세 유형의 부적응 중 수업부적응 정도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교사관계 부적응이 높고, 학교규범 부적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부적응 정도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으며, 고등학생 중에서는 일반고 학생보다 특성화고 학생의 부적응 정도가 높다. 교사관계 부적응과 학교규범 부적응 정도는 중학생과 특성화고 학생이 초등학생과 일반고 학생보다 높다. 세 가지 부적응 유형 모두 특성화고 학생이 가장 높다.

〈표 V-1-1〉 학교급별 학교 부적응 양상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수업 부적응	초등학교(a)	9676	2.00	0.796	1143.190***	b〉a, c〉a, c〉b d〉a, d〉b d〉c
	중학교(b)	18603	2.40	0.845		
	일반고(c)	19025	2.46	0.810		
	특성화고(d)	12107	2.64	0.830		
합계		59411	2.40	0.846		
교사관계 부적응	초등학교(a)	9673	1.35	0.643	479.330***	b〉a b〉c c〉a d〉a d〉b d〉c
	중학교(b)	18600	1.61	0.816		
	일반고(c)	19022	1.50	0.746		
	특성화고(d)	12107	1.73	0.874		
합계		59402	1.56	0.790		
학교규범 부적응	초등학교(a)	9729	1.19	0.334	220.727***	b〉ab〉c c〉a d〉ad〉b d〉c
	중학교(b)	18714	1.25	0.484		
	일반고(c)	19097	1.23	0.485		
	특성화고(d)	12168	1.35	0.616		
합계		59708	1.25	0.497		

*p〈.05, **p〈.01, ***p〈.001

가. 수업부적응

학생들의 수업부적응 양상과 정도는 〈표 V-1-2〉와 같다. 각 문항에 대한 긍정 정도를 5단계로 척도화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수업부적응 양상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수업 시간에 딴 짓”(2.69)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멍하게 앉아있는 것”(2.52), “잠자는 것”(2.51) 순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학교급별 차이를 보면 “나는 수업 시간에 떠든다”는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항에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일반고 학생보다는 특성화고 학생의 점수가 더 높다. 중등학생, 특히 고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딴 짓을 하고, 멍하게 앉아있거나, 잠을 잔다고 응답한 점수가 3점에 근접하므로 그 수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수업 시간 중에 직접적으로 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모든 것이 귀찮다”(2.52)의 점수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학생이 학교에서 하는 핵심적 활동이 수업이므로 요인 분석에서 수업부적응으로 묶

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고 귀찮아하는 현상은 '수업부적응'으로만 국한시킬 수 없는 '무기력' 또는 '의욕 상실'의 삶을 보여주는 징표로서 이제까지 학교 부적응을 규정했던 '일탈', '문제행동'의 시각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문제일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표 Ⅴ-1-2〉 수업부적응 양상과 정도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나는 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모든 것이 귀찮다	초등학교(a)	9662	2.00	1.051	1003.544***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574	2.49	1.113		
	일반고(c)	19004	2.64	1.111		
	특성화고(d)	12088	2.77	1.115		
합계		59328	2.52	1.130		
나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괴롭다	초등학교(a)	9674	1.72	.950	861.869***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594	2.08	1.035		
	일반고(c)	19021	2.26	1.073		
	특성화고(d)	12103	2.40	1.101		
합계		59392	2.14	1.070		
나는 수업 시간에 멍하게 앉아 있다	초등학교(a)	9672	2.04	1.061	934.468***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587	2.50	1.113		
	일반고(c)	19015	2.63	1.103		
	특성화고(d)	12104	2.79	1.091		
합계		59378	2.52	1.123		
나는 수업 시간에 딴 짓을 한다	초등학교(a)	9666	2.27	1.057	729.202***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593	2.70	1.081		
	일반고(c)	19018	2.74	1.050		
	특성화고(d)	12100	2.93	1.040		
합계		59377	2.69	1.078		
나는 수업 시간에 떠든다	초등학교(a)	9664	2.17	1.028	314.470***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586	2.45	1.042		
	일반고(c)	19013	2.28	.983		
	특성화고(d)	12103	2.53	1.028		
합계		59366	2.37	1.026		
나는 수업 시간을 견디기 힘들다	초등학교(a)	9664	1.80	.968	683.879***	a<b, a<c, a<d, b<d, c<d
	중학교(b)	18593	2.21	1.050		
	일반고(c)	19014	2.22	1.007		
	특성화고(d)	12098	2.42	1.039		
합계		59369	2.19	1.039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나는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	초등학교(a)	9668	1.43	.807	4884.462***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591	2.42	1.157		
	일반고(c)	19017	2.85	1.060		
	특성화고(d)	12102	2.99	1.067		
합계		59378	2.51	1.180		
나는 숙제를 하지 않는다	초등학교(a)	9668	1.86	.984	455.760***	a<b, a<c, a<d, b<d, c<d
	중학교(b)	18582	2.19	1.052		
	일반고(c)	19011	2.17	1.014		
	특성화고(d)	12097	2.38	1.066		
합계		59358	2.17	1.044		

*p<.05, **p<.01, ***p<.001

학생들의 배경 변수에 따른 수업부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 아버지의 직업이 없고, 어머니의 직업이 있고, 부모와 거주하지 않는 학생의 수업부적응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중소 도시와 읍면 학생, 학업성적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수업 부적응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초등학생은 성별에서 차이가 없으나 중학생은 여학생의 수업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 수업부적응의 학생 배경 변수별 차이(초등학교)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 규모	특별시(a)	1851	1.95	0.802	3.856**	a<c
	광역시(b)	2647	2.00	0.790		
	중소 도시(c)	4617	2.01	0.796		
	읍면(d)	561	2.05	0.799		
합계		9676	2.00	0.796		
성별	남자(a)	4935	2.01	0.808	3.602	
	여자(b)	4692	1.98	0.784		
합계		9627	2.00	0.797		
학업 성적	하(a)	1301	2.40	0.835	312.880***	a>b, a>c, b>c
	중(b)	4235	2.06	0.775		
	상(c)	3845	1.80	0.747		
합계		9381	2.00	0.798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부학력	고졸 이하(a)	2,432	2.09	0.810	81.984***	a>b
	2년제 대졸 이상(b)	4,829	1.91	0.776		
합계		7,261	1.97	0.792		
모학력	고졸 이하(a)	2,955	2.06	0.802	64.703***	a>b
	2년제 대졸이상(b)	4,402	1.91	0.778		
합계		7,357	1.97	0.791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1,567	2.10	0.799	20.192***	a>b, a>c, a>d, b>d, c>d
	201~400만원 이하(b)	2,979	2.00	0.788		
	401~600만원 이하(c)	1,990	1.97	0.803		
	601만원 이상(d)	1,221	1.87	0.786		
합계		7,757	1.99	0.797		
부직업	있음(a)	9,093	1.99	0.788	20.291***	a<b
	없음(b)	257	2.21	0.912		
합계		9,350	1.99	0.792		
모직업	있음(a)	6,423	2.02	0.798	31.018***	a>b
	없음(b)	2,886	1.93	0.781		
합계		9,309	1.99	0.794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474	1.97	0.787	31.618***	a<b, a<c
	어머니와 동거(b)	681	2.22	0.845		
	아버지와 동거(c)	281	2.24	0.807		
	동거부모 없음(d)	240	2.11	0.800		
합계		9,676	2.00	0.796		

*p<.05, **p<.01, ***p<.001

〈표 Ⅴ-1-4〉 수업부적응의 학생 배경 변수별 차이(중학교)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 규모	특별시(a)	3342	2.32	0.850	21.302***	a<b, a<c, a<d, b<c, b<d
	광역시(b)	4935	2.38	0.860		
	중소 도시(c)	8479	2.43	0.832		
	읍면(d)	1847	2.48	0.841		
합계		18603	2.40	0.845		
학년	1학년(a)	6355	2.27	0.848	136.242***	a<b, a<c, b<c
	2학년(b)	6138	2.44	0.833		
	3학년(c)	6083	2.51	0.836		
합계		18576	2.40	0.845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성별	남자(a)	9,313	2.34	0.848	99.426***	a〈b
	여자(b)	9,184	2.47	0.838		
합계		18,497	2.40	0.845		
학업 성적	하(a)	6,935	2.65	0.842	597.316***	a〉b, a〉c, b〉c
	중(b)	4,949	2.39	0.814		
	상(c)	6,395	2.16	0.799		
합계		18,279	2.41	0.846		
부학력	고졸이하(a)	6,588	2.49	0.831	166.638***	a〉b
	2년제대졸이상(b)	9,042	2.32	0.843		
합계		15,630	2.39	0.842		
모학력	고졸이하(a)	7,880	2.48	0.836	160.876***	a〉b
	2년제대졸이상(b)	7,763	2.31	0.842		
합계		15,643	2.39	0.844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082	2.51	0.844	34.409***	a〉b, a〉c, a〉d, b〉c, b〉d, c〉d
	201~400만원 이하(b)	6,422	2.41	0.836		
	401~600만원 이하(c)	3,730	2.35	0.825		
	601만원 이상(d)	2,388	2.29	0.893		
합계		15,622	2.40	0.847		
부직업	있음(a)	17,501	2.40	0.843	3.870*	a〈b
	없음(b)	587	2.47	0.842		
합계		18,088	2.40	0.843		
모직업	있음(a)	12,340	2.43	0.845	37.704***	a〉b
	없음(b)	5,647	2.34	0.838		
합계		17,987	2.40	0.844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5,996	2.38	0.841	45.247***	a〈b, a〈c, a〈d
	어머니와 동거(b)	1,390	2.54	0.859		
	아버지와 동거(c)	711	2.65	0.824		
	동거부모 없음(d)	506	2.58	0.867		
합계		18,603	2.40	0.845		

*p〈.05, **p〈.01, ***p〈.001

일반고 학생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이고 부모와 거주하지 않는 학생의 수업부적응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초등학생,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업성적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수업 부적응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지역 규모, 학년, 성별, 부모의 직업 유무 등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표 Ⅴ-1-5〉 수업부적응의 학생 배경 변수별 차이(일반고)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286	2.44	0.813	3.455*	
	광역시(b)	5,238	2.45	0.814		
	중소 도시(c)	8,832	2.48	0.810		
	읍면(d)	1,669	2.45	0.792		
합계		19,025	2.46	0.810		
학년	1학년(a)	6,437	2.46	0.828	.102	
	2학년(b)	6,319	2.46	0.800		
	3학년(c)	6,240	2.46	0.800		
합계		18,996	2.46	0.810		
성별	남자(a)	10,318	2.45	0.817	5.732*	a〈b
	여자(b)	8,639	2.48	0.800		
합계		18,957	2.46	0.810		
성적수준	하(a)	7,213	2.73	0.814	817.448***	a〉b, a〉c, b〉c
	중(b)	6,139	2.40	0.737		
	상(c)	5,464	2.18	0.773		
합계		18,816	2.46	0.810		
부학력	고졸이하(a)	7,980	2.50	0.800	53.066***	a〉b
	2년제대졸이상(b)	9,965	2.41	0.814		
합계		17,945	2.45	0.809		
모학력	고졸이하(a)	10,497	2.49	0.803	50.391***	a〉b
	2년제대졸이상(b)	7,424	2.40	0.816		
합계		17,921	2.45	0.809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2,783	2.52	0.808	10.049***	a〉b, a〉c, a〉d
	201~400만원 이하(b)	7,477	2.45	0.791		
	401~600만원 이하(c)	4,340	2.43	0.812		
	601만원 이상(d)	2,505	2.42	0.862		
합계		17,105	2.45	0.811		
부직업	있음(a)	17,885	2.46	0.808	3.793	
	없음(b)	725	2.52	0.843		
합계		18,610	2.46	0.810		
모직업	있음(a)	12,739	2.47	0.817	5.979*	a〉b
	없음(b)	5,860	2.44	0.796		
합계		18,599	2.46	0.810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339	2.44	0.805	25.413***	a<b, a<c, a<d, b<d
	어머니와 동거(b)	1,573	2.55	0.819		
	아버지와 동거(c)	623	2.58	0.811		
	동거부모 없음(d)	490	2.68	0.881		
합계		19,025	2.46	0.810		

*p<.05, **p<.01, ***p<.001

특성화고 학생은 2학년, 여학생,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이고 양친 부모와 거주하지 않는 학생의 부적응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초등학생,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생이 소규모 지역에 거주할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다. 다른 학교급과는 달리 가정의 월평균 소득과 부모의 직업 유무 등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표 V-1-6〉 수업부적응의 학생 배경 변수별 차이(특성화고)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1,551	2.59	0.783	4.932**	d>a d>b
	광역시(b)	3,242	2.61	0.846		
	중소 도시(c)	5,028	2.65	0.834		
	읍면(d)	2,286	2.68	0.825		
합계		12,107	2.64	0.830		
학년	1학년(a)	4,234	2.63	0.834	12.212***	b>a b>c
	2학년(b)	3,894	2.69	0.806		
	3학년(c)	3,962	2.60	0.845		
합계		12,090	2.64	0.830		
성별	남자(a)	6,154	2.59	0.836	54.120***	b>a
	여자(b)	5,909	2.70	0.819		
합계		12,063	2.64	0.830		
성적수준	하(a)	4,543	2.87	0.837	350.005***	a>b a>c b>c
	중(b)	3,406	2.59	0.790		
	상(c)	4,077	2.42	0.786		
합계		12,026	2.64	0.830		
부학력	고졸이하(a)	7,625	2.65	0.822	8.918**	a>b
	2년제대졸이상(b)	3,022	2.60	0.853		
합계		10,647	2.64	0.831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모학력	고졸이하(a)	8,387	2.65	0.824	9.187**	a>b
	2년제대졸이상(b)	2,235	2.59	0.859		
합계		10,622	2.64	0.832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871	2.64	0.817	1.152	
	201~400만원 이하(b)	4,692	2.64	0.818		
	401~600만원 이하(c)	1,576	2.60	0.849		
	601만원 이상(d)	612	2.65	0.947		
합계		10,751	2.64	0.830		
부직업	있음(a)	10,576	2.64	0.830	.843	
	없음(b)	893	2.62	0.836		
합계		11,469	2.64	0.831		
모직업	있음(a)	8,245	2.64	0.832	.609	
	없음(b)	3,249	2.63	0.829		
합계		11,494	2.64	0.831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723	2.62	0.830	4.757**	
	어머니와 동거(b)	1,734	2.67	0.830		
	아버지와 동거(c)	957	2.69	0.789		
	동거부모 없음(d)	693	2.70	0.876		
합계		12,107	2.64	0.830		

*p<.05, **p<.01, ***p<.001

나. 교사관계 부적응

학생들의 교사관계 부적응 양상과 정도는 3개의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표 Ⅴ-1-7〉의 문항별 점수를 보면 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부적응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학생들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교사에게 대들거나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피해 다니는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학교급별 차이를 보면 모든 문항에서 초등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특성화고 학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일반고 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Ⅴ-1-7〉 교사관계 부적응 양상과 정도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나는 선생님에게 대든다	초등학교(a)	9,669	1.34	.691	414.163***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584	1.59	.859		
	일반고(c)	19,019	1.47	.773		
	특성화고(d)	12,102	1.70	.925		
합계		59,374	1.53	.830		
나는 선생님의 지시를 무시한다	초등학교(a)	9,664	1.36	.692	448.723***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591	1.63	.859		
	일반고(c)	19,014	1.53	.801		
	특성화고(d)	12,103	1.76	.915		
합계		59,372	1.58	.837		
나는 선생님과 마주치기 싫어서 피해 다닌다	초등학교(a)	9,667	1.38	.774	400.486***	a〈b, a〈c, a〈d, b〈d, c〈d
	중학교(b)	18,587	1.66	.934		
	일반고(c)	19,016	1.65	.917		
	특성화고(d)	12,101	1.81	.980		
합계		59,371	1.64	.923		

*p〈.05, **p〈.01, ***p〈.001

학생들의 배경 변수에 따른 차이를 보면 초등학생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 어머니가 직업이 있으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더 부정적이다.

〈표 Ⅴ-1-8〉 교사관계 부적응의 학생 배경 변수별 차이(초등학교)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1,850	1.32	0.621	3.766*	a〈d
	광역시(b)	2,647	1.35	0.637		
	중소 도시(c)	4,615	1.36	0.645		
	읍면(d)	561	1.43	0.708		
합계		9,673	1.35	0.643		
성별	남자(a)	4,933	1.41	0.693	84.837***	a〉b
	여자(b)	4,691	1.29	0.579		
합계		9,624	1.35	0.643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성적수준	하(a)	1,300	1.52	0.757	75.022***	a>b, a>c, b>c
	중(b)	4,233	1.37	0.655		
	상(c)	3,845	1.27	0.571		
합계		9,378	1.35	0.643		
부학력	고졸이하(a)	2,431	1.37	0.655	8.390**	a>b
	2년제대졸이상(b)	4,829	1.33	0.630		
합계		7,260	1.34	0.639		
모학력	고졸이하(a)	2,954	1.37	0.663	8.600**	a>b
	2년제대졸이상(b)	4,402	1.33	0.620		
합계		7,356	1.34	0.638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1,567	1.35	0.621	.313	
	201~400만원 이하(b)	2,978	1.35	0.629		
	401~600만원 이하(c)	1,990	1.35	0.663		
	601만원 이상(d)	1,221	1.37	0.671		
합계		7,756	1.35	0.643		
부직업	있음(a)	9,090	1.34	0.634	5.349*	a<b
	없음(b)	257	1.44	0.722		
합계		9,347	1.35	0.636		
모직업	있음(a)	6,420	1.37	0.653	23.515***	a>b
	없음(b)	2,886	1.30	0.596		
합계		9,306	1.35	0.637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473	1.34	0.631	9.496***	a<b
	어머니와 동거(b)	680	1.47	0.746		
	아버지와 동거(c)	281	1.39	0.633		
	동거부모 없음(d)	239	1.42	0.719		
합계		9,673	1.35	0.643		

*p<.05, **p<.01, ***p<.001

중학생은 중소 도시와 읍면 거주, 2학년,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 어머니가 직업이 있고,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더 부정적이다.

〈표 Ⅴ-1-9〉 교사관계 부적응의 학생 배경 변수별 차이(중학교)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341	1.57	0.791	21.121***	a<c, a<d, b<c, b<d, c<d
	광역시(b)	4,934	1.56	0.795		
	중소 도시(c)	8,479	1.63	0.823		
	읍면(d)	1,846	1.72	0.866		
합계		18,600	1.61	0.816		
학년	1학년(a)	6,354	1.52	0.752	66.834***	a<b, a<c
	2학년(b)	6,138	1.67	0.851		
	3학년(c)	6,081	1.65	0.834		
합계		18,573	1.61	0.816		
성별	남자(a)	9,314	1.67	0.859	103.755***	a>b
	여자(b)	9,180	1.55	0.765		
합계		18,494	1.61	0.816		
성적수준	하(a)	6,934	1.78	0.905	282.033***	a>b, a>c, b>c
	중(b)	4,949	1.60	0.780		
	상(c)	6,394	1.45	0.702		
합계		18,277	1.61	0.817		
부학력	고졸이하(a)	6,585	1.66	0.833	80.715***	a>b
	2년제대졸이상(b)	9,041	1.55	0.781		
합계		15,626	1.60	0.805		
모학력	고졸이하(a)	7,877	1.64	0.818	45.175***	a>b
	2년제대졸이상(b)	7,762	1.55	0.785		
합계		15,639	1.59	0.803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081	1.64	0.838	1.474	
	201~400만원 이하(b)	6,421	1.61	0.803		
	401~600만원 이하(c)	3,729	1.60	0.806		
	601만원 이상(d)	2,387	1.60	0.854		
합계		15,618	1.61	0.819		
부직업	있음(a)	17,498	1.61	0.813	.069	
	없음(b)	587	1.62	0.846		
합계		18,085	1.61	0.814		
모직업	있음(a)	12,336	1.63	0.821	18.825***	a>b
	없음(b)	5,648	1.57	0.794		
합계		17,984	1.61	0.813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5,993	1.59	0.799	31.098***	a<b, a<c, a<d
	어머니와 동거(b)	1,390	1.70	0.862		
	아버지와 동거(c)	711	1.79	0.949		
	동거부모 없음(d)	506	1.81	0.927		
합계		18,600	1.61	0.816		

*p<.05, **p<.01, ***p<.001

일반고 학생은 읍면 지역 거주, 남학생,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학년과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더 부정적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데 비해 일반고 학생은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201~400만원 이하 집단의 교사관계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고, 200만원 이하거나 400만원 이상인 집단의 교사관계가 보다 부정적이다.

〈표 Ⅴ-1-10〉 교사관계 부적응의 학생 배경 변수별 차이(일반고)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285	1.50	0.763	8.104***	a<d, b<c, b<d
	광역시(b)	5,238	1.47	0.712		
	중소 도시(c)	8,830	1.51	0.749		
	읍면(d)	1,669	1.56	0.791		
합계		19,022	1.50	0.746		
학년	1학년(a)	6,437	1.53	0.771	10.783***	a>c, b>c
	2학년(b)	6,318	1.51	0.746		
	3학년(c)	6,238	1.47	0.717		
합계		18,993	1.50	0.746		
성별	남자(a)	10,317	1.59	0.814	309.217***	a>b
	여자(b)	8,637	1.40	0.638		
합계		18,954	1.50	0.745		
성적수준	하(a)	7,213	1.62	0.825	168.507***	a>b, a>c, b>c
	중(b)	6,138	1.45	0.683		
	상(c)	5,462	1.40	0.681		
합계		18,813	1.50	0.747		
부학력	고졸이하(a)	7,980	1.50	0.738	1.977	
	2년제대졸이상(b)	9,963	1.48	0.740		
합계		17,943	1.49	0.739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모학력	고졸이하(a)	10,495	1.49	0.732	.819	
	2년제대졸이상(b)	7,424	1.48	0.743		
합계		17,919	1.49	0.736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2,782	1.51	0.739	8.392***	a〉b, b〈c, b〈d
	201~400만원 이하(b)	7,475	1.46	0.709		
	401~600만원 이하(c)	4,340	1.50	0.745		
	601만원 이상(d)	2,505	1.54	0.819		
합계		17,102	1.49	0.741		
부직업	있음(a)	17,883	1.50	0.742	2.163	
	없음(b)	724	1.54	0.785		
합계		18,607	1.50	0.743		
모직업	있음(a)	12,737	1.50	0.748	3.425	
	없음(b)	5,859	1.48	0.731		
합계		18,596	1.50	0.743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337	1.49	0.734	17.239***	a〈b, a〈c, a〈d, b〈d
	어머니와 동거(b)	1,572	1.55	0.784		
	아버지와 동거(c)	623	1.58	0.798		
	동거부모 없음(d)	490	1.69	0.895		
합계		19,022	1.50	0.746		

*p〈.05, **p〈.01, ***p〈.001

특성화고 학생은 소규모 지역에 거주할수록, 학업성적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리고 2학년, 남학생, 아버지와 동거하거나 동거 부모가 없는 학생이 교사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다. 부모의 학력과 직업 유무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1-11〉 교사관계 부적응의 학생배경 변수별 차이(특성화고)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1,551	1.63	0.789	23.098***	c〉a d〉a d〉b d〉c
	광역시(b)	3,242	1.69	0.863		
	중소 도시(c)	5,028	1.73	0.888		
	읍면(d)	2,286	1.85	0.902		
합계		12,107	1.73	0.874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학년	1학년(a)	4,234	1.71	0.874	12.068***	b〉a b〉c
	2학년(b)	3,894	1.78	0.886		
	3학년(c)	3,962	1.69	0.858		
합계		12,090	1.73	0.874		
성별	남자(a)	6,154	1.83	0.931	165.490***	a〉b
	여자(b)	5,909	1.62	0.798		
합계		12,063	1.73	0.874		
성적수준	하(a)	4,543	1.89	0.942	134.132***	a〉b a〉c b〉c
	중(b)	3,406	1.68	0.822		
	상(c)	4,077	1.59	0.808		
합계		12,026	1.73	0.874		
부학력	고졸이하(a)	7,625	1.72	0.862	.254	
	2년제대졸이상(b)	3,022	1.73	0.893		
합계		10,647	1.72	0.871		
모학력	고졸이하(a)	8,387	1.70	0.856	3.691	
	2년제대졸이상(b)	2,235	1.74	0.915		
합계		10,622	1.71	0.869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871	1.68	0.851	13.755***	d〉a d〉b d〉c
	201~400만원 이하(b)	4,692	1.72	0.849		
	401~600만원 이하(c)	1,576	1.73	0.892		
	601만원 이상(d)	612	1.92	1.089		
합계		10,751	1.72	0.873		
부직업	있음(a)	10,576	1.73	0.876	.053	
	없음(b)	893	1.72	0.898		
합계		11,469	1.73	0.878		
모직업	있음(a)	8,245	1.72	0.867	.279	
	없음(b)	3,249	1.71	0.887		
합계		11,494	1.72	0.873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723	1.71	0.871	9.394***	c〉a d〉a c〉b d〉b
	어머니와 동거(b)	1,734	1.71	0.848		
	아버지와 동거(c)	957	1.82	0.888		
	동거부모 없음(d)	693	1.85	0.940		
합계		12,107	1.73	0.874		

*p〈.05, **p〈.01, ***p〈.001

다. 학교규범 부적응

학교규범 부적응 조사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표 V-1-12〉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학교의 규범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6개 문항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나는 두발과 복장 규정을 위반한다”(1.70), “나는 자주 지각을 한다”(1.49), “나는 다른 학생을 때린다”(1.48), “나는 다른 학생을 괴롭힌다”(1.37) 등이다.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이 행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최근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와 궤를 같이하는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정도는 중학교와 특성화고에서 초등학교와 일반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1-12〉 학교규범 부적응의 양상과 정도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나는 다른 학생을 때린다	초등학교(a)	9,667	1.50	.795	127.297***	a〈b, a〉c, b〉c, c〈d
	중학교(b)	18,589	1.53	.801		
	일반고(c)	19,021	1.39	.737		
	특성화고(d)	12,098	1.53	.842		
합계		59,375	1.48	.791		
나는 다른 학생을 괴롭힌다(인터넷을 통한 괴롭힘 포함)	초등학교(a)	9,662	1.28	.628	173.842***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591	1.41	.741		
	일반고(c)	19,013	1.33	.687		
	특성화고(d)	12,103	1.47	.822		
합계		59,369	1.37	.728		
나는 다른 학생에게 심부름(서틀)을 시킨다	초등학교(a)	9,663	1.16	.479	283.393***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595	1.30	.658		
	일반고(c)	19,013	1.26	.627		
	특성화고(d)	12,105	1.41	.780		
합계		59,376	1.29	.655		
나는 다른 학생의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다	초등학교(a)	9,662	1.11	.403	300.869***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589	1.25	.614		
	일반고(c)	19,015	1.22	.593		
	특성화고(d)	12,102	1.35	.748		
합계		59,368	1.24	.614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나는 학교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한다	초등학교(a)	9,658	1.14	.446	222.521***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590	1.26	.628		
	일반고(c)	19,015	1.23	.605		
	특성화고(d)	12,102	1.36	.746		
합계		59,365	1.25	.625		
나는 학교 생활과 무관한 물품(사복, 음란서적, 게임기)을 가지고 다닌다	초등학교(a)	0	.	.	117.222***	
	중학교(b)	18,587	1.33	.720		
	일반고(c)	19,010	1.32	.711		
	특성화고(d)	12,103	1.44	.832		
합계		49,700	1.35	.747		
나는 두발, 복장 규정을 위반한다	초등학교(a)	0	.	.	144.453***	
	중학교(b)	18,587	1.63	.931		
	일반고(c)	19,011	1.68	.927		
	특성화고(d)	12,103	1.82	.993		
합계		49,701	1.70	.948		
나는 학교에서 담배를 피운다	초등학교(a)	9,669	1.05	.293	792.197***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589	1.18	.580		
	일반고(c)	19,012	1.23	.683		
	특성화고(d)	12,104	1.47	.955		
합계		59,374	1.24	.688		
나는 학교에서 술을 마신다	초등학교(a)	9,668	1.05	.280	353.528***	a<b, a<c, a<d, b<d, c<d
	중학교(b)	18,592	1.17	.549		
	일반고(c)	19,016	1.17	.557		
	특성화고(d)	12,102	1.29	.724		
합계		59,378	1.17	.565		
나는 성(性)적인 비행(성희롱, 이성교제로 인한 일탈행위 등)을 한다	초등학교(a)	9,624	1.06	.310	319.408***	a<b, a<c, a<d, b<d, c<d
	중학교(b)	18,593	1.18	.573		
	일반고(c)	19,015	1.20	.604		
	특성화고(d)	12,102	1.31	.740		
합계		59,334	1.19	.594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나는 무단 결석을 한다	초등학교(a)	9,629	1.10	.411	247.158***	a<b, a<c, a<d, b<d, c<d
	중학교(b)	18,433	1.15	.523		
	일반고(c)	18,838	1.14	.520		
	특성화고(d)	12,017	1.28	.716		
합계		58,917	1.17	.555		
나는 무단조퇴를 한다	초등학교(a)	9,625	1.07	.385	225.742***	a<b, a<c, a<d, b<d, c<d
	중학교(b)	18,430	1.14	.496		
	일반고(c)	18,840	1.14	.510		
	특성화고(d)	12,016	1.25	.675		
합계		58,911	1.15	.529		
나는 자주 지각을 한다	초등학교(a)	9,625	1.42	.857	148.179***	a<c, a<d, b<c, b<d, c<d
	중학교(b)	18,430	1.45	.892		
	일반고(c)	18,833	1.48	.929		
	특성화고(d)	12,012	1.65	1.068		
합계		58,900	1.49	.940		
나는 수업 시간을 몰래 빼먹는다	초등학교(a)	9,622	1.06	.326	252.067***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389	1.15	.530		
	일반고(c)	18,801	1.17	.559		
	특성화고(d)	11,985	1.27	.692		
합계		58,797	1.17	.554		
나는 학교 일과 시간에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간다	초등학교(a)	9,627	1.10	.430	214.369***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18,425	1.19	.599		
	일반고(c)	18,830	1.25	.648		
	특성화고(d)	12,009	1.31	.746		
합계		58,891	1.22	.628		
나는 공식적인 징계(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를 받은 적이 있다*	초등학교(a)	0	.	.	227.847***	
	중학교(b)	18,427	1.23	.701		
	일반고(c)	18,835	1.23	.705		
	특성화고(d)	12,014	1.40	.909		
합계		49,276	1.27	.762		

*p<.05, **p<.01, ***p<.001

* 이 문항은 초등학생에게 질문하지 않았음.

학교규범 부적응의 학생 배경 변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읍면 지역 거주, 남학생,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 아버지가 직업이 없고 어머니가 직업이 있으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의 규범부적응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학업성적이 낮고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 집단의 규범부적응 정도가 나머지 집단에 비해 다소 높다.

〈표 Ⅴ-1-13〉 규범부적응의 학생 배경 변수별 차이(초등학교)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1,865	1.18	0.353	6.048***	a<d, b<d, c<d
	광역시(b)	2,659	1.18	0.316		
	중소 도시(c)	4,641	1.19	0.331		
	읍면(d)	564	1.24	0.371		
합계		9,729	1.19	0.334		
성별	남자(a)	4,976	1.22	0.372	93.248***	a>b
	여자(b)	4,703	1.15	0.286		
합계		9,679	1.19	0.334		
성적수준	하(a)	1,316	1.30	0.444	124.572***	a>b, a>c, b>c
	중(b)	4,254	1.19	0.333		
	상(c)	3,862	1.14	0.265		
합계		9,432	1.19	0.330		
부학력	고졸이하(a)	2,448	1.21	0.340	28.141***	a>b
	2년제대졸이상(b)	4,853	1.17	0.311		
합계		7,301	1.18	0.321		
모학력	고졸이하(a)	2,973	1.20	0.333	10.914**	a>b
	2년제대졸이상(b)	4,423	1.17	0.316		
합계		7,396	1.18	0.323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1,581	1.21	0.340	3.712*	a>c, a>d
	201~400만원 이하(b)	2,989	1.18	0.331		
	401~600만원 이하(c)	2,001	1.18	0.320		
	601만원 이상(d)	1,231	1.17	0.347		
합계		7,802	1.18	0.333		
부직업	있음(a)	9,140	1.18	0.322	13.274***	a<b
	없음(b)	259	1.26	0.474		
합계		9,399	1.18	0.328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모직업	있음(a)	6,453	1.20	0.339	23.973***	a〉b
	없음(b)	2,908	1.16	0.305		
합계		9,361	1.18	0.329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517	1.18	0.320	24.860***	a〈b, a〈c, a〈d
	어머니와 동거(b)	688	1.27	0.427		
	아버지와 동거(c)	282	1.24	0.332		
	동거부모 없음(d)	242	1.27	0.455		
합계		9,729	1.19	0.334		

*p〈.05, **p〈.01, ***p〈.001

중학생은 읍면 지역 거주, 2~3학년, 남학생,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 어머니가 직업이 있고,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의 규범부적응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월평균 가정의 소득이 601만원 이상과 200만원 이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범 부적응 정도가 높다. 아버지의 직업 유무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표 V-1-14〉 규범부적응의 학생 배경 변수별 차이(중학교)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359	1.25	0.488	13.468***	a〉b, a〈d, b〈c, b〈d, c〈d
	광역시(b)	4,960	1.22	0.445		
	중소 도시(c)	8,537	1.26	0.494		
	읍면(d)	1,858	1.30	0.521		
합계		18,714	1.25	0.484		
학년	1학년(a)	6,396	1.22	0.430	24.230***	a〈b, a〈c
	2학년(b)	6,179	1.27	0.500		
	3학년(c)	6,112	1.27	0.517		
합계		18,687	1.25	0.484		
성별	남자(a)	9,395	1.33	0.550	485.947***	a〉b
	여자(b)	9,212	1.17	0.388		
합계		18,607	1.25	0.483		
성적수준	하(a)	6,985	1.32	0.546	136.770***	a〉b, a〉c, b〉c
	중(b)	4,985	1.24	0.457		
	상(c)	6,421	1.19	0.419		
합계		18,391	1.25	0.484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부학력	고졸이하(a)	6,625	1.27	0.485	27.437***	a〉b
	2년제대졸이상(b)	9,094	1.23	0.464		
합계		15,719	1.24	0.473		
모학력	고졸이하(a)	7,918	1.25	0.471	9.768**	a〉b
	2년제대졸이상(b)	7,813	1.23	0.468		
합계		15,731	1.24	0.47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100	1.27	0.494	4.414**	b〈d
	201~400만원 이하(b)	6,452	1.24	0.456		
	401~600만원 이하(c)	3,752	1.25	0.480		
	601만원 이상(d)	2,406	1.28	0.558		
합계		15,710	1.25	0.486		
부직업	있음(a)	17,603	1.25	0.480	.577	
	없음(b)	589	1.27	0.511		
합계		18,192	1.25	0.481		
모직업	있음(a)	12,415	1.26	0.490	10.133**	a〉b
	없음(b)	5,675	1.23	0.458		
합계		18,090	1.25	0.48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092	1.24	0.477	20.631***	a〈b, a〈c, a〈d, b〈d
	어머니와 동거(b)	1,396	1.28	0.480		
	아버지와 동거(c)	715	1.34	0.519		
	동거부모 없음(d)	511	1.37	0.602		
합계		18,714	1.25	0.484		

*p〈.05, **p〈.01, ***p〈.001

일반고 학생은 광역시 학생이 규범부적응 정도가 가장 낮고, 읍면 지역 학생이 가장 높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201~400만원 이하 학생의 규범 부적응 정도가 가장 낮고, 601만원 이상의 학생이 가장 높다. 그리고 학년과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남학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의 규범 부적응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아버지가 직업이 없고,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집단의 부적응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Ⅴ-1-15〉 규범부적응의 학생 배경 변수별 차이(일반고)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296	1.24	0.515	6.682***	a〉b, b〈c, b〈d
	광역시(b)	5,257	1.20	0.451		
	중소 도시(c)	8,869	1.23	0.490		
	읍면(d)	1,675	1.25	0.499		
합계		19,097	1.23	0.485		
학년	1학년(a)	6,464	1.24	0.500	6.025**	a〉c
	2학년(b)	6,343	1.23	0.490		
	3학년(c)	6,261	1.21	0.464		
합계		19,068	1.23	0.485		
성별	남자(a)	10,367	1.31	0.556	665.079***	a〉b
	여자(b)	8,662	1.13	0.359		
합계		19,029	1.23	0.485		
성적수준	하(a)	7,244	1.28	0.537	63.869***	a〉b, a〉c
	중(b)	6,158	1.20	0.441		
	상(c)	5,486	1.19	0.456		
합계		18,888	1.23	0.486		
부학력	고졸이하(a)	8,012	1.22	0.469	.318	
	2년제대졸이상(b)	10,002	1.22	0.479		
합계		18,014	1.22	0.475		
모학력	고졸이하(a)	10,538	1.22	0.467	.451	
	2년제대졸이상(b)	7,450	1.22	0.479		
합계		17,988	1.22	0.472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2,790	1.22	0.485	16.086***	a〈d, b〈c, b〈d, c〈d
	201~400만원 이하(b)	7,511	1.20	0.440		
	401~600만원 이하(c)	4,353	1.23	0.486		
	601만원 이상(d)	2,515	1.27	0.562		
합계		17,169	1.22	0.479		
부직업	있음(a)	17,950	1.22	0.481	6.284*	a〈b
	없음(b)	729	1.27	0.596		
합계		18,679	1.23	0.486		
모직업	있음(a)	12,775	1.23	0.486	5.516*	a〉b
	없음(b)	5,892	1.21	0.470		
합계		18,667	1.22	0.481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398	1.22	0.477	12.874***	a<c, a<d, b<d
	어머니와 동거(b)	1,579	1.23	0.485		
	아버지와 동거(c)	627	1.28	0.522		
	동거부모 없음(d)	493	1.34	0.656		
합계		19,097	1.23	0.485		

*p<.05, **p<.01, ***p<.001

특성화고 학생은 거주하는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남학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이 규범부적응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특성화고 학생은 다른 학교급과 달리, 부모의 학력이 2년제 대졸 이상, 특히 어머니의 학력이 2년제 대졸 이상 집단의 규범부적응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은 집단의 규범부적응 정도가 높다. 일반고 학생과 달리 학년별 차이는 없으며,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Ⅴ-1-16〉 규범부적응의 학생 배경 변수별 차이(특성화고)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1,560	1.24	0.502	26.642***	b>a c>a d>a d>b d>c
	광역시(b)	3,258	1.33	0.604		
	중소 도시(c)	5,053	1.36	0.632		
	읍면(d)	2,297	1.41	0.654		
합계		12,168	1.35	0.616		
학년	1학년(a)	4,259	1.34	0.618	.851	
	2학년(b)	3,910	1.36	0.620		
	3학년(c)	3,982	1.34	0.610		
합계		12,151	1.35	0.616		
성별	남자(a)	6,197	1.46	0.694	487.728***	a>b
	여자(b)	5,926	1.22	0.493		
합계		12,123	1.35	0.616		
학업성적수준	하(a)	4,572	1.43	0.683	78.375***	a>b a>c b>c
	중(b)	3,420	1.32	0.577		
	상(c)	4,095	1.27	0.554		
합계		12,087	1.35	0.616		
부학력	고졸이하(a)	7,662	1.33	0.590	5.144*	b>a
	2년제대졸이상(b)	3,041	1.36	0.646		
합계		10,703	1.34	0.606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모학력	고졸이하(a)	8,427	1.32	0.582	19.033***	b〉a
	2년제대졸이상(b)	2,252	1.38	0.676		
합계		10,679	1.33	0.603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891	1.32	0.595	30.924***	d〉a d〉b d〉c
	201~400만원 이하(b)	4,718	1.32	0.573		
	401~600만원 이하(c)	1,581	1.36	0.626		
	601만원 이상(d)	617	1.56	0.864		
합계		10,807	1.34	0.612		
부직업	있음(a)	10,627	1.34	0.612	4.612*	b〉a
	없음(b)	902	1.39	0.681		
합계		11,529	1.35	0.618		
모직업	있음(a)	8,287	1.34	0.609	.127	
	없음(b)	3,266	1.34	0.621		
합계		11,553	1.34	0.612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762	1.33	0.611	8.781***	d〉a d〉b
	어머니와 동거(b)	1,745	1.34	0.595		
	아버지와 동거(c)	962	1.38	0.618		
	동거부모 없음(d)	699	1.45	0.710		
합계		12,168	1.35	0.616		

*p〈.05, **p〈.01, ***p〈.001

이제까지 살펴본 학생 부적응 양상과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수업, 교사와의 관계, 학교규범 등 세 가지 측면의 부적응 평균 점수가 3점 미만이므로 그 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수업부적응 점수는 다른 두 가지 측면의 부적응 점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른 것보다 수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학교의 핵심적 활동이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부적응이 경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타난 것은 학생 관점에서 학교 수업의 문제와 한계를 다각도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수업부적응 정도는 대체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커지며, 일반고 학생보다는 특성화고 학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학생들이 많이 드러내는 수업부적응 행동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멍하게 앉아 있음”이며, 그 다음은 “딴 짓을 함”, “잠을 잠” 순이다. 즉,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딴 짓을 하거나, 멍하게 앉아 있는 중등학생 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사관계 부적응 행동에 대한 평균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교사관계 부적응으로 규정한, 교사에게 대들고,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교사를 피해 다니는 행동은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규범 부적응 정도 역시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규범 부적응 행동 중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난 문항은 두발과 복장 규정을 위반하고, 지각을 하며,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것이다. 이런 행동에 대한 점수가 그다지 높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부적응이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폭력'으로 표출되는 점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배경 변수에 따른 부적응 정도의 차이를 보면 대체로 학업성적이 낮고, 부모의 학력이 낮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와 동거하지 않은 경우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거주 지역에 따른 부적응 정도의 차이는 학교급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 학교 부적응 유형

5개 학교에 대한 사례 조사 결과 학생들의 부적응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별되었다. 그것은 부모 관련 부적응, 친구 관련 부적응, 진로 관련 부적응, 학습 관련 부적응, 훈육 관련 부적응, 용모 규범 관련 부적응이다. 이렇게 유형을 구분한 주요 기준은 부적응을 나타나게 한 원인이다. 하지만 부적응의 원인이 일차적인 원인인지, 이미 나타난 부적응 현상을 강화한 원인인지는 이 연구에서 밝히지 못하였다. 예컨대 가정의 불화와 폭력으로 인해 분노와 좌절이 잠재해 있는 상태에서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교사의 태도 또는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일탈이 표출되면서 학습 거부와 부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학습 결손이 누적되고 따돌림을 받으면서 우울증과 소극적인 태도가 형성되고 그 결과 학습 무기력증에 빠지면서 다시 따돌림과 무력감이 강화되는 학생도 있다. 이렇게 학생들이 각기 다른 상황과 맥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를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를 좀 더 명료하게 규명하는 일은 정교한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 제시한 부적응 유형이 원인을 토대로 규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각 부적응 유형이 상호 배타적인 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한 학생에게 어느 하나의 부적응 유형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유형이 특정 상황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듯 부적응 유형화 작업의 모호성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부적응을 유형화한 이유는 논의와 분석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에 기초한 문제 해결의 단초를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이 조사에서 확인된 각 유형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부모 관련 부적응

1) 갈등 표출형

교사들이 연구자에게 "부적응" 학생이라고 지목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규범과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태도를 자주 보이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가출, 무단결석, 폭력, 절도, 흡연, 음주, 짙은 화장과 염색을 하며, 학습 부진, 높은 우울증과 자살 충동, 외톨이, 수업 중에 잠자거나 딴 짓을 하는 것이 일상인 학생들이다. 교사들은 "문제 학생 뒤에는 문제 부모" 또는 "문제 가정"이 있다고 말한다. 연구자 역시 "부적응" 학생들의 상당수가 부모와의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교급, 지역, 학교 유형, 성별과 관계없이 그러했다.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음주 후 자녀에게 가하는 신체, 언어, 성폭력이다.[1]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가출, 무단결석, 폭력, 음주, 흡연, 두통, 불안, 우울증, 무력증 등의 문제를 보였다. 대표적인 예가 누리중의 지은 남매다.[2] 지은이의 부모는 20세가 되지 않은 나이에 결혼하였는데, 도축업 일을 하는 아버지의 음주 후 잦은 폭력으로 어머니가 여러 번 가출하였다. 아이들만 집에 있게 된 상황에서 아버지는 자매에게 신체 폭력과 성폭력을 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상담 교사가 지은이와의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지은 아버지는 이로 인해 현재 수감 중이다. 지은이는 신체 폭력과 성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가 깊어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허리가 아픈 어머니는 집에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데, 하루에 담배를 두 갑 정도 피우다 요즘은 한 갑으로 줄인 상태다. 삼남매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굶을 때가 많았다. 이는 돈이 없어서이기도 하였지만 부모가 식사 등 기본적인 보살핌을 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인 지은이의 언니는 심각한 인터

1)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면담을 실시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왜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는가를 면밀하게 밝혀보아야 한다. 단순히 부모 개인을 문제 원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단견일 수 있다. 예컨대 실직, 직장에서의 억압 등으로 인해 부모가 가정에서 좀 더 자신보다 약한 대상인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 이상, 예컨대 충동 조절 능력 부족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 이 연구에서 언급되는 학교와 학생의 이름은 모두 가명임.

넷 중독 상태이고, 누리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지은이의 오빠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흡연을 하였고, 어머니의 잔소리가 싫어서 10번 정도 가출하였으며, 수업을 거부해서 현재 상담실에 상주하고 있다. 지은이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흡연을 하였고 현재 누리중학교에서 금연 교육을 받고 있다. 한편 이레고의 김영석은 새 엄마와의 갈등이 크다. 영석이가 술을 마신 후 자고 있는데 새 엄마가 때리고, 열쇠로 머리를 찍는 등의 폭력을 가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10번 정도 하였고 이로 인한 무단결석과 무단외출 등으로 벌점이 많다. 영석이는 남들 눈에는 자신이 나쁘게 비칠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지도 않고, 수업 시간에도 필기를 열심히 하고, 담배도 줄이고 있기 때문에 학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학교에 오는 날에는 수업 시간에 필기를 열심히 하곤 하는데, 이는 수업 내용에 대한 관심보다는 글씨 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장점이 글씨 잘 쓰는 것이라고 했다.

2) 갈등 회피형

부모와의 불화나 갈등이 언제나 가시적인 학교 부적응으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강상고의 민숙이는 만성두통을 앓고 있다. 그는 부모가 자주 싸워서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가 마음 편하다. 그렇다고 학교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구실”이고 “그냥” 다니는 곳이다. 고담중에서 최상위권 학업성적을 보이는 중산층 출신의 진석이는 부모에 대한 불만이 높지만 학교 규범을 어기지 않는 소위 “모범생”이다. 진석이는 강도 높은 학습 부담이 예상되는 기숙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다. 그는 생활 태도와 학습에 대해서 간섭과 통제가 많은 부모와 떨어져 살 수만 있다면 어느 학교를 가든지 상관없다. 그는 고담중이 썩 마음에 들지 않고, 학원과 과외를 통해서 선행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흥미 없고 지루해서 수업 태도도 좋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집보다 학교가 좋고 마음 편하며 부모보다는 교사가 좋다. 민숙과 진석이에게 학교는 재미없는 곳이지만 그래도 부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도피처다.[3)]

3) 부모 관련 부적응의 조건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부모와의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항상 부적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마이스터

3) 진석은 불만과 갈등을 유예하거나 감추고 있을 수 있다. 평소 행동에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모범생”들이 부모의 많은 간섭과 높은 기대로 인해 자살이나 가출 등의 문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매스컴에 소개되고 있듯이 이들의 행동과 심리, 태도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인 한라고 학생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고, 한부모 학생들도 제법 있지만 “부적응”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렵고 가정불화가 있지만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학교 규범을 어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좋은 학업성적을 받게 되면 학교와 사회에서 “우수 학생”이라는 인정과 관심을 받고, 행동에서도 “모범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게 되고 학생들이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학업성적이라는 성취가 주는 사회적 이익에 대비해 일탈로 인한 사회적 손해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이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일탈 행위를 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학교는 그들을 더 좋은 또는 안정된 사회적 위치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디딤돌이며 자존감의 중요한 토대이므로 학교 규범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 다른 변수는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고 한 명의 보호자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한 명의 보호자가 학생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경우, 그 학생은 학교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경향이 있다. 설령 문제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 보호자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보인다. 또 다른 경우는 설혹 부모들 간에는 사이가 좋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비교적 우호적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의 불화나 이혼과 재혼 또는 어려운 가정 형편이란 사실 하나만으로 부모 관련 부적응이 나타난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나. 친구 관련 부적응

1) 외톨이형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주요 이유나 의미를 친구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에 두었다. 이 역시 계열의 차이나, 학교급의 차이, 지역의 차이, 성별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중요한 타자인 친구로부터의 거부, 즉 따돌림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큰 문제다. 또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때 청소년들은 높은 우울증과 자살 충동, 자신감 저하, 무력증, 학교 다니기 싫어하기 등의 증세를 보인다. 일시적으로 따돌림을 받는 학생들도 있으나, 초등학교부터 오랫동안 따돌림을 받아온 학생들도 제법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따돌림을 받은 학생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학습 부진이 겹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조별 모임에 끼워주지 않기, 뒤에서 욕하는 것 듣기, 식사나 이야기를 같이 할 친구가 없이 혼자 지내기, 비슷하게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끼리 어울

리기 등의 모습을 보인다. 누리중에 다니는 은경이의 경우 친구들의 따돌림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였고 자살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했었다고 한다. 은경이는 학업성적이 최하위권에 속했지만 성적보다는 많은 친구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으면 학교생활이 좋아질 것 같다고 한다.

2) 노는 애들

많은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일탈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같이 놀 친구들을 만나면서부터다. 이들이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이나 갈등을 겪거나, 혹은 가족 간에 온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또는 부모가 사춘기 자녀의 충동적 성향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할 때 학생들은 가정이나 학교보다 또래집단에 애착을 갖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어울리는 친구 집단이 생기면 서로의 일탈을 강화한다. 이들은 어른들과의 약속보다는 친구들과의 "의리"를 중시하였고, "따분하기만 한"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즐거움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추구한다. 이들 행동의 대부분은 학교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다. 학교에서 무단외출, 무단결석, 가출, 음주, 흡연, 절도, 폭력, 왕따시키기, (절도한) 오토바이 타고 늦게까지 돌아다니기, 술집 아르바이트, 성매매 등이 그것이다. 강상고의 양민수는 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하였다. 처음에는 새 엄마와 잘 지냈는데 아이(동생)가 새로 생기고 자신이 거짓말을 몇 번 하면서 새 엄마와 거리가 멀어졌다. 그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제일 즐겁다. 가출해서 밤 9시부터 시작하는 택배를 하다가 돈 받으면 아침에 친구 집에 가서 자고, 돈 쓰고 다시 친구 집이나 찜질방에 가서 자고 음식 시켜 먹고, 또 일나가고 하면서 자신은 한 2주 정도 지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담임 교사가 학교에 오라고 해서 가보고 자신이 두 달 간이나 집에 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과정은 다소 남녀의 차이가 있다. 남학생들의 경우 당구장, 노래방, PC방에 가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다. 이러는데 드는 돈은 당구를 쳐서 진 팀이 유흥비를 다 부담하거나 '돈 많은' 친구가 전부 부담한다. 이 때 '돈'은 다른 친구나 후배들로부터 강제로 뺏은 것이다. 여학생들은 친구들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군것질도 하고 쇼핑도 한다. 가끔 카페에 가는 경우도 있고 노래방에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돈이 들지 않는, 그냥 돌아다니는 것을 가장 많이 한다. 하지만 노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폭력으로 돈 빼앗기, 아르바이트, 인터넷 성매매 등에 관여하는 학생들도 있다.

고담고 1학년에 재학 중인 한민은 보호감찰까지 받은 경험이 있다. 그는 "노는 애들" 또는 "양아

치"가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여 중 1 마지막 쯤 되면 "놀 애들이 생성"된다. 이때부터 "질풍노도의 시기"가 시작되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중 2때부터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기본"이 된다. 담배는 동성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성 친구에게 "멋져 보이기 위해서" 피운다. 이렇게 흡연을 시작한 후,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돌아다니고, 애들 때리고 술 먹고 학교 와서 걸리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노는 애들" 한테 어떤 한 애가 욕을 할 경우, 그 애를 더 세게 욕해 주거나 때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화가 나서만이 아니라 "친구들한테 쪽팔리기 않기 위해서"이다. 즉, "아이들만의 세계가 있고 아이들만의 정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른들은 "나쁜 친구"와 어울려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지만, 학생들은 꼭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봉화고의 서혜영이나 홍기웅, 그리고 고담 졸업생 랑도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나쁜 짓"을 하게 되기도 하고, 학교나 집에서 사회적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 학교 규범에 어긋나는 일탈 행위를 하면서 심리적 해방감, 쾌락, 저항 의식을 표출하고 금지된 행동을 같이 하면서 심리적 결속감은 물론 제도권에서 허용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이다.

다. 진로 관련 부적응

1) 진로 불일치형

진로 불일치형 부적응 학생에는 몇 가지 하위 유형이 있다. 부모나 보호자의 반대로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특성화 고등학교에 떨어지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그리고 예체능 전공을 하려는 학생들이 대표적이다. 다시 말해 진학한 학교인 일반고와 자신의 진로가 불일치하는 경우다.

최근에 특성화고가 수업료 전액이 면제되고 취업을 우선시하므로 상대적으로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부 특성화고는 일반고보다 합격선이 훨씬 높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과거 같으면 일반고에 진학하던,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가게 되고 그 때문에 특성화고를 가지 못한, 공부를 더 못하는 학생들이 일반고에 오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일반고에 오게 된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빡빡하게 짜인 일반고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힘들어하며,

특히 밤 10시까지 실시되는 야간 자율학습을 참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 이들은 학교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그냥 놀거나” 친구들과 시내를 배회한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학교 앞 오락실로 간다. 적을 땐 3~4명에서 많을 땐 10명 정도 모이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이 모여 오락을 조금하다가 당구장이나 PC방, 노래방에 간다. 10시쯤 돼서 집이 먼 애들이 몇 명 빠지면 남은 애들끼리는 놀이터에서 축구나 운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얘기들을 하다 밤이 늦어지고 때로는 새벽 2~3시경에 집에 들어가기도 한다. 주말에는 대학가에 가서 술을 마신다. 이들은 “의무와 강제만 있는 학교”가 너무 다니기 싫고, 가봤자 잠만 자거나 “멍 때리기”만 하는데도 교사와 부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취업하려면” 또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사람 취급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다닌다. 이들 가운데 일부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정한 학생들은 대입과 무관한 수업 시간에는 잠을 자거나 딴 짓을 하지만, 방과 후에는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미술이나 음악학원을 다닌다.

2) 진로 지원 부족형

또 다른 형태의 진로 부적응은 자신의 재능과 관심에 맞는 적절한 진로지도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로서 학교 공부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딴 짓이나 “멍 때리기”를 하는 경우이다.

이레고의 수용이는 공연이나 미술작품 관람, 박물관 견학 등을 좋아하고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는 것도 좋아한다. 예술대학에 진학하여 장래에 종합예술가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지금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학교는 매일 지각하다시피 하고,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거의 잠으로 시간을 보낸다. 밤새워 음악을 듣다가 다음날 또 지각을 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꿈은 그냥 “말 그대로 꿈”일 뿐, 이룰 수 없는 것이 꿈이라고 말한다. “집에 돈이 없어 컴퓨터도 살 수 없고, 학원도 다닐 수 없고, 집에 돈이 없는 것은 부모님의 몫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다.

또 다른 경우는 누리중의 박태환으로 차상위 계층이다.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만화만 그리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을 올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했다. 취미로 자동차, 용, 비행기 같은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를 하면 즐겁고 몰입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럴 때면 친구들이 “너는 가끔 딴 세상 사람 같다”고 말한다고 한다. 미대에 가면 틀에 박힌 그림만 그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미대에 진학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

았다. 태환이는 자동차나 기계를 디자인하는 공업디자인 같은 전공도 있다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만일 그런 전공이 있다면 어머니와 의논하여 미술학원에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3) 취업 좌절형

세 번째 유형의 부적응은 읍면 지역에 위치한 이레 특성화고 학생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레고 학생들 가운데 다수가 졸업 후 은행이나 공기업 등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싶지만 자신의 학교에는 추천서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수업 빼먹기, 무단외출, 무단결석 등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그저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 즉, 최소한의 출석 요건만을 충족시킬 뿐이다. 이는 “100% 취업”을 내세우는 한라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용모 단정한 두발, 인사성 밝고 성실한 태도, 좋은 성적과 전공 기술을 익히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과는 매우 대조가 된다.

라. 학습 관련 부적응

1) 무기력한 학습부진형

학습 관련 부적응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자거나, 졸거나, 떠들거나, 그 외 딴 짓을 주로 하는 경우이다. 학습 관련 부적응의 첫째 유형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다. 누리중에 다니는 이민정은 말할 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듣기가 힘들 정도다. 그녀는 1학년 때 기초학력 부진 판정을 받아 부진아반에서 지도를 받았다. 그런데 1학년 때 담임 교사가 학급 학생들의 성적을 교실에 붙여 놓아 같은 반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적이 공개되면서 일부 학생들이 그녀를 “짜증난다”면서 놀리고 성적을 비교하고 심지어는 집에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으로 욕설 문자를 보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를 알게 된 민정이 어머니가 교사에게 말하고 상담을 받게 되었지만, 현재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민정이는 수업 시간에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공부에 대한 의욕을 크게 잃은 상태다. 선생님께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더라도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도를 받기가 어려워서 현재 학습 부진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다고 완전히 공부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민정이는 자신의 수준에 맞게 교사가 쉽게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말한다.

2) 선택적 수업 참여형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의 부적응 학생들이 이에 해당된다. 예컨대 용화고 주희는 “학교만 잘 나오고, 수업 일수만 채우고 그러면 되는데 왜 공부하라고 깨우는지 모르겠어요”라면서 교사들이 자신에게 “무관심”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이 모든 수업을 거부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이나 교사의 수업에는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주희만 해도 영어는 잘 못하지만 재미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 말이라서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한다.

이레고에서 체육 교사와 크게 싸우고 “죽이고 싶다”고 소리치고 모든 교사들이 다 싫고 학교 다니기도 싫다던 김송규가 국어 수업 시간만은 열심히 참여한다. 송규는 국어 교사가 친절하고 재미있게 가르치기 때문에 국어 과목은 잘하고 싶다고 말한다. 누리중의 지은이도 교사가 싫고 학교 다니기도 싫다고 했지만 네일아트에 관심이 생기면서 네일아트 관련 일본책을 읽기 위해서 일본어 수업은 열심히 공부한다.

3) 획일적인 학교제도 거부형

이 유형은 학교의 강제적인 시험제도와 획일적인 공부를 거부하면서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 또는 대안학교를 선택한 경우다. 강상고의 연서는 학교를 그만 두고 검정고시를 봤다. 연서는 다녔던 학교에서 친구들과 교사들과의 관계는 좋았지만,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시키는 시험과 방과후 학교 등이 싫어서 학교를 그만 두었다. 연서에게 학교란 사회성을 키워주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현재의 학교는 사회성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고 있어 대안학교를 선택했고 그 선택에 만족한다고 말한다.

마. 훈육 관련 부적응

1) 강압적 통제 저항형

조사 대상이 되었던 대부분의 “부적응” 학생들은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훈육 방식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저항한다. 이레고의 김송규는 가출 또는 무단결석을 하고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밤 12시까지 어울려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담배를 하루에 세 갑 피우다가 최근에는 좀 줄였고

“음주는 이제 안한다”고 말한다. 무단결석, 무단외출, 친구들과의 싸움 그리고 교사에게 욕하기 등으로 벌점이 상당히 많은 학생이다. 하루는 체육 교사가 자신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의심하고 때려서 교사와 싸웠다. 교사와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송규도 문제지만 체육 교사도 문제라고 말한다. 체육 교사가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라는 평이다. 그렇다고 송규가 모든 교사에게 “대들고 욕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대체로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교사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고담중의 랑도나 한민, 이레고의 박민주 등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했다.

2) 가족 비하 저항형

“부적응” 학생들의 훈육 과정에서 학생들의 공격성이 표출되는 또 다른 상황은 교사가 부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할 때이다. 그렇지 않아도 잦은 지적과 벌점 부과 때문에 교사에게 안 좋은 감정이 쌓여 있는데, 잘못을 저지른 자신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까지 언급한다던가, 부모님을 학교에 오시라고 할 경우 반항하는 태도로 돌변하는 학생들이 있다. 기웅이가 그렇다. 기웅이는 지각, 무단외출, 흡연, 교사 지도 불응 등으로 벌점이 90점이 넘어서 위센터(Wee Center)에 다녀왔다. 담임 교사가 처음에는 봐주다가, 다른 교사들이 자꾸 자신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화가 많이 나게 되었다고 한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도망가자 어머니를 불러서 자식 교육을 왜 이렇게 시키냐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기웅이는 교무실에 가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난리”를 피웠다. 이처럼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부모까지 “욕을 먹는” 상황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기웅이처럼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즉, 교사가 부모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학생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공격적 행동을 하기도 하고,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

바. 외모 관련 규범 관련 부적응

1) 소극적 외모 추구형

중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학교의 외모 규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이들은 학교 규정에 어긋나는 머리 모양과 길이, 염색, 화장, 교복 변경 등의 문제로 벌점을 받곤 한다. 일부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머리 모양을 유지하면서도 벌점을 피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등교하거나, 벌점 주기 애매한 정도의 선에서 규범을 벗어나곤 한다.

2) 개성을 추구하는 양아치들

고담고 1학년인 한민은 머리 염색을 하였다. 중학생들이 하는 염색이나 파마는 “호기심”과 “멋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뮤지션이 되고자 하는 자신에게 염색은 “개성”이라고 말한다. 이들 소위 “양아치들”을 잡기 위해서 교사들이 뜨면, “양아치 애들은 추격전”을 한다. 선생님이 4층으로 왔다고 하면 3층으로 내려가고, 3층으로 왔고 하면 4층으로 다시 올라간다. 교사들은 “조용한 학생” 한 명 정도 잡은 후 우리 학교에는 그런 애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끝이 나면 “양아치들은” 다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온다. 한민에 의하면 “양아치들은 바퀴벌레나 다름이 없다. 숨어 있다가 선생님들 사라지면 다 튀어나온다”는 것이다.

용화고의 성진이는 1학년 때 눈화장을 하였다고 학급 부반장에서 잘렸다. 이에 충격을 받고 몇 달간 하지 않다가 다시 화장을 한다. 식사 시간이나 그 외 시간에 남학생들과 부딪히곤 하는데 아무래도 신경이 쓰인다. 오빠가 못생겼다고 말해서 더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화장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화장을 자꾸 하게 된다. 주희는 눈 성형 수술까지 생각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허락도 받아 놓은 상태이다. 수업 시간에는 성형 수술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느라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한다. 주희는 중 3때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면서 화장, 컬러 렌즈 착용, 치마 짧게 입기 등으로 벌점을 많이 받았다. 그는 1학년 때 짧은 치마를 입고 컬러 렌즈도 끼고 다녔으나, 2학년이 되면서 남들의 시선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교복 치마도 길게 입고 다닌다. 학교에 올 때에는 비비크림 등을 바르지만 휴일에는 풀메이크업을 한다. 그리고 방과 후 춤 연습이 끝나면 오후 9시부터 11시 때로는 12시까지 헬스장에 가서 운동과 요가 등을 해서 몸매 가꾸기와 체력 단련을 한다. 그러다보니 학교에 가면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 잠을 자게 된다.

3) 외모 관련 규정의 학교 간 편차

외모 규정은 학교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 한라고나 용화고처럼 남학생에게 “반삭”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레고와 용화고 그리고 고담중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지만, 두발 규정은 약한 편이다. 봉화고처럼 “두발”을 단속해야 학생들을 “휘어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외모 규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학생들과의 인식의 차이를 좁혀가는 학교가 있다. 학교와 학생들 간 인식 차이가 클수록 외모 규정 관련 학생들의 불만과 부적응이 크고,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생활지도를 하는 학교일수록 그에 대한 불만과 부적응이 적음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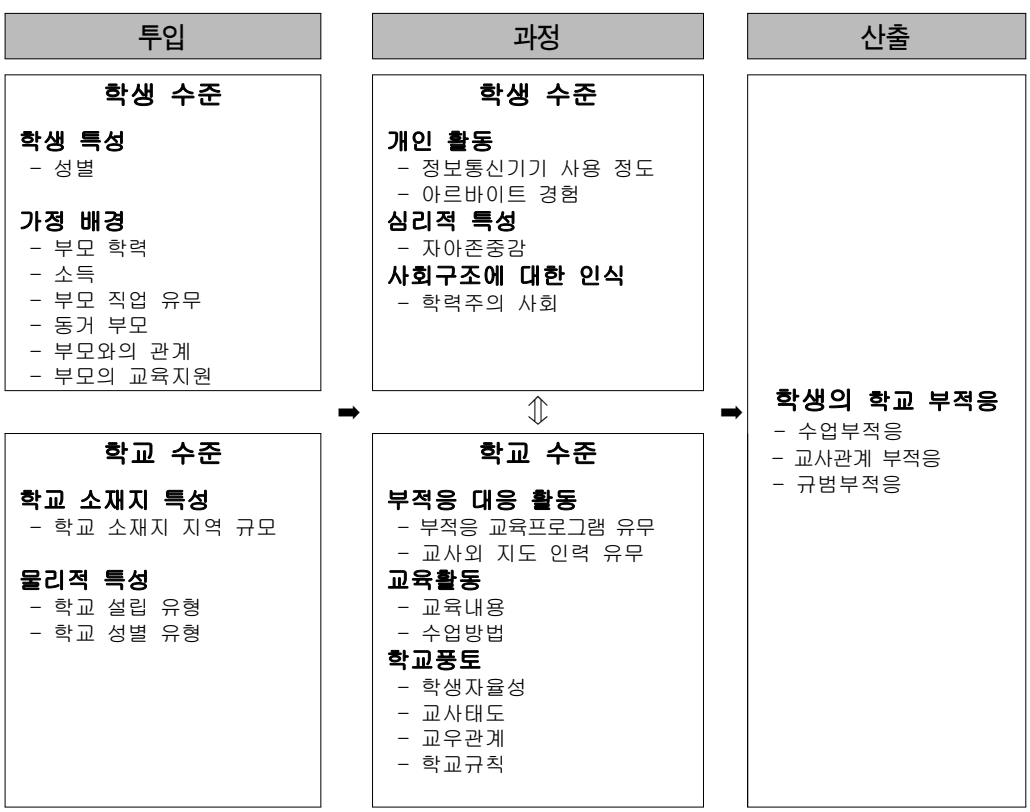
Ⅵ. 학교 부적응의 원인

1. 학교 부적응 원인 분석 모형
2. 분석 결과

Ⅵ. 학교 부적응의 원인

1. 학교 부적응 원인 분석 모형

학교 부적응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그림 Ⅵ-1-1]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Ⅵ-1-1] 학교 부적응 원인 분석 모형

이 분석 모형은 앞에서 설정한 기본 모형([그림 II-5-1])에 기초하여 산출 변수인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학생 및 학교 수준의 투입 변수, 학생 및 학교 수준의 과정 변수로 구분하고 각 수준의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2수준 다층 분석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과 학교 수준의 투입 변수들은 대체로 학생이나 학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로 산출 변수에 영향을 준다고 파악되는 변수들로서, 학생과 학교 수준 과정 변수들이 산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통제 변수로서 기능한다.

선행 연구를 기초로 산출 변수로 설정하여 구성한 학교 부적응 변수는 요인 분석을 통하여 수업부적응, 교사관계 부적응, 규범부적응의 세 가지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초등학생 자료를 기초로 한 요인 분석 결과는 〈표 VI-1-1〉과 같다. 초등학생 자료를 기초로 한 요인 분석 결과를 활용한 이유는 초등학생용 질문지와 중고등학생용 질문지의 문항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있었으며, 초등학생의 응답 자료를 기초로 한 요인 분석 결과가 중등학생의 응답 자료를 기초로 한 요인 분석 결과보다 수리적으로 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자료를 사용한 요인 분석에서 확인된 학교 부적응 하위 척도 문항을 기초로 중등학생용 질문지 문항에 포함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항을 학교부적응 하위 척도로 활용하였다. 이렇게 사용한 중등학생의 학교부적응 하위 척도들의 신뢰도 역시 초등학생용 척도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 부적응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 중 “나는 선생님과 마주치기 싫어서 피해 다닌다”는 문항은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와의 관계부적응 변수 구성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표 VI-1-1〉 학교 부적응 변수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문항 내용	요 인			공통분
	규범 부적응	수업 부적응	교사관계 부적응	
다른 학생의 물건이나 돈을 빼앗음	.805			.723
다른 학생에게 심부름을 시킴	.753			.622
학교 물건을 고의로 파손함	.729			.588
다른 학생을 괴롭힘	.686			.600
학급규칙을 지키지 않음	.557			.471
수업시간을 몰래 빼먹음	.537			.487
다른 학생을 때림	.522			.475
학교 일과 시간에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감	.488			.413
무단 결석을 함	.447			.459

문항 내용	요 인			공통분
	규범 부적응	수업 부적응	교사관계 부적응	
무단 조퇴를 함	.431			.443
수업 시간에 딴 짓을 함		-.842		.786
수업 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음		-.804		.671
수업 시간을 견디기 힘듬		-.750		.596
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모든 것이 귀찮음		-.708		.620
학교 다니는 것이 괴로움		-.676		.631
수업 시간에 떠듦		-.656		.558
선생님의 지시를 무시함			-.901	.820
선생님에게 대듬			-.801	.651
선생님을 피해 다님			-.685	.504
고유치	7.073	2.261	1.479	
누적분산비율(%)	37.225	49.124	56.911	

주) 요인 추출 방법: 일반화최소제곱.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민. KMO 측도: .909. Bartlett 검정: χ 2=84,941.075***.

2. 분석 결과

앞에서 제시한 분석 모형에 따라 학교급별로 각각 수업부적응, 교사와의 관계부적응, 규범부적응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층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초등학생의 부적응 원인

〈표 VI-2-1〉은 초등학교 학교 부적응 원인 분석에 투입된 변수의 내용이다. 이 표에 교사용 질문지라고 표시된 것 이외의 모든 측정치는 학생용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표 VI-2-1〉 초등학생의 부적응 원인 분석에 투입된 변수의 내용

구분		변수명	내용	비고
학생 수준	투입	성별	1:남, 2:여	
		학업성적	1:매우 못함, 2:못함, 3:중간, 4:잘함, 5:매우 잘함	
		부학력	1:중졸이하, 2:고졸, 3:2년제대졸, 4:4년제 대졸, 5:대학원졸	
		모학력	1:중졸이하, 2:고졸, 3:2년제대졸, 4:4년제 대졸, 5:대학원졸	
		가정의 월평균 소득	1:100만원미만, 2:101~200만원, 3:201~300만원, 4:301~400만원, 5:401~500만원, 6:501~600만원, 7:601~700만원, 8:701만원이상	
		부직업 유무	1:있음, 2:없음	
		모직업 유무	1:있음, 2:없음	
		어머니와 동거	1:동거함	기준: 부모와 동거
		아버지와 동거	1:동거함	
		동거 부모 없음	1:동거함	
		부모와의 관계	문항11-1~11-9	11-7~9는 역코딩함 α = .836
		부모의 교육지원	문항 12-1~12-7	α = .871
	과정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문항 13-1~13-5	α = .797
		자아존중감	문항 15-1~15-3, 15-5	α = .856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문항 15-6~15-10	α = .856
학교 수준	투입	특별시	특별시:1	기준: 읍면
		광역시	광역시:1	
		중소 도시	중소 도시:1	
	과정	부적응교육프로그램 유무	1:있음, 2:없음(교사 질문지)	
		교사외 지도 인력 유무	1:있음, 2:없음(교사 질문지)	
		학교 규칙의 규제 수준	문항 4-1~4-6(교사 질문지)	α = .841
		교육내용	문항6-2, 6-3, 6-5~6-8	α = .819
		수업방법	문항7-1~7-4	α = .795
		학생자율성	문항8-4, 8-5	α = .663
		교사태도	문항9-1~9-9	α = .901
		교우관계	문항10-1~10-6	α = .837

구분		변수명	내용	비고
종속 변수	산출	수업 부적응	문항16-1~16-6	α = .872
		교사관계 부적응	문항16-9~16-10	α = .845
		규범 부적응	문항16-12~16-17, 16-21,22, 16-24,25	α = .831

〈표 Ⅵ-2-2〉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에서 각각 투입 변수와 과정 변수들을 단계별로 추가하면서 다층분석을 실행하였다. 모형 1은 수업부적응 응답 수준의 전체 평균(2.001)과 분산(.63353) 정보를 제공한다. 수업부적응 정도는 학생의 개인 특성과 학교의 특성에 의해 모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학생 수준의 분산은 .5912, 학교 수준의 분산은 .04233으로 분해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전체 분산에서 학교 수준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집단 내 상관(intra class correlation)을 산출하면 .0668이 되는데, 이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부적응 정도의 6.68%는 학교 간 차이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93.32%는 학생들의 개인 특성 차이로 인한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부적응에 미치는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성별, 학업성적, 부모학력, 소득, 부모 직업 유무, 부모와의 동거 여부,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 2의 분석 결과는 학생 수준 분산 93.32% 중에서 학생 수준의 투입 영역 변수들이 수업부적응 정도를 설명하는 비율이 약 21.43%임을 나타낸다. 모형 2에서 학생 수준 투입 변수들 중 학업성적, 월평균 소득, 어머니와 동거,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 변수들은 초등학생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의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모형 5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기로 한다.

모형 3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2에 학교 수준의 투입 변수(지역 규모)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3의 학교 수준 투입 변수의 효과에서 지역 간 초등학교 학생의 수업부적응 정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4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3에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자아존중감,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4에서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인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자아존중감, 사회구조 변수는 모두 초등학생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은 모형 5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기로 한다. 모형 4에서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들을 추가함으로써 학생 수준에서의 설명 분산은 모형 3에서보다 14.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4에 학교 수준의 과정 변수(부적응 교육프로그램 유무,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학교 규칙의 규제 수준, 교육 내용, 수업 방법, 학생 자율성, 교사 태도, 교우 관계)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5에서 학교 수준의 과정 변수들은 모두 초등학생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모형 5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업부적응 척도는 “나는 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모든 것이 귀찮다”, “나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괴롭다”, “나는 수업 시간에 멍하게 앉아 있다”, “나는 수업 시간에 딴 짓을 한다”, “나는 수업 시간에 떠든다”, “나는 수업 시간을 견디기 힘들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학생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해서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수업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낮으며, 부모의 교육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주의 사회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의 변수들이 초등학생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투입 변수인 지역 규모, 과정 변수인 부적응 교육프로그램 유무,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학교 규칙의 규제 수준, 교육 내용, 수업 방법, 학생 자율성, 교사 태도, 교우 관계는 모두 초등학생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2-2〉 초등학생의 수업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수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수		모형3+학생수준 과정변수		모형4+학교수준 과정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학생 수준 변수										
	2.001***	.0168	1.966	.0181	1.940***	.0729	1.938***	.0720	1.929***	.0665
성별			.008	.0176	.008	.0176	.008	.0161	.008	.0161
학업성적			-.127***	.0117	-.127***	.0117	-.033**	.0115	-.033**	.0115
부학력			-.009	.0107	-.009	.0107	-.005	.0094	-.005	.0094
모학력			.005	.0010	.005	.0010	.003	.0087	.003	.0087
가정의 월평균 소득			.012*	.0053	.012*	.0053	.009*	.0047	.009*	.0047
부직업 유무			-.001	.0553	-.001	.0553	-.023	.0514	-.023	.0515
모직업 유무			.001	.0207	.001	.0207	.003	.0177	.003	.0177
어머니와 동거			.139**	.0434	.139**	.0434	.105**	.0368	.106**	.0370
아버지와 동거			-.021	.0604	-.021	.0604	.037	.0614	.038	.0613
동거부모 없음			.006	.0710	.005	.0799	-.024	.0682	-.024	.0676
부모와의 관계			-.264***	.0190	-.264***	.0190	-.117***	.0164	-.117***	.0164
부모의 교육지원			-.170***	.0173	-.170***	.0173	-.092***	.0164	-.092***	.0164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248***	.0114	.248***	.0114
자아존중감							-.182***	.0151	-.182***	.0152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134***	.0145	.134***	.0145
학교 수준 변수										
특별시					-.029	.0831	-.028	.0819	.007	.0782
광역시					.036	.0791	.039	.0780	.050	.0732
중소 도시					.047	.0788	.048	.0776	.045	.0718
부적응교육프로그램 유무									.060	.0366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012	.0363
학교 규칙의 규제 수준									-.059	.0371
교육내용									-.008	.0287
수업방법									-.025	.0317
학생자율성									-.043	.0246
교사태도									-.037	.0351
교우관계									-.003	.0333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수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수		모형3+학생수준 과정변수		모형4+학교수준 과정변수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학교수준 분산	.04233		.04893		.04918		.05113		.04868	
학생수준 분산	.5912		.46453		.4645		.37932		.37942	
전체 분산	.63353		.51346		.51368		.43045		.4281	
집단내 상관	.0668		.0953		.0957		.1188		.1137	
학교수준 누적설명 분산(추가된 설명 분산)			-.1559(-.1559)		-.16182(-.0059)		-.20789(-.0461)		-.1500(.05788)	
학생수준 누적설명 분산(추가된 설명 분산)			.2143(.2143)		.2143(.0001)		.3584(.1441)		.3582(-.0002)	
전체 누적 설명 분산(추가된 설명 분산)			.1895(.1895)		.1892(-.0003)		.3206(.1314)		.3243(.0037)	

*p〈.05, **p〈.01, ***p〈.001

주) 1. 일부 분산계산 수치 등의 계산상 불일치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 후 표를 정리함으로 인한 것임.
2. 척도 점수로는 평균 점수가 사용됨.

〈표 VI-2-3〉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사관계 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에서 각각 투입 변수와 과정 변수들을 단계별로 추가하면서 다층분석을 실행하였다. 모형 1의 분석 결과 교사관계 부적응 응답 수준의 전체 평균은 1.354, 분산은 .41332이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의 5.15%는 학교 간 차이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94.85%는 학생들의 개인 특성 차이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사관계 부적응에 미치는 학생 수준 투입 변수(성별, 학업성적, 부모 학력, 소득, 부모 직업 유무, 부모와의 동거 여부,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 2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학생 수준 분산 94.85% 중에서 학생 수준 투입 변수들이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를 설명하는 비율은 약 10.84%이다. 모형 2에서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들 중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월평균 소득, 어머니와 동거, 아버지와 동거,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 변수들은 초등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2에 학교 수준의 투입 변수(지역규모)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모형 3의 학교 수준 투입 변수의 효과에서 지역 간에 초등학교 학생의 교사 관계 부적응 정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4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3에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자아존중감, 사회구조)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모형 4에서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인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자아존중감, 사회구조 변수는 모두 초등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 학생 수준의 과정 요소 변수들을 추가함으로써 학생 수준에서의 설명 분산은 모형 3에서보다 5.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4에 학교 수준의 과정 변수(부적응 교육프로그램 유무,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외 지도 인력 유무, 학교 규칙의 규제 수준, 교육 내용, 수업 방법, 학생 자율성, 교사 태도, 교우 관계)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5에서 학교 수준의 과정 변수들은 모두 초등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모형 5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관계 부적응 척도의 구성 문항은 “나는 선생님에게 대든다”, “나는 선생님의 지시를 무시한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교육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주의 사회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3〉 초등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수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수		모형3+학생수준 과정변수		모형4+학교수준 과정변수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학생 수준 변수										
	1.354***	.0123	1.340***	.0124	1.384***	.0685	1.380***	.0675	1.362***	.0625
성별			-.099***	.0168	-.099***	.0168	-.097***	.0167	-.097***	.0167
학업성적			-.052***	.0110	-.052***	.0110	-.013	.0119	-.013	.0119
부학력			.005	.0094	.005	.0094	.005	.0090	.005	.0090
모학력			.002	.0090	.002	.0090	.002	.0085	.002	.0085
월평균소득			.027***	.0047	.027***	.0047	.025***	.0044	.025***	.0044
부직업 유무			.081	.0614	.081	.0615	.068	.0628	.068	.0628
모직업 유무			-.001	.0153	-.001	.0153	.002	.0149	.002	.0149
어머니와 동거			.093*	.0428	.093*	.0429	.059	.0408	.060	.0405
아버지와 동거			-.122*	.0501	-.123*	.0498	-.104*	.0444	-.105*	.0441
동거부모 없음			-.027	.0673	-.028	.0673	-.042	.0664	-.042	.0661
부모와의 관계			-.114***	.0139	-.114***	.0139	-.045**	.0134	-.045**	.0134
부모의 교육지원			-.097***	.0126	-.097***	.0126	-.062***	.0129	-.062***	.0129
정보통신기기 사용정도							.138***	.0122	.138***	.0122
자아존중감							-.083***	.0148	-.083***	.0148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047***	.013	.047***	.0126
학교 수준 변수										
특별시					-.071	.0745	-.067	.0732	-.033	.0698
광역시					.047	.0721	-.042	.0709	-.022	.0656
중소 도시					.036	.0714	-.033	.0701	-.021	.0652
부적응교육프로그램 유무									.032	.0257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017	.0255
학교 규칙의 규제 수준									-.014	.0203
교육내용									.025	.0187
수업방법									-.039	.0221
학생자율성									-.020	.0189
교사태도									.030	.0240
교우관계									-.012	.0206
학교 수준 분산		.02129		.01918		.01921		.019		.01818
학생 수준 분산		.39203		.34952		.34957		.32736		.32742
전체 분산		.41332		.3687		.36878		.34636		.3456
집단내 상관		.05151		.05202		.05209		.05486		.05260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수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수		모형3+학생수준 과정변수		모형4+학교수준 과정변수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학교수준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0991(.0991)		.0977(-.0014)		.1076(.0099)		.1461(.0385)	
학생수준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1084(.1084)		.1083(-.0001)		.1650(.0567)		.1648(-.0002)	
전체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1080(.1080)		.1078(-.0002)		.1620(.0542)		.1638(.0018)	

*p<.05, **p<.01, ***p<.001

학교 수준 변수들이 초등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투입 변수인 지역 규모 변수, 과정 변수인 부적응 교육프로그램 유무,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학교 규칙의 규제 수준, 교육내용, 수업 방법, 학생 자율성, 교사 태도, 교우관계는 모두 초등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2-4〉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규범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규범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에서 각각 투입 변수와 과정 변수들을 단계별로 추가하면서 다층분석을 실행하였다. 모형 1 분석 결과 규범부적응 응답 수준의 전체 평균은 1.189, 분산은 .11154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규범부적응 정도의 4.03%는 학교 간 차이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95.97%는 학생들의 개인 특성 차이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규범부적응에 미치는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성별, 학업성적, 부모 학력과 소득, 부모 직업 유무, 부모와의 동거 여부,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 2의 분석 결과에서, 학생 수준 분산 95.97% 중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들이 규범부적응 정도를 설명하는 비율은 약 17.64%이다. 모형 2에서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들 중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월평균 소득, 어머니와 동거,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 변수들은 초등학생의 규범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2에 학교 수준의 투입 변수(지역 규모)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3의 학교 수준 투입 변수 중 지역 규모 간 초등학교 학생의 규범부적응 정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4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3에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자아존중감, 사회구조)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4에서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인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자아존중감, 사

회구조 변수는 모두 초등학생의 교사와의 관계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들을 추가함으로써 학생 수준에서의 설명 분산은 모형 3에서보다 8.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4〉 초등학생의 규범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수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수		모형3+학생수준 과정변수		모형4+학교수준 과정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학생 수준 변수										
	1.189***	.0059	1.174***	.0062	1.204***	.0255	1.205***	.0260	1.195***	.0251
성별			-.049***	.0077	-.049***	.0077	-.049***	.0076	-.049***	.0076
학업성적			-.029***	.0057	-.029***	.0057	-.0137*	.0056	-.014*	.0056
부학력			-.006	.0054	-.0060	.0054	-.006	.0049	-.006	.0049
모학력			.005	.0055	.005	.0055	.005	.0052	.005	.0052
월평균소득			.009***	.0023	.009***	.0023	.008***	.0021	.008***	.0020
부직업 유무			-.012	.0401	-.012	.0401	-.008	.0394	-.0084	.0394
모직업 유무			-.004	.0084	-.004	.0084	-.001	.0081	-.001	.0081
어머니와 동거			.069**	.0247	.069**	.0246	.050*	.0228	.050*	.0226
아버지와 동거			-.011	.0279	-.011	.0279	.009	.0270	.009	.0270
동거부모 없음			.048	.0385	.048	.0383	.045	.0346	.045	.0344
부모와의 관계			-.072***	.0067	-.072***	.0068	-.044***	.0065	-.044***	.0065
부모의 교육지원			-.035***	.0058	-.035***	.0058	-.020**	.0057	-.020**	.0057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087***	.0070	.087***	.0070
자아존중감							-.024**	.0073	-.024**	.0073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024***	.0058	.024***	.0058
학교 수준 변수										
특별시					-.040	.0287	-.038	.0291	-.017	.0284
광역시					-.044	.0272	-.041	.0278	-.030	.0271
중소 도시					-.022	.0273	-.019	.0278	-.014	.0275
부적응교육프로그램 유무									.013	.0127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003	.0119
학교규칙의 규제 수준									-.008	.0107
교육내용									-.000	.0103
수업방법									-.020	.0108
학생자율성									-.012	.0077
교사태도									-.007	.0110
교우관계									-.001	.0098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수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수		모형3+학생수준 과정변수		모형4+학교수준 과정변수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학교 수준 분산	.0045		.00433		.00429		.00452		.00435	
학생 수준 분산	.10704		.08816		.08815		.07938		.0794	
전체 분산	.11154		.09249		.09244		.0839		.08375	
집단내 상관	.04034		.04682		.04641		.05387		.05194	
학교수준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0378(.0378)		.0467(.0089)		-.0044(-.0511)		.0333(.0378)	
학생수준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1764(.1764)		.1765(.0001)		.2584(.0819)		.2582(-.0002)	
전체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1708(.1708)		.1712(.0004)		.2478(.0766)		.2491(.0013)	

*p<.05, **p<.01, ***p<.001

모형 5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4에 학교 수준의 과정 변수(부적응 교육프로그램 유무,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학교 교칙의 규제 수준, 교육 내용, 수업 방법, 학생 자율성, 교사 태도, 교우 관계)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5에서 학교 수준의 과정 변수들은 모두 초등학생의 규범부적응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모형 5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규범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규범부적응 척도의 구성 문항은 “나는 다른 학생을 때린다”, “나는 다른 학생을 괴롭힌다(인터넷을 통한 괴롭힘 포함)”, “나는 다른 학생에게 심부름(셔틀)을 시킨다”, “나는 다른 학생의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다”, “나는 학급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나는 학교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한다”, “나는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결석한다”, “나는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조퇴한다”, “나는 수업 시간을 몰래 빼먹는다”, “나는 학교 일과 시간에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간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사와의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규범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교육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 과정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주의 사회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 변수들이 초등학생의 규범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투입 변수인 지역 규모 변수, 과정 변수인 부적응 교육프로그램 유무,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학교 교칙의 규제 수준, 교육 내용, 수업 방법, 학생 자율성, 교사 태도, 교우 관계는 모두 초등학생의 규범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중학생의 부적응 원인

중학생의 부적응 원인 분석을 위해 투입된 변수의 내용은 〈표 VI-2-5〉와 같다.

〈표 VI-2-5〉 중학생의 부적응 원인 분석에 투입된 변수의 내용

구분		변수명	내용	비고
학생 수준	투입	성별	1:남, 2:여	
		학업성적	1:하, 2:중하, 3:중, 4:중상, 5:상	
		부학력	1:중졸이하, 2:고졸, 3:2년제대졸 4:4년제 대졸, 5:대학원졸	
		모학력	1:중졸이하, 2:고졸, 3:2년제대졸 4:4년제 대졸, 5:대학원졸	
		가정의 월평균 소득	1:100만원미만, 2:101~200만원 3:201~300만원, 4:301~400만원 5:401~500만원, 6:501~600만원 7:601~700만원, 8:701만원이상	
		부직업 유무	1:있음, 2:없음	
		모직업 유무	1:있음, 2:없음	
		어머니와 동거	1:동거함	기준:부모와 동거
		아버지와 동거	1:동거함	
		동거 부모 없음	1:동거함	
		부모와의 관계	문항13-1~13-9	문항 13-7~9는 역코딩함 α = .849
		부모의 교육지원	문항14-1~14-7	α = .867

구분		변수명	내용	비고
	과정	아르바이트 경험	1:있음, 2:없음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문항16-1~16-5	α = .810
		자아존중감	문항18-1~3, 18-5	α = .864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문항18-6~18-10	α = .941
학교 수준	투입	특별시	특별시:1	기준:읍면
		광역시	광역시:1	
		중소 도시	중소 도시:1	
		설립유형	1:국공립, 2:사립	
		남학교	남학교:1	기준:남녀공학
		여학교	여학교:1	
	과정	부적응교육프로그램 유무	1:있음, 2:없음(교사용 질문지)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1:있음, 2:없음(교사용 질문지)	
		교육내용	문항6-2,3, 6-5~7, 6-8	α = .832
		수업방법	문항7-1~7-4	α = .801
		학교규칙의 적절성	문항8-5~8-6	α = .850
		학교규칙의 규제 수준	문항9-1~9-6	α = .837
		학생자율성	문항10-4, 5	α = .711
		교사태도	문항11-1~11-10	α = .881
		교우관계	문항12-1~12-6	α = .839
종속 변수	산출	수업부적응	문항19-1~19-6	α = .878
		교사관계부적응	문항19-9~19-10	α = .893
		규범부적응	문항19-12~19-16, 22,23,25,26	α = .913

〈표 Ⅵ-2-6〉은 중학교 학생들의 수업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이다. 중학교 학생들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에서 각각 투입 변수와 과정 변수들을 단계별로 추가하면서 다층분석을 실행하였다. 모형 1은 수업부적응 응답 수준의 전체 평균(2.406)과 분산(.71407) 정보를 제공한다. 중학교 학생들의 수업부적응 정도의 2.48%는 학교 간 차이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97.52%는 학생들의 개인 특성 차이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학교 학생들의 수업부적응에 미치는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성별, 학업성적, 부모 학력과 소득, 부모 직업 유무, 부모와의 동거 여부,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 2의 분석 결과 학생 수준 분산 97.52% 중 학생 수준 투입 변수들이 수업부적응 정도를

설명하는 비율은 약 19.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들 중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월평균 소득,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 변수들은 중학생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6〉 중학생의 수업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수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수		모형3+학생수준 과정변수		모형4+학교수준 과정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학생 수준 변수										
	2.406***	.0113	2.386***	.0123	2.427***	.0341	2.424***	.0334	2.432***	.0314
성별			.129***	.0194	.129***	.0194	.066**	.0181	.066**	.0181
학업성적			-.136***	.0064	-.136***	.0064	-.072***	.0067	-.072***	.0067
부학력			-.000	.0081	-.000	.0081	-.007	.0080	.007	.0080
모학력			-.013	.0080	-.013	.0080	-.007	.0077	-.007	.0077
가정의 월평균 소득			.016***	.0042	.016***	.0042	.018***	.0038	.018***	.0038
부직업 유무			-.046	.0440	-.047	.0441	-.008	.0390	-.008	.0390
모직업 유무			-.020	.0155	-.020	.0156	-.011	.0138	-.011	.0138
어머니와 동거			.041	.0302	.044	.0303	.012	.0280	.012	.0280
아버지와 동거			.056	.0410	.058	.0408	.085*	.0395	.084*	.0396
동거부모 없음			.014	.0482	.012	.0483	.036	.0458	.036	.0459
부모와의 관계			-.271***	.0118	-.271***	.0118	-.125***	.0125	-.125***	.0125
부모의 교육지원			-.130***	.0115	-.130***	.0115	-.082***	.0113	-.082***	.0113
아르바이트 경험							-.246***	.0383	-.246***	.0383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233***	.0081	.233***	.0081
자아존중감							-.172***	.0115	-.172***	.0115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114***	.0088	.114***	.0088
학교수준변수										
특별시					-.112**	.0425	-.110*	.0423	-.111**	.0419
광역시					-.067	.0413	-.063	.0405	-.071	.0386
중소 도시					-.004	.0368	.002	.0361	-.012	.0346
설립유형					.002	.0331	.004	.0329	.003	.0303
남학교					-.085**	.0301	-.087**	.0298	-.082**	.0300
여학교					.092**	.0323	.092**	.0318	.084**	.0309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수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수		모형3+학생수준 과정변수		모형4+학교수준 과정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부적응교육프로그램 유무									-.038	.0279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020	.0363
교육내용									-.020	.0194
수업방법									-.012	.0195
학교규칙의 적절성									-.023	.0129
학교규칙의 규제 수준									-.016	.0151
학생자율성									-.001	.0134
교사태도									-.003	.0181
교우관계									-.007	.0129
학교 수준 분산	.01773		.01918		.01514		.01603		.01544	
학생 수준 분산	.69634		.5632		.56321		.48197		.48194	
전체 분산	.71407		.58238		.57835		.498		.49738	
집단내 상관	.02483		.03293		.02618		.03219		.03104	
학교수준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0818(-.0818)		.1461(.2279)		.0959(-.0502)		.1292(.0333)	
학생수준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1912(.1912)		.1912(-.0000)		.3079(.1167)		.3079(.0000)	
전체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1844(.1844)		.1901(.0056)		.3026(.1125)		.3035(.0009)	

*p<.05, **p<.01, ***p<.001

모형 3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2에 학교 수준의 투입 변수(지역규모, 설립유형, 학교 성별 유형)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3의 분석 결과에서 학교 수준의 투입 변수 중 일부 지역 간에 수업부적응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교의 성별 유형별로도 수업부적응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3에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아르바이트 경험,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자아존중감, 사회구조)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4에서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인 아르바이트 경험,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자아존중감, 사회구조 변수는 모두 중학생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들을 추가함으로써 학생 수준에서의 설명 분산은 모형 3에서보다 1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4에 학교 수준의 과정 변수(부적응 교육프로그램 유무,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교육 내용, 수업 방법, 학교 규칙의 적절성, 학교 규칙

의 규제 수준, 학생 자율성, 교사 태도, 교우 관계)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5에서 학교 수준의 과정 변수들은 모두 중학생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모형 5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중학교 학생들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와 일반고, 특성화고의 수업부적응 척도의 구성 문항은 초등학교와 같다.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으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교육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수업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주의 사회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의 변수들이 중학생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투입 변수의 효과에서 특별시 학생들은 읍면 지역 학생들보다 수업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성별 유형별로는 남학교 학생들이 남녀공학 학생들보다 수업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교가 남녀공학 학생들보다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 과정 변수인 부적응 교육프로그램 유무,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교육 내용, 수업 방법, 학교 규칙의 적절성, 학교규칙의 규제 수준, 학생 자율성, 교사 태도, 교우관계는 모두 중학생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7〉은 중학생들의 교사관계 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이다. 중학교 학생들의 교사관계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과 학교 수준에서 투입과 과정 변수들을 단계별로 추가하면서 다층분석을 실행하였다. 모형 1은 교사관계 부적응 응답 수준의 전

체 평균(1.617)과 분산(.66631) 정보를 제공한다. 중학교 학생들의 관계부적응 정도의 2.31%는 학교 간 차이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97.69%는 학생들의 개인 특성 차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2-7〉 중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수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수		모형3+학생수준 과정변수		모형4+학교수준 과정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학생 수준 변수										
	1.617***	.0107	1.594***	.0110	1.693***	.0403	1.690***	.0406	1.699***	.0407
성별			-.114***	.0193	-.114***	.0193	-.143***	.0191	-.143***	.0191
학업성적			-.089***	.0061	-.089***	.0061	-.062***	.0064	-.062***	.0063
부학력			-.012	.0078	-.012	.0078	-.015	.0080	-.015	.0080
모학력			.004	.0083	.004	.0083	.007	.0082	.007	.0082
월평균소득			.025***	.0044	.025***	.0044	.022***	.0043	.022***	.0043
부직업 유무			-.057	.0453	-.057	.0453	-.044	.0426	-.044	.0426
모직업 유무			-.0286	.0147	-.029	.0147	-.022	.0139	-.022	.0139
어머니와 동거			.061*	.0293	.062*	.0294	.039	.0287	.037	.0286
아버지와 동거			.057	.0472	.055	.0470	.058	.0465	.056	.0462
동거부모 없음			.110	.0587	.104	.0582	.101	.0556	.101	.0556
부모와의 관계			-.223***	.0115	-.223***	.0115	-.151***	.0126	-.152***	.0125
부모의 교육지원			-.043***	.0112	-.043***	.0112	-.019***	.0115	-.019	.0115
아르바이트 경험							-.401***	.0431	-.401***	.0431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155***	.0090	.155***	.0090
자아존중감							-.076***	.0110	-.076***	.0110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024**	.0088	.024**	.0088
학교 수준 변수										
특별시					-.116*	.0476	-.118*	.0482	-.114*	.0468
광역시					-.131**	.0447	-.131**	.0450	-.137**	.0460
중소 도시					-.078	.0424	-.077	.0428	-.087*	.0428
설립유형					-.013	.0291	-.010	.0292	-.007	.0300
남학교					.007	.0284	.010	.0288	.002	.0295
여학교					-.069*	.0301	-.065*	.0304	-.077*	.0319
부적응교육프로그램 유무									-.029	.0251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025	.0330
교육내용									-.037	.0190
수업방법									-.020	.0174
학교규칙의 적절성									-.017	.0134
학교규칙의 규제 수준									-.027	.0164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수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수		모형3+학생수준 과정변수		모형4+학교수준 과정변수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학생자율성									-.018	.0134
교사태도									.008	.0197
교우관계									-.018	.0129
학교 수준 분산	.0154		.01541		.01403		.01484		.01388	
학생 수준 분산	.65091		.57458		.57447		.54201		.54197	
전체 분산	.66631		.58999		.5885		.55685		.55585	
집단내 상관	.02311		.02612		.02384		.02665		.02497	
학교수준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0007(-.0007)		.0890(.0896)		.0364(-.0526)		.0987(.0623)	
학생수준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1173(.1173)		.1174(.0002)		.1673(.0499)		.1674(.0001)	
전체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1145(.1145)		.1168(.0022)		.1643(.0475)		.1658(.0015)	

*p<.05, **p<.01, ***p<.001

중학교 학생들의 교사관계 부적응에 미치는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성별, 학업성적, 부모의 학력과 소득, 부모 직업 유무, 부모와의 동거 여부,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 2의 분석 결과에서 학생 수준 분산 97.69% 중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들이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를 설명하는 비율이 약 11.73%임을 알 수 있다. 모형 2에서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들 중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월평균 소득, 어머니와 동거,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 변수들은 중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2에 학교 수준 투입 변수(지역 규모, 설립유형, 학교 성별유형)를 추가했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학교 수준 투입 변수 중에서 일부 지역 간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교의 성별 유형별로도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3에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아르바이트 경험,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자아존중감,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4에서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인 아르바이트 경험,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자아존중감,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변수는 모두 중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들을 추가함으로써 학생 수준에서의 설명 분산은 모형 3에서보다 4.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4에 학교 수준의 과정 변수(부적응 교육프로그램 유무, 부적응 학생지도를 위한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교육 내용, 수업 방법, 학교 규칙의 적절성, 학교 규칙의 규제 수준, 학생자율성, 교사 태도, 교우 관계)를 추가했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의 변수들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5에서 학교 수준의 과정 변수들은 모두 중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모형 5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중학교 학생들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와 일반고, 특성화고의 교사관계 부적응 척도의 구성 문항은 초등학교와 같다.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높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주의 사회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 변수들이 중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투입 변수의 효과에서 특별시, 광역시, 중소 도시는 각각 읍면 지역보다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성별 유형별로는 여학교가 남녀공학 학생들보다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 과정 변수인 부적응 교육프로그램 유무,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교육내용, 수업방법, 학교 규칙의 적절성, 학교규칙의 규제 수준, 학생 자율성, 교사 태도, 교우관계는 모두 중학생의 교사 관계 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2-8〉은 중학생들의 규범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이다. 중학교 학생들의 규범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에서 각각 투입 변수와 과정 변수들을 단계별로 추가하면서 다층분석을 실행하였다. 모형 1은 규범부적응 응답 수준의 전체 평균(1.256)과 분산(.23402) 정보를 제공한다. 중학교 학생들의 규범부적응 정도의 3.29%는 학교

간 차이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96.71%는 학생들의 개인 특성 차이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VI-2-8〉 중학생의 규범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수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수		모형3+학생수준 과정변수		모형4+학교수준 과정변수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학생 수준 변수										
	1.256***	.0072	1.245***	.0078	1.302***	.0264	1.304***	.0261	1.307***	.0271
성별			-.135***	.0115	-.135***	.0115	-.153***	.0116	-.153***	.0116
학업성적			-.035***	.0039	-.035***	.0039	-.026***	.0042	-.026***	.0042
부학력			-.002	.0046	-.002	.0046	-.004	.0047	-.004	.0047
모학력			.005	.0053	.005	.0053	.007	.0052	.007	.0052
월평균소득			.011***	.0027	.011***	.0027	.009**	.0027	.009**	.0027
부직업 유무			-.007	.0263	-.007	.0263	.003	.0259	.004	.0259
모직업 유무			-.008	.0083	-.008	.0083	-.005	.0081	-.005	.0081
어머니와 동거			.017	.0161	.017	.0160	.004	.0158	.003	.0159
아버지와 동거			.011	.0239	.012	.0237	.007	.0238	.007	.0237
동거부모 없음			.024	.0310	.023	.0308	.019	.0290	.019	.0290
부모와의 관계			-.102***	.0067	-.102***	.0067	-.072***	.0068	-.072***	.0068
부모의 교육지원			-.019**	.0073	-.019**	.0073	-.006	.0074	-.006	.0074
아르바이트경험							-.245***	.0313	-.245***	.0313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073***	.0053	.073***	.0053
자아존중감							-.040***	.0079	-.040***	.0079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001	.0062	-.001	.0062
학교 수준 변수										
특별시					-.052	.0301	-.054	.0300	-.050	.0305
광역시					-.078**	.0278	-.077**	.0275	-.078**	.0290
중소 도시					-.050	.0273	-.048	.0269	-.051	.0279
설립유형					-.000	.0172	.003	.0170	.007	.0171
남학교					.062**	.0173	.062**	.0169	.060**	.0168
여학교					-.107***	.0183	-.107***	.0183	-.115***	.0184
부적응교육프로그램 유무									-.006	.0171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028	.0193
교육내용									-.020	.0122
수업방법									.002	.0123
학교규칙의 적절성									-.007	.0085
학교규칙의 규제 수준									-.009	.0086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수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수		모형3+학생수준 과정변수		모형4+학교수준 과정변수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학생자율성									-.013	.0080
교사태도									-.002	.0103
교우관계									-.0205*	.0081
학교 수준 분산	.0077		.00806		.00524		.00545		.00508	
학생 수준 분산	.22632		.20218		.20219		.19069		.19069	
전체 분산	.23402		.21024		.20743		.19614		.19577	
집단내 상관	.03290		.03834		.02526		.02779		.02595	
학교수준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0468(-.0468)		.3195(.3662)		.2922(-.0272)		.3403(.0481)	
학생수준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1067(.1067)		.1066(-.0000)		.1574(.0508)		.1574(.0000)	
전체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1016(.1016)		.1136(.0120)		.1619(.0482)		.1634(.0016)	

*p<.05, **p<.01, ***p<.001

중학교 학생들의 규범부적응에 미치는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성별, 학업성적, 부모 학력과 소득, 부모 직업 유무, 부모와의 동거 여부,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 2의 분석 결과에서 학생 수준 분산 96.71% 중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들이 규범부적응 정도를 설명하는 비율은 약 10.67%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들 중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월평균 소득,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 변수들은 중학생의 규범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2에 학교 수준의 투입 변수(지역 규모, 설립 유형, 학교 성별 유형)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3의 분석 결과에서 학교 수준의 투입 변수 중 일부에서 지역 규모 간 규범부적응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교의 성별 유형별로도 규범부적응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3에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아르바이트 경험,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자아존중감,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를 추가했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4에서 학생 수준 과정 변수인 아르바이트 경험,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자아존중감 변수는 중학생의 규범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들을 추가함으로써 학생 수준에서의 설명 분산은 모형 3에서보다 5.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4에 학교 수준의 과정 변수(부적응 교육프로그램 유무,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교육 내용, 수업 방법, 학교 규칙의 적절성, 학교 규칙 수준, 학생 자율성, 교사 태도, 교우 관계)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5에서 학교 수준의 과정 변수들 중 교우관계는 중학생의 규범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모형 5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중학교 학생들의 규범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와 일반고, 특성화고의 규범부적응 척도의 구성 문항은 “나는 다른 학생을 때린다”, “나는 다른 학생을 괴롭힌다(인터넷을 통한 괴롭힘 포함)”, “나는 다른 학생에게 심부름(셔틀)을 시킨다”, “나는 다른 학생의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다”, “나는 학교 생활과 무관한 물품을 갖고 다닌다”, “나는 복장, 두발 규정을 위반한다”, “나는 학교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다”, “나는 무단 결석을 한다”, “나는 무단 조퇴를 한다”, “나는 수업 시간을 몰래 빼먹는다”, “나는 학교 일과 시간에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간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 수준 투입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높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 과정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 변수들이 중학생의 규범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투입 변수의 효과에서 광역시는 읍면 지역보다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성별 유형별로는 남학교 학생들이 남녀공학 학생들보다 규범 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교 학생들이 남녀공학 학생들보다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 과정 변수들 중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중학생의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일반고 학생의 부적응 원인

〈표 Ⅵ-2-9〉는 일반고 학교 부적응 원인 분석에 투입된 변수의 내용이다.

〈표 Ⅵ-2-9〉 일반고 학교 부적응 원인 분석에 투입된 변수의 내용

구분		변수명	내용	비고
학생 수준	투입	성별	1:남, 2:여	
		학업성적	1:하, 2:중하, 3:중, 4:중상, 5:상	
		부학력	1:중졸이하, 2:고졸, 3:2년제대졸, 4:4년제 대졸, 5:대학원졸	
		모학력	1:중졸이하, 2:고졸, 3:2년제대졸, 4:4년제 대졸, 5:대학원졸	
		가정의 월평균 소득	1:100만원미만, 2:101~200만원, 3:201~300만원, 4:301~400만원, 5:401~500만원, 6:501~600만원, 7:601~700만원, 8:701만원이상	
		부직업 유무	1:있음, 2:없음	
		모직업 유무	1:있음, 2:없음	
		어머니와 동거	1:동거함	기준:부모와 동거
		아버지와 동거	1:동거함	
		동거 부모 없음	1:동거함	
		부모와의 관계	문항13-1~13-9	문항 13-7~9는 역코딩함 α = .845
		부모의 교육지원	문항14-1~14-7	α = .839
	과정	아르바이트 경험	1:있음, 2:없음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문항16-1~16-5	α = .787
		자아존중감	문항18-1, 2, 3, 5	α = .835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문항18-6~18-10	α = .926
학교 수준	투입	특별시	특별시:1	기준:읍면
		광역시	광역시:1	
		중소 도시	중소 도시:1	
		설립유형	1:국공립, 2:사립	
		남학교	남학교:1	기준:남녀공학
		여학교	여학교:1	

구분		변수명	내용	비고
	과정	부적응교육프로그램 유무	1:있음, 2:없음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1:있음, 2:없음	
		교육내용	문항6-2~3, 6-5~8	α = .814
		수업방법	문항7-1~7-4	α = .792
		학교규칙의 적절성	문항8-5, 6	α = .855
		학교규칙의 규제 수준	문항9-1~9-6	α = .799
		학생자율성	문항10-4, 5	α = .673
		교사태도	문항11-1~10	α = .870
		교우관계	문항12-1~6	α = .835
종속 변수	산출	수업 부적응	문항19-1~6	α = .861
		교사관계 부적응	문항19-9~19-10	α = .886
		규범 부적응	문항19-12~16, 22~23, 25~26	α = .924

〈표 VI-2-10〉은 일반고 학생들의 수업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이다. 일반고 학생들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에서 각각 투입변수와 과정 변수들을 단계별로 추가하면서 다층분석을 실행하였다. 모형 1은 수업부적응 응답 수준의 전체 평균(2.465)과 분산(.65822)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고 학생들의 수업부적응 정도의 2.77%는 학교 간 차이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97.23%는 학생들의 개인 특성 차이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 학생들의 수업부적응에 미치는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성별, 성적수준, 부모의 학력과 소득, 부모 직업 유무, 부모와의 동거 여부,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 2의 분석 결과에서 학생 수준 분산 97.23% 중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들이 수업부적응 정도를 설명하는 비율은 약 15.50%임을 알 수 있다. 모형 2에서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들 중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월평균 소득, 어머니와 동거,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 변수들은 일반고 학생들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2-10〉 일반고 학생의 수업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수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수		모형3+학생수준 과정변수		모형4+학교수준 과정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학생 수준 변수										
	2.465***	.0113	2.444***	.0113	2.457***	.0588	2.46***	.0589	2.463***	.0581
성별			.102***	.0255	.102***	.0255	.068**	.0240	.068**	.0240
학업성적			-.186***	.0066	-.186***	.0066	-.118***	.0062	-.118***	.0062
부학력			.008	.0069	.008	.0069	.006	.0067	.006	.0067
모학력			.000	.0072	.000	.0072	.003	.0071	.003	.0071
월평균소득			.022***	.0035	.022***	.0035	.024***	.0032	.024***	.0032
부직업 유무			-.030	.0342	-.030	.0342	-.027	.0299	-.027	.0299
모직업 유무			-.002	.0129	-.002	.0129	-.006	.0120	-.006	.0120
어머니와 동거			.060**	.0231	.060*	.0231	.044*	.0215	.044	.0216
아버지와 동거			-.037	.0423	-.038	.0423	-.020	.0374	-.021	.0374
동거 부모 없음			.122*	.0511	.122*	.0507	.121*	.0468	.120*	.0469
부모와의 관계			-.237***	.0117	-.237***	.0117	-.114***	.0103	-.114***	.0104
부모의 교육지원			-.068***	.0112	-.067***	.0112	-.047***	.0105	-.047***	.0105
아르바이트경험							-.237***	.0198	-.237***	.0198
정보통신기기 사용정도							.210***	.0087	.210***	.0087
자아존중감							-.194***	.0104	-.194***	.0104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077***	.0077	.077***	.0077
학교 수준 변수										
특별시					-.037	.0628	-.042	.0629	-.051	.0612
광역시					-.026	.0618	-.032	.0618	-.038	.0616
중소 도시					.014	.0610	.009	.0609	.007	.0604
설립유형					-.028	.0277	-.028	.0280	-.029	.0285
남학교					-.029	.0288	-.029	.0291	-.026	.0299
여학교					.020	.0355	.020	.0356	.027	.0361
부적응교육프로그램 유무									-.033	.0214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003	.0210
교육내용									-.024	.0188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수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수		모형3+학생수준 과정변수		모형4+학교수준 과정변수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수업방법									-.023	.0176
학교규칙의 적절성									.004	.0118
학교규칙의 규제 수준									-.008	.0176
학생자율성									.001	.0144
교사태도									.010	.0208
교우관계									-.002	.0162
학교 수준 분산	.01825		.01732		.01706		.01819		.01838	
학생 수준 분산	.63997		.54074		.54072		.46893		.46894	
전체 분산	.65822		.55806		.55778		.48712		.48732	
집단내 상관	.02773		.03104		.03059		.03734		.03771	
학교수준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0510(.0510)		.0652(.0142)		.0039(-.0619)		-.0071(-.0104)	
학생수준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1550(.1550)		.1550(.0000)		.2673(.1122)		.2672(-.0000)	
전체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1521(.1521)		.1526(.0004)		.2600(.1074)		.2596(-.0003)	

*p<.05, **p<.01, ***p<.001

모형 3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2에 학교 수준의 투입 변수(지역규모, 설립유형, 학교 성별 유형)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3의 분석 결과에서 수업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학교 수준 투입 변수들 간의 효과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4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3에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아르바이트 경험,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자아존중감, 사회구조)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4에서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인 아르바이트 경험,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자아존중감,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은 모두 일반고 학생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들을 추가함으로써 학생 수준에서의 설명 분산은 모형 3에서보다 1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4에 학교 수준의 과정 변수(부적응 교육프로그램 유무,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교육 내용, 수업 방법, 학교규칙의 적절성, 학교규칙의 규제 수준, 학생 자율성, 교사 태도, 교우 관계)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5에서 학교 수준의 과정 변수들은 모두 일반고 학생의 수업부적

응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모형 5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일반고 학생들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 수준 투입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낮으며, 부모의 교육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 과정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수업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주의 사회라는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 변수들이 일반고 학생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학교 수준 투입 변수들과 학교 수준 과정 변수들은 모두 일반고 학생들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2-11〉은 일반고 학생들의 교사관계 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이다. 일반고 학생들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에서 각각 투입 변수와 과정 변수들을 단계별로 추가하면서 다층분석을 실행하였다. 모형 1은 교사와의 관계부적응 응답 수준의 전체 평균(1.508)과 분산(.55912)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고 학생들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의 3.79%는 학교 간 차이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96.21%는 학생들의 개인 특성 차이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모형 3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2에 학교 수준 투입 변수(지역규모, 설립유형, 학교 성별 유형)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3의 분석 결과에서 학교 수준의 투입 요소 변수 중 학교의 성별 유형별로 교사와의 관계부적응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11〉 일반고 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수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수		모형3+학생수준 과정변수		모형4+학교수준 과정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학생 수준 변수										
	1.508***	.0118	1.484***	.0113	1.573***	.0505	1.567***	.0499	1.569***	.0497
성별			-.193***	.0258	-.193***	.0258	-.201***	.0260	-.201***	.0260
학업성적			-.073***	.0062	-.073***	.0062	-.046***	.0065	-.046***	.0065
부학력			.008	.0065	.008	.0065	.008	.0064	.008	.0064
모학력			.004	.0068	.004	.0068	.004	.0066	.004	.0066
월평균소득			.023***	.0036	.023***	.0036	.021***	.0035	.021***	.0035
부직업 유무			-.008	.0333	-.008	.0333	-.008	.0321	-.008	.0321
모직업 유무			-.010	.0128	-.010	.0128	-.008	.0127	-.008	.0127
어머니와 동거			.055*	.0236	.056*	.0237	.044	.0230	.044	.0230
아버지와 동거			-.033	.0404	-.033	.0402	-.037	.0395	-.038	.0395
동거부모 없음			.131**	.0481	.129**	.0477	.118*	.0463	.118*	.0462
부모와의 관계			-.194***	.0113	-.194***	.0113	-.153***	.0107	-.153***	.0107
부모의 교육지원			.008	.0097	.008	.0097	.016	.0094	.016	.0094
아르바이트경험							-.259***	.0212	-.259***	.0212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102***	.0082	.102***	.0082
자아존중감							-.058***	.0094	-.058***	.0094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002	.0075	.002	.0075
학교 수준 변수										
특별시					-.079	.0540	-.075	.0534	-.081	.0525
광역시					-.085	.0521	-.083	.0512	-.080	.0510
중소 도시					-.061	.0505	-.058	.0499	-.057	.0495
설립유형					-.030	.0234	-.029	.0230	-.022	.0226
남학교					.025	.0266	.026	.0261	.024	.0254
여학교					-.143***	.0247	-.140***	.0241	-.145***	.0237
부적응교육프로그램 유무									.013	.0190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021	.0183
교육내용									-.001	.0166
수업방법									.010	.0160
학교규칙의 적절성									-.018	.0106
학교규칙의 규제 수준									-.025	.0146
학생자율성									-.011	.0116
교사태도									-.011	.0178
교우관계									-.007	.0137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수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수		모형3+학생수준 과정변수		모형4+학교수준 과정변수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학교 수준 분산		.02121		.01787		.01279		.01247		.01257
학생 수준 분산		.53791		.4849		.4849		.46405		.46404
전체 분산		.55912		.50277		.49769		.47652		.47661
집단내상관		.03793		.03554		.02570		.02617		.02637
학교수준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1575(.1575)		.3970(.2395)		.4121(.0151)		.4074(-.0047)	
학생수준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0985(.0985)		.0985(.0000)		.1373(.0388)		.1373(.0000)	
전체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1008(.1008)		.1099(.0091)		.1477(.0379)		.1476(-.0002)	

*p〈.05, **p〈.01, ***p〈.001

모형 4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3에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아르바이트 경험,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자아존중감, 사회구조)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4에서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인 아르바이트 경험,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자아존중감 변수는 일반고 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들을 추가함으로써 학생 수준에서의 설명 분산은 모형 3에서보다 3.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4에 학교 수준의 과정 변수(부적응 교육프로그램 유무,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교육내용, 수업방법, 학교규칙의 적절성, 학교규칙의 규제 수준, 학생자율성, 교사 태도, 교우관계)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5에서 학교 수준의 과정 변수들은 모두 일반고 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모형 5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일반고 학생들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 수준 투입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 부모가 없는 학생이 동거 부모가 있는 경우보다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높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 과정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높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다.

학교 수준 변수들이 일반고 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투입 변수 중 여학교 학생들이 남녀공학 학생들보다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 과정 변수인 부적응 교육프로그램 유무,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교육 내용, 수업 방법, 학교규칙의 적절성, 학교규칙의 규제 수준, 학생 자율성, 교사 태도, 교우 관계는 모두 일반고 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12〉는 일반고 학생들의 규범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이다. 일반고 학생들의 규범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에서 각각 투입 변수와 과정 변수들을 단계별로 추가하면서 다층분석을 실행하였다. 모형 1은 규범부적응 응답 수준의 전체 평균(1.231)과 분산(.23672)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고 학생들의 규범부적응 정도의 5.12%는 학교 간 차이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94.88%는 학생들의 개인 특성 차이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반고 학생들의 규범부적응에 미치는 학생 수준 투입 변수(성별, 학업성적, 부모의 학력과 소득, 부모 직업 유무, 부모와의 동거 여부,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 2의 분석 결과에서 학생 수준 분산 94.88% 중 학생 수준 투입 변수들이 규범부적응 정도를 설명하는 비율은 약 11.28%이다. 모형 2에서 학생 수준 투입 변수들 중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월평균 소득, 동거 부모 없음, 부모와의 관계 변수들은 일반고 학생들의 규범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12〉 일반고 학생의 규범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수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수		모형3+학생수준 과정변수		모형4+학교수준 과정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학생 수준 변수										
	1.231***	.0087	1.218***	.0083	1.274***	.0387	1.273***	.0386	1.274***	.0378
성별			-.153***	.0189	-.153***	.0189	-.159***	.0196	-.159***	.0196
학업성적			-.028***	.0039	-.028***	.0039	-.016***	.0043	-.016***	.0043
부학력			.001	.0041	.001	.0041	.002	.0039	.002	.0039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수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수		모형3+학생수준 과정변수		모형4+학교수준 과정변수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모학력			.003	.0039	.003	.0039	.003	.0038	.003	.0038
월평균 소득			.014***	.0026	.014***	.0026	.013***	.0025	.014***	.0025
부직업 유무			.023	.0274	.022	.0274	.023	.0266	.023	.0266
모직업 유무			-.014	.0085	-.014	.0085	-.017	.0084	-.011	.0084
어머니와 동거			.016	.0145	.016	.0146	.011	.0138	.012	.0138
아버지와 동거			-.017	.0238	-.016	.0237	-.018	.0245	-.018	.0244
동거 부모 없음			.082*	.0356	.083*	.0356	.075*	.0352	.075*	.0351
부모와의 관계			-.104***	.0082	-.104***	.0082	-.082***	.0075	-.082***	.0075
부모의 교육지원			.007	.0064	.007	.0064	.011	.0062	.011	.0062
아르바이트 경험							-.147***	.0146	-.147***	.0146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063***	.0064	.063***	.0064
자아존중감							-.031***	.0063	-.031***	.0063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007	.0047	-.007	.0047
학교 수준 변수										
특별시					-.041	.0396	-.037	.0396	-.038	.0387
광역시					-.050	.0380	-.050	.0378	-.044	.0370
중소 도시					-.037	.0372	-.035	.0373	-.033	.0362
설립유형					-.020	.0170	-.020	.0170	-.016	.0162
남학교					.036	.0187	.037	.0188	.031	.0176
여학교					-.134***	.0155	0.135***	.0153	-.141***	.0153
부적응교육프로그램 유무									.015	.0137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013	.0135
교육내용									.004	.0112
수업방법									-.002	.0106
학교규칙의 적절성									-.010	.0073
학교규칙의 규제 수준									-.005	.0100
학생자율성									-.019*	.0081
교사태도									-.015	.0110
교우관계									-.010	.0090
학교 수준 분산	.01212		.01108		.00633		.00649		.0064	
학생 수준 분산	.2246		.19927		.19932		.19		.19	
전체 분산	.23672		.21035		.20565		.19649		.1964	
집단내 상관	.05120		.05267		.03078		.03303		.03259	
학교수준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0858(.0858)		.4777(.3919)		.4645(-.0132)		.4719(.0074)	
학생수준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1128(.1128)		.1126(-.0002)		.1541(.0415)		.1541(.0000)	
전체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1114(.1114)		.1313(.0199)		.1699(.0387)		.1703(.0004)	

*p<.05, **p<.01, ***p<.001

모형 3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2에 학교 수준의 투입 변수(지역규모, 설립유형, 학교 성별 유형)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학교 수준의 투입 변수 중 학교의 성별 유형별로 규범부적응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3에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아르바이트 경험,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자아존중감, 사회구조)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4에서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인 아르바이트 경험,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자아존중감 변수는 일반고 학생의 규범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들을 추가함으로써 학생 수준에서의 설명 분산은 모형 3에서보다 4.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4에 학교 수준의 과정 변수(부적응 교육프로그램 유무,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교육 내용, 수업 방법, 학교 규칙의 적절성, 학교 규칙의 규제수준, 학생 자율성, 교사 태도, 교우 관계)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5에서 학교 수준의 과정 변수들 중 학생 자율성은 일반고 학생의 규범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모형 5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일반고 학생들의 규범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으며,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 부모가 없는 경우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규범부적응 정도가 높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 과정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 변수들이 일반고 학생의 규범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투입 변수의 효과에서 여학교 학생들이 남녀공학 학생들보다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 과정 변수들 중 학생 자율성이 높을수록 일반고 학생의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특성화고 학생의 부적응 원인

〈표 Ⅵ-2-13〉은 특성화고 학생의 부적응 원인 분석에 투입된 변수의 내용이다.

〈표 Ⅵ-2-13〉 특성화고 학생의 부적응 원인 분석에 투입된 변수의 내용

구분		변수명	내용	비고
학생 수준	투입	성별	1:남, 2:여	
		학업성적	1:하, 2:중하, 3:중, 4:중상, 5:상	
		부학력	1:중졸이하, 2:고졸, 3:2년제대졸, 4:4년제 대졸, 5:대학원졸	
		모학력	1:중졸이하, 2:고졸, 3:2년제대졸, 4:4년제 대졸, 5:대학원졸	
		가정의 월평균소득	1:100만원미만, 2:101~200만원, 3:201~300만원, 4:301~400만원, 5:401~500만원, 6:501~600만원, 7:601~700만원, 8:701만원이상	
		부직업 유무	1:있음, 2:없음	
		모직업 유무	1:있음, 2:없음	
		어머니와 동거	1:동거함	기준: 부모와 동거
		아버지와 동거	1:동거함	
		동거 부모 없음	1:동거함	
		부모와의 관계	문항13-1~13-9	문항 13-7~9는 역코딩함 α = .833
		부모의 교육지원	문항14-1~14-7	α = .853
	과정	아르바이트 경험	1:있음, 2:없음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문항16-1~16-5	α = .806
		자아존중감	문항18-1, 2, 3,-5	α = .838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문항18-6~10	α = .915
학교 수준	투입	특별시	특별시:1	기준:읍면
		광역시	광역시:1	
		중소 도시	중소 도시:1	
		설립유형	1:국공립, 2:사립	
		남학교	남학교:1	기준:남녀공학
		여학교	여학교:1	
	과정	부적응교육프로그램 유무	1:있음, 2:없음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1:있음, 2:없음	
		교육내용	문항6-2~3, 5~8	α = .846
		수업방법	문항7-1~7-4	α = .816

구분		변수명	내용	비고
		학교규칙의 적절성	문항8-5, 6	α = .875
		학교규칙의 규제 수준	문항9-1~6	α = .842
		학생자율성	문항10-4, 5	α = .711
		교사태도	문항11-1~10	α = .862
		교우관계	문항12-1~6	α = .833
종속 변수	산출	수업 부적응	문항19-1~6	α = .868
		교사관계 부적응	문항19-9~10	α = .893
		규범 부적응	문항19-12~16, 22~23, 25~26	α = .938

〈표 VI-2-14〉는 특성화고 학생의 수업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에서 각각 투입변수와 과정 변수들을 단계별로 추가하면서 다층분석을 실행하였다. 모형 1은 수업부적응 응답 수준의 전체 평균(2.640)과 분산(.68876) 정보를 제공한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수업부적응 정도의 4.33%는 학교 간 차이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95.67%는 학생들의 개인 특성 차이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14〉 특성화고 학생의 수업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수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수		모형3+학생수준 과정변수		모형4+학교수준 과정변수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학생 수준 변수										
	2.640***	.0161	2.634***	.0172	2.674***	.0382	2.671***	.0388	2.679***	.0376
성별			.139***	.0262	.139***	.0262	.126***	.0241	.126***	.0241
학업성적			-.164***	.0074	-.164***	.0074	-.104***	.0074	-.104***	.0074
부학력			.022*	.0089	.022*	.0089	.016	.0081	.016	.0081
모학력			.002	.0123	.002	.0123	.005	.0118	.005	.0118
가정의 월평균 소득			.021**	.0061	.021**	.0061	.025***	.0054	.025***	.0054
부직업 유무			-.040	.0304	-.041	.0303	-.035	.0293	-.035	.0293
모직업 유무			-.005	.0184	-.005	.0184	-.001	.0182	-.000	.0182
어머니와 동거			.055*	.0247	.056*	.0246	.038	.0226	.038	.0226
아버지와 동거			-.028	.0323	-.029	.0323	-.009	.0304	-.010	.0305
동거 부모 없음			.005	.0451	.005	.0451	.032	.0418	.031	.0417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수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수		모형3+학생수준 과정변수		모형4+학교수준 과정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부모와의 관계			-.235***	.0166	-.235***	.0166	-.108***	.0163	-.108***	.0163
부모의 교육지원			-.041**	.0153	-.041**	.0153	-.032*	.0146	-.033*	.0146
아르바이트 경험							-.193***	.0168	-.193***	.0168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201***	.0123	.201***	.0123
자아존중감							-.139***	.0144	-.139***	.0144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145***	.0140	.145***	.0140
학교 수준 변수										
특별시					-.160*	.0683	-.155*	.0693	-.174*	.0665
광역시					-.070	.0494	-.069	.0496	-.080	.0511
중소 도시					-.015	.0471	-.011	.0476	-.028	.0478
설립 유형					-.020	.0358	-.016	.0362	-.021	.0346
남학교					-.169**	.0464	-.171**	.0471	-.162**	.0499
여학교					.110*	.0440	.111*	.0442	.122**	.0447
부적응교육프로그램 유무									.019	.0349
교사외 지도인력 유무									.005	.0350
교육내용									.022	.0241
수업방법									-.046	.0277
학교규칙의 적절성									-.018	.0199
학교규칙의 규제 수준									-.002	.0241
학생자율성									.012	.0228
교사태도									.009	.0348
교우관계									-.040	.0248
학교 수준 분산	.02979		.03303		.02853		.03014		.03058	
학생 수준 분산	.65897		.5792		.57921		.50765		.50763	
전체 분산	.68876		.61223		.60774		.53779		.53821	
집단내 상관	.04325		.05395		.04694		.05604		.05682	
학교수준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1088(-.1088)		.0423(.1511)		-.0118(-.0540)		-.0265(-.0148)	
학생수준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1211(.1211)		.1210(-.0000)		.2296(.1086)		.2297(.0000)	
전체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1111(.1111)		.1176(.0065)		.2192(.1016)		.2186(-.0006)	

*p<.05, **p<.01, ***p<.001

특성화고 학생들의 수업부적응에 미치는 학생 수준 투입 변수(성별, 학업성적, 부모의 학력과 소득, 부모 직업 유무, 부모와의 동거 여부,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 2의 분석 결과, 학생 수준 분산 95.67% 중 학생 수준 투입 변수들이 수업부적응 정도를 설명하는 비율은 약 12.11%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학생 수준 투입 변수들 중 성별, 학업성적, 아버지 학력, 가정의 월평균 소득, 어머니와 동거,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 변수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2에 학교 수준 투입 변수(지역규모, 설립유형, 학교 성별 유형)를 추가했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3의 분석 결과에서 학교 수준 투입 변수들 중 일부 지역 간에 수업부적응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가 나타났고, 학교의 일부 성별 유형 간에 수업부적응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가 나타났다.

모형 4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3에 학생 수준 과정 변수(아르바이트 경험,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자아존중감, 사회구조)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4에서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인 아르바이트 경험,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자아존중감,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은 모두 특성화고 학생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들을 추가함으로써 학생 수준에서의 설명 분산은 모형 3에서보다 10.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4에 학교 수준 과정 변수(부적응 교육프로그램 유무,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교육 내용, 수업 방법, 학교 규칙의 적절성, 학교 규칙의 규제 수준, 학생 자율성, 교사 태도, 교우 관계)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5에서 학교 수준의 과정 변수들은 모두 특성화고 학생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모형 5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 수준 투입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낮으며, 부모의 교육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 과정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수업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주의 사회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의 변수들이 특성화고 학생의 수업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학교 수준 투입 변수들 중에서 특별시 학생은 읍면 지역 학생보다 수업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성별 유형별로는 남학교 학생들이 남녀공학 학생들보다 수업부적응 정도가 낮고, 여학교 학생들은 남녀공학 학생들보다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 과정 변수들은 모두 수업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2-15〉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교사관계 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에서 각각 투입과 과정 변수들을 단계별로 추가하면서 다층분석을 실행하였다. 모형 1은 교사관계 부적응 응답 수준의 전체 평균(1.743)과 분산(.76724) 정보를 제공한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의 6.99%는 학교 간 차이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93.01%는 학생들의 개인 특성 차이로 인한 것이다.

〈표 Ⅵ-2-15〉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수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수		모형3+학생수준 과정변수		모형4+학교수준 과정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학생 수준 변수										
	1.743***	.0206	1.720***	.0215	1.833***	.0443	1.826***	.0450	1.846***	.0412
성별			-.113**	.0350	-.113**	.0350	-.115**	.0330	-.115**	.0330
학업성적			-.105***	.0082	-.105***	.0082	-.078***	.0091	-.078***	.0091
부학력			.017	.0104	.017	.0104	.015	.0103	.015	.0103
모학력			.022	.0123	.022	.0123	.020	.0121	.020	.0121
가정의 월평균 소득			.034***	.0072	.034***	.0072	.033***	.0070	.033***	.0070
부직업 유무			-.030	.0371	-.030	.0371	-.042	.0354	-.042	.0353
모직업 유무			-.007	.0181	-.007	.0181	-.001	.0177	-.001	.0177
어머니와 동거			.057*	.0280	.058*	.0278	.027	.0267	.026	.0267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수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수		모형3+학생수준 과정변수		모형4+학교수준 과정변수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아버지와 동거			.029	.0410	.029	.0408	.026	.0416	.024	.0416
동거 부모 없음			.060	.0495	.059	.0493	.057	.0462	.055	.0460
부모와의 관계			-.252***	.0156	-.252***	.0156	-.193***	.0163	-.193***	.0163
부모의 교육지원			.059***	.0143	.059***	.0143	.053***	.0137	.053***	.0137
아르바이트 경험							-.250***	.0195	-.250***	.0195
정보통신기기 사용정도							.148***	.0138	.148***	.0138
자아존중감							-.029	.0164	-.029	.0164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043**	.0145	.043**	.0145
학교 수준 변수										
특별시					-.098	.0744	-.091	.0746	-.141*	.0711
광역시					-.105	.0546	-.099	.0550	-.129*	.0538
중소 도시					-.071	.0542	-.062	.0549	-.092	.0503
설립유형					-.116**	.0427	-.115**	.0428	-.112**	.0418
남학교					-.132*	.0537	-.129*	.0534	-.098	.0563
여학교					-.155**	.0465	-.153**	.0462	-.137**	.0474
부적응교육프로그램 유무									-.025	.0403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027	.0383
교육내용									.002	.0301
수업방법									-.031	.0283
학교규칙의 적절성									-.023	.0225
학교규칙의 규제 수준									.027	.0293
학생자율성									-.018	.0251
교사태도									-.008	.0402
교우관계									-.099***	.0252
학교 수준 분산	.05359		.05211		.03985		.04068		.03647	
학생 수준 분산	.71365		.65892		.65888		.62502		.62505	
전체 분산	.76724		.71103		.69873		.6657		.66152	
집단내 상관	.06985		.07329		.05703		.06111		.05513	
학교수준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0276(.0276)		.2564(.2288)		.2409(-.0155)		.3195(.0786)	
학생수준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0767(.0767)		.0767(.0000)		.1242(.0474)		.1242(-.0000)	
전체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0733(.0733)		.0893(.0160)		.1323(.0431)		.1378(.0054)	

*p〈.05, **p〈.01, ***p〈.001

특성화고 학생들의 교사관계 부적응에 미치는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성별, 학업성적, 부모의 학력과 소득, 부모 직업 유무, 부모와의 동거 여부,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 2의 분석 결과에서 학생 수준 분산 93.01% 중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들이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를 설명하는 비율이 약 7.67%임을 알 수 있다. 모형 2에서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들 중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월평균 소득, 어머니와 동거,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 변수들은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2에 학교 수준 투입 변수(지역규모, 설립유형, 학교 성별 유형)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3의 분석 결과에서 학교 수준 투입 변수 중 학교 설립 유형과 학교의 성별 유형별로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3에 학생 수준 과정 변수(아르바이트 경험,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자아존중감, 사회구조)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4에서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인 아르바이트 경험,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사회구조 변수는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들을 추가함으로써 학생 수준에서의 설명 분산은 모형 3에서보다 4.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4에 학교 수준 과정 변수(부적응 교육프로그램 유무,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외 인력 유무, 교육 내용, 수업 방법, 학교 규칙의 적절성, 학교 규칙의 규제 수준, 학생 자율성, 교사 태도, 교우 관계)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5에서 학교 수준의 과정 변수들 중 교우관계 변수는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모형 5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으며, 부모의 교육지원이 높을수록 교사 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 과정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학력주의 사회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 변수들이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투입 변수의 효과에서 특별시 학생들과 광역시 학생들은 각각 읍면 지역 학생들보다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학교 학생들이 국·공립학교 학생들보다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성별 유형별로는 여학교 학생들이 남녀공학 학생들보다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16〉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규범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이다. 학생들의 규범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에서 각각 투입 변수와 과정 변수들을 단계별로 추가하면서 다층분석을 실행하였다. 모형 1은 규범부적응 응답 수준의 전체 평균(1.356)과 분산(.38353) 정보를 제공한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규범부적응 정도의 10.11%는 학교 간 차이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89.89%는 학생들의 개인 특성 차이로 인한 것이다.

〈표 VI-2-16〉 특성화고 학생의 규범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수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수		모형3+학생수준 과정변수		모형4+학교수준 과정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학생 수준 변수										
	1.356***	.0171	1.342***	.0180	1.422***	.0449	1.414***	.0441	1.431***	.0428
성별			-.153***	.0292	-.153***	.0292	-.159***	.0276	-.159***	.0276
학업성적			-.055***	.0062	-.055***	.0062	-.044***	.0064	-.044***	.0064
부학력			.010	.0062	.010	.0062	.009	.0061	.009	.0061
모학력			.015	.0082	.015	.0082	.013	.0082	.013	.0082
가정의 월평균 소득			.026***	.0054	.026***	.0054	.025***	.0052	.024***	.0052
부직업 유무			.036	.0266	.036	.0266	.029	.0249	.029	.0249
모직업 유무			-.007	.0141	-.007	.0142	-.007	.0140	-.007	.0140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수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수		모형3+학생수준 과정변수		모형4+학교수준 과정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어머니와 동거			.047*	.0200	.0488*	.0200	.035	.0200	.035	.0200
아버지와 동거			.007	.0260	.007	.0260	.012	.0261	.011	.0261
동거 부모 없음			.058	.0325	.057	.0324	.076*	.0328	.075*	.0326
부모와의 관계			-.162***	.0121	-.162***	.0121	-.123***	.0119	-.123***	.0119
부모의 교육지원			.051***	.0109	.051***	.0109	.042***	.0105	.042***	.0105
아르바이트 경험							-.124***	.0140	-.124***	.0140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116***	.0104	.116***	.0104
자아존중감							-.027*	.0120	-.027*	.0120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002	.0101	.002	.0101
학교 수준 변수										
특별시					-.069	.0577	-.054	.0575	-.096	.0602
광역시					-.045	.0517	-.033	.0509	-.064	.0515
중소 도시					-.03532	.0511	-.023	.0508	-.042	.0487
설립유형					-.060	.0363	-.060	.0365	-.061	.0364
남학교					-.070	.0440	-.074	.0434	-.062	.0457
여학교					-.189***	.0330	-.196***	.0329	-.178***	.0345
부적응교육프로그램 유무									.025	.0352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018	.0299
교육내용									.017	.0244
수업방법									-.036	.0252
학교규칙의 적절성									-.015	.0182
학교규칙의 규제 수준									.004	.0241
학생자율성									-.020	.0197
교사태도									-.000	.0311
교우관계									-.064**	.0197
학교 수준 분산	.03879		.03965		.03031		.03057		.03021	
학생 수준 분산	.34474		.31103		.3111		.29252		.29251	
전체 분산	.38353		.35068		.34141		.32309		.32272	
집단내 상관	.10114		.11307		.08878		.09462		.09361	
학교수준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0222(-.0222)		.2186(.2408)		.2119(-.0067)		.2212(.0093)	
학생수준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0978(.0978)		.0976(-.0002)		.1515(.0539)		.1515(.0000)	
전체 누적설명분산(추가된 설명분산)			.0857(.0857)		.1098(.0242)		.1576(.0478)		.1586(.0010)	

*p<.05, **p<.01, ***p<.001

특성화고 학생들의 규범부적응에 미치는 학생 수준 투입 변수(성별, 학업성적, 부모의 학력과 소득, 부모 직업 유무, 부모와의 동거 여부,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 2의 분석 결과에서 학생 수준 분산 89.89% 중 학생 수준 투입 변수들이 규범부적응 정도를 설명하는 비율이 약 9.78%임을 알 수 있다. 모형 2에서 학생 수준의 투입 변수들 중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월평균 소득, 어머니와 동거,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 변수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규범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2에 학교 수준 투입 변수(지역규모, 설립유형, 학교 성별 유형)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3의 분석 결과에서 학교 수준 투입 변수 중 학교의 성별 유형별로 규범부적응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3에 학생 수준 과정 변수(아르바이트 경험,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자아존중감, 사회구조)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과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4에서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인 아르바이트 경험,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 자아존중감 변수는 특성화고 학생의 규범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 학생 수준의 과정 변수들을 추가함으로써 학생 수준에서의 설명 분산은 모형 3에서보다 5.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4에 학교 수준 과정 변수(부적응 교육프로그램 유무,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외 지도 인력 유무, 교육 내용, 수업 방법, 학교 규칙의 적절성, 학교 규칙의 규제 수준, 학생 자율성, 교사 태도, 교우 관계)를 추가시켰을 때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 5에서 학교 수준 과정 변수들 중 교우관계는 특성화고 학생의 규범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모형 5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규범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 수준 투입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으며, 부모의 교육지원이 높을수록 규범부적응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 과정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 변수들이 특성화고 학생의 규범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투입 변수의 효과에서 학교의 성별 유형별로 여학교 학생들이 남녀공학 학생들보다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 과정 변수들 중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특성화고 학생의 규범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살펴본 학생의 학교 부적응에 대한 다층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수업부적응에 학생 개인과 가정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학교 변수는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 수준 투입 변수 중 성별이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보면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높은 학생들에 비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은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수업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어머니와 동거하는 학생이, 중학교에서는 아버지와 동거하는 학생이, 일반고에서는 동거 부모가 없는 학생이 부모와 동거하는 가정의 학생들보다 수업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모의 교육지원이 낮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수업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 과정 변수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에서 수업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학력주의 사회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수업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의 투입 및 과정 변수가 수업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초등학교와 일반고에서는 학교의 투입 및 과정 변수 모두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특성화고에서는 읍면 지역 학생들이 특별시 학생들보다 수업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교 학생들보다 남녀공학 학생들이 수업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공학 학생들보다

여학교 학생들의 수업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관계 부적응에 있어서도 학교 변수보다 학생 개인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에서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높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어머니와 동거하는 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은 부모와 동거하는 가정의 학생들보다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더 높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지원이 낮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특성화고에서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 과정 변수인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더 높다.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에서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높다. 학력주의 사회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특성화고에서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수준의 투입과 과정 변수 모두 교사관계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는 읍면 지역 학생들이 특별시, 광역시, 중소 도시 학생들보다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성화고에서는 읍면 지역 학생들이 특별시 학생들과 광역시 학생들보다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에서는 공립학교 학생들이 사립학교 학생들보다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에서 남녀공학 학생들이 여학교 학생들보다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높다. 학교 수준 과정 변수들은 모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에서 교사관계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에서는 교우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이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규범부적응에 있어서도 학교 변수보다 학생 개인 변수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에서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다.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규범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은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에서는 어머니와 동거하는 가정의 학생이, 일반고와 특성화고에서는 동거 부모가 없는 가정의 학생들이 부모와 동거하는 가정의 학생들보다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지원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와 특성화고에서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 과정 변수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에서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초등학교, 일반고, 특성화고에서 모두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주의 사회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초등학교에서 규범 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수준의 투입 및 과정 변수 모두가 규범부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는 읍면 지역 학생들이 광역시 학생들보다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다. 중학교에서는 남학교 학생들이 남녀공학 학생들보다 규범부적응 정도가 높으며, 남녀공학 학생들이 여학교 학생들보다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와 특성화고에서는 남녀공학 학생들이 여학교 학생들보다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다. 학교 수준의 과정 변수 중 중학교와 특성화고에서는 교우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고에서는 학생의 자율성이 낮은 학교일수록 규범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Ⅶ. 학교의 부적응 학생 지도 실태

1. 교사가 보는 학교 부적응 행동과 원인
2. 부적응 학생 지도 실태
3. 학교 부적응 감소·예방 대책

Ⅶ. 학교의 부적응 학생 지도 실태

이 장에서는 학교 부적응 행동과 원인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본 후에 학교의 부적응 학생 지도 실태를 살펴보고 부적응을 감소,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장의 내용은 주로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질문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2절의 부적응 학생 지도 실태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수집한 학교의 지도 사례를 제시한다.

1. 교사가 보는 학교 부적응 행동과 원인

가. 학교 부적응 행동

교사가 학생의 어떤 행동을 '부적응'으로 규정하며, 부적응의 원인을 무엇으로 진단하는가는 부적응 학생 지도 방침과 방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교사들의 학교 부적응 행동과 원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교사들은 이 연구에서 제시한 26개의 행동 모두를 부적응으로 보고 있다. 어떤 행동을 더 '심한' 부적응, '약한' 부적응으로 보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표 Ⅶ-1-1〉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들이 매긴 부적응 점수가 가장 높은 행동은 무단결석(4.25)이며, 그 다음은 무단조퇴(4.18), 교사에게 반항(4.11), 다른 학생에게 따돌림, 괴롭힘 당함(4.10), 다른 학생 괴롭힘, 폭행(4.10), 고의적인 수업 방해 행위(4.09), 교사에게 무례하게 행동(4.06), 외톨이(4.01), 몰래 수업 빼먹기(4.01), 일과 중 학교 이탈(4.01) 순이다. 부적응 점수가 가장 낮은 행동은 시험 부정 행위(3.28)이며, 복장·두발 규정 위반(3.31), 교재·준비물을 잘 챙기지 못함(3.31),

수업 시간에 떠듦(3.41) 등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교사들은 무단결석과 조퇴 등 학교 이탈, 교사에 대한 반항과 무례함, 괴롭힘·따돌림 등 폭력 가해와 피해 행동을 부적응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에 대한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앞의 5장에서 수업, 교사관계, 학교규범으로 유형화하여 산출한 학생부적응 정도는 '보통(평균 3점)' 이하이다. 전반적으로 부적응 정도가 낮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수업부적응이며, 교사관계와 학교규범 측면의 부적응 정도는 상당히 낮았다. 이처럼 교사들이 부적응을 규정하는 '기준'은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도 방식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즉, 교사들은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도의 중점을 교사관계와 학교규범 측면의 문제행동을 단속하고 규제하는데 둘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학생들의 부적응 정도는 교사관계나 규범보다 수업에서 더 크게 드러나고 있으므로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사나 학교의 대응과 실제 나타나고 있는 부적응 현상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표 Ⅶ-1-1〉 교사들이 보는 부적응 행동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값	집단 간 차이
전반적인 무기력, 의욕 부진	초등학교(a)	6108	3.84	.933	12.810***	b〉a d〉a b〉c d〉c
	중학교(b)	5692	3.92	.902		
	일반고(c)	9027	3.86	.904		
	특성화고(d)	6138	3.93	.916		
합계		26965	3.88	.913		
수업 시간에 멍하게 앉아있음	초등학교(a)	6115	3.72	.912	4.500**	d〉a
	중학교(b)	5690	3.75	.857		
	일반고(c)	9020	3.74	.872		
	특성화고(d)	6130	3.78	.874		
합계		26955	3.74	.879		
교재, 준비물을 잘 챙기지 못함	초등학교(a)	6116	3.29	.937	36.093***	b〉c d〉a d〉b d〉c
	중학교(b)	5685	3.33	.890		
	일반고(c)	9000	3.26	.895		
	특성화고(d)	6118	3.41	.934		
합계		26919	3.32	.914		
수업 시간에 딴 짓함	초등학교(a)	6100	3.82	.984	28.660***	a〉b a〉c a〉d b〉c d〉c
	중학교(b)	5685	3.72	.948		
	일반고(c)	9011	3.67	.956		
	특성화고(d)	6130	3.75	.943		
합계		26926	3.73	.960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값	집단 간 차이
수업 시간에 떠듦	초등학교(a)	6113	3.35	.966	38.490***	b>a b>c d>a d>c
	중학교(b)	5683	3.48	.959		
	일반고(c)	9013	3.36	.962		
	특성화고(d)	6127	3.48	.966		
합계		26936	3.41	.965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함	초등학교(a)	6120	3.83	.957	50.469***	a>c a>d b>a b>c b>d
	중학교(b)	5689	3.89	.936		
	일반고(c)	9011	3.71	.958		
	특성화고(d)	6131	3.74	.965		
합계		26951	3.78	.957		
수업 시간에 잠자기	초등학교(a)	6113	3.80	1.081	3.178*	d>c
	중학교(b)	5688	3.81	.921		
	일반고(c)	9016	3.78	.933		
	특성화고(d)	6127	3.83	.908		
합계		26944	3.80	.961		
수업 시간의 고의적인 방해 행위	초등학교(a)	6116	4.21	1.034	100.879***	a>c a>d b>c b>d c>d
	중학교(b)	5693	4.21	.963		
	일반고(c)	9027	4.02	1.050		
	특성화고(d)	6140	3.96	1.087		
합계		26976	4.09	1.043		
교사의 지시에 불응	초등학교(a)	6105	3.98	.962	36.372***	b>a a>c a>d b>c b>d d>c
	중학교(b)	5682	4.04	.915		
	일반고(c)	9016	3.88	.949		
	특성화고(d)	6133	3.93	.952		
합계		26936	3.95	.948		
교사에게 반항	초등학교(a)	6108	4.19	1.015	53.009***	a>c a>d b>c b>d
	중학교(b)	5685	4.20	.957		
	일반고(c)	9015	4.05	1.012		
	특성화고(d)	6131	4.03	1.019		
합계		26939	4.11	1.006		
교사에게 무례하게 행동	초등학교(a)	6105	4.11	.988	46.807***	a>c a>d b>c b>d
	중학교(b)	5680	4.15	.934		
	일반고(c)	9012	3.99	.977		
	특성화고(d)	6115	4.00	.979		
합계		26912	4.06	.973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값	집단 간 차이
외톨이	초등학교(a)	6105	4.16	.945	168.542***	a〉c a〉d b〉c b〉d c〉d
	중학교(b)	5681	4.12	.909		
	일반고(c)	9007	3.97	.951		
	특성화고(d)	6119	3.81	.995		
합계		26912	4.01	.960		
다른 학생에게 따돌림, 괴롭힘 당함	초등학교(a)	6103	4.27	.979	185.084***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5675	4.22	.937		
	일반고(c)	9003	4.05	1.048		
	특성화고(d)	6120	3.88	1.098		
합계		26901	4.10	1.032		
다른 학생 괴롭힘, 폭행 (인터넷괴롭힘 포함)	초등학교(a)	6112	4.29	1.001	181.477***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5684	4.21	.965		
	일반고(c)	9021	4.06	1.065		
	특성화고(d)	6133	3.89	1.121		
합계		26950	4.10	1.054		
다른 학생의 물건, 돈 뺏기	초등학교(a)	6109	4.20	1.096	172.166***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5683	4.08	1.027		
	일반고(c)	9018	3.97	1.122		
	특성화고(d)	6133	3.76	1.190		
합계		26943	4.00	1.123		
학교 기물 파손	초등학교(a)	6106	4.02	1.106	144.942***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5687	3.79	1.034		
	일반고(c)	9016	3.74	1.092		
	특성화고(d)	6128	3.61	1.153		
합계		26937	3.79	1.106		
복장, 두발 규정 위반	초등학교(a)	6104	3.37	1.055	33.435***	a〉b a〉c b〉c d〉b d〉c
	중학교(b)	5685	3.31	.901		
	일반고(c)	9022	3.24	.898		
	특성화고(d)	6137	3.37	.913		
합계		26948	3.31	.942		
흡연	초등학교(a)	6102	3.89	1.232	286.960***	a〉b a〉c a〉d b〉c b〉d
	중학교(b)	5690	3.64	1.009		
	일반고(c)	9025	3.42	.988		
	특성화고(d)	6138	3.46	.985		
합계		26955	3.58	1.069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값	집단 간 차이
음주	초등학교(a)	6100	3.90	1.251	340.590***	a>b a>c a>d b>c b>d
	중학교(b)	5684	3.66	1.075		
	일반고(c)	9021	3.41	1.055		
	특성화고(d)	6136	3.36	1.015		
합계		26941	3.56	1.118		
시험 부정 행위	초등학교(a)	6090	3.57	1.133	248.723***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5677	3.32	1.117		
	일반고(c)	9004	3.22	1.119		
	특성화고(d)	6128	3.04	1.113		
합계		26899	3.28	1.136		
성적인 비행(성희롱, 이성 교제로 인한 일탈 행위 등)	초등학교(a)	6097	3.95	1.208	237.329***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5685	3.75	1.097		
	일반고(c)	9014	3.56	1.127		
	특성화고(d)	6133	3.45	1.126		
합계		26929	3.66	1.154		
무단 결석	초등학교(a)	6109	4.32	1.104	49.802***	a>c a>d b>c b>d c>d
	중학교(b)	5691	4.35	.954		
	일반고(c)	9030	4.22	1.020		
	특성화고(d)	6137	4.15	1.007		
합계		26967	4.25	1.026		
무단 조퇴	초등학교(a)	6105	4.26	1.110	61.210***	a>c a>d b>c b>d c>d
	중학교(b)	5691	4.28	.967		
	일반고(c)	9029	4.15	1.032		
	특성화고(d)	6137	4.05	1.052		
합계		26962	4.18	1.045		
상습 지각	초등학교(a)	6102	3.87	1.067	26.817***	a>c b>c d>c
	중학교(b)	5689	3.87	.966		
	일반고(c)	9025	3.76	.990		
	특성화고(d)	6137	3.88	.978		
합계		26953	3.83	1.002		
몰래 수업을 빼먹는 행동	초등학교(a)	6099	4.12	1.107	91.860***	a>c a>d b>c b>d c>d
	중학교(b)	5682	4.14	.979		
	일반고(c)	9023	3.96	1.028		
	특성화고(d)	6130	3.88	1.077		
합계		26934	4.01	1.053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값	집단 간 차이
학교 일과 시간에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가는 행동	초등학교(a)	6097	4.09	1.103	67.536***	a〉c a〉d b〉c b〉d c〉d
	중학교(b)	5688	4.13	.995		
	일반고(c)	9023	3.96	1.025		
	특성화고(d)	6136	3.90	1.099		
합계		26944	4.01	1.058		

*p<.05, **p<.01, ***p<.001

나. 학교 부적응의 원인

많은 연구에서 학교 부적응의 원인으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한 교사들의 견해를 조사한 결과를 〈표 Ⅶ-1-2〉에 제시하였다. 이 표는 각 사항들이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교사들은 학교 부적응에 학교보다는 학생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학교 요인 중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특기, 적성, 진로, 흥미에 부합하지 못하는 학교 교육과정"이 학교 부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표 Ⅶ-1-2〉 교사가 보는 학교 부적응의 원인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부모의 무관심	초등학교(a)	6109	4.67	.641	144.181***	a〉b, a〉c, a〉d, b〉c, b〉d
	중학교(b)	5683	4.63	.617		
	일반고(c)	9023	4.48	.714		
	특성화고(d)	6127	4.49	.700		
합계		26942	4.56	.680		
학생 개인의 정서·심리 특성	초등학교(a)	6104	4.51	.726	93.839***	a〉c, a〉d, b〉c, b〉d
	중학교(b)	5676	4.49	.682		
	일반고(c)	9019	4.35	.748		
	특성화고(d)	6126	4.35	.762		
합계		26925	4.42	.737		
컴퓨터, 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정보 매체에의 몰입	초등학교(a)	6110	4.19	.864	28.796***	a〉c, a〉d, b〉c, b〉d
	중학교(b)	5682	4.22	.798		
	일반고(c)	9011	4.11	.841		
	특성화고(d)	6127	4.12	.853		
합계		26930	4.15	.842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다른 학생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초등학교(a)	6096	4.29	.787	291.605***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5675	4.12	.796		
	일반고(c)	9007	3.97	.848		
	특성화고(d)	6113	3.88	.887		
합계		26891	4.05	.846		
상업적 대중문화, 유해 사회환경 접촉	초등학교(a)	6105	4.12	.851	145.162***	a〉b, a〉c, a〉d, b〉c, b〉d
	중학교(b)	5672	3.99	.843		
	일반고(c)	9012	3.86	.857		
	특성화고(d)	6121	3.86	.870		
합계		26910	3.95	.863		
부모의 교육 지원 미흡	초등학교(a)	6110	4.06	.823	162.614***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5685	3.91	.837		
	일반고(c)	9021	3.76	.855		
	특성화고(d)	6130	3.86	.833		
합계		26946	3.88	.847		
학생 개개인의 특기, 적성, 진로, 흥미에 부합하지 못하는 학교 교육과정	초등학교(a)	6111	3.84	.878	104.929***	a〉b, a〉c, a〉d, b〉d, c〉d
	중학교(b)	5689	3.80	.870		
	일반고(c)	9022	3.80	.870		
	특성화고(d)	6129	3.59	.935		
합계		26951	3.76	.892		
학교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 판단하는 학교 풍토	초등학교(a)	6103	4.01	.901	518.817***	a〉b, a〉c, a〉d, b〉d, c〉d
	중학교(b)	5675	3.75	.942		
	일반고(c)	9007	3.75	.911		
	특성화고(d)	6122	3.34	1.040		
합계		26907	3.72	.973		
공부만 강조하는 학교 풍토	초등학교(a)	6084	3.96	.882	554.799***	a〉b, a〉c, a〉d, b〉d, c〉d
	중학교(b)	5662	3.74	.920		
	일반고(c)	8955	3.73	.905		
	특성화고(d)	6083	3.29	1.036		
합계		26784	3.68	.963		
교사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초등학교(a)	6111	3.87	.859	214.625***	a〉b, a〉c, a〉d, b〉c, b〉d
	중학교(b)	5678	3.61	.848		
	일반고(c)	9013	3.54	.845		
	특성화고(d)	6125	3.53	.893		
합계		26927	3.63	.870		
학력, 학벌주의	초등학교(a)	6104	3.84	.901	370.276***	a〉b, a〉c, a〉d, b〉d, c〉d
	중학교(b)	5674	3.59	.896		
	일반고(c)	9009	3.56	.908		
	특성화고(d)	6116	3.29	.962		
합계		26903	3.57	.935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교사의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 배려 미흡	초등학교(a)	6111	3.72	.841	115.958***	a〉b, a〉c, a〉d, b〉d, c〉d
	중학교(b)	5680	3.52	.818		
	일반고(c)	9014	3.53	.807		
	특성화고(d)	6120	3.46	.853		
합계		26925	3.56	.833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수업 방식	초등학교(a)	6113	3.64	.831	56.209***	a〉b, a〉c, a〉d, b〉d, c〉d
	중학교(b)	5687	3.54	.797		
	일반고(c)	9017	3.54	.804		
	특성화고(d)	6129	3.45	.844		
합계		26946	3.54	.821		
학생들의 요구에 맞지 않는 학교 규칙	초등학교(a)	6099	3.44	.829	54.852***	a〉b, a〉c, a〉d, b〉d, c〉d
	중학교(b)	5668	3.29	.833		
	일반고(c)	8996	3.32	.833		
	특성화고(d)	6114	3.25	.865		
합계		26877	3.32	.842		

*p〈.05, **p〈.01, ***p〈.001

2. 부적응 학생 지도 실태

가. 학교 부적응 판단 기준·방법

학교에서 학생의 학교 부적응 여부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기준·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 결과는 〈표 Ⅶ-2-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사가 개별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30.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학교 교칙 위반 정도로 판단”(28.4%), “학교 차원에서 지표를 만들어 사용”(26.7%)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간 차이를 보면 초등학교는 교사가 개별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비율이 다른 학교에 비해 훨씬 높은 반면에 학교 교칙 위반 정도로 판단하는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교칙이 정립되어 있는 정도와 그것을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Ⅶ-2-1〉 학교 부적응 판단 기준·방법

	교과부에서 만든 지표 사용	학교 차원에서 만든 지표 사용	교사가 개별 기준에 따라 판단	학교교칙 위반 정도로 판단	기타	전체	χ^2
초등학교	740	1522	2594	997	173	6026	939.807***
	12.3%	25.3%	43.0%	16.5%	2.9%	100.0	
중학교	661	1446	1467	1762	246	5582	
	11.8%	25.9%	26.3%	31.6%	4.4%	100.0	
일반고	970	2346	2506	2704	340	8866	
	10.9%	26.5%	28.3%	30.5%	3.8%	100.0	
특성화고	613	1779	1428	2078	154	6052	
	10.1%	29.4%	23.6%	34.3%	2.5%	100.0	
전체	2984	7093	7995	7541	913	26526	
	11.2%	26.7%	30.1%	28.4%	3.4%	100.0	

*p〈.05, **p〈.01, ***p〈.001

학교 부적응을 교사가 개별 기준에 따라 판단하거나 학교 교칙 위반 정도로 판단할 경우 그 결과가 주관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학교 교칙은 객관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위반하는 정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교사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사 간 불일치가 클 경우 학생 지도의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학생들의 불만과 반발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대다수 교사는 학생의 학교 부적응 판단을 위해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Ⅶ-2-2〉 학교 부적응 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의 필요성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전체	χ^2
필요함	5436(89.6)	5007(88.6)	7695(86.2)	5363(88.1)	23501 (87.9)	43.551***
필요없음	632(10.4)	642(11.4)	1232(13.8)	726(11.9)	3232 (12.1)	
합계	6068(100.0)	5649(100.0)	8927(100.0)	6089(100.0)	26733(100.0)	

*p〈.05, **p〈.01, ***p〈.001

학교 부적응 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누가 만드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반응을 보면 〈표 Ⅶ-2-3〉에서 볼 수 있듯이 단위학교라고 응답한 비율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교육과학기술부라고 응답한 비율도 32.7%에 이른다. 학교급 간 차이를 보면 단위학교라고 응답한 비율은 특

성화고에서 가장 높고, 초등학교에서 가장 낮은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라고 응답한 비율은 특성화고에서 가장 낮고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다.

〈표 Ⅶ-2-3〉 학교 부적응 판단 기준 제작 주체

	교육과학 기술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학교)	단위학교	전체	x^2
초등학교	1987	636	1454	1357	5434	3035.952***
	36.6%	11.7%	26.8%	25.0%	100.0%	
중학교	1706	733	1036	1534	5009	
	34.1%	14.6%	20.7%	30.6%	100.0%	
일반고	2524	2007	242	2927	7700	
	32.8%	26.1%	3.1%	38.0%	100.0%	
특성화고	1469	1238	153	2494	5354	
	27.4%	23.1%	2.9%	46.6%	100.0%	
전체	7686	4614	2885	8312	23497	
	32.7%	19.6%	12.3%	35.4%	100.0%	

*p〈.05, **p〈.01, ***p〈.001

나. 학교 부적응 학생 지도 프로그램과 인력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유무 현황을 보면 67.2%의 교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상당 수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특성화고, 일반고, 초등학교 순이다(〈표 Ⅶ-2-4〉).

부적응 지도 학생 지도 프로그램으로 모든 학교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개별 및 집단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Ⅶ-2-5〉). 그러나 두 번째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학교급 간에 차이가 있다. 중등학교에서는 '교내외 봉사활동'을 두 번째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초등학교에서는 '심리 진단 및 치료'를 두 번째로 많이 시행하고 있다. '심리 진단 및 치료'는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더 많이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중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더 적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멘토링'의 비율은 네 학교가 유사한 수준이다.

〈표 Ⅶ-2-4〉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별도 교육프로그램 유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전체	χ^2
있음	3213(57.8)	3844(74.7)	5247 (64.9)	4031 (72.9)	16335 (67.2)	457.241***
없음	2348(42.2)	1299(25.3)	2841 (35.1)	1500 (27.1)	7988 (32.8)	
합계	5561(100.0)	5143(100.0)	8088(100.0)	5531(100.0)	24323(100.0)	

*p〈.05, **p〈.01, ***p〈.001

〈표 Ⅶ-2-5〉 부적응 학생 지도 프로그램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방과후 학습지도	1416 (4.4)	1225 (8.8)	1221 (7.2)	1324 (9.4)
특기적성 교육	911 (9.3)	892 (6.4)	745 (4.4)	805 (5.7)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	496 (5.0)	652 (4.7)	561 (3.3)	406 (2.9)
개별 및 집단 상담	2493 (25.4)	3098 (22.4)	3848 (22.6)	3005 (21.2)
음주·흡연·약물 예방 치유 프로그램	355 (3.6)	1259 (9.1)	1706 (10.0)	1545 (10.9)
심성 계발 프로그램	889 (9.0)	1127 (8.1)	1237 (7.3)	1020 (7.2)
심리 진단 및 치료	1457 (14.8)	1887 (13.6)	2196 (12.9)	1676 (11.9)
멘토링	1041 (10.6)	1510 (10.9)	1872 (11.0)	1531 (10.8)
교내외 봉사활동 참여	629 (6.4)	1897 (13.7)	3008 (17.7)	2403 (17.0)
직업훈련	37 (0.4)	134 (1.0)	465 (2.7)	291 (2.1)
기타	106 (1.1)	174 (1.3)	161 (0.9)	137 (1.0)
합계	9830(100.0)	13855(100.0)	17020(100.0)	14143(100.0)

* 다중 응답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이외 인력이 있는 학교는 〈표 Ⅶ-2-6〉에서 보듯이 약 62%이다. 학교급 간 차이를 보면 중학교의 비율이 8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특성화고, 일반고, 초등학교 순이다. 학교급 간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Ⅶ-2-6〉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이외 인력 유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전체	χ^2
있음	2798 (47.6)	4561 (83.5)	4785 (55.4)	3808 (64.7)	15952 (61.7)	1764.197***
없음	3084 (52.4)	900 (16.5)	3850 (44.6)	2075 (35.3)	9909 (38.3)	
합계	5882(100.0)	5461(100.0)	8635(100.0)	5883(10.0)	25861(100.0)	

*p〈.05, **p〈.01, ***p〈.001

부적응 학생 지도 인력의 유형 분포는 〈표 Ⅶ-2-7〉과 같다. 모든 학교에서 '전문상담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학교급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일반고, 중학교, 초등학교 순이다. 전문상담 교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사회복지사' 비율이 다소 높다.

〈표 Ⅶ-2-7〉 부적응 학생 지도 인력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전문상담교사	2080 (56.6)	4271 (66.1)	4277 (76.0)	3530 (92.6)
사회복지사	528 (14.4)	1022 (15.8)	149 (2.6)	140 (3.1)
청소년지도사	153 (4.2)	108 (1.7)	168 (3.0)	143 (3.1)
지역사회교육전문가	363 (9.9)	340 (5.3)	195 (3.5)	156 (3.4)
자원봉사자	291 (7.9)	399 (6.2)	477 (8.5)	340 (7.5)
기타	259 (7.0)	320 (5.0)	362 (6.4)	240 (5.3)
합계	3674(100.0)	6460(100.0)	5628(100.0)	4549(100.0)

* 다중 응답

다. 교사의 부적응 학생 지도 방식

교사가 부적응 학생을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표 Ⅶ-2-8〉에 제시하였다. 교사들이 부적응 학생을 지도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식은 '직접 훈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2-8〉 교사의 부적응 학생 지도 방식

		전혀 하지 않음	하지 않는 편	가끔 함	자주 하는 편	매우 자주 함	전체	χ^2
직접 훈계	초등학교	13	85	1510	3079	1204	5891	1220.127***
		(0.2)	(1.4)	(25.6)	(52.3)	(20.4)	(100.0)	
	중학교	5	92	1716	2857	695	5365	
		(0.1)	(1.7)	(32.0)	(53.3)	(13.0)	(100.0)	
	일반고	40	320	4003	3586	601	8550	
		(0.5)	(3.7)	(46.8)	(41.9)	(7.0)	(100.0)	
	특성화고	15	149	2216	2822	638	5840	
		(0.3)	(2.6)	(37.9)	(48.3)	(10.9)	(100.0)	
	전체	73	646	9445	12344	3138	25646	
		(0.3)	(2.5)	(36.8)	(48.1)	(12.2)	(100.0)	
직접 상담	초등학교	19	111	1466	3139	1263	5998	1326.643***
		(0.3)	(1.9)	(24.4)	(52.3)	(21.1)	(100.0)	
	중학교	13	118	1866	2798	678	5473	
		(0.2)	(2.2)	(34.1)	(51.1)	(12.4)	(100.0)	
	일반고	40	438	4071	3484	654	8687	
		(0.5)	(5.0)	(46.9)	(40.1)	(7.5)	(100.0)	
	특성화고	14	218	2296	2745	647	5920	
		(0.2)	(3.7)	(38.8)	(46.4)	(10.9)	(100.0)	
	전체	86	885	9699	12166	3242	26078	
		(0.3)	(3.4)	(37.2)	(46.7)	(12.4)	(100.0)	
교내 전문인력 (상담사, 복지사 등)에게 도움 요청	초등학교	965	1921	2203	597	127	5813	1698.689***
		(16.6)	(33.0)	(37.9)	(10.3)	(2.2)	(100.0)	
	중학교	131	898	2845	1296	247	5417	
		(2.4)	(16.6)	(52.5)	(23.9)	(4.6)	(100.0)	
	일반고	871	2608	3722	1102	187	8490	
		(10.3)	(30.7)	(43.8)	(13.0)	(2.2)	(100.0)	
	특성화고	329	1452	2860	1020	163	5824	
		(5.6)	(24.9)	(49.1)	(17.5)	(2.8)	(100.0)	
	전체	2296	6879	11630	4015	724	25544	
		(9.0)	(26.9)	(45.5)	(15.7)	(2.8)	(100.0)	

		전혀 하지 않음	하지 않는 편	가끔 함	자주 하는 편	매우 자주 함	전체	χ^2
학부모 에게 도움 요청	초등학교	118	607	3199	1674	325	5923	579.762***
		(2.0)	(10.2)	(54.0)	(28.3)	(5.5)	(100.0)	
	중학교	112	631	2705	1658	298	5404	
		(2.1)	(11.7)	(50.1)	(30.7)	(5.5)	(100.0)	
	일반고	426	1708	4188	1936	278	8536	
		(5.0)	(20.0)	(49.1)	(22.7)	(3.3)	(100.0)	
	특성화고	213	1014	2800	1544	260	5831	
		(3.7)	(17.4)	(48.0)	(26.5)	(4.5)	(100.0)	
	전체	869	3960	12892	6812	1161	25694	
		(3.4)	(15.4)	(50.2)	(26.5)	(4.5)	(100.0)	
학교 밖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	초등학교	1649	2596	1355	186	44	5830	425.475***
		(28.3)	(44.5)	(23.2)	(3.2)	(0.8)	(100.0)	
	중학교	827	2455	1701	309	45	5337	
		(15.5)	(46.0)	(31.9)	(5.8)	(0.8)	(100.0)	
	일반고	1759	3987	2271	373	80	8470	
		(20.8)	(47.1)	(26.8)	(4.4)	(0.9)	(100.0)	
	특성화고	994	2660	1755	340	50	5799	
		(17.1)	(45.9)	(30.3)	(5.9)	(0.9)	(100.0)	
	전체	5229	11698	7082	1208	219	25436	
		(20.6)	(46.0)	(27.8)	(4.7)	(0.9)	(100.0)	

*p〈.05, **p〈.01, ***p〈.001

60.3%의 교사가 “자주 또는 매우 자주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59.1%의 교사가 ‘직접 상담’을 “자주 또는 매우 자주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직접 훈계’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교내 다른 전문 인력에게 도움 요청”과 “학교 밖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은 각각 18.5%, 5.6%만이 “자주 또는 매우 자주한다”고 응답하였다.

라. 학교의 부적응 학생 지도 사례

1) 누리중학교

중소 도시에 소재한 누리중학교 교장은 학교 경영에서 교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담당 교사들의 재량권을 존중하지만 학생 생활지도에서는 교사 개개인의 능력과 열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시행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영관을 대표하는 것이 생활지도에서의 그린마일리지제도(벌점제)이다. 그린마일리지제도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교사들이 있었으나, 누리중의 교장은 이 제도야말로 특정 교사에 의해서 생활지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누리중학교는 CCTV, 학생선도부, 배움터 지킴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문제행동 빈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학교에서는 이 모든 노력들이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누리중은 열악한 가정환경의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생활지도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학교라는 평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교장이 그린마일리지제도를 중심으로 학생지도 수단을 제도화시키려고 하였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교사마다 학생 지도 방식에 일관성이 없고 종종 공정하지 못한 처벌이라는 생각에 불만과 저항감을 나타냈다.

2) 고담중학교

대도시에 위치한 고담중학교 교장은 학교 구성원 간에 "소통과 협력이 있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형성을 강조했다. 학교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적절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입시경쟁 교육이 학생들의 부적응 문제 발생에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존중하고, 이들의 다양한 능력과 관심을 키워나가며,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임을 지게 하는 학교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학교장의 방침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 규정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운영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었다.

교사들의 합의에 의해서 학년부체제가 도입되면서 생활지도부 뿐만이 아니라 학년부별로 생활지도 담당 교사가 6명씩 배정되어 학생 생활지도가 강화되었다. 그 덕분에 담임과 생활지도부가 밀착하여 학생 지도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철학으로 학생들을 지

도하는 현 생활지도 부장은 부적응 학생들의 엄정한 징계에 그치지 않고 추수 관리 프로그램(글쓰기 치료, 미술심리 치료, 뇌 체조, 상담 등)을 다양하게 시도하였다.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장과 학생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지도 부장의 협력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고담중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부적응 학생들의 "불만이나 독기"가 많이 빠지고, 순해지고, 밝아졌으며, 학교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학생지도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 감정 충돌을 막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입된 벌점제에 대해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다.

3) 이레 특성화 고등학교

읍면 지역에 위치한 이레고는 100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 있는 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다. 하지만 최근에는 "험하고 힘든" 학교라는 평판 때문에 교사들이 기피하는 학교다. 교장 역시 이레고의 부임에 대해서 불안과 우려가 컸지만, 부임 이후 지내다 보니 학생들이 생각보다 덜 험하고 착하다고 인식한다. 그는 "힘든 학교"라는 불명예를 없애기 위해 생활지도를 강화하였다. 특히 학교폭력만큼은 근절해야 하며 학교에서 교사들의 관심과 지도에 의해서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생의 대다수가 저소득층이고 절반 가까이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공부만 너무 강조하면 학교 오기도 싫어하고 또 이들이 기댈 곳도 없어진다고 생각하였다.

교장은 가뜩이나 힘든 교사들을 매스컴에서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다. "교사가 힘을 내야 학교도 건강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교사들은 교장의 생활지도 방침에 적극 부응하면서도 자신들의 소신과 가치관에 의해서 각기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교장의 생활지도 특히 학교폭력에 대한 강한 의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면담에 참여한 부적응 학생들의 90%가 학교 안에서 "사소한 다툼" 외에 "학교폭력"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교사들도 이레고등학교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교장의 학교운영 방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학생들과의 면담 결과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이 단순히 가정환경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이레고를 졸업해봤자 제대로 취업하기 어렵다는 절망, 특히 괜찮은 취업 추천 의뢰가 이레고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인식이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4) 한라 마이스터고등학교

한라고는 대도시 중산층 지역에 위치한 마이스터고다. 학교장은 한라고를 설립한 관련 공기업체에서 근무하다 “후진 양성”을 위해 공모제에 응시하여 이 학교에 오게 되었다. 교장은 기초예절 교육을 매우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처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교사의 예절 역시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독일의 중소 기업이 세계적인 매출을 올리는 것이 해외 사업을 많이 한 덕이라면서, 학생들의 실무 영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영어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채용하고 공개수업도 일 년에 두 번씩 실시한다. 교장은 토익시험을 학교 차원에서 준비해 주는 등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 및 취업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였다. 하지만 학교에서 “강제로” 시키는 것이 학생들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사회에서 융통성 있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1, 3주 토요일에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라고는 입사 면접에서 회사 경영자들이나 인사팀들이 학생들이 아닌 “곧 근무를 할 대상”으로서의 복장과 태도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라고 학생들은 입학 당시 모두 취업을 목적으로 진학한 학생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학생들은 대학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는다. 이들 가운데 대학 진학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은 입학 후 1학기 내에 자퇴한다. 일부 학생은 대학에 가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 학교에 부적응 학생이 매우 적은 이유는 입학생들이 대부분 착하고, “쎈 학생”, “날나리” 또는 “불량 학생”이 입학시험에서 “걸러졌기” 때문이라고 학생들은 말한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학생들의 일탈을 억제하는 강한 기제는 바로 취업이었다. 좋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업성적과 태도가 중요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 관리를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라고에도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다. 지방 학생들의 사투리 사용이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놀리거나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에게 욕을 해서 상처를 주거나, 중학교 때보다 낮은 성적이 나와서 고민하거나, 학교의 빡빡한 일정이나 성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중학교 때부터 피우다가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 흡연을 해서 기숙사에서 퇴사당한 학생이 2명이나 발생했다.

5) 봉화고

봉화고는 중소 도시에 위치한 일반계 고등학교이다. 봉화고의 교장은 학교 경영의 1차적인 목표를 생활지도, 인성교육에 두고 있다.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이 잘 되어야만 학력도 신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학교장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휘어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두발 단속을 강하게 하면 “날라리”들이 학교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 필요하면 두발 단속 아닌 다른 부분의 체벌도 허용하였다. 봉화고는 남녀공학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학교와 여학교, 두 개의 학교처럼 운영된다. 공간 배치, 시간 배치 등을 달리하여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배제한다.

일상적인 생활지도는 교문 지도와 그린마일리지제도이다. 봉화고는 등교 시 다른 문들을 폐쇄하고 정문에서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단속한다. 그리고 그린마일리지제도, 즉 벌점제를 통해서 학생들을 일상적으로 지도한다. 그린 마일리지제도가 학생들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교사들은 절반에 그친다. 대학 진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입력했다가 지우기도 하고, 교사의 철학에 의해서 꿀밤을 주거나 훈계로 그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 대학 진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리는 처벌 중에서 가장 두려워한다. 그런데 이러한 협박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학생들이 있다.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오로지 졸업만 하면 되고, 심지어는 자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특성화고를 희망했는데 부모의 반대로 일반고에 온 학생들과 특성화고에서 떨어져서 봉화고에 온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학교 수업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그저 졸업장을 따는데 의미를 둔다. 이들은 부모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이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사람 대접도 받고 취업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고 있다.

6) 학교 간 비교 분석

누리중학교 교장은 교사와의 대화, 그리고 재량권을 중시한다. 하지만 교사와 달리 학생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가진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어른의 교육, 감독,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기본 인식은 훈육 방식에도 차이를 가져왔다. 대표적인 것이 그린마일리지제도, CCTV 설치, 학생선도부, 배움터 지킴이 활용이다. 누리중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막기 위해서 상시 감시체제를 활용하여 문제행동을 통제하고 있다.

반면 고담중학교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대화하는 민주 문화의 정립을 강조했다. 학생들의 공격성은 가정환경의 영향도 있으나 입시경쟁 교육에도 기인하므로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계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활지도부는 학생들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사랑과 인정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강조한다. 그리고 징계 대상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추수 지도를 실시한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의 공격성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표정을 밝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고담중과 누리중의 가장 큰 차이는 학생에 대한 기본 가정이다. 학생을 자율성의 주체로 보느냐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훈육 방식 역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지기로 구분되었다.

읍면 지역에 위치한 이레고는 “험한 학교”라는 불명예를 떨치기 위해서 생활지도, 특히 학교 안에서의 폭력을 강하게 규제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학교교육은 졸업장 이상의 의미는 없다. 학교장과 교사들은 90%가 저소득층이고 절반 가까이 부모 이혼이라는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적과 공부만 강조하면 학생들이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으로 교사들이 좀 더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학교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낮은 취업률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한라 마이스터고는 졸업 후 100% 취업이 보장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한라고 학생들은 더 좋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의 통제와 요구에 철저히 순응하였다. 이 학생들도 일반고에 비해서 기초수급자의 비율이 높지만, “부적응” 문제를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이 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을 원해서 자퇴하는 경우, 그리고 흡연 때문에 기숙사에서 퇴출당한 경우가 대표적인 부적응 사례였다. 이는 이레고 학생들의 잦은 가출, 절도, 흡연, 음주, 무단결석 등과는 큰 대비를 이루었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교 입학생들 간 내신 성적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학생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 도시에 위치한 봉화고등학교 교장은 제대로 학교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를 “휘어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생활지도에서 두발 지도를 매우 중시했으며, 학교 규정대로 생활지도를 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교장의 강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벌점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면 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모든 교사들이 이 방침을 따르지는 않고 있었다. 봉화고에서 문제를 보이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원래 특성화고를 희망했는데 부모의 반대로 일반고에 온

학생들과 특성화고에 들어갈 수 없어 봉화고에 온 학생들, 그리고 학업 부진 학생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수업 시간에 자고 딴 짓을 하지만, 방과후에는 진지하게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예술계 학원 등을 열심히 다니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다수가 학교와 수업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그저 졸업을 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봉화고의 "부적응" 학생들과 다수의 이레 특성화고 학생들 모두 최소한의 졸업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벌점 점수 조절"을 하면서 학교생활을 "견디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강한 학력주의 풍토에 기인하는 것이다.

3. 학교 부적응 감소·예방 대책

가. 교사가 보는 학교 부적응 감소·예방 대책

학생의 학교 부적응 감소 또는 예방을 위해 고려될 만한 방안들의 필요성을 5단계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표 Ⅶ-3-1〉에 제시하였다. 교사들이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교사의 관심과 열의'(4.43)이며, 그 다음은 '학교에 전문 인력(전문상담교사 등) 증가 배치'(4.38),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진로(직업) 탐색과 준비'(4.24), '학급 규모 축소'(4.24),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 다양화'(4.19), '입시준비·경쟁 위주의 교육풍토 지양'(4.11) 순이다.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이 제안한 것이므로 향후 중앙정부나 교육청에서 대책을 수립할 때 최대한 반영하면 학생의 부적응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Ⅶ-3-1〉 학생의 학교 부적응 감소·예방 대책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값	집단 간 차이
교사의 관심과 열의	초등학교(a)	5625	4.56	.608	103.136***	a〉b, a〉c a〉d b〉c d〉c
	중학교(b)	5259	4.42	.648		
	일반고(c)	8400	4.37	.669		
	특성화고(d)	5801	4.41	.676		
합계		25085	4.43	.657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값	집단 간 차이
학교에 전문 인력 (전문상담교사 등) 증가 배치	초등학교(a)	5628	4.46	.743	78.936***	a>c, a>d b>c, b>d c>d
	중학교(b)	5269	4.47	.728		
	일반고(c)	8417	4.34	.788		
	특성화고(d)	5804	4.29	.831		
합계		25118	4.38	.780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 다양화	초등학교(a)	5626	4.19	.756	23.576***	b>a, a>d b>c
	중학교(b)	5265	4.26	.755		
	일반고(c)	8409	4.17	.778		
	특성화고(d)	5804	4.15	.780		
합계		25104	4.19	.770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진로(직업) 탐색과 준비	초등학교(a)	5619	4.18	.748	21.516***	b>a, b>d c>a d>a
	중학교(b)	5262	4.29	.730		
	일반고(c)	8405	4.26	.729		
	특성화고(d)	5798	4.23	.739		
합계		25084	4.24	.737		
학생들의 문화, 요구를 반영한 학교 규칙 제정	초등학교(a)	5615	3.83	.841	22.750***	a>b, a>c a>d b>c
	중학교(b)	5264	3.76	.860		
	일반고(c)	8400	3.72	.864		
	특성화고(d)	5796	3.72	.870		
합계		25075	3.75	.860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교사 연수와 행정지원 강화	초등학교(a)	5627	3.87	.856	44.365***	a>b, a>c a>d b>c d>c
	중학교(b)	5264	3.77	.866		
	일반고(c)	8410	3.70	.867		
	특성화고(d)	5800	3.75	.865		
합계		25101	3.77	.866		
학교의 소규모화	초등학교(a)	5623	3.61	1.057	94.257***	b>a, b>c b>d c>a, c>d d>a
	중학교(b)	5268	3.90	1.030		
	일반고(c)	8412	3.83	1.035		
	특성화고(d)	5798	3.68	1.015		
합계		25101	3.76	1.040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값	집단 간 차이
학급 규모 축소	초등학교(a)	5622	4.29	.891	217.719***	a〉d b〉a, b〉c b〉d c〉d
	중학교(b)	5268	4.43	.843		
	일반고(c)	8397	4.26	.917		
	특성화고(d)	5801	4.00	.990		
합계		25088	4.24	.926		
지역사회 교육·문화·복지 유관기관 적극적 활용	초등학교(a)	5620	4.17	.776	110.507***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5266	4.11	.798		
	일반고(c)	8404	3.98	.817		
	특성화고(d)	5793	3.93	.836		
합계		25083	4.04	.814		
입시 준비, 성적 경쟁 위주의 교육풍토 지양	초등학교(a)	5623	4.36	.794	369.409***	a〉b, a〉c a〉d b〉c, b〉d c〉d
	중학교(b)	5271	4.17	.867		
	일반고(c)	8415	4.12	.864		
	특성화고(d)	5798	3.82	.980		
합계		25107	4.11	.897		
다양한 대안학교 설립 운영	초등학교(a)	5624	3.58	.976	156.456***	b〉a, b〉c b〉d c〉a d〉a
	중학교(b)	5268	3.98	.933		
	일반고(c)	8408	3.73	.986		
	특성화고(d)	5801	3.72	1.013		
합계		25101	3.75	.988		

나. 사례연구를 통해 본 부적응 완화 요인

1) 부모(보호자)

가) 적극적 관심과 지지

학생들은 가족 가운데 자신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이는 어른이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있을 경우에 보다 탄력적으로 상황에 대처하였다. 이레고의 재은은 뇌병변을 앓아 다른 학생들에 비해 말이 어눌하다. 재은은 친구나 선배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부모님과 의논을 많이 한

다. 부모님과 터놓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끼고, 때로는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해결한 문제도 많다.

고담중에 다니는 혜민이는 반에서 다른 친구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친구와 갈등이 생기는 바람에 학급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혜민은 학교생활 자체가 힘들어졌다. 이러한 따돌림은 학년이 바뀌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문제를 크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던 혜민은 그 상황을 '버티기'로 했다. 혜민이 한 학기 남짓 계속되는 따돌림을 견디고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혜민의 곁에 버팀목이 되는 존재들 즉, 부모님과 다른 반 친구들,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으나, 심리적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나) 부모에 대한 미안함

용화고 주희는 중학교를 다닐 때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손이 먼저 나가서 경찰이 오고 양측 부모들이 와서 결국 합의를 한 사건이 있었다. 그 일로 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고 양쪽 부모들끼리도 싸웠는데 상대방 부모가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얘가 이러냐." 해서 "성질 나서 저도 그 아줌마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욕하면서." 라고 설명한다. 주희는 자신 때문에 "엄마 아빠 욕 먹는 게 싫어요. 가족 욕하는 거 싫어요." 라고 말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욕을 먹게 되는 상황에 처해 본 이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화가 나도 참는다. 수용이도 부모님의 경제적인 무능력을 원망하고 탓할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레고의 박민수는 두 달 간 가출하였을 때, 가끔씩 학교를 가곤 하였다. 그런데 학교에 한 번 갔더니 아버지가 매일 학교에 나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많이 미안했다고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가장 "무서워한다"는 것과 "부모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을 생활지도 개선에 활용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봉화고가 그 예이다. 이 학교에서는 교내·외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 학생은 부모님 중 한 분과 하루 8시간을 함께 교내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주로 교내 곳곳을 다니며 청소를 한다. 봉사활동 후에는 교장선생님과 반드시 면담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부모와 같이 교내봉사를 하고 나면 학생들이 부모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참는다. 학부모는 자녀하고 하루를 함께 보

내면서 긴 시간 대화할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린마일리지벌점이 50점이 넘는 학생은 나무시에 있는 모 요양원에서 부모님 중 한 분과 5일의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모 요양원은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러 오는 학생들과 다르게 학교에서 사회봉사로 온 학생에게는 매우 힘든 활동을 시키기 때문에 다녀온 후 뉘우치고 변화되는 학생들도 많다. 주로 여학생들인데 그 후에도 개인적인 봉사활동을 계속하는 학생도 있다. 비록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지 않더라도 5일 내내 부모님과 함께 가야한다는 것은, 특히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크고, 실제 봉사활동도 힘들고, 그 후에 또 벌점이 쌓일 경우 그 다음 단계로 징계 수준을 올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불만이 많으면서도 학생들 스스로 벌점을 받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다) 부모의 엄격한 통제

이레고의 서연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도 부모와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아서 자신의 장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늦은 귀가에 대해서 강하게 통제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아주 많지만, 혼나지 않으려고 늦지 않게 집에 돌아간다. 민경도 어머니가 술을 자주 마시고 부모 사이도 좋지 않지만 민경이가 늦지 않게 관리를 받는다. 정우식은 할머니와 같이 사는데, 할머니가 하고 싶은 것은 모두 지원하는 편이나, 저녁 6시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듯 학생들의 생활에 대해서 일관된 통제를 하는 보호자의 존재는 학교 바깥에서의 가시적인 문제행동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다만 자녀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면서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와 무력감을 보이는 문제를 보였다.

2) 학생 자신

가) 철들기

고담중 졸업생인 한민에 의하면 중 2 때가 “애들 때리고 학교에서 담배 피다가 걸리고, 술 먹고 학교 와서 걸리고” 그런 “피크”고 “대박” 시기다. “중2때는 너무 심해서 건들면 안된다”고 말한다. 중 1때는 “집에서는 착한 아들, 밖에는 나쁜 애들... 그렇다가 나중에 중 2 때 되면 집에서도 나쁜 애들, 밖에서도 나쁜 애들... 그러다 3학년 되면 집에서도 좋은 애들, 밖에서도 좋은 애들”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사들이 중 2 담임을 서로 기피할 정도이며, 이런 이유로 중학교 교사들

이 고등학교로 많이 옮기려 한다고 인사 담당자들, 교사들, 그리고 장학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학교규범을 어기는 부적응의 문제는 일정 부분 연령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다. 특히 중학교 시기는 자아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은 시기로 청소년들은 다른 때보다 감정적이며 기존 규범에 대해 반항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이 시기 학생들은 학교 교칙을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들의 답답한 구속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동의하는 또래집단과 결속하는 반면, 의미를 알 수 없는 기존 규범은 무시하거나 거칠게 맞서거나, 혹은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 교사의 눈을 피해가는 선에서 소극적으로 규범을 어긴다. 하지만 "철이 들면서" 이전에 하던 행동들이 "유치해 보이고 쓸데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실제로 면담에 응한 많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때, 그리고 고 1 때 이야기를 많이 했다. 치마를 가장 짧게 입고 다닌 때는 중학교 때였고, 고 1학년 여학생들이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다니며, 남학생들끼리 주먹다짐으로 누가 더 센지를 겨루는 것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일이라고 말한다.

나) 꿈과 목표

고담중 졸업생인 한민과 랑도는 각각 뮤지션과 컴퓨터 보안기사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이들은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자신의 미래와 적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학교 등 구체적인 포부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목표가 생긴 후부터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학교 수업도 듣게 되고, 교칙을 어기는 일들도 점차 줄어들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 어떠한 희망을 갖는 것은 자기애와 자존감을 바탕으로 한다. 그 이전에는 진로 계획이 없거나 막연하였다. 자신의 적성을 알지도 못했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다.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좋은 말밖에 없는" 학교의 진로프로그램도 소용이 없었다. 이은혜도 자신의 학교생활이 "부적응" 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자신이 세운 목표, 즉 미술로 전공을 바꾼 후, 진학을 위해 하교 후 학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은혜는 꿈이 있어서 문제행동에 크게 빠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는 부적응 학생들에게는 꿈이 확실히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진로교육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3) 친구

고담중의 윤석은 늘 같이 모여서 노는 친구들이 있다. 맨 처음 가출을 하게 된 이유도 집을 나

온 친구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이다. 집을 나가면 대개 친구 집에서 지내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잠도 자지 않고 하루 종일 바깥에서 지낸다.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지만 윤석이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괜찮다. 그렇게 한번 가출을 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갔던 윤석은 부모님께 혼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가출한다. 윤석은 가족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이다. 그가 가출을 하지 않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친구들과의 약속이었다. 친구들과 가출했을 때 친구 부모들이 모두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특히 한 친구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다 잡혀서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이후 나가지 말자고 하고 나가는 친구와는 놀지 말자고 약속을 했다. 그 때부터 윤석은 가출을 하지 않게 되었다. 한민 역시 이때는 부모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질풍노도" 시기에는 친구의 말이 최고라고 한다. 나중에야 부모나 교사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누리중의 지은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담배를 남자 친구가 끊으라고 해서 덜 피우려고 노력한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 학년 어린 남자 친구와 사귀는데 그 남자 친구가 "애교"를 부리면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해서 신경이 쓰인다. 담배가 없으면 안 피우는데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친구들 담배나 집에서 엄마 담배를 피우게 된다고 말한다.

4) 학교

가) 교사의 관심과 애정

고담중에서 학급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혜민과 일탈 행위를 일삼던 랑도와 한민,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이나 가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데는 생활지도부장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생활지도부장이 제안한 역할놀이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따돌림의 문제를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도와 극복하기도 하였다. 일탈이 심한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고 해서 모든 교사들을 배척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끝까지 믿어준다고 느끼는 교사에 대해서는 친구나 부모 이상으로 의지한다. 학교의 규범에 적응을 잘하지 못했던 고담중 졸업생 랑도는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담임선생님이 자신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아프게 된 것을 보고 스스로 자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2학년 담임은 랑도를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스타일의 교사였고, 이에 대한 반항으로 랑도는 더욱더 학교에서 거세게 일탈하게 되었다. 하지만 3학년 담임을 좋은 분을 만나면서 일탈 행위가 크게 줄었다.

나) 좋아하는 과목

학생들을 무섭게 훈육하여 학생 문제를 줄이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는 학생들의 거친 저항이나 공격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교사들이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경우 학습 부적응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임을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을 나중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얘기해줌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고,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 어느새 학습을 하게 된다. 봉화고의 국어 시간이 그렇다고 말한다. 김송규는 폭력, 흡연, 음주, 오토바이 타고 다니기, 무단결석 등으로 체육교사와의 갈등과 학교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있었다. 벌점도 무섭지 않고, 교사들도 다 싫다고 흥분해서 말했지만, 국어 교사는 예외였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해줘서 좋아하는 국어 교사의 수업 시간에 송규는 수업 참여가 높고 그 과목은 잘하고 싶다고 말한다.

다) 진로지도

누리중 체육 교사는 거친 학생들을 역도부로 가입하게 해서 문제를 줄이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윤상우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좋으나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새 엄마와의 갈등이 심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가출, 절도, 무단결석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다. 체육 교사의 권유로 역도부에 들어가서 역도를 한 후에는 가족 간의 갈등도 줄고 생활 태도도 좋아졌다. 전국 단위 대회에서 상을 타야 K시 체육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을 했고,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 생활 태도도 많이 좋아졌다. 상우는 이제 진로도 체육대학 쪽으로 정하였다. 누리중 이윤재는 아버지의 권유로 역도가 유명한 누리중에 전학왔다. 전학 이전에는 폭력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이전부터 아버지가 역도를 시키려 했는데 본인과 어머니가 반대해서 하지 않다가, 이전 학교에서 폭력이 문제가 되면서 아버지의 강권과 엄청난 매를 맞고 결국 누리중의 운동부에 들어와서 역도를 하게 되었다. 운동부에 온 후 폭력성도 완화되고 체육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생활 태도도 개선되었으며 스스로도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라)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교과 교사나 담임 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들의 의뢰로 상담 교사들은 이들이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들과 개별 상담을 한다. 이를 통해서 “힘든 학생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나름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별도의 심리검사를 통해서 우울증이나 자살충동 지수가 높은, “부적응” 소지가 있는 학생들을 알아내 면담을 하는 예방 노력도 기울인다. 학교 수업과 교사를 거부하는 누리중의 서지은도 상담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폭력과 폭력이 문제의 원인임을 알게 되었다. 누리중은 흡연으로 벌점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흡연하는 학생들을 단순히 처벌하기보다 지역사회의 보건소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고담중 역시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한 학생이 수업 중에 나가버리는 등의 문제를 보여 상담한 결과, 따돌림의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고담중은 단순히 드러난 현상에 대하여 시비를 가리는 것에 그치기보다 문제가 발생한 학급을 대상으로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한라고에서는 고등학교에 입학 후 석차가 떨어지면서 급격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취업 준비도 성공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레고의 젊은 상담 교사는 학생들과의 세대 차이가 덜 날 수 있는 언어와 태도를 통해서 학생들과의 친근감을 높이면서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나가는 노력을 한다. 봉화고에서는 자퇴하기 전에 상담한 한 여학생이 있었다. 미용학교를 가고 싶어 했으나 부모의 강권으로 일반고에 온 “얌전하고 단정한” 여학생이었다. 그는 일반고를 억지로 다니다 마침내 가출을 해서 부모가 수소문 하여 찾아 온 후, 부모와 상담을 하였다. 자녀가 원하는 미용고가 전학이 되지 않은 바람에 결국 봉화고를 자퇴한 후 학력을 인정받는 미용학교로 가게 되었다.

상담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제가 학습 부진이나 가정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가정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이를 일정 수준 자신이 통제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것이 힘든 여건에서는 인근의 보건센터나 정신보건센터 또는 관련 기관의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부모 상담도 시도하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마) 무서운 교사

학생들을 무섭게 훈육하는 것은 적어도 가시적으로는 학교 부적응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무서운 선생님 시간에는 혼날 것이 두려워 졸지도 않고 “열심히 수업하는 척”이라도 한다. 무서운

담임교사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좀처럼 일탈 행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나중에 어른 돼서 추억할 거리를 위해서라도 야자시간에 또 도망가겠다는 수현이도 무서운 부담임 선생님이 있을 때는 안하겠다고 한다. 선생님들이라면 무조건 싫어하는 기웅이는 1학년 때 과학교사에게 불려가 교무실 창고에서 호되게 맞은 경험이 있다. 그 사건이 선생님을 싫어하게 된 하나의 계기였지만 같은 일을 또 당하고 싶지 않아 그 선생님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압적인 교사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중요한 학교 규정을 어긴 학생들에게 강하지만 일관되게 적용하는 교사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학생들의 저항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무서운 교사이지만 학생들이 따르는 경우도 제법 있었다. 무섭게 규정을 적용하면서도 벌을 서는 과정에서 학생과 대화하고, 관심을 보이는 교사들을 학생들은 어려워하면서도 좋아했다. 누리중학교의 생활지도부장이 그러했다.

바) 엄격한 생활지도

읍면 지역에 위치한 이레고등학교는 “험한 학교”로 유명하다. 새 교장이 부임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엄격하고도 일관되게 대응하자, 학생들 사이에는 “학교폭력을 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퍼져 있다. 이러한 방침 이후 학교폭력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한라고 역시 엄격한 생활지도로 일탈 행위가 적다. 이는 마이스터교 지정 이전부터 그러했는데 마이스터교 지정 이후에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누리중과 봉화고도 엄격한 생활지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운영 방침은 열악한 지역 및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생활지도가 잘 된 학교로 평가받도록 하였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억압적 훈육과 처벌의 엄격함은 분명히 별개의 효과를 갖는다. 학교 및 교사의 강압적 태도는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속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청소년의 반항을 부르는 반면에 엄격한 처벌은 그와 별개로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럼없이 일삼는 일탈 행위를 자제하고 규범을 의식하게 만든다.

사) 학생이 참여하는 생활지도

고담중 교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정립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학교의 운영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학생들의 불만은 크게 줄었다. 특히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학교장과 학생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부장의 협력으로 “날뛰던 학생들의 독기가 빠졌다” 혹은 “눈이 부드러워졌다”고 말한다. 실제 학교폭력 발생 빈도도 줄었다. 이 학교는 문제

학생의 행동에 대하여 단순히 징계에 그치기보다는 추수지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적용했다. 예컨대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있는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상대방과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였다. 그 외 지역의 여러 유관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부적응”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렇다고 고담중이 모든 학생 문제를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꾸준히 규정에 따른 징계를 내림과 동시에 학생들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날뛰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 정도가 약해지는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하느라 소진되었던 교사들의 에너지는 이제 전체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고 지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용모에 대해서 약한 규정을 적용하는 고담 중학생들의 외모만 보면 “날라리” 학교이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착한” 학교라고 말했다.

5) 학력주의 사회풍토

면담 대상이 되었던 대부분의 “부적응 학생들”은 비록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않았지만, 장래를 위해서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생각은 그들의 일탈 행위로 인해 졸업장을 따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일정 부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봉화고에서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학급에서 부적응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기웅이와 수현이도 최소한 고졸 또는 대졸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의 학력주의가 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어하고 반항심 많은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을 잠재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비해 입시에 대한 부담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면담 참여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대부분 학업성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학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기성세대들이 느끼는 취업난과 학력 차별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도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 공부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보통사람”의 범주에 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지속해야 하고, 최소한 고교 졸업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랑도는 고등학교에 가면 누구나 공부를 하게 된다고 말한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조차 자신 앞에 입시가 닥치면 바뀐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되어 온 학력주의와 입시 부담이 학교 부적응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6) 고졸 취업에 대한 정책 지원

한라고 학생들은 이레고 학생과 달리 학교의 통제와 요구에 철저히 순응하였다. 한라고 역시 일반고에 비해서 기초수급자의 비율이 높지만 “부적응” 문제를 보이는 학생은 매우 드물다. 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적응은 대학 진학을 이유로 자퇴하는 경우, 흡연을 하여 기숙사에서 퇴출된 경우, 중학교 때보다 낮은 내신 성적으로 인한 자존감의 하락이었다. 이는 이레고 학생들의 잦은 가출, 절도, 흡연, 음주, 무단결석 등과는 큰 대비를 이룬다. 학교성적에 따라서 좋은 취업 여부가 결정되고, 적어도 졸업자 모두가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마이스터고고 정책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Ⅷ. 논의 및 정책 제언

1. 논의
2. 정책 제언

Ⅷ. 논의 및 정책 제언

「학생의 학교 부적응 진단과 대책」 연구는 2개년 연구이다. 1차년도인 올해에는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2차년도에는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대규모 질문지 조사와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초·중등학생의 학교 및 학교 밖 생활과 부적응 실태를 조사하고 부적응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한 논의와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논의

가. 학교 부적응의 양상(유형)과 정도

학교 부적응의 특성과 유형을 파악하는 일은 학생들이 어떤 생각과 태도로 학교생활을 하며, 어떤 점에서 학교와 부조화, 갈등을 겪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와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학교 부적응의 유형을 무기력, 수업부적응, 교사관계 부적응, 친구관계 부적응, 학교규범 부적응의 5가지로 구분하고 이 틀에 따라 학생용 질문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요인분석 결과 무기력과 수업이 하나의 유형으로, 친구관계 부적응과 학교규범 부적응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서 3가지의 학교 부적응 유형으로 범주화되었다. 즉, 수업부적응, 교사관계 부

적응, 학교규범 부적응이다. 부적응 유형이 연구자의 가설대로 도출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각 유형에 맞는 질문지 문항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무기력형' 부적응을 밝혀 보고자 구성한 질문지 문항은 "나는 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모든 것이 귀찮다", "나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괴롭다"의 두 개였다. 학생들의 질문지 응답 결과를 가지고 실행한 요인 분석에서 무기력과 수업부적응이 하나로 묶인 이유는 아마도 학교의 핵심적 활동이 수업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에 몰입하지 못하고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귀찮고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학교에 어쩔 수 없어 다니거나 다니기 싫다고 한 학생들 대다수가 "학교 공부가 재미없어서"라고 응답했다는 사실은(제 3장 참조)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 이유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로서 '부적응' 현상 자체가 실체가 불분명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측정되거나 경계가 뚜렷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이유이든 보다 적합한 가설 설정과 정교한 방법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구분한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조사한 학생들의 부적응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는 수업부적응 2.40, 교사관계 부적응 1.56, 학교규범 부적응 1.25이다. 그러나 점수로 측정된 부적응 정도가 낮다고 해서 경시하거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수업부적응 정도가 가장 높고 그 점수도 보기에 따라서는 낮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수업부적응 양상 8가지 중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수업 시간에 "딴 짓하는 것"(2.69), "멍하게 앉아있는 것"(2.52), "잠자는 것"(2.51) 등이다. 이런 부적응 행동 점수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런 조사 결과는 학교의 수업에 학생들이 더 집중하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제 3장에서 제시한 학생의 학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 보았듯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방해 행위를 하는 이유 중 "수업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와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따분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학생을 합하면 약 50% 정도로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학교의 제측면에 대한 인식을 보면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다. 교육내용과 방법의 다양성, 개인적 적합성, 실용성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편이다. 학교규범 측면의 부적응 정도는 수업 부적응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규범 측면의 부적응 행동 중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난 문항은 두발과 복장 규정을 위반하고, 지각을 하며,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

롭히는 것이다. 이런 행동에 대한 점수가 그다지 높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부적응이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폭력'으로 표출되는 점은 간과해서 안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들의 부적응 정도는 학업성적이 낮고, 부모의 학력이 낮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와 동거하지 않은 경우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취약 계층 학생들의 부적응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은 많은 선행 연구 결과와 다르지 않다. 학업성적 역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격차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부적응 문제 역시 교육평등, 사회평등과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거주 지역에 따른 부적응 정도의 차이는 학교급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학교급에 따라서 대도시의 부적응 정도가 더 높기도 하고 중소 도시나 읍면 지역의 부적응 정도가 더 높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급별,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사례 연구에서는 학교와 교사에 의해 '부적응'으로 규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과 관찰 자료를 토대로 부적응을 나타나게 한 원인에 따라 부모 관련 부적응, 친구 관련 부적응, 진로 관련 부적응, 학습 관련 부적응, 훈육 관련 부적응, 용모 규범 관련 부적응의 6가지로 그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원인에 따른 유형 구분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직접적인 근거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례연구에서 시도한 부적응 유형 분류는 양적 연구에서 시도한 유형 분류와 다소 차이가 있다. 양적 연구에서 요인 분석에 의해 구분한 수업부적응, 교사관계 부적응, 학교규범 부적응의 3가지 유형 중 수업부적응은 사례 연구에서 유형화한 학습 관련 부적응과 동일하며, 학교규범 부적응은 사례 연구의 훈육 관련 부적응, 친구 관련 부적응, 용모 규범 관련 부적응을 포괄하는 것이다. 사례 연구에서 학교규범 부적응을 세분한데서 나타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친구 관련 부적응은 양적 연구에서 요인 분석 결과 학교규범 부적응으로 묶여서 하나의 부적응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논의하였다. 사례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의 3가지 부적응 유형이외에 '부모 관련 부적응'과 '진로 관련 부적응'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소수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데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진로 관련 부적응은 고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양적 연구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모든 학교급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적응 유형에 초점을 맞추게 된 데서 나타난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사례 연구는 중등학교의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양적 연구를 통해 일반화의 가능성을 검증했다면 더 좋은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연구 기간과 인력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나. 학교 부적응의 원인

이 연구에서는 학교 부적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개인, 가정, 학교, 사회 등 네 영역의 변인으로 구성된 모형을 설정하고 다층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해 몇 가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1)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학교 부적응 관련 요인 네 가지를 모두 포함시켰지만 학생 개인 변인보다는 학교와 사회, 특히 학교 변인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러나 다층분석 결과 학교 부적응의 원인은 전반적으로 학교가 아닌 학생 개인 수준 변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교육내용, 수업방법, 교사의 태도 등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고, 학생의 학업성적,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소득 수준과 교육지원,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족 구성)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를 학생 부적응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학교의 역할을 경시하는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 이 연구에서 교사 대상으로 부적응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의 필요성 정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의 관심과 열의(4.43), 학교에 전문 인력(전문상담교사 등) 증가 배치(4.38),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진로(직업) 탐색과 준비(4.24), 학급 규모 축소(4.24),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 다양화(4.19) 등 학교 차원의 대책이 상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문항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학교의 교육과정이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만큼 다양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육내용이 학생들의 특기·소질 계발과 진로 설계에 적합한지, 실용성이 있는지, 배울만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에 대해서도 특히 중등학생의 반

응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완화를 위해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진로(직업) 탐색과 준비,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은 이런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사례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꿈과 목표가 있으면 부적응이 완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은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충실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사례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맞는 적합한 진로지도를 함으로써 부적응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학교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학업성적, 부모의 교육지원, 가족 구성 등 개인 수준의 취약점으로 인해 부적응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 해결은 학생 개인과 그 부모가 감당하기 어렵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학교 부적응은 사회의 계층화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것은 학교를 통해서 실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재 정부가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다만 학교 부적응은 학업성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복지 정책이 결핍을 보충하는 '복지' 수준에 머물지 않고 교육과정, 수업 등 교육의 핵심 영역에서 취약 집단 학생들을 지원하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심층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가정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수업부적응, 교사관계 부적응, 규범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의 학교 부적응 정도가 높다는 통념이나 선행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학교 부적응에 대한 관점과 접근 방법에 대한 검토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2) 다층분석 결과 학생 개인과 가정 변수 이외에 사회환경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모형에서 설정한 사회환경 변인은 정보통신기기 사용, 아르바이트 경험, 유해환경 접촉, 학력주의에 대한 인식의 네 가지이다. 이 중 유해환경 접촉을 뺀 세 가지 변수가 대체로 일관성 있게 학교 부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현재 성적으로 좋은 대학 입학과 사회적 지위 획득이 어렵다고 보는 정도가 높을수록 부적응 정도가 높다. 학업성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사회구조가 성적 이외의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수용하는 구조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렇게 되어야 학교에서 성적 이외의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시키는 교육이 가능하며, 학업성적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연구와 동시에 이루어진 사례 연구에 따르면 면담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부적응 학생”들은 비록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않지만, 장래를 위해서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생각은 일탈 행위로 인해 졸업장을 따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일정 부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들이 학교 공부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보통 사람”의 범주에 들기 위해서는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하고, 최소한 고교 졸업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따라서 고등학교에 가면, 그리고 입시와 취업을 앞둔 시기가 되면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학력주의를 강하게 인식할수록 부적응 정도가 높다는 다층모형 분석 결과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양적 분석은 대규모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사례연구는 소수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학력주의가 부적응 학생들로 하여금 일탈 행동을 일정 정도 제어하도록 한다고 해서 학력주의가 미치는 영향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방향이든지 학력주의가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향후 보다 정교한 연구를 통해서 계속 탐구할만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특성화고의 경우 졸업 후 취업 전망이 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례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례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함께 대상으로 하였는데 취업 전망이 밝지 않은 특성화고와 전체 학생의 취업이 보장될 뿐 아니라 성적에 따라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마이스터고 학생들 사이에는 학교 규범 준수 여부와 학교생활 충실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정보통신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사용 정도도 모든 학교급에서 일관성 있게 학교 부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보통신기기의 과도한 사용에 대한 예방 교육 및 과도 사용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와 학교 부적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호관계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인과 관계 해석이 곤란하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수업부적응 척도의 구성 문항을 고려하면,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멍하니 앉아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떠들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심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수업부적응 때문에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가 심하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정보통신기기 사용으로 인해 수업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험 연구를 수행해야 하나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라는 처치를 실험 집단에 가해야 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실험 연구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중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도 학교 부적응을 높이는 변수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는 대체로 학업성적이 낮고,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낮은 학생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제 4장 참조) 이 또한 사회계층에 따른 문제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취약 계층 학생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구조와 문화가 학생들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부적응을 학생 개인 수준의 심리 사회적 특성이나 가정 환경, 학교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현상 자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나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그밖에 학교급과 부적응 유형별로 나타난 분석 결과를 정리해본다. 첫째, 학교급별로 일부 지역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학교 부적응 정도가 높다. 둘째, 학교의 성별 유형(남녀 공학 또는 별학)에 따라서도 학생의 부적응 정도에 차이가 있다. 셋째, 특성화고의 경우 공립학교의 학생들이 교사관계 부적응 정도가 높다. 넷째, 특성화고에서는 좋지 않은 교우관계가 교사관계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학교와 특성화고에서는 좋지 않은 교우관계가 규범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반고에서는 학생의 자율성이 낮은 경우 규범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부적응 대책 수립 시 고려할 만한 결과들이다.

2. 정책 제언

가. 학교의 효율적인 생활지도 체제 구축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을 지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교사다. 특히 담임교사가 개별 학생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필요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 상담교사조차도 상담을 하려면 일과 시간을 피해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해야 하니 담임교사가 삼십 몇 명이나 되는 반 아이들과 한 번씩이라도 깊이 있는 상담을 하려면

개인의 사생활을 완전 포기하더라도 몇 달이 걸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 어떤 교사는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서 상담이라기보다는 '호구 조사'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 학생이 무언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지도하기 위한 사후처리식의 상담을 한다. 1주일 시간표에 1시간이라도 특별활동 시간을 배정하여 상담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담임교사가 학생 한 명과 상담을 하면 나머지 학생들이 방치되어 어떤 문제 발생 시 고스란히 담임교사의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시간은 자율학습 시간이 되고 담임교사에게는 자율학습 감독을 하는 업무만 추가될 뿐이다.

이런 점에서 학생의 생활지도 체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고담중의 학년부체제 중심의 생활지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생활지도를 강화하고자 도입한 학년부체제의 효과를 속단하기 어려우나, 교사들은 학년부체제로 전환한 후에 생활지도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학년부체제에서는 각 학년의 담임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교사 간 학생에 대한 정보 공유나 학생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용이하다. 특히, 고담중학교에서는 학년부체제로 전환된 후로 생활지도부에 인력이 실질적으로 2배 이상 충원되었는데, 학교 차원에서 학생 생활지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서 생활지도가 매우 강화되었다.

나. 학교의 상담인력 확충

현재 학교에는 대체로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표 VII-2-6〉 참조). 그러나 몇 백 명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한 명의 상담교사가 배정되다 보니 문제 학생의 행동 원인을 진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급급하다. 부적응 학생에 대한 예비 지도와 추후 지도로서 상담이 필수적이지만 충실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한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사례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상담을 활성화하기 전문 인력 확충과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 부적응 학생 지도 프로그램 내실화

이 연구에서 교사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표 VII-2-4〉 참조) 약 70%의 학교가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적응 지도 학생 지도 프로그램으로 모든 학교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개별 및 집단 상담'이며, 그 다음은 중등학교에서는 '교내외 봉사활동', 초등학교에서는 '심리 진단 및 치료'를 많이 시행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겠지만, 부적응 지도 프로그램을 부적응의 양상과 정도에 따라 구체화하고 내실화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례 연구 대상이었던 고담중학교의 지도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폭력, 금품갈취, 따돌림이나 약한 학생을 괴롭히는 등 부적응 행동 중 공격적인 양상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행동의 한계를 지어주기 위해 학교 규정에 있는 징계와 더불어 첫째, 학교 인근 상담지원센터에 학생이 상담을 받도록 하여 한 학기 동안 분노 조절, 목표 세우기, 자존감 향상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였다. 둘째, 인권단체 활동가에게 의뢰하여 인권의 의미와 필요성, 존중과 배려의 의미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셋째, 치유하는 글쓰기 특별교육을 마련하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넷째, 약한 학생을 괴롭히거나 따돌림 등의 부적응 행동을 보인 학생은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더불어 사는 모습을 실제로 체험하여 괴롭히는 힘만이 아니라 나누는 힘이 자신 안에 있음을 스스로 느끼도록 해보았다. 다섯째, '몸동작을 통한 자아 찾기' 프로그램인 춤치료를 통해 심신의 긴장을 풀고 분노를 해소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여섯째, '놀이연극을 통한 자아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도 모른 채 자신의 행동을 지배해 온 분노와 갈등의 요인을 되짚고 풀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에게 '용기 있는 신고'라 하여 타인으로 인해 힘든 학교생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고하도록 기회를 주고, 피해자를 생활지도부에서 철저하게 보호하여 학교라는 공간이 안전한 곳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힘든 상황을 참거나 피해 학생이 학교를 회피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가장 중요함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일단 학교가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폭력이나 금품 갈취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피해 학생 스스로 피해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괴롭힘을 주도하던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총체적인 삶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사회생활의 방법 익히기와도 연결된 것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성장 소설, 동화, 수필집과 폭력 예방, 흡연의 문제점, 인권, 직업 소개 등의 책을 비치하여 다양하게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읽도록 하였다. 이처럼

고담중학교의 부적응 학생 지도 프로그램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생활지원부장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 진로지도 내실화

학생들이 꿈과 목표가 있으면 부적응이 완화될 수 있으며, 사례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적합한 진로지도를 함으로써 부적응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학교를 찾아볼 수 있었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이 지배하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도록 지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이 미래 교육의 방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미래 학교교육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에 대해 고등학생과 학부모가 1순위로 꼽은 것은 “적성과 소질에 따른 진로 탐색과 준비”였다(이혜영 외, 2008). 앞에서 학교에 다니기 싫다고 한 학생들이 “학교 공부가 재미없다”는 것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고 하였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에게 의미있는 교육내용을 배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학교에서 자신의 꿈과 목표 실현에 필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다면 학교 공부에 대한 흥미가 유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것은 학교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재구조화와 이에 따른 강력한 실천이 요청되는 과제이다.

마. 학교운영 민주화

외면상 학교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해왔다.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고 수업에서 멀티미디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상담교사가 별도로 배정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학생들이 같은 복장을 하고, 정해진 수업 시간에 열을 맞추어 앉아 교사의 강의를 듣는다. 학생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기 보다는 질서 유지에 초점을 둔다. 제 3장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학교가 자신들이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편임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 경향은 일반고에서 가장 강한데, 다층분석에서 일반고의 경우 이런 인식이 학교 부적응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

서 고담중학교의 사례는 참고할 가치가 있다. 고담중은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을 학교 운영에 참여시키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중이며 이러한 노력이 “부적응”의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학교는 민주적 문화 정립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행정 당국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 학교의 부적응 학생 지도 관점 전환

교사들이 학생들의 어떤 행동을 ‘부적응’으로 규정하는가는 교사의, 더 나아가 학교의 부적응 학생 지도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사들은 멍하게 앉아있거나 딴 짓을 하거나 잠을 자는 등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다양한 양상의 수업부적응보다는 교사관계와 학교규범 측면의 문제행동을 부적응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학교의 부적응 학생 지도는 ‘문제행동’ 방지와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사례연구 대상 학교들의 지도 방침과 실제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의 부적응은 교사관계나 학교 규범보다 수업에서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지 무단결석과 조퇴, 폭력, 반항 등과 같이 강하고 적극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어떻게 보면 수업 부적응은 다수 학생의 문제이고 그 원인도 극단적인 문제행동보다 근원적인데 있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부적응하다는 것은 학교의 핵심적인 활동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며 무의미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학생의 학교 부적응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는 수업부적응 현상을 중심에 위치시켜야 한다. 소수의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만이 아니라 “보통”의 학생들에게 확산되어 있는 수업부적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재구조화와 교육방법의 혁신이 필요할 것이나, 이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혁신 이전에 현행 제도 안에서 학교나 교육청 수준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 고졸 취업 지원 강화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는 마이스터고에서는 취업 전망이 불투명한 일반 특성화고와는 달리 부적응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사례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이스터고인 한라고는 학생들이 규범을 어겼을 때 벌점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벌점이 어느 정도 누적되면 취업과 연관

시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또한 마이스터고는 졸업하기 전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수시로 공사나 기업에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두발이나 복장이 단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어 학교에서 엄격하게 규제하더라도 학생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수용하는 분위기이다. 다시 말해 취업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이를 잘 실현시킬 수 있는 학교 여건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부적응 문제는 매우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마이스터고 졸업자들에게 주어지는 취업 보장 정책이 다른 특성화고로 확대된다면 학생들의 "부적응" 문제는 크게 감소되고 이들이 학교생활을 보다 의미 있게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

학교 부적응의 원인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정보통신기기(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등) 사용 정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대체로 일관성 있게 학교 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보통신기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 및 과도 사용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초·중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무절제하게 사용함으로써 정상적 교육활동을 방해하므로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중앙일보 2012. 10. 24)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스마트폰 보급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강문희(1981).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도와 가정환경 요인에 관한 상관적 일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논문집, 10, 331-345.

강승희(2010). 중학생의 부모 애착, 우울, 심리적 안정감,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8, 1-29.

강운선(1998). 집단상담을 통한 학교생활 부적응자들의 약물 남용 예방 방안 모색. 청소년학연구, 5, 167-195.

강유진·문재우(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 요인의 영향: 가족 배경 요인과 가족관계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16(1), 283-316.

고성희·임성택(2010). 한국형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1, 45-64.

고유미·이정윤(2009).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7, 1-16.

곽수란(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 1-26.

곽종문(2002). 학교를 버린 아이들,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46, 81-117.

교육인적자원부(1997). 교육복지 종합대책.

구본용·유재민(2007). 중학생, 고등학생의 다차원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5, 67-76.

권경희(1986).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학교생활 적응도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권복순·이경은·이성희(1997). 학교부적응에 대한 학교사회사업 실천. 사회복지개발연구, 3(2), 93-109.

권순경(1989). 중고등학생의 약물 남용 실태 조사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논문집 18, 79-118.

김경일·천성문(2002). 초등학생들의 학교부적응 유형과 대응 방안. 한국교육포럼 학술대회 자료집, 1-29.

김광수(2011).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위탁형 대안교육의 제도적 위상. 교육철학, 44, 1-23.

김기하(1997). 중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수준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기헌(2003). 일하는 고등학생들: 재학 중 시간제 취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7(6), 115-144.

김기헌(2006).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중2에서 고1까지.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자료집, 409-425.

김나영(2011). 무용/동작 심리 치료가 저소득층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무용학회논문집, 67, 21-41.

김미현(2002). 농촌 지역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개념 향상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2, 5-27.

김민경(2003). 집단미술 활동이 이혼 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7, 59-74.

김상미·정익중·임보람(2011).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유형이 학교부적응과 학업성적을 매개로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175-195.

김선아·김경희(2004). 음악치료를 적용한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효과 : 여중생을 대상으로. 정신간호학회지, 13권(4), 411-419.

김수진·이정숙·양미화(2004). 해결 중심 집단상담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생활 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희망에 미치는 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7(2), 73-83.

김숙경(2008).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 활동에서 인정의 의미: 상담자의 관점에서. 교육인류학연구, 11(2), 147-172.

김순규(2009). 인터넷 사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 1-22.

김신·이형실·임수경(2008). 남녀 청소년의 가족체계 유형과 학교생활 적응 및 행동 문제의 관련성. 한국 가정과 교육 학회지, 20, 1-17.

김애경(2001).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271-285.

김영행(2011).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Project)' 운영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Wee School(충무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예성(2007).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학교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 노동-학업간 갈등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4(2), 213-244.

김용래(2000). 학교 학습동기 척도(A)와 학교적응 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 분석. 교육연구논총, 17, 3-37.

김용래·김태은(2001). 학업/비학업 자아개념, 학교 태도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탐색. 교육연구논총, 18, 2-46.

김웅수·주석진(2010). 도시와 농촌 지역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청소년학연구, 17(11), 183-203.

김원희·이동훈(201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및 자기 통제력이 학교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4), 1767-1782.

김은영(2011).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과 관련된 보호 요소 차이. 교육종합연구, 9, 61-79.

김은옥·유형근·신효선(2008). 학교부적응 중학생을 위한 학교적응력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16, 55-73.

김일태·허남진(2004). 비학업 자아개념과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분석. 열린교육, 12(1), 75-96.

김재홍(1987). 사랑의 교실 운영을 통한 학교생활 부적응아 지도 사례. 연구월보, 205, 43-47.

김정미(2009). CMYK를 통해 본 학교부적응 청소년 미술치료 사례. 미술치료연구, 16, 679-697.

김정환(2007). 자기성장 훈련이 인기아와 비인기아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원교육, 23, 19-35.

김지근·이기학(2008). 지각된 부·모의 양육 태도 조합 패턴과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9, 1183-1200.

김지연(2009). 피학대 아동의 학업적 탄력성이 비행과 학교폭력에 미치는 효과 -도시와 농촌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0, 71-96.

김지혜(2008). 고등학생의 학교적응 구성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논단, 7, 39-56.

김지혜·정익중(2010). 빈곤은 인터넷 활용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빈곤이 부모의 지도 감독과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 유형을 매개로 학교부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1, 29-56.

김택호·김재환(2004).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65-490.

김헌성(2011). 사이코드라마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여중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4, 1-14.

김혁곤(1978). 이상 행동과 적응을 위한 학교교육. 순천 청암대학.

김현숙(1999).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현순(1976). 초등학교 아동의 부적응 문제에 관한 사례연구. 심리연구, 17, 46-49.

김현욱·홍신기·권동택(2010).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부적응 요인 탐색. 교원교육, 26(3), 21-37.

김현주(2010). 사회적 지지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빈곤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 211-233.

김현주·이혜경(2011).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건강성과 학교생활 부적응과의 관계. 가족과 문화, 23, 77-104.

김혜경(2010).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치료 프로그램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29-349.

김혜래(2005). 사회봉사활동이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학교사회복지, 1-30.

김혜성·김혜련·박수경(2006).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집단 비교를 통하여. 한국아동복지학, 21, 207-232.

김혜숙(2007). 이혼 가족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초등 교사와 교대생의 인식. 초등교육연구, 20, 1-16.

김혜영(2002). 학교 중도 탈락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연구. 청소년연구, 9(3), 213-242.

김혜원(2010). 청소년 부적응 행동의 유형, 정도와 자아건강성의 관계. 상담학연구, 11, 225-244.

김혜원·정일현(2011). 청소년들의 집단 따돌림과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 및 학교부적응. 청소년연구, 18(5), 321-356.

김희화(2001).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과 학교생활 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8, 119-141.

김희화·김경연(2000).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5), 15-24.

나병현(2001). 학교교육의 위기와 공교육 이념의 재검토. 아시아교육연구, 2, 139-159.

나상우(1985). 학생생활 부적응아 지도. 대구교육, 8, 40-43.

남궁정·조호제(2008). 가출 여자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8(1), 125-146.

남억우 외(편.)(1988). 교육학 대사전. 서울: 교육과학사.

남영옥·김재한(2003). 알코올 중독자를 부모로 둔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교적응 유연성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1), 199-221.

노성향(2009).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아동의 정서 지능에 미치는 효과. 인간발달연구, 16(4), 37-50.

류경희(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41(12), 147-168.

류경희(2004). 창원시 중 ·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한국생활과학회지, 13(2), 195-213.

류방란·최윤선·신희경·이규재(2007). 학교부적응 학생의 교육 실태 분석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신희경·이규재·최윤선(2008). 학교 학습 부적응에 미치는 가정과 학교의 영향력 분석. 교육학연구, 46(2), 179-208.

류방란·신희경(2011).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 다니기 : 전문계 여자 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9(2), 41-72.

류중석(2007). 청소년 유해 환경 평가 지표 개발과 변천 과정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5(4), 71-78.

류희숙(2007).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방안. 교정복지연구, 8, 91-109.

문선모·윤기수(1984). 중학생의 배경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 경상대학교논문집, 23(1), 296-301.

문선화(2000). 중등학교 중퇴자의 학교복귀를 위한 학교사회사업의 접근 방안. 학교사회복지, 85-112.

문성호(2003). 학생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3), 83-103.

문은식·김충희(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19-241.

박남희·조영란·최원희·문남진·안혜경·신재신(2004). 청소년의 사이버세계 몰입 경험. 대한간호학회지, 34(1), 15-24.

박상익(1980). 학교의 교육적 환경과 학생 범죄: 비행에 대한 연구. 생활지도연구, 14, 117-126.

박승희(2007).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7, 17-36.

박영숙·유순화·한귀녀·정애리(2007). 교사의 직무 만족도와 학생의 교사 태도에 대한 지각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20, 449-467.

박옥임(2010).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교사의 인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 139-155.

박원모·이동훈·정태연·임승한·박제일(2009). 학교부적응 검사와 BASC-2 검사 및 LCSI-C 검사와의 관계.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1(5(B)), 2501-2515.

박은민(2010). 청소년의 교사애착, 또래애착, 모애착과 자존감 및 우울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 75-88.

박장환(1996). 공업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관련된 요인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주(2011). 교사애착이 학생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8(3), 333-352.

박준희·전찬화·황응연(1972). 중고교생의 부적응 행동 및 그 원인 조사. 인간발달, 1, 1-29.

박창남(2010). 학교의 구조와 조직의 특성이 학교의 부적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7, 165-184.

박창남·도종수(2003). 청소년 학교중퇴 의도의 원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207-238.

박창남·도종수(2007). 청소년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4(5), 345-374.

박춘성·이정규(2008). 영재아와 일반아간 학교 및 가정 부적응 유형 차이. 영재와 영재교육, 7, 121-139.

박현선(1998). 빈곤 청소년의 학교 적응 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배숙진(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배정이(2008). 중학생의 학교적응 관련요인의 인과적 구조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8(3), 454-464.

백혜정·이순묵(2002). 학교 적응의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의 도덕 판단 : 도덕발달 단계 및 도덕 지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5(1), 57-79.

백혜정·이순묵(2003).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들이 실제 경험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판단 및 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135-153.

부경희(2009). 교사용 초등학생 학교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초등교육연구, 22(4), 185-205.

서명성(1999).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교 적응과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1994). 교육학 용어 사전. 서울: 하우출판사.

서주연(2011). 예술심리치료가 학교부적응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단일 사례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7, 19-43.

성민선·이상오·정무성·정은(1998).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실천 모델 연구. 학교사회복지, 179-223.

성윤숙(2005). 학교중도 탈락 청소년의 중퇴 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6(2), 295-343.

손미영·김영희(2009). 가족 갈등과 자기 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23-135.

손희준(1988). 고등학생의 우울 성향과 학교적응과의 상관 연구. 사학, 47, 127-134.

송영식(1974). 학교생활 부적응아의 행동 수정에 관한 사례연구. 교육월보, 119, 35-40.

송영혜·박진희(1999). 학교부적응 아동들의 집단놀이치료 사례 연구. 놀이치료연구 3, 129-149.

신윤희(2010). 학교부적응 아동과 ADHD 아동, 일반 아동의 언어적 특성 비교 : K-WISC-III, 실행기능 검사, 문장 완성도 검사를 중심으로. 정서 · 행동장애연구, 26(2), 223-239.

신윤희·이상복·윤주연·이승현·강원석·안진웅(2010). ADHD 및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인지적 특성 및 실행 기능과 뇌파 비교 연구 : 대구 및 경상도 소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정서 · 행동장애연구, 26(1), 65-840.

신찬환·박영호(2005). 초등학교 학생의 생활 양식 유형과 정신건강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5, 187-212.

신현숙(2003). 적응유연성 연구의 전망: 개념 및 방법론적 문제와 학교. 교육학연구, 41, 431-456.

신현숙·박용재·박주희·류정희(2006). 교사 보고형 초등학생 학교적응 행동 평정 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3(2), 1-26.

신현정·유형근·조용선(2007). 전문계 고등학교 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진로멘토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7(2), 189-206.

심영희(1987). 상대적 박탈감과 비행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2, 69-115.

심영희(1988). 중류계층 비행 연구. 형사정책 3, 33-69.

심희옥(1998). 아동 후기 초등학교 학생들의 내적, 외적 문제행동인 우울 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2.

아영아·정원철(2011).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부적응 관계에서 인터넷중독의 매개 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8(2), 27-50.

안명희(2007). 한국판 교사 보고형 아동 성격 진단 검사 표준화 예비 연구 한국판 교사 보고형 아동 성격 진단 검사 표준화 예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3), 101-116.

안정숙·신승우(2002). 집단 따돌림 피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관련된 위험인자와 보호인자. 신경정신의학, 40, 1166-1173.

양국선·장성숙(2001). 학교적응 유연성과 관련된 보호 요인 특성 연구: 야간실업고등학교 근로 청소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27-148.

양난미·이지연(2007). 남, 여 초등학생의 부모 애착, 컴퓨터게임 중독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모형 분석. 상담학연구, 8, 639-655.

양미진·김태성·이자영(2009). 은둔형 부적응청소년 수준별 현황 및 촉발 요인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0, 33-53.

오경자·홍강의·이혜련(1997). K-CBCL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 서울중앙적성출판사

오세현(2003). 저소득층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결정 요인. 한국아동복지학회지, 21, 181-205.

오세현·이정숙(2003). 학교 부적응 청소년 치료를 위한 소시오드라마의 효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93-107.

오승환(2009).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영향 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1, 161-181.

오영희(2007). 청소년의 사이버 문화와 학습 태도, 대인 관계 및 소비 행동과의 관계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6, 80-113.

오윤자(2003).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통제 소재,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7(2), 315-330.

원종아(2011).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애착 및 대인 관계 향상을 위한 모-자(母-子) 미술치료를 병행한 미술치료 단일 사례 연구. 미술치료연구, 18, 1-25.

유성경·이소래(1998). 중도탈락 학생 사회적응 상담 정책 개발 연구: 잠재적 종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 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유성렬(2005).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6(1), 255-281.

유세정(1988). 중학교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 충북교육 90, 56-63.

유윤희(1994). 학교적응 · 불안 · 학업성취간의 관계 분석 : 중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윤기수·문선모(1977). 학생의 배경적 특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학생지도연구, 4, 19-28.

윤수익·위은하(2010). 청소년의 외모 관리 태도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지, 22, 1-13.

윤은종·김희수(2005). 청소년의 생활양식 유형과 정신건강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7(2), 105-120.

윤진·최정훈(1989). 청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와 그 대처 행동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2(1), 16-35.

이경상(2011). 청소년 학교부적응의 종단적 변화의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18(12), 131-155.

이경상·유성렬·박창남·김현호·박현수·조주연(2005).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의 실태 및 학교부적응 관련 효과. 한국청소년개발원.

이경아·이정윤·양현정(2005). 집단 따돌림이 청소년기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6, 531-543.

이경은(1998). 학교생활 부적응 유형과 요인에 따른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경화·손원경(2005). 아동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구조 분석. 아동학회지, 26, 157-171.

이규미(2004). 중 · 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학교부적응 행동 지표.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27-241.

이규미(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83-398.

이규미·김명식(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27-40.

이근매·김경순(2006).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문제행동 감소 및 또래관계 개선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3(5-1), 49-79.

이기돈·이선희·허경은(1976). 중고등학교 학생 적응의 성격과 원인에 관한 연구. 삼육대학 논문집, 6, 211-225.

이기영·최성열·신성철·장성화(2010).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학습동기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9, 251-270.

이달호(1981). 문제행동의 수정과 실제에 관한 일고. 서울교육대학교 논문집, 177-192.

이동훈(2009). 초등학생의 ADHD 증상 유병율 및 우울, 불안, 스트레스, 학교부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10(4), 2397-2419.

이동훈·이정화·이애선·박원모(2010).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학교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9, 185-205.

이명숙·이민규(2009).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자아개념, 학교적응 및 학교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0, 167-193.

이명훈·조동현(2011).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 변인. 직업교육연구, 30, 291-311.

이미리(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 평가와 부정적 자아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263-393.

이병철·송다영(2011). 다문화 가족 중도 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 131-154.

이봉주·김광혁·정익중·김예성·나은숙(2006). 가족 배경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이숙영·남상인(1997). 중도탈락 학생의 사회 적응 상담 정책 개발 연구. 청소년 대화의 광장.

이영희(1988). 학교교육의 병리와 소년 비행. 사회복지연구, 17, 29-60.

이원이·김동일(2009).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적응 촉진 요인. 상담학연구, 10(4), 2495-2519.

이윤주(2004).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부모 갈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5, 435-449.

이은진(2007).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6, 55-76.

이익섭·최정아(2008).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과 학교부적응 간의 경로 분석 : 우울 및 공격성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6(1), 47-58.

이장현(1978).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청소년 일탈 행위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31, 199-232.

이재모(2011).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의 내외통제성과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3(6), 127-150.

이재선·나승일(2011).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 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3, 1-28.

이정숙·명신영(2007).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 실태 및 휴대폰 중독 정도에 따른 또래관계의 질,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67-86.

이정윤·이경아(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이춘림·정영숙(2005). MMTIC을 활용한 학교적응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자기 효능감과 목표 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유형학회지, 12, 35-50.

이태상(2010). 학교 유형별 중학생의 학습 태도와 학교생활 적응 관계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 373-388.

이현주(2011).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지 행동 집단미술치료의 학교생활 적응 및 자기조절 능력 향상의 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8, 31-60.

이형하(2003). 인터넷 중독 정도가 도서 지역 청소년의 심리정서, 행동, 학업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4), 263-288.

이혜경·김현주(2007).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관한 연구 경향 분석. 청소년시설환경, 5(2), 29-42.

이혜영(2001). 학업중도탈락의 실태와 학교에서의 대처 방안.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7-23.

이혜영 외(2008). 미래 학교 모형 탐색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호진·이명선(2001). 청소년의 학교 주변 유해 환경 이용과 건강 위험 행태 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8(2), 129-140.

이훈진(1999). 편집증의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자기개념과 추론 편향. 한국심리학회지, 18(1), 1-15.

이희정(2006).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우울, 충동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3, 143-171.

임혜경·박재국·락합준랑·김주홍·정지완(2007). 학교부적응 학생의 부적응 실태 및 지원에 관한 교사의 인식. 특수아동교육연구, 9, 61-377.

장경문(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아분화 수준이 학교생활적응과 학교 성적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5, 89-108.

장경문(2011).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통제가 남녀 초등학생의 자존감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 243-261.

장덕희·신효선(2010).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환경 요인. 청소년학연구, 17(3), 123-147.

장성화·김옥진(2010). 초등학생의 학습동기, 사회성,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 교육종합연구, 8, 140-157.

장성화·김옥진(2011). 청소년의 학교적응, 자기통제력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 159-179.

장연심·조아미(2007).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4(1), 123-136.

장윤재·김소희(2008). 컴퓨터 이용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언론정보연구, 45(1), 67-96.

장혜경(2005). 게슈탈트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가치관과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6, 499-513.

장호성·문선모(1987).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학생생활연구보 13, 43-52.

전경숙·노재봉(2003).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 정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정규석(2004). 사회적 관계 요인이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2, 235-252.

정묘순(2011).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자아 분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26, 192-229.

정문자·어주경(2004). 학교 부적응 아동을 위한 해결 중심 집단상담의 개발 및 평가.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2(1), 107-139.

정소희(2007). 부부 갈등, 부모양육 행동, 자아 통제력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비행 친구와 학교부적응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1), 145-170.

정수정·오익수(2010). 초등학생을 위한 학교부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초등상담연구, 9(2), 163-173.

정연순·이민경(2008). 교사들이 지각한 잠재적 학업중단의 유형과 특성. 한국교육, 35(1), 79-102.

정유진(1999).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 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진숙(2008). 학교생활 부적응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불안·우울 감소를 위한 미술치료. 예술심리치료연구, 4, 125-150.

정하성(2006). 지역사회 유해 환경이 청소년 범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3(2), 269-284.

정현희·이종구·윤혜경·이종한(2002). 포스터발표: 아동용 학교적응 평가 척도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605-610.

조미숙(2002). 가정폭력이 아동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홀리스틱교육연구, 6, 245-256.

조성심·주석진(2011). 생태체계 관점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중학생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5), 61-81.

조성심·최승희(2011). 학교부적응 중학생을 위한 생태체계 관점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 개발. 학교사회복지, 20, 23-54.

조아미(2002). 청소년의 학교중퇴 의도 결정 요인. 청소년학연구, 9(2), 1-22.

조윤숙·이경님(2010). 청소년 소외감, 우울과 가족 환경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8(8), 27-37.

조은정·이혜경(2007). 청소년패널 연구의 위험행동 요인, 학교 요인, 가족 요인에 따른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학연구, 14(4), 59-80.

조혜정(1995). 중퇴와 부등교의 사회문화적 맥락. 학업중퇴자 연구: 실태와 대책.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조혜훤(1999). 집단 상담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긍심 강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차명호·양종국·정경용(2010). 청소년 가출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의 분석. 소년보호연구, 15, 165-192.

최병목(2002). 사이버 문화의 새로운 현상과 사회 변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최영하·윤형진(2005).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아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발달장애학회지, 9(1). 66-75.

최옥희·김용미·김영호(2009). 생태학적 변인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22(4), 133-160.

최은영·최인령(2002).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5(1), 63-72.

최종혁·박수정·신빛나(2011).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행동 강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서초구 S중 3학년 K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5), 135-164.

최지원·박영숙(2011).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MMPI-A 특성 및 학교생활 적응수준. 청소년학연구, 18(9), 265-284.

최지은·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생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최혜숙·이현림(2003). 또래집단 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01-216.

최효숙(2011). 모-자 활동 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학교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8, 21-40.

최희옥·문재우·박재산(2005). 가족내 갈등과 학교 부적응간의 관련성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17, 79-106.

하상규(1985). 학급 Recreation Program을 통한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개선책의 모색;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부산직할시교육연구원 연구논문집, 43, 365-379.

한근석(2007). 공예치료 프로그램 제안: 학교부적응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조형학연구, 8(4), 741-752.

한기순·황은하(2010). 영재 학생과 일반 학생의 완벽주의와 학교적응간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18, 27-45.

한상철·김대웅(2005). 게슈탈트 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기 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2(2), 89-107.

한인영·이경아·김혜령(1996). 학교부적응 중학생 집단에 대한 학교사회사업 실천의 일 예.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 5-27.

한혜령·김현숙(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외모 만족도 및 외모 의식성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 28, 61-76.

허은경·이경님(2006). 청소년의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이 규범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4), 111-122.

허재경·김유숙(2005). 부모애착 안정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 483-495.

홍순혜·우영숙·이문자·정지인·현연화(1997).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실태와 학교사회사업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5, 47-69.

황성혜(2010). 청소년 학교 부적응의 발달 궤적 연구: 잠재성장 모형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4), 211-239.

황유경(2003).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교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0, 379-407.

황정옥(2001). 고등학교 중퇴생의 MBTI 성격 유형 연구: 대안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유형학회지, 8, 159-174.

황혜자·황유경(2001). 학교부적응 아동의 정서 진단 척도 개발. 동아교육논총, 27, 93-110.

중앙일보(2012.10.24). 사설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 규제해야"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179/9678179.html?ctg=)

Allen, Hauser, Bell, & O'conner(1994). Longitudinal assessment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family interaction as predictors of adolescent ego development and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65, 179-194.

Alpert, G., & Dunham, R.(1986). Keeping academically marginal youth in school. Youth in Society, 17(4), 346-361.

Amato, P. R.(1988). Family processes and the competence of adolescents and prim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1), 39-53.

Asarnow, J. R., Carson, G. A. & Guthrie, D.(1987). Coping strategies, self-perception, hopelessness and perceived family environment in depressed and suicid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336-361.

Astone, N. M., & McLanahan, S. S.(1991). Family structure, parental practices and high school comple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3), 309-320.

Berg, B. and Lune H.(2011).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8

Berndt, T. J.(1989). Contributions of peer relationships to children's development. Peer Relationship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Berndt, T. J., & Ladd, G.(1989).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Bhattacharaya, G.(2000). The school adjustment of South Asian immigrant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dolescence, 35(137), 77-86.

Birch, S. H., & Ladd, G. W.(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 61-79.

Bowers, C. A.(1985). Culture against itself: nihilism as an element in resent educational thought.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93, 465-490.

Bronstein, P., Duncan, P., D'Ari, A., Pieniadz, J., Fitzgerald, M., Abrams, C. L., Frankowski, B., Franco, O., Hunt, C. & Cha, S. Y. O.(1996). Family and parenting behaviors predicting middle school adjustment: A longitudinal study. Family Relations, 45, 415-426.

Bryk, A. S., & Thum, Y. M.(1989). The effects of high school organization on dropping out: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6(3), 353-383.

Coleman, J. S.(1961). The adolescent society. Glencoe, IL: Free Press.

Coleman, J. S., & Hoffer, T.(1987). Public and private high schools: Impact on communities. New York: Basic Books.

Creswell, J. W.(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조흥식 외(2005)(역).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서울: 학지사.

Crockett, L. J., Petersen, A. C., Graber, J. A., Schulenberg, J. E., & Ebata, A.(1989). School transi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9, 181-210.

Dubow, E. F., & Tisak, J.(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Eccles, J. S., Adler, T. F., Futterman, R., Goff, S. B., Kaczala, C. M., Meece, J. L., & Midgley, C.(1983). Expectancies, values and academic behaviors. In J. T. Spence(ed.), Perspective on achievement and achievement motivation. San Francisco: W. H. Free-man.

Ekstrom, R. B., Goertz, M. E., Pollack, J. M., & Rock, D. A.(1986). Who drops out of high school and why? finding from national study. Teachers College Record, 87, 356-373.

Forehand, R., Long, N., Brody, G. H., & Fauber, R.(1986). Home predictors of young adolescent's school behavior and academic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7(6), 1528-1533.

Goldberg, M. E.(1999). Truancy and dropout among Cambodian students: result from a comprehensive high school. Social Work in Education, 21(1), 49-63.

Grant, G.(1988). The world we created at Hamilton high.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Greenberger, E., & Sternberg, L.(1986). When teenagers work: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osts of adolescent employment. New York: Basic books.

Grych, J. H., & Fincham, F. D.(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Hatch J. A.(2002). 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al Setting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Hattwick, B. W., & Sowell, M.(1936). Relation of parental over-attentiveness to children's work habits and social adjustment. Educational Research, 30, 169-176.

Houten,. V. J.(1948). Mother-child relationships in twelve cases of school phobia. Smith College Studies in Social Work, 18(3), 161-180.

Judy, M. C.(1992). An empirical test of a model of nontraditional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45, 193-203.

Kim, S., Orpinas, P., Martin, R., Horne, A. M., Sullivan, T. N., & Hall, D. B.(2009). A typology of behavioral adjustment in ethnically diverse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xx(x), 1-12.

Kiuru, N., Nurmi, J., Aunola, K., & Salmela-Aroet, K.(2009). Peer group homogeneity i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varies according to peer group type and gende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3(1), 65-76.

Kupersmidt, J. B., Buchele, K. S., Voegler, M. E., & Sedikides, C.(1996). Social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peer relations problems and school maladjustment. In Juvonen J., & Wentzel, K. R.(ed.). Social motivation: Understandi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Kurdek, L. A., & Sinclair, R. J.(1988). Adjustment of young adolescents in two-parent nuclear stepfather, and mother-custody famil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1), 91-96.

Kurdek, L. A., Fine, M. A., & Sinclair, R. J.(1995). School adjustment in sixth graders: Parenting transitions, family climate, and peer norm effects. Child Development, 66(2), 430-445.

Ladd, G. W., Kochendwefer, B. J., & Coleman, C. C.(1997). Classroom peer acceptance, friendship, and victimization: District, relationship systems that contribute uniquely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8(6), 1181-1197.

Laible, D. J., Carlo, G., & Raffaelli, M.(2000).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s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29, 5-59.

Mortimer, J. T., Finch, M. D., Ryu, S., Shanahan, M. J., & Call, K. T.(1996). The effects of work intensity on adolescent mental health, achievement, and behavioral adjustment: New evidence from a perspective study. Child Development, 67, 1243-1261.

Pope, A. W., & Bieman, K. L.(1999). Predicting adolescent peer problems and antisocial activities: the relative roles of aggression and de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 335-346.

Reich, H. A., & Flanagan, K. S.(2010). School Adjustment. In Weiner, I. B. & Craighead, W. E.(ed.). The corsini encyclopedia of psychology. John Willey & Sons, Inc.

Rice, K. G.(1992). Separation-individuation, family cohes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45, 203-213.

Rock, E.(1980). Dealing with school refusers.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10(1), 13-20.

Rudolph, K. D., Lambert, S. F., Clark, A. G., & Kurlakowsky, K. D.(2001). Negotiating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The role of self-regulatory processes. Child Development, 72, 929-946.

Rumberger, R. W.(1983). Dropping out of high school: The influence of race, sex, and family background.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0(2), 199-220.

Rumberger, R. W.(1995). Dropping out of middle school: a influence of race, sex, and family background. American Education Research Journal, 20, 199-220.

Rutter, M., Maughan, B., Mortimore, P., & Ouston, J. with Smith, A.(1979). Fifteen thousand hours: Secondary schools and their effects on childre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Simmons, R. G., & Blyth, D. A.(1987). Moving into adolescence: The impact of pubertal change and school context. Hawthorne, NJ: Aldine.

Simmons, R. G., Blyth, D. A., Van Cleave, E. F., & Bush, D. M.(1979). Entry into early adolescence: The impact of school structure, puberty, and early dating on self-este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948-967.

Skeels, H. M., Ruth, R., Wellman, B. L., & Williams, H. M.(1936). A study of environmental stimulation: An orphanage preschool project. Child Welfare, 1, 156.

Spencer, M. B.(1999).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on school adjustment: The application of an identity-focused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Education Psychologist, 34(1), 43-57.

Symonds, P. M.(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s.

Troop-Gordon, W., Visconti, K. J., & Kuntz, K. J.(2010). Perceived popularity during early adolescence: Links to declining school adjustment among aggressive youth.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1(1), 125-151.

Wentzel, K. R,. Barry, C., & Caldwell, K. A.(2004). Friendships in middle school Influences on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 195-203.

Wigfield, A., & Eccles, J. S.(1994). Children's competence beliefs, achievement values and general self-esteem change acros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107-138.

Yoneyama, S.(2000). Student discourse on tokokyohi(school phobia/refusal) in Japan: Burnout or empowerment?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1(1), 76-94.

Young, K.(1998). Internet addiction and its personality correlates. Presentation at the 70th annual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MA.

Zafiriadis, K., Livaditis, M., Xenitidis, K., Diamanti, M., Tsatalmpasidou, E., Sigalas, I., & Polemikos, N.(2005). Soci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Greek secondary school students with learning difficulties. Journal of Adolescence, 28, 741-752.

Zimmerman, M. A., & Schmeelk-Cone, K. H.(2003). A longitudinal analysis of adolescent substance use and school motivation among African American youth.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 185-210.

Abstract

The Diagnosis of Students' School Maladaptation and Response Thereto

Hyeyoung Lee
Heungsuk Son
Ilhyuk Kim
Misook Kim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school maladaptation among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e trends in domestic studies on school maladaptation since the 1990s were analyzed as part of efforts to review the notion of school maladaptation and to set up study perspectives. After summarizing factors related to school maladaptation, the current study introduced a research model based on the results of exis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This study defined school maladaptation as a "phenomenon where the educational activities conducted by schools and the mainstream culture conflict or disaccord with the student actors." Such a definition was designed to highlight the fact that school maladaptation represents a problem that emerges during th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schools and students. The research model intended to analyze the causes of school maladaptation focusing on environmental factors, and in particular those related to the school and social environments rather tha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students.

This study conducted a large-scale survey design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student life inside and outside school and the current state of school maladaptation. The survey was given to students and teachers in elementary, middle, regular high school and specialized high

schools nationwide. In terms of survey sampling, a proportional stratified cluster sampling method was applied that involved the selection of 200 elementary, middle and regular high schools as well as 150 specialized high schools. Then one class (the first and last class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was sampled at a particular grade (grade 6 for elementary school, grades 1-3 for middle school) within the sampled schools. In the case of the teachers, all teachers employed in the schools selected as samples were included in the sampling. The response rate for the student survey was estimated to be 89.6%(9,749) in the case of elementary schools, 93.7%(18,739) for middle schools, 90.8%(19,143) for regular high schools, and 94.1%(12,190) for specialized high schools. The response rate for the teacher survey was estimated to be 80.9%(6,132) in the case of elementary schools, 79.8%(5,702) for middle schools, 75.8%(9,401) for regular high schools, and 75.8%(9,401) for specialized high schools.

The current state of students' school maladaptation was analyzed by calculating the basic statistics for each question found in the survey at the individual school level. The testing was conducted for differences in the mean and rate at the sub-group and school levels for each of the main background variables. In terms of the main variables, a scaling method was employed to verif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ub-groups and school levels. A 2-level HLM was designed and used as part of the analysis of the variables influencing school maladapt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in Chapters 3 through 7 of this study.

Chapter 3 revolves around an analysis of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students toward their schools, as well as of their current concerns and problems. The most frequently given answer across all school levels with regards to such concerns and problems was 'studying and grades'. While the second most common answer amongst elementary school was 'heal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elected 'academic/career path'. When asked about the extent to which they participate in their classes, the majority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swered that they in fact "eagerly participate in classes" or "listen in class even though they do not eagerly participate". However, the higher the school level, the less popular

this answer became. This was particularly true in the case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The ratio made up by the answer, "do not pay attention in class" increased along with the school level, and was especially high in the case of specialized high schools. When asked about attending school, over 60% of all students answered that they "were for the most part happy to attend school". The answer, "really want to attend school" became less pronounced as the school level rose, with this answer being especially rare amongst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answers, "obliged to attend school although I do not want to", and "would like to quit school right now" rose along with the school level, and was especially high amongst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Students were found to have a rather negative perception of their respective schools in terms of the factors such as the diversity of educational contents, individual relevance, and practicality. Students also had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diversity of education methods,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and competence-based classes. Student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enacting school rules was not very high. Students perceived such school rules as highly restricting their behavior. The students were very critical of school rules; for example, they answered that school rules made them angry or that did not want to come to school because of the rules. Students exhibited generally positive perceptions of their teachers in terms of their passion and attitude as well as their friendships. As far as school climate was concerned, students believed that academic competition among students is severe and school do not premit them to exercise autonomy and independence.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home environment and life outside of school were introduced in Chapter 4. Factors such as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the extent of parents support for education were used to measure the home environment. All students across all school levels maintain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However, when compared with parents overall level of interest, the ability to "communicate with parents" was found to be rather low. The answer "I freely talk to my parents about my worries and troubles" was in fact the least frequently given in this regard. Thus, students

talked to their parents about their concerns and problems much less than they did about school life, everyday life, future dreams and career path. Abuse by parents was reported to be low. The degree of parents' educational support was higher than the average across all school levels. However, parents support usually came less in the form of cultural experiences such as nature experiences, travel, the viewing of performances and visits to museums than in that of creating a learning atmosphere, forming an attitude conducive to learning, providing books and information, preparing for assignments and school materials, school attendance, and maintaining good health through balanced meals and exercises. Parental support was highest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and lowest at the specialized high school level.

Students' experiences outside of school were investigated based on factors such as the degree of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ITE), part-time job experience, and the extent to which students came into contact with potentially harmful environments. The use of ITEs was revealed to be very high.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age of ITE was lower th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number of students whose sleep or school work and other activities were negatively impacted because of ITE was highest amongst regular high school students. Although the rate at which the answer, "I feel depressed and become nervous and sensitive when I do not use ITE" was overall low, it was found to be highest amongst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4.4% of middle school students, 14.2% of regular high school students, and 38.8%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answered that they have had a part-time job sometime in the past two years. The ratio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held a part-time job was higher than that of regular high school students. The most significant ratio of students who have held part-time jobs over the last two years did so for 1~3 months. Students from specialized high schools tended to hold their par-time jobs longer than in their counterparts in regular high schools. The extent of exposure to harmful environments was measured using a survey of students' access to comic book stores, PC rooms (a type of LAN gaming center), Karaoke halls, video/DVD rooms, bars, and nightclubs. A high number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nswered that they 'sometimes, frequently,

or very frequently' visited PC rooms and Karaoke halls. The ratio of access to these places tended to increase as the school level rose.

The investigation of students' self-esteem revealed that students by and large have a positive perception of themselves. Their perception of society was also generally positive. However, their perception of society was rather negative when compared to their self-esteem. While the average score for the five questions on self-esteem was 3.64, the average score for the five questions on the perceptions of society was 2.81. Students viewed the impact of their academic performance on their ability to enter university in a more negative light than the impact of such performance on their vocation or income in the future. This finding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university is slated to occur in a much nearer future and that their academic performance was directly related to their ability to enter university. The higher the level of students, the more pronounced their perception of the influence of academic performance across all questions became. The students also strongly recognized the existence of credentialism.

The current state of students' maladaptation was addressed in Chapter 5. Based on the existing study results, the questions for the student survey were composed by breaking down the types of school maladaptatation into sense of helplessness, class maladaptation, maladaptation with regards to relations with teachers, maladaptation with regards to relations with friends, and maladaptation in terms of school rules. The survey consisted of 27 questions(25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3 questions related to the sense of helplessness, 5 to class maladaptation, 3 to maladaptation with regards to relations with teachers, 3 to maladaptation with regards to relations with friends, and 13 to maladaptation in terms of school rules. However, following the factor analysis, these five types of school maladaptation were reduced to three, with sense of helplessness and class maladaptation combined to make one category, and maladaptation with regards to relations with friends combined maladaptation in terms of school rules to make another. The three factors were identified as class maladaptation, teacher-relationship maladaptation, and school rule maladaptation. The degree of maladaptation for

each factor was measured using a 5-level scaling method. The average was then calculated. The overall degree of maladaptation was calculated at less than 3, and was as such not very high. The degree of class maladaptation was found to be the highest, followed by teacher-relationship maladaptation and school rule maladaptation. The study revealed that the higher the school level, the greater the degree of class maladaptation became. The degree of class maladaptation was higher amongst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than regular high school students. Teacher-relationship maladaptation and school rule maladaptation were higher amongst middle school and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than elementary and regular high school students. The highest levels for all three maladaptation types were recorded in conjunction with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The degree of teacher-relationship maladaptation was revealed to be very low. Whil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swered most positively,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answered most negatively. Meanwhile, middle school students answered more negatively than regular high school students. As school rule maladaptation was also found to be very low, the conclusion can be reached that students have by and large abided by school rules. The statements which elicited relatively higher scores were "I violate hair and clothing-related rules"(1.70), "I am often absent from school"(1.49), "I beat up other students"(1.48), and "I bully other students"(1.37). As beating up or bullying other students fall under the category of school violence,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fact that the scores on the questions related to such behaviors were relatively higher.

Six types of student maladaptation were introduced in the case study involving five middle schools: parent related maladaptation, friend relat-ed maladaptation, academic path related-maladaptation, study-related maladaptation, education & training-related maladaptation, and personal appearance rules-related maladaptation. The main criterion associated with each of these types was based on the cause for the emergence of these maladaptations. However, this study was unable to ascertain whether the criterion for maladaptation was the primary cause or only served to strengthen an existing maladaptation. In this regard, sophisticated follow-up

studies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more clearly prove the causes of maladaptation. Furthermore, each type of maladaptation cannot be seen as being mutually exclusive. Students should not be perceived as only exhibiting a certain type of maladaptation; rather, they should be understood to tend to exhibit a specific typ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Using class maladaptation, teacher-relationship maladaptation and school rule maladaptation at the various school levels as the dependent variables, a multi-level model was designed in Chapter 6 to ascertain the causes of school maladaptation.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ender was found to influence class maladaptation at the middle school, regular high school and specialized high school levels. More to the point, male students exhibited a higher degree of class maladaptation than female students. The degree of class maladaptation amongst students with a lower academic standing was high at all school levels. The degree of class maladaptation was found to rise along with monthly income of the family at all school levels.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lived with their mothers, middle school students who lived with their fathers, and regular high school students that lived with neither of their parents exhibited a higher degree of class maladaptation. The degree of class maladaptation was found to be higher across all school levels in cases where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was not good or the educational support provided by parents was lower. In terms of student-level processing variables, students who had a part-time job exhibited a higher degree of class maladaptation than those who did not at the middle school, regular high school and specialized high school levels. The greater the frequency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ITE) usage and the degree of awareness of credentialism, the higher class maladaptation became. Moreover, lower self-esteem was associated with higher degrees of class maladaptation at all school levels. School-level input and processing variables were found not to impact class maladaptation at the elementary and regular high school levels. At the middle school and specialized high school levels, the degree of class maladaptation was higher amongst students who resided in rural areas(eup and myeon) than students who resided in metropolitan city areas. Students from coeducational schools exhibited a higher degree of class

maladaptation than those from all-boy schools. Meanwhile, students from all-girl schools exhibited a higher degree of class maladaptation than students from coeducational schools.

Second, let us now look a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eacher-relationship maladaptation. In terms of student-level input variables, gender was found to have an impact on the teacher-relationship maladaptation for students at all school levels. Male students exhibited a higher degree of teacher-relationship maladaptation than female students. Lower degrees of academic achievements resulted in higher degrees of teacher-relationship maladaptation at the middle school, regular high school, and specialized high school levels. The degree of teacher-relationship maladaptation was higher across all school levels when monthly family income was high.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students from single-parent families, especially those living with single mothers, were found to exhibit a higher degree of teacher-relationship maladaptation than those who lived with both parents. The degree of teacher-relationship maladaptation was higher across school levels in cases where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was not good. Lower levels of educational support provided by parents resulted in higher degrees of teacher-relationship maladaptation at the elementary school and specialized high school levels. As far as student-level processing variables are concerned, the degree of teacher-relationship maladaptation was found to be higher at all school levels in cases of higher ITE usage. Lower self-esteem resulted in a higher degree of teacher-relationship maladaptation at th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regular high school levels. Higher awareness of credentialism was found to result in higher degrees of teacher-relationship maladaptation at th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specialized high school levels. School-level input and processing variables were found not to impact teacher-relationship maladaptation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At the middle school level, the degree of teacher-relationship maladaptation was higher amongst students from rural areas(eup and myeon) than those from urban area(special cities, metropolitan cities, and small & medium-sized cities). At the specialized high school level, the degree of teacher-relationship maladaptation was higher amongst students in rural areas(eup and myeon) than amongst those from urban areas(special

cities, metropolitan cities, and small & medium-sized cities). At the specialized high school level, the degree of teacher-relationship maladaptation amongst students from public schools was found to be higher than those from private schools. Meanwhile, the degree of teacher-relationship maladaptation amongst students from coeducational schools was higher than those from all-girls schools at the middle school, regular high school, and specialized high school levels. The school-level processing variables did not impact teacher-relationship maladaptation at th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regular high school levels. Students who had problems with other children exhibited a higher degree of teacher-relationship maladaptation at the specialized high school level.

Third, as far as school rule maladaptation is concerned, gender was revealed to impact the school rule maladaptation at all school levels. Male students exhibited a higher degree of school rule maladaptation than female students. The lower the academic achievements, the higher the degree of school rule maladaptation across all school levels became. The degree of school rule maladaptation was also higher across all school levels when the monthly family income was higher. Students at the elementary school who lived with single mothers and students at the regular high school and specialized high school levels who did not live with their parent(s) had a higher degree of school rule maladaptation than students who lives with both their parents. Students who did not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exhibited a higher degree of school rule maladaptation across all school levels. Meanwhile, students who received less educational support from their parents exhibited a higher degree of school rule maladaptation at the elementary school and specialized high school levels. In terms of student-level processing variables, students with experience holding a part-time job tended to exhibit a higher degree of school rule maladaptation than those with no experience of holding a part-time jobs at the middle school, regular high school and specialized high school levels. The degree of school maladaptation across all school levels was higher when ITE usage was high. The degree of school maladaptation across all school levels was higher when self-esteem was lower.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the degree of school maladaptation was higher when

students were aware of credentialism. The study also found that school-level inputs and processing variables did not impact school rule maladaptation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At the middle school level, the students from rural areas(eup and myeon) exhibited a higher degree of school rule maladaptation than those from urban areas(metropolitan cities). At the middle school level, students from all-boy schools exhibited a higher degree of school rule maladaptation than those from coeducational schools; meanwhile the students from coeducational schools exhibited a higher degree of school rule maladaptation than those from all-girl schools. At the regular high school and specialized high school levels, students from coeducational schools exhibited were found to exhibit a higher degree of school rule maladaptation than those from all-girl schools. Negative results in terms of the friendship variable identified as a school-level processing variable were found to increase the degree of school rule maladaptation at the middle school and specialized high school levels. At the regular high school level, the degree of school rule maladaptation was higher when the school provided lower autonomy to students.

Teachers' perceptions of school maladaptation behaviors and causes, the actual state of guidance of maladapted students, and measures to decrease and prevent school maladaptation, were examined in Chapter 7. A case study of the guidance provided by schools was also collected through a qualitative study. Teachers perceived all 26 behaviors suggested in this study as examples of school maladaptation. The only difference was based on whether a specific behavior was regarded as 'severe' maladaptation or 'minor' maladaptation. Teachers in general identified drifting from school such as unexplained absences and early departure, resistance to and disrespect towards teachers, as well as violence and harmful behavior (bullying and being shunted aside) as behaviors related to school maladaptation. The teachers assessed that school maladaptation was influenced more by individual students, their families, and their social environments than the schools. In terms of school factors, "school curriculum that do not reflect students' individuals' skills, aptitudes, future career path, and interests" was regarded as impacting school maladaptation the most.

The most commonly used criteria and methods employed to determine the degree of school maladaptation at school levels was "determination based on teachers' individual standards"(30.1%); this was followed by the "determination based on the extent of violation of school rules"(28.4%) and "establishment of indicators at the school level"(26.7%). 67.2% of the teachers answered that their schools had established additional education programs to guide maladapted students, thus implying that the majority of schools have managed separate education programs to guide maladapted students. The ratio of education programs for maladapted students was highest at the middle school level; followed by specialized high school, regular high school and the elementary school levels. "Individual and group counseling" was the most common program offered to maladapted students across all school levels. 62% of schools were found to have human resources other than teachers to guide the maladapted students. Although "specialized counselors" were the most commonly found human resources responsible for guiding maladapted students across all levels, great differences emerged between the various school levels. The ratio of "specialized counselors" was highest in specialized high schools; this was followed by regular high schools, middle schools, and elementary schools. The ratio of "social workers" was higher at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levels, where the ratio of specialized counselors was relatively lower. "Directly preach discipline" was the most common method employed by teachers when providing guidance to maladapted students. 59.1% of teachers answered that they "frequently or very frequently" provided "direct counseling", a ratio that was similar to the number that "directly preach discipline". On the other hand, 18.5% and 5.6% of teachers answered that they "request help from other specialized human resources within the school" and "request help from specialized organizations outside the school" "frequently or very frequently". The teachers regarded "teacher interest and enthusiasm" as the most important of the measures to decrease and prevent school maladaptation; this was followed by "increase of specialized human resources(specialized counselors, etc) in schools", "exploration and preparation for future path(profession) that reflect the aptitudes and talents of students", "decrease in class size", "diversification of curriculums to bring them into line with

the interests and aptitudes of students", and "removal of university examination and competition-oriented education climate". These measures were suggested by the teachers who directly guide the students. In this regard, their thorough inclusion in the countermeasures establis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educational offices should be viewed as an effective means to mitigate student maladaptation in the futu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survey and case study, discussions were carried out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introduced in Chapter 8. Two main issues were discussed: the types and degrees of school maladaptation, and the causes of school maladaptation.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were also introduced: 1)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school life guidance system, 2) expansion of student counseling in schools, 3) concretization of maladapted student guidance programs, 4) substantialization of career guidance, 5) democratization of school management, 6) change in the school's standpoint regarding the guidance of maladapted students, 7) strengthening of support for employment of high school graduates, 8) education regarding proper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ITE) usage.

부 록

1. 질문지
2. 통계 분석도

부록 1. 질문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의견 조사
(초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공부와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바쁘겠지만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적으로 분석 · 처리되므로 개인 정보는 절대 노출되지 않으며,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이 응답해 준 내용은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니 성의껏 답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한국교육개발원장

※ 이 조사지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320호 (우: 137-791)

□ 문의 : (Tel) 02-3460-0644 (Fax) 02-3460-0117 (e-mail) hsson@kedi.re.kr

□ 담당 : 학교정책연구본부 학생·학부모연구실 (담당자 : 손흥숙)

※ 다음은 통계 처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1. 성별

_____① 남자 _____② 여자

2. 현재 학급에서 본인의 성적(2011년 2학기 기말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의 학력

	아버지 (또는 남자 보호자)	어머니 (또는 여자 보호자)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2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4.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_____① 100만원 미만 _____② 101~200만원

_____③ 201~300만원 _____④ 301~400만원

_____⑤ 401~500만원 _____⑥ 501~600만원

_____⑦ 601~700만원 _____⑧ 701만원 이상

5. 부모님의 직업

1) 아버지 직업 ① 있다 ② 없다

2) 어머니 직업 ① 있다 ② 없다

6.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_____① 아버지 _____② 어머니
_____③ 할아버지 _____④ 할머니
_____⑤ 형제(자매) _____⑥ 친척(삼촌, 고모, 이모 등)
_____⑦ 친지(가깝게 지내는 사람)

※ 학교생활에 관한 다음 질문을 잘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1.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심각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 순위대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보기〉

① 가정: 가정 불화, 갈등, 경제적 어려움
② 학습·성적: 학업 성적이나 공부(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③ 건강: 병, 외모, 신체 발달
④ 정서: 우울, 불안, 무기력, 의욕 부진
⑤ 성: 이성 교제, 성 충동, 성 경험
⑥ 친구 관계: 친구 사귀기 어려움, 친구와의 갈등
⑦ 교사와의 관계: 교사의 무관심, 무시, 교사와의 갈등
⑧ 학교 폭력: 심부름 강요, 물건·돈 빼앗기, 집단 따돌림·괴롭힘, 폭력(신체, 성 관련) 등
⑨ 진로문제

2. 교과 수업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_____①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질문하는 등 열심히 참여하는 편이다.
_____② 열심히는 듣지 않으나 그래도 듣는 편이다. } 3번으로
_____③ 수업을 방해하지 않을 뿐이지 수업을 잘 듣지 않는다.
_____④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선생님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편이다. } 2-1번 응답후 3번으로

2-1.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① 수업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_____②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따분하기 때문에
_____③ 공부해 보았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_____④ 그냥 하기 싫어서
_____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힘들어서
_____⑥ 잠이 부족해서

3.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_____① 꼭 다니고 싶다.
_____② 그런대로 다닐 만하다. 4번으로
_____③ 다니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다.
_____④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5번으로

4.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① 공부하며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서
_____② 친구들을 만나 놀 수 있어서
_____③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_____④ 졸업은 해야 하니까

5.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① 학교 공부가 재미없어서
_____②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무시해서
_____③ 친구들의 폭력과 따돌림이 싫어서
_____④ 학교를 다녀도 희망이 없어서

6. 다음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6-1. 과목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	①	②	③	④	⑤
6-2. 나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3. 공부이외에 다양한 체험학습과 문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6-4.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5.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배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6.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내용이 장래의 진로(직업)설계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7.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나의 소질과 특기를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8.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9.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학교 밖에서 더 잘 배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음은 수업과 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7-1.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7-2. 수업 시간에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7-3. 수업 시간에 강의 이외에 다양한 방법(토론, 발표 등)으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7-4. 수업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자기 능력에 맞추어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7-5. 학교에서 수업 내용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6. 학교에서 시험을 너무 자주 본다.	①	②	③	④	⑤
7-7. 학교에서 시험 준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다음은 학교 분위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8-1. 학교에서는 학업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판단하고 대우한다.	①	②	③	④	⑤
8-2. 시험에 중요한 과목(국영수 등)을 공부하기 위해 다른 과목 수업을 안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3.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①	②	③	④	⑤
8-4.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8-5.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다음은 학교 선생님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9-1. 선생님들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부에 신경을 써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9-2. 선생님들은 모든 학생을 공평하게 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9-3.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믿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9-4.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고민, 문제 해결에 신경을 써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9-5. 선생님들은 학습 부진 학생을 별도로 지도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9-6.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친밀하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9-7. 선생님들은 나에게 무관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9-8. 선생님들은 나에게 아무 기대를 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⑤
9-9. 선생님들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	①	②	③	④	⑤
9-10. 선생님들은 나를 무시한다.					

10. 다음은 학교 친구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1. 학생들은 서로 친하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10-2. 학급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0-3. 나는 학교에 친한 친구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4. 나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5. 나는 학급 친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6. 학급 친구들은 나를 무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음은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1. 부모님은 나의 취미나 특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11-2. 부모님은 내 친구 관계를 잘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11-3. 부모님께 내 고민거리를 거리낌 없이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1-4. 부모님과 나의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5. 부모님과 나의 장래 희망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6. 부모님은 내 이야기를 늘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1-7. 부모님은 나를 구박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1-8. 나는 부모님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9. 나는 부모님에게 심하게 맞아 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은 부모님의 교육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1. 부모님은 내가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2-2. 부모님은 내가 바른 학습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2-3. 부모님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이나 정보를 알려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2-4. 부모님은 내가 학교의 과제나 준비물을 잘 챙기도록 신경 써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2-5.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 결석, 지각을 하지 않도록 챙겨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2-6. 부모님은 나의 건강 유지를 위해 식사와 운동에 신경 써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2-7.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자연이나 문화 체험 활동(여행, 공연관람, 박물관 등)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다음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1.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랫 동안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3-2.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가까운 사람들이 불평한다.	①	②	③	④	⑤
13-3.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교공부와 다른 일에 지장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4. 밤늦게까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하느라 잠을 못 잔다.	①	②	③	④	⑤
13-5.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하지 않을 때는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다음 장소에 얼마나 자주 갑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가본적 없다	거의 가지 않는다	가끔 간다	자주 가는 편이다	매우 자주 간다
14-1. 만화방	①	②	③	④	⑤
14-2. PC방	①	②	③	④	⑤
14-3. 노래방	①	②	③	④	⑤

15. 다음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생각, 장래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1.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5-2. 나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3. 앞으로 지금보다 공부를 더 잘 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4. 나는 친구들보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5-5. 나는 내 목표나 희망을 이룰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6. 나의 성적으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7. 나의 성적으로는 돈을 잘 벌기 어려울 것이다.					
15-8. 나의 성적으로는 좋은 직업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15-9. 나의 성적으로는 사회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살기 어려울 것이다.					
15-10. 나의 성적으로는 좋은 배우자(결혼상대)를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16. 다음은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1. 나는 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모든 것이 귀찮다.	①	②	③	④	⑤
16-2. 나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16-3. 나는 수업시간에 멍하게 앉아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4. 나는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5. 나는 수업시간에 떠든다.	①	②	③	④	⑤
16-6. 나는 수업시간을 견디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6-7. 나는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	①	②	③	④	⑤
16-8. 나는 숙제를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6-9. 나는 선생님에게 대든다.	①	②	③	④	⑤
16-10. 나는 선생님의 지시를 무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6-11. 나는 선생님과 마주치기 싫어서 피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12. 나는 다른 학생을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16-13. 나는 다른 학생을 괴롭힌다 (인터넷을 통한괴롭힘 포함).	①	②	③	④	⑤
16-14. 나는 다른 학생에게 심부름(셔틀)을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16-15. 나는 다른 학생의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다.	①	②	③	④	⑤
16-16. 나는 학급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6-17. 나는 학교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한다.	①	②	③	④	⑤
16-18. 나는 학교에서 담배를 피운다.	①	②	③	④	⑤
16-19. 나는 학교에서 술을 마신다.	①	②	③	④	⑤
16-20. 나는 성(性)적인 비행(성희롱, 이성교제로 인한 일탈행위 등)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21. 나는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결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16-22. 나는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조퇴한다.	①	②	③	④	⑤
16-23. 나는 자주 지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24. 나는 수업시간을 몰래 빼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16-25. 나는 학교 일과 시간에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성심껏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의견 조사
(중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공부와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바쁘겠지만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적으로 분석 · 처리되므로 개인 정보는 절대 노출되지 않으며,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이 응답해 준 내용은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니 성의껏 답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한국교육개발원장

※ 이 조사지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320호
(우: 137-791)

□ 문의 : (Tel) 02-3460-0644 (Fax) 02-3460-0117 (e-mail) hsson@kedi.re.kr

□ 담당 : 학교정책연구본부 학생·학부모연구실 (담당자 : 손흥숙)

※ 다음은 통계 처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1. 학년

_____① 1학년 _____② 2학년 _____③ 3학년

2. 성별

_____① 남자 _____② 여자

3. 현재 학급에서 본인의 성적(2012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_____① 하 _____② 중하 _____③ 중 _____④ 중상 _____⑤ 상

4. 부모님의 학력

	아버지 (또는 남자 보호자)	어머니 (또는 여자 보호자)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2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5.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_____① 100만원 미만 _____② 101~200만원

_____③ 201~300만원 _____④ 301~400만원

_____⑤ 401~500만원 _____⑥ 501~600만원

_____⑦ 601~700만원 _____⑧ 701만원 이상

6. 부모님의 직업 유무

1) 아버지 직업 ① 있다 ② 없다

2) 어머니 직업 ① 있다 ② 없다

7.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_____① 아버지 _____② 어머니

_____③ 할아버지 _____④ 할머니

_____⑤ 형제(자매) _____⑥ 친척(삼촌, 고모, 이모 등)

_____⑦ 친지(가깝게 지내는 사람)

※ 학교생활에 관한 다음 질문을 잘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1.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심각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 순위대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보기〉

① 가정: 가정 불화, 갈등, 경제적 어려움
② 학습·성적: 학업 성적이나 공부(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③ 건강: 병, 외모, 신체 발달
④ 정서: 우울, 불안, 무기력, 의욕 부진
⑤ 성: 이성 교제, 성 충동, 성 경험
⑥ 친구 관계: 친구 사귀기 어려움, 친구와의 갈등
⑦ 교사와의 관계: 교사의 무관심, 무시, 교사와의 갈등
⑧ 학교 폭력: 심부름 강요, 물건·돈 빼앗기, 집단 따돌림·괴롭힘, 폭력(신체, 성 관련) 등
⑨ 진로문제

2. 교과 수업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_____①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질문하는 등 열심히 참여하는 편이다.
_____② 열심히는 듣지 않으나 그래도 듣는 편이다.
_____③ 수업을 방해하지 않을 뿐이지 수업을 잘 듣지 않는다.
_____④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선생님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편이다.

3번으로

2-1번 응답후 3번으로

2-1.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① 수업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_____②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따분하기 때문에
_____③ 공부해 보았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_____④ 그냥 하기 싫어서
_____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힘들어서
_____⑥ 잠이 부족해서

3.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_____① 꼭 다니고 싶다.
_____② 그런대로 다닐 만하다.
_____③ 다니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다.
_____④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4번으로

5번으로

4.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① 공부하며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서
_____② 친구들을 만나 놀 수 있어서
_____③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_____④ 졸업은 해야 하니까

5.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① 학교 공부가 재미없어서
_____②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무시해서
_____③ 친구들의 폭력과 따돌림이 싫어서
_____④ 학교의 규칙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학교에서 못하게 하는 것이 많아서)
_____⑤ 학교를 다녀도 희망이 없어서

6. 다음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6-1. 교과목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	①	②	③	④	⑤
6-2. 나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3. 교과 공부이외에 다양한 체험학습과 문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6-4.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5.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배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6.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내용이 장래의 진로(직업)설계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7.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내용이 나의 소질과 특기 계발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8.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내용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9.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학교 밖에서 더 잘 배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음은 수업과 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7-1.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7-2. 수업 시간에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7-3. 수업 시간에 강의 이외에 다양한 방법(토론, 발표 등)으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7-4. 수업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자기 능력에 맞추어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7-5. 학교에서 수업 내용에 따라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6. 학교에서 시험을 너무 자주 본다.	①	②	③	④	⑤
7-7. 학교에서 시험 준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다음은 학교규칙(교칙)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8-1. 우리 학교는 학교규칙을 결정할 때 학생들이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8-2. 학교는 규칙 준수를 강하게 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8-3. 우리 학교는 학교규칙을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적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8-4. 우리 학교의 규칙은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8-5. 학교규칙은 나를 화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8-6. 나는 학교규칙 때문에 학교에 오기가 싫다.	①	②	③	④	⑤

9. 학교규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매우 약하다	약한 편이다	적당 하다	심한 편이다	매우 심하다
9-1. 복장, 두발 규제	①	②	③	④	⑤
9-2. 음주, 흡연 규제	①	②	③	④	⑤
9-3. 소지품(휴대폰, 잡지, 사복, 게임기, 화장품, 액세서리 등) 규제	①	②	③	④	⑤
9-4. 지각, 조퇴, 결석 등에 대한 규제	①	②	③	④	⑤
9-5. 일과 중 학교 밖 출입에 대한 규제	①	②	③	④	⑤
9-6. 규칙 위반 학생에 대한 징계(교내 및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등) 정도	①	②	③	④	⑤

10. 다음은 학교 분위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1. 학교에서는 학업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판단하고 대우한다.	①	②	③	④	⑤
10-2.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과목(국영수 등)을 공부하기 위해 다른 과목 수업을 안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3.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4.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5.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음은 학교 선생님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1. 선생님들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부에 신경을 써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1-2. 선생님들은 모든 학생을 공평하게 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1-3.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믿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1-4.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고민, 문제 해결에 신경을 써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1-5. 선생님들은 학습 부진 학생을 별도로 지도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1-6.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친밀하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11-7. 선생님들은 나에게 무관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11-8. 선생님들은 나에게 아무 기대를 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⑤
11-9. 선생님들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	①	②	③	④	⑤
11-10. 선생님들은 나를 무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은 학교 친구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1. 학생들은 서로 친하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12-2. 학급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2-3. 나는 학교에 친한 친구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2-4. 나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2-5. 나는 학급 친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6. 학급 친구들은 나를 무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다음은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1. 부모님은 나의 취미나 특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13-2. 부모님은 내 친구 관계를 잘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13-3. 부모님께 내 고민거리를 거리낌 없이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3-4. 부모님과 나의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5. 부모님과 나의 장래 희망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6. 부모님은 내 이야기를 늘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3-7. 부모님은 나를 구박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3-8. 나는 부모님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9. 나는 부모님에게 심하게 맞아 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음은 부모님의 교육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1. 부모님은 내가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4-2. 부모님은 내가 바른 학습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4-3. 부모님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이나 정보를 알려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4-4. 부모님은 내가 학교의 과제나 준비물을 잘 챙기도록 신경 써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4-5.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 결석, 지각을 하지 않도록 챙겨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4-6. 부모님은 나의 건강 유지를 위해 식사와 운동에 신경 써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4-7.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자연이나 문화 체험 활동(여행, 공연관람, 박물관 등)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15.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15-1번으로) ② 없다(→ 16번으로)

15-1.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면, 얼마 동안 했습니까?

_____년 _____개월 (1년 미만일 경우 개월에만 표시)

16. 정보통신기기(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1.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6-2. 정보통신기기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가까운 사람들이 불평한다.	①	②	③	④	⑤
16-3. 정보통신기기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교 공부와 다른 일에 지장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6-4. 밤늦게까지 정보통신기기를 하느라 잠을 못 잔다.	①	②	③	④	⑤
16-5. 정보통신기기를 하지 않을 때는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①	②	③	④	⑤

17.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다음 장소에 얼마나 자주 갑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가본적 없다	거의 가지 않는다	가끔 간다	자주 가는 편이다	매우 자주 간다
17-1. 만화방	①	②	③	④	⑤
17-2. PC방	①	②	③	④	⑤
17-3. 노래방	①	②	③	④	⑤
17-4. 비디오방/DVD방	①	②	③	④	⑤
17-5. 술집(호프집, 소주방, 가요주점 등)	①	②	③	④	⑤
17-6. 클럽(나이트클럽 포함)	①	②	③	④	⑤

18. 다음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생각, 장래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1.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8-2. 나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3. 앞으로 지금보다 공부를 더 잘 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4. 나는 친구들보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8-5. 나는 내 목표나 희망을 이룰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6. 나의 성적으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8-7. 나의 성적으로는 돈을 잘 벌기 어려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8-8. 나의 성적으로는 좋은 직업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8-9. 나의 성적으로는 사회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살기 어려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8-10. 나의 성적으로는 좋은 배우자(결혼상대)를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다음은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1. 나는 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모든 것이 귀찮다.	①	②	③	④	⑤
19-2. 나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3. 나는 수업시간에 멍하게 앉아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4. 나는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5. 나는 수업시간에 떠든다.	①	②	③	④	⑤
19-6. 나는 수업시간을 견디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9-7. 나는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	①	②	③	④	⑤
19-8. 나는 숙제를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9-9. 나는 선생님에게 대든다.	①	②	③	④	⑤
19-10. 나는 선생님의 지시를 무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9-11. 나는 선생님과 마주치기 싫어서 피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19-12. 나는 다른 학생을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19-13. 나는 다른 학생을 괴롭힌다(인터넷을 통한 괴롭힘 포함).	①	②	③	④	⑤
19-14. 나는 다른 학생에게 심부름(셔틀)을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19-15. 나는 다른 학생의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다.	①	②	③	④	⑤
19-16. 나는 학교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다.	①	②	③	④	⑤
19-17. 나는 학교생활과 무관한 물품(사복, 음란 서적, 게임기)을 갖고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19-18. 나는 복장, 두발 규정을 위반한다.	①	②	③	④	⑤
19-19. 나는 학교에서 담배를 피운다.	①	②	③	④	⑤
19-20. 나는 학교에서 술을 마신다.	①	②	③	④	⑤
19-21. 나는 성(性)적인 비행(성희롱, 이성교제로 인한 일탈행위 등)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22. 나는 무단 결석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23. 나는 무단 조퇴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24. 나는 자주 지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25. 나는 수업 시간을 몰래 빼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19-26. 나는 학교 일과 시간에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19-27. 나는 공식적인 징계(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성심껏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의견 조사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의 학교부적응 진단과 대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는 학생의 생활 실태와 지도 방안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시겠지만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적으로 분석·처리되므로 개인 정보는 절대 노출되지 않으며,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니 성심껏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한국교육개발원장

※ 이 조사지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320호
(우: 137-791)

□ 문의 : (Tel) 02-3460-0644 (Fax) 02-3460-0117 (e-mail) hsson@kedi.re.kr

□ 담당 : 학교정책연구본부 학생·학부모연구실 (담당자 : 손흥숙)

※ 다음은 통계 처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1. 근무 학교의 성별 유형

_____① 남학교 _____② 여학교 _____③ 남녀공학

2. 근무 학교급

_____① 초등학교 _____② 중학교 _____③ 일반고 _____④ 특성화고

3. 근무 학교의 설립 유형

_____① 국·공립 _____② 사립

4. 근무 학교의 소재 지역

_____① 특별시 ____② 광역시 _____③ 중소 도시 _____④ 읍·면

5. 선생님의 성별

_____① 남자 _____② 여자

6. 교직 경력

_____① 1년 미만 _____② 1년 이상~3년 미만
_____③ 3년 이상~5년 미만 _____④ 5년 이상~10년 미만
_____⑤ 10년 이상~15년 미만 _____⑥ 15년 이상~20년 미만
_____⑦ 20년 이상~25년 미만 _____⑧ 25년 이상

7. 담임 여부

_____① 맡고 있음 _____② 맡고 있지 않음

1. 귀교 학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두 가지를 아래의 보기에서 골라 순위대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보기〉

① 가정: 가정 불화, 갈등, 경제적 어려움
② 학습·성적: 학업 성적이나 공부(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③ 건강: 병, 외모, 신체 발달
④ 정서: 우울, 불안, 무기력, 의욕 부진
⑤ 성: 이성 교제, 성 충동, 성 경험
⑥ 친구 관계: 친구 사귀기 어려움, 친구와의 갈등
⑦ 교사와의 갈등
⑧ 학교 규칙 위반(두발, 복장, 음주, 흡연 등)
⑨ 학교 폭력: 심부름 강요, 물건·돈 빼앗기, 집단 따돌림·괴롭힘, 폭력(신체, 성 관련) 등
⑩ 진로문제

2.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학교 부적응'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는 정도에 ✔표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전반적인 무기력, 의욕 부진	①	②	③	④	⑤
2-2. 수업 시간에 멍하게 앉아 있음	①	②	③	④	⑤
2-3. 교재, 준비물을 잘 챙기지 못함	①	②	③	④	⑤
2-4. 수업시간에 딴 짓(음악 듣기, 휴대폰 이용 등)을 함	①	②	③	④	⑤
2-5. 수업 시간에 떠듦	①	②	③	④	⑤
2-6.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함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2-7. 수업 시간에 잠자기	①	②	③	④	⑤
2-8. 수업 시간의 고의적인 방해 행위	①	②	③	④	⑤
2-9. 교사의 지시에 불응	①	②	③	④	⑤
2-10. 교사에게 반항	①	②	③	④	⑤
2-11. 교사에게 무례하게 행동	①	②	③	④	⑤
2-12. 외톨이	①	②	③	④	⑤
2-13. 다른 학생에게 따돌림, 괴롭힘 당함	①	②	③	④	⑤
2-14. 다른 학생 괴롭힘, 폭행(인터넷을 통한 괴롭힘 포함)	①	②	③	④	⑤
2-15. 다른 학생의 물건, 돈 뺏기	①	②	③	④	⑤
2-16. 학교 기물 파손	①	②	③	④	⑤
2-17. 복장, 두발 규정 위반	①	②	③	④	⑤
2-18. 흡연	①	②	③	④	⑤
2-19. 음주	①	②	③	④	⑤
2-20. 시험 부정 행위	①	②	③	④	⑤
2-21. 성(性)적인 비행(성희롱, 이성 교제로 인한 일탈행위 등)	①	②	③	④	⑤
2-22. 무단 결석	①	②	③	④	⑤
2-23. 무단 조퇴	①	②	③	④	⑤
2-24. 상습 지각	①	②	③	④	⑤
2-25. 몰래 수업을 빼먹는 행동	①	②	③	④	⑤
2-26. 학교 일과 시간에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가는 행동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전혀 미치지 않음	별로 미치지 않음	보통	다소 미침	매우 많이 미침
3-1. 학생 개인의 비정상적인 정서, 심리 특성	①	②	③	④	⑤
3-2. 부모의 무관심	①	②	③	④	⑤
3-3. 부모의 교육 지원 미흡	①	②	③	④	⑤
3-4. 학생들의 요구에 맞지 않는 학교 규칙	①	②	③	④	⑤
3-5. 공부만을 강조하는 학교 풍토	①	②	③	④	⑤
3-6. 학교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 판단하는 학교 풍토	①	②	③	④	⑤
3-7. 학생 개개인의 특기, 적성, 진로, 흥미에 부합하지 못하는 학교 교육과정	①	②	③	④	⑤
3-8.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수업 방식	①	②	③	④	⑤
3-9. 교사의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 배려 미흡	①	②	③	④	⑤
3-10. 교사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①	②	③	④	⑤
3-11. 다른 학생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①	②	③	④	⑤
3-12. 컴퓨터, 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정보 매체에의 몰입	①	②	③	④	⑤
3-13. 상업적 대중문화, 유해 사회 환경 접촉	①	②	③	④	⑤
3-14. 학력·학벌주의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교의 학생 지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4. 귀교의 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매우 약하다	약한 편이다	적당 하다	심한 편이다	매우 심하다
4-1. 복장, 두발 규제	①	②	③	④	⑤
4-2. 음주, 흡연 규제	①	②	③	④	⑤
4-3. 소지품(휴대폰, 잡지, 사복, 게임기, 화장품, 액세서리 등) 규제	①	②	③	④	⑤
4-4. 지각, 조퇴, 결석 등에 대한 규제	①	②	③	④	⑤
4-5. 일과 중 학교 밖 출입에 대한 규제	①	②	③	④	⑤
4-6. 규칙 위반 학생에 대한 징계(교내 및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등) 정도	①	②	③	④	⑤

5. 귀교에 학생의 학교 부적응 여부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나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_____① 교과부에서 만든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_____② 학교 차원에서 지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_____③ 각 교사가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_____④ 학교교칙 위반 정도로 판단한다.

_____⑤ 기타

6. 선생님께서는 학생의 학교 부적응 여부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① 필요하다(→ 7번 문항으로)　　____② 필요없다(→ 8번 문항으로)

7. 학생의 학교 부적응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면 누가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교육과학기술부
_____② 시도교육청
_____③ 교육지원청(초·중학교의 경우)
_____④ 단위학교

8. 귀교에는 학교 부적응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_____① 있다(→ 8-1번 문항으로)　　_____② 없다(→ 9번 문항으로)

8-1.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__① 방과후 학습지도
_____② 특기 적성 교육(컴퓨터, 그림, 음악 등)
_____③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영화 감상, 음악회 등)
_____④ 개별 및 집단 상담
_____⑤ 음주, 흡연, 약물 예방, 치유 프로그램
_____⑥ 심성 계발 프로그램(자신감, 사회성 향상 등)
_____⑦ 심리 진단 및 치료
_____⑧ 멘토링(일대일 후원)
_____⑨ 교내외 봉사활동 참여
_____⑩ 직업훈련
_____⑪ 기타_____

9. 귀교에는 학교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이외의 인력이 있습니까?

_____① 있다(→ 9-1번 문항으로)　　_____② 없다(→ 10번 문항으로)

9-1. 학교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이외의 인력은 누구입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__① 전문상담교사
_____② 사회복지사
_____③ 청소년지도사
_____④ 지역사회교육전문가
_____⑤ 자원봉사자
_____⑥ 기타_____

10. 선생님은 학교 부적응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전혀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편이다	가끔 한다	자주 하는 편이다	매우 자주 한다
10-1. 직접 훈계	①	②	③	④	⑤
10-2. 직접 상담	①	②	③	④	⑤
10-3. 교내 다른 전문인력(상담사, 복지사 등)에게 도움 요청	①	②	③	④	⑤
10-4. 학부모에게 도움 요청	①	②	③	④	⑤
10-5. 학교 밖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	①	②	③	④	⑤

11. 학생의 학교 부적응 감소 또는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1-1. 교사의 관심과 열의	①	②	③	④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1-2. 학교에 전문인력(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등) 증가 배치	①	②	③	④	⑤
11-3.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	①	②	③	④	⑤
11-4.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진로(직업) 탐색과 준비	①	②	③	④	⑤
11-5. 학생들의 문화, 요구를 반영한 학교 규칙 제정	①	②	③	④	⑤
11-6.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교사 연수와 행정 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11-7. 학교의 소규모화	①	②	③	④	⑤
11-8. 학급 규모 축소	①	②	③	④	⑤
11-9.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유관 기관(문화센터·복지관·상담센터 등)의 적극적 활용	①	②	③	④	⑤
11-10. 입시 준비, 성적 경쟁 위주의 교육 풍토 지양	①	②	③	④	⑤
11-11. 다양한 대안학교 설립 운영	①	②	③	④	⑤

성심껏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록 2. 통계 분석표

〈부록 표 Ⅲ-2-1〉 배경변수별 수업 참여 정도(초등학생)

구 분			수업참여				전체	χ^2
			열심히 참여하는 편임	듣는 편임	잘 듣지 않음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 받는 편임		
지역 규모	특별시	사례수	935	783	92	47	1857	44.680***
		비율	50.4%	42.2%	5.0%	2.5%	100.0%	
	광역시	사례수	1114	1341	114	71	2640	
		비율	42.2%	50.8%	4.3%	2.7%	100.0%	
	중소 도시	사례수	1953	2304	223	127	4607	
		비율	42.4%	50.0%	4.8%	2.8%	100.0%	
	읍면	사례수	240	271	30	18	559	
		비율	42.9%	48.5%	5.4%	3.2%	100.0%	
전체		사례수	4242	4699	459	263	9663	
		비율	43.9%	48.6%	4.8%	2.7%	100.0%	
성별	남자	사례수	2164	2350	218	201	4933	72.061***
		비율	43.9%	47.6%	4.4%	4.1%	100.0%	
	여자	사례수	2059	2320	240	61	4680	
		비율	44.0%	49.6%	5.1%	1.3%	100.0%	
전체		사례수	4223	4670	458	262	9613	
		비율	43.9%	48.6%	4.8%	2.7%	100.0%	
성적 수준	하	사례수	260	812	143	87	1302	891.774***
		비율	20.0%	62.4%	11.0%	6.7%	100.0%	
	중	사례수	1568	2350	188	113	4219	
		비율	37.2%	55.7%	4.5%	2.7%	100.0%	
	상	사례수	2303	1377	115	54	3849	
		비율	59.8%	35.8%	3.0%	1.4%	100.0%	
전체		사례수	4131	4539	446	254	9370	
		비율	44.1%	48.4%	4.8%	2.7%	100.0%	
부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958	1262	135	76	2431	66.633***
		비율	39.4%	51.9%	5.6%	3.1%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2378	2152	194	106	4830	
		비율	49.2%	44.6%	4.0%	2.2%	100.0%	
전체		사례수	3336	3414	329	182	7261	
		비율	45.9%	47.0%	4.5%	2.5%	100.0%	
모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1188	1532	152	81	2953	58.492***
		비율	40.2%	51.9%	5.1%	2.7%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2170	1950	184	100	4404	
		비율	49.3%	44.3%	4.2%	2.3%	100.0%	
전체		사례수	3358	3482	336	181	7357	
		비율	45.6%	47.3%	4.6%	2.5%	100.0%	

구 분			수업참여				전체	x^2
			열심히 참여하는 편임	듣는 편임	잘 듣지 않음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 받는 편임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사례수	569	857	97	46	1569	89.682***
		비율	36.3%	54.6%	6.2%	2.9%	100.0%	
	201~400 만원이하	사례수	1312	1446	140	66	2964	
		비율	44.3%	48.8%	4.7%	2.2%	100.0%	
	401~600 만원이하	사례수	941	914	84	53	1992	
		비율	47.2%	45.9%	4.2%	2.7%	100.0%	
	601만원 이상	사례수	648	496	49	37	1230	
		비율	52.7%	40.3%	4.0%	3.0%	100.0%	
전체		사례수	3470	3713	370	202	7755	
		비율	44.7%	47.9%	4.8%	2.6%	100.0%	
부직업	있음	사례수	4046	4380	420	235	9081	27.319***
		비율	44.6%	48.2%	4.6%	2.6%	100.0%	
	없음	사례수	81	139	22	14	256	
		비율	31.6%	54.3%	8.6%	5.5%	100.0%	
전체		사례수	4127	4519	442	249	9337	
		비율	44.2%	48.4%	4.7%	2.7%	100.0%	
모직업	있음	사례수	2716	3178	322	186	6402	25.904***
		비율	42.4%	49.6%	5.0%	2.9%	100.0%	
	없음	사례수	1379	1342	116	61	2898	
		비율	47.6%	46.3%	4.0%	2.1%	100.0%	
전체		사례수	4095	4520	438	247	9300	
		비율	44.0%	48.6%	4.7%	2.7%	10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사례수	3830	4046	380	206	8462	74.722***
		비율	45.3%	47.8%	4.5%	2.4%	100.0%	
	어머니와 동거	사례수	222	387	40	33	682	
		비율	32.6%	56.7%	5.9%	4.8%	100.0%	
	아버지와 동거	사례수	103	139	22	15	279	
		비율	36.9%	49.8%	7.9%	5.4%	100.0%	
	동거부모 없음	사례수	87	127	17	9	240	
		비율	36.3%	52.9%	7.1%	3.8%	100.0%	
전체		사례수	4242	4699	459	263	9663	
		비율	43.9%	48.6%	4.8%	2.7%	100.0%	

*p< .05 **p< .01, ***p< .001(이후 동일)

〈부록 표 Ⅲ-2-2〉 배경변수별 수업 참여 정도(중학생)

구 분			수업참여				전체	x^2
			열심히 참여하는 편임	듣는 편임	잘 듣지 않음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 받는 편임		
지역 규모	특별시	사례수	1108	1726	384	118	3336	52.028***
		비율	33.2%	51.7%	11.5%	3.5%	100.0%	
	광역시	사례수	1691	2622	512	115	4940	
		비율	34.2%	53.1%	10.4%	2.3%	100.0%	
	중소 도시	사례수	2699	4480	1047	290	8516	
		비율	31.7%	52.6%	12.3%	3.4%	100.0%	
	읍면	사례수	529	1019	219	84	1851	
		비율	28.6%	55.1%	11.8%	4.5%	100.0%	
전체		사례수	6027	9847	2162	607	18643	
		비율	32.3%	52.8%	11.6%	3.3%	100.0%	
학년	1학년	사례수	2285	3297	616	185	6383	76.342***
		비율	35.8%	51.7%	9.7%	2.9%	100.0%	
	2학년	사례수	1887	3282	761	225	6155	
		비율	30.7%	53.3%	12.4%	3.7%	100.0%	
	3학년	사례수	1852	3258	783	196	6089	
		비율	30.4%	53.5%	12.9%	3.2%	100.0%	
전체		사례수	6024	9837	2160	606	18627	
		비율	32.3%	52.8%	11.6%	3.3%	100.0%	
성별	남자	사례수	3129	4798	1056	373	9356	46.586***
		비율	33.4%	51.3%	11.3%	4.0%	100.0%	
	여자	사례수	2871	4994	1094	233	9192	
		비율	31.2%	54.3%	11.9%	2.5%	100.0%	
전체		사례수	6000	9792	2150	606	18548	
		비율	32.3%	52.8%	11.6%	3.3%	100.0%	
성적 수준	하	사례수	1031	4062	1435	428	6956	2975.620***
		비율	14.8%	58.4%	20.6%	6.2%	100.0%	
	중	사례수	1447	2986	434	95	4962	
		비율	29.2%	60.2%	8.7%	1.9%	100.0%	
	상	사례수	3460	2610	274	75	6419	
		비율	53.9%	40.7%	4.3%	1.2%	100.0%	
전체		사례수	5938	9658	2143	598	18337	
		비율	32.4%	52.7%	11.7%	3.3%	100.0%	
부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1827	3656	876	246	6605	220.740***
		비율	27.7%	55.4%	13.3%	3.7%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3487	4499	859	236	9081	
		비율	38.4%	49.5%	9.5%	2.6%	100.0%	
전체		사례수	5314	8155	1735	482	15686	
		비율	33.9%	52.0%	11.1%	3.1%	100.0%	

구 분			수업참여				전체	x^2
			열심히 참여하는 편임	듣는 편임	잘 듣지 않음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 받는 편임		
모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2284	4336	1011	273	7904	194.285***
		비율	28.9%	54.9%	12.8%	3.5%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3036	3826	723	207	7792	
		비율	39.0%	49.1%	9.3%	2.7%	100.0%	
전체		사례수	5320	8162	1734	480	15696	
		비율	33.9%	52.0%	11.0%	3.1%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사례수	799	1758	437	104	3098	203.672***
		비율	25.8%	56.7%	14.1%	3.4%	100.0%	
	201~400 만원이하	사례수	2051	3464	718	201	6434	
		비율	31.9%	53.8%	11.2%	3.1%	100.0%	
	401~600 만원이하	사례수	1344	1905	374	119	3742	
		비율	35.9%	50.9%	10.0%	3.2%	100.0%	
	601만원 이상	사례수	1021	1063	236	80	2400	
		비율	42.5%	44.3%	9.8%	3.3%	100.0%	
전체		사례수	5215	8190	1765	504	15674	
		비율	33.3%	52.3%	11.3%	3.2%	100.0%	
부직업	있음	사례수	5747	9261	1984	566	17558	10.690*
		비율	32.7%	52.7%	11.3%	3.2%	100.0%	
	없음	사례수	175	301	91	21	588	
		비율	29.8%	51.2%	15.5%	3.6%	100.0%	
전체		사례수	5922	9562	2075	587	18146	
		비율	32.6%	52.7%	11.4%	3.2%	100.0%	
모직업	있음	사례수	3904	6575	1487	420	12386	28.598***
		비율	31.5%	53.1%	12.0%	3.4%	100.0%	
	없음	사례수	1973	2946	576	163	5658	
		비율	34.9%	52.1%	10.2%	2.9%	100.0%	
전체		사례수	5877	9521	2063	583	18044	
		비율	32.6%	52.8%	11.4%	3.2%	10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사례수	5413	8435	1711	485	16044	191.359***
		비율	33.7%	52.6%	10.7%	3.0%	100.0%	
	어머니와 동거	사례수	339	757	246	51	1393	
		비율	24.3%	54.3%	17.7%	3.7%	100.0%	
	아버지와 동거	사례수	158	393	124	37	712	
		비율	22.2%	55.2%	17.4%	5.2%	100.0%	
	동거부모 없음	사례수	117	262	81	34	494	
		비율	23.7%	53.0%	16.4%	6.9%	100.0%	
전체		사례수	6027	9847	2162	607	18643	
		비율	32.3%	52.8%	11.6%	3.3%	100.0%	

〈부록 표 Ⅲ-2-3〉 배경변수별 수업 참여 정도(일반고학생)

구 분			수업참여				전체	x^2
			열심히 참여하는 편임	듣는 편임	잘 듣지 않음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 받는 편임		
지역 규모	특별시	사례수	1062	1633	532	53	3280	28.024**
		비율	32.4%	49.8%	16.2%	1.6%	100.0%	
	광역시	사례수	1814	2685	707	49	5255	
		비율	34.5%	51.1%	13.5%	.9%	100.0%	
	중소 도시	사례수	2892	4523	1294	135	8844	
		비율	32.7%	51.1%	14.6%	1.5%	100.0%	
	읍면	사례수	573	841	226	25	1665	
		비율	34.4%	50.5%	13.6%	1.5%	100.0%	
전체		사례수	6341	9682	2759	262	19044	
		비율	33.3%	50.8%	14.5%	1.4%	100.0%	
학년	1학년	사례수	2187	3300	830	124	6441	105.996***
		비율	34.0%	51.2%	12.9%	1.9%	100.0%	
	2학년	사례수	2205	3223	823	83	6334	
		비율	34.8%	50.9%	13.0%	1.3%	100.0%	
	3학년	사례수	1942	3146	1104	54	6246	
		비율	31.1%	50.4%	17.7%	.9%	100.0%	
전체		사례수	6334	9669	2757	261	19021	
		비율	33.3%	50.8%	14.5%	1.4%	100.0%	
성별	남자	사례수	3151	5301	1702	183	10337	140.892***
		비율	30.5%	51.3%	16.5%	1.8%	100.0%	
	여자	사례수	3165	4355	1046	79	8645	
		비율	36.6%	50.4%	12.1%	.9%	100.0%	
전체		사례수	6316	9656	2748	262	18982	
		비율	33.3%	50.9%	14.5%	1.4%	100.0%	
성적 수준	하	사례수	1109	4038	1889	191	7227	3120.441***
		비율	15.3%	55.9%	26.1%	2.6%	100.0%	
	중	사례수	2048	3474	583	38	6143	
		비율	33.3%	56.6%	9.5%	.6%	100.0%	
	상	사례수	3104	2064	271	32	5471	
		비율	56.7%	37.7%	5.0%	.6%	100.0%	
전체		사례수	6261	9576	2743	261	18841	
		비율	33.2%	50.8%	14.6%	1.4%	100.0%	
부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2418	4202	1270	113	8003	92.141***
		비율	30.2%	52.5%	15.9%	1.4%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3655	4913	1287	123	9978	
		비율	36.6%	49.2%	12.9%	1.2%	100.0%	
전체		사례수	6073	9115	2557	236	17981	
		비율	33.8%	50.7%	14.2%	1.3%	100.0%	

구 분			수업참여				전체	x^2
			열심히 참여하는 편임	듣는 편임	잘 듣지 않음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 받는 편임		
모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3259	5509	1615	141	10524	99.291***
		비율	31.0%	52.3%	15.3%	1.3%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2808	3604	922	98	7432	
		비율	37.8%	48.5%	12.4%	1.3%	100.0%	
전체		사례수	6067	9113	2537	239	17956	
		비율	33.8%	50.8%	14.1%	1.3%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사례수	832	1429	470	47	2778	90.028***
		비율	29.9%	51.4%	16.9%	1.7%	100.0%	
	201~400 만원이하	사례수	2469	3930	1010	85	7494	
		비율	32.9%	52.4%	13.5%	1.1%	100.0%	
	401~600 만원이하	사례수	1499	2183	609	55	4346	
		비율	34.5%	50.2%	14.0%	1.3%	100.0%	
	601만원 이상	사례수	994	1117	354	46	2511	
		비율	39.6%	44.5%	14.1%	1.8%	100.0%	
전체		사례수	5794	8659	2443	233	17129	
		비율	33.8%	50.6%	14.3%	1.4%	100.0%	
부직업	있음	사례수	5997	9122	2550	240	17909	17.190**
		비율	33.5%	50.9%	14.2%	1.3%	100.0%	
	없음	사례수	215	358	138	15	726	
		비율	29.6%	49.3%	19.0%	2.1%	100.0%	
전체		사례수	6212	9480	2688	255	18635	
		비율	33.3%	50.9%	14.4%	1.4%	100.0%	
모직업	있음	사례수	4188	6472	1890	189	12739	9.720*
		비율	32.9%	50.8%	14.8%	1.5%	100.0%	
	없음	사례수	2025	2989	802	69	5885	
		비율	34.4%	50.8%	13.6%	1.2%	100.0%	
전체		사례수	6213	9461	2692	258	18624	
		비율	33.4%	50.8%	14.5%	1.4%	10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사례수	5534	8374	2258	199	16365	82.419***
		비율	33.8%	51.2%	13.8%	1.2%	100.0%	
	어머니와 동거	사례수	508	745	286	32	1571	
		비율	32.3%	47.4%	18.2%	2.0%	100.0%	
	아버지와 동거	사례수	171	319	119	17	626	
		비율	27.3%	51.0%	19.0%	2.7%	100.0%	
	동거부모 없음	사례수	128	244	96	14	482	
		비율	26.6%	50.6%	19.9%	2.9%	100.0%	
전체		사례수	6341	9682	2759	262	19044	
		비율	33.3%	50.8%	14.5%	1.4%	100.0%	

〈부록 표 Ⅲ-2-4〉 배경변수별 수업 참여 정도(특성화고학생)

구 분			수업참여				전체	χ^2
			열심히 참여하는 편임	듣는 편임	잘 듣지 않음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 받는 편임		
지역 규모	특별시	사례수	445	825	253	30	1553	21.988**
		비율	28.7%	53.1%	16.3%	1.9%	100.0%	
	광역시	사례수	924	1702	539	85	3250	
		비율	28.4%	52.4%	16.6%	2.6%	100.0%	
	중소 도시	사례수	1307	2679	895	137	5018	
		비율	26.0%	53.4%	17.8%	2.7%	100.0%	
	읍면	사례수	573	1200	427	78	2278	
		비율	25.2%	52.7%	18.7%	3.4%	100.0%	
전체		사례수	3249	6406	2114	330	12099	
		비율	26.9%	52.9%	17.5%	2.7%	100.0%	
학년	1학년	사례수	1134	2251	724	125	4234	25.625***
		비율	26.8%	53.2%	17.1%	3.0%	100.0%	
	2학년	사례수	980	2063	725	126	3894	
		비율	25.2%	53.0%	18.6%	3.2%	100.0%	
	3학년	사례수	1133	2083	662	79	3957	
		비율	28.6%	52.6%	16.7%	2.0%	100.0%	
전체		사례수	3247	6397	2111	330	12085	
		비율	26.9%	52.9%	17.5%	2.7%	100.0%	
성별	남자	사례수	1592	3202	1154	204	6152	34.615***
		비율	25.9%	52.0%	18.8%	3.3%	100.0%	
	여자	사례수	1641	3188	952	124	5905	
		비율	27.8%	54.0%	16.1%	2.1%	100.0%	
전체		사례수	3233	6390	2106	328	12057	
		비율	26.8%	53.0%	17.5%	2.7%	100.0%	
성적 수준	하	사례수	548	2411	1357	220	4536	1732.413***
		비율	12.1%	53.2%	29.9%	4.9%	100.0%	
	중	사례수	852	2036	463	56	3407	
		비율	25.0%	59.8%	13.6%	1.6%	100.0%	
	상	사례수	1828	1917	284	50	4079	
		비율	44.8%	47.0%	7.0%	1.2%	100.0%	
전체		사례수	3228	6364	2104	326	12022	
		비율	26.9%	52.9%	17.5%	2.7%	100.0%	
부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1964	4126	1337	204	7631	34.556***
		비율	25.7%	54.1%	17.5%	2.7%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945	1495	497	85	3022	
		비율	31.3%	49.5%	16.4%	2.8%	100.0%	
전체		사례수	2909	5621	1834	289	10653	
		비율	27.3%	52.8%	17.2%	2.7%	100.0%	

구 분			수업참여				전체	χ^2
			열심히 참여하는 편임	듣는 편임	잘 듣지 않음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 받는 편임		
모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2222	4475	1476	220	8393	23.927***
		비율	26.5%	53.3%	17.6%	2.6%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705	1124	347	60	2236	
		비율	31.5%	50.3%	15.5%	2.7%	100.0%	
전체		사례수	2927	5599	1823	280	10629	
		비율	27.5%	52.7%	17.2%	2.6%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사례수	1072	2038	670	94	3874	25.784**
		비율	27.7%	52.6%	17.3%	2.4%	100.0%	
	201~400 만원이하	사례수	1211	2536	826	127	4700	
		비율	25.8%	54.0%	17.6%	2.7%	100.0%	
	401~600 만원이하	사례수	448	823	251	44	1566	
		비율	28.6%	52.6%	16.0%	2.8%	100.0%	
	601만원 이상	사례수	191	280	115	27	613	
		비율	31.2%	45.7%	18.8%	4.4%	100.0%	
전체		사례수	2922	5677	1862	292	10753	
		비율	27.2%	52.8%	17.3%	2.7%	100.0%	
부직업	있음	사례수	2808	5653	1820	292	10573	12.969**
		비율	26.6%	53.5%	17.2%	2.8%	100.0%	
	없음	사례수	281	426	162	26	895	
		비율	31.4%	47.6%	18.1%	2.9%	100.0%	
전체		사례수	3089	6079	1982	318	11468	
		비율	26.9%	53.0%	17.3%	2.8%	100.0%	
모직업	있음	사례수	2225	4385	1407	226	8243	1.208
		비율	27.0%	53.2%	17.1%	2.7%	100.0%	
	없음	사례수	895	1700	570	83	3248	
		비율	27.6%	52.3%	17.5%	2.6%	100.0%	
전체		사례수	3120	6085	1977	309	11491	
		비율	27.2%	53.0%	17.2%	2.7%	10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사례수	2357	4705	1425	239	8726	43.954***
		비율	27.0%	53.9%	16.3%	2.7%	100.0%	
	어머니와 동거	사례수	490	868	339	39	1736	
		비율	28.2%	50.0%	19.5%	2.2%	100.0%	
	아버지와 동거	사례수	243	465	218	28	954	
		비율	25.5%	48.7%	22.9%	2.9%	100.0%	
	동거부모 없음	사례수	159	368	132	24	683	
		비율	23.3%	53.9%	19.3%	3.5%	100.0%	
전체		사례수	3249	6406	2114	330	12099	
		비율	26.9%	52.9%	17.5%	2.7%	100.0%	

〈부록 표 Ⅲ-2-5〉 배경변수별 학교생활 선호 정도(초등학생)

구 분			학교생활 선호 정도				전체	χ^2
			꼭 다니고 싶다	다닐 만하다	어쩔 수 없이 다닌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지역 규모	특별시	사례수	696	1021	120	17	1854	74.151***
		비율	37.5%	55.1%	6.5%	.9%	100.0%	
	광역시	사례수	737	1698	182	36	2653	
		비율	27.8%	64.0%	6.9%	1.4%	100.0%	
	중소 도시	사례수	1297	2902	369	60	4628	
		비율	28.0%	62.7%	8.0%	1.3%	100.0%	
	읍면	사례수	153	346	53	9	561	
		비율	27.3%	61.7%	9.4%	1.6%	100.0%	
전체		사례수	2883	5967	724	122	9696	
		비율	29.7%	61.5%	7.5%	1.3%	100.0%	
성별	남자	사례수	1432	3040	399	85	4956	23.171***
		비율	28.9%	61.3%	8.1%	1.7%	100.0%	
	여자	사례수	1436	2895	323	37	4691	
		비율	30.6%	61.7%	6.9%	.8%	100.0%	
전체		사례수	2868	5935	722	122	9647	
		비율	29.7%	61.5%	7.5%	1.3%	100.0%	
성적 수준	하	사례수	257	817	196	39	1309	334.892***
		비율	19.6%	62.4%	15.0%	3.0%	100.0%	
	중	사례수	1090	2789	309	51	4239	
		비율	25.7%	65.8%	7.3%	1.2%	100.0%	
	상	사례수	1441	2184	198	31	3854	
		비율	37.4%	56.7%	5.1%	.8%	100.0%	
전체		사례수	2788	5790	703	121	9402	
		비율	29.7%	61.6%	7.5%	1.3%	100.0%	
부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630	1565	212	34	2441	51.844***
		비율	25.8%	64.1%	8.7%	1.4%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1617	2876	301	51	4845	
		비율	33.4%	59.4%	6.2%	1.1%	100.0%	
전체		사례수	2247	4441	513	85	7286	
		비율	30.8%	61.0%	7.0%	1.2%	100.0%	
모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805	1870	247	41	2963	37.286***
		비율	27.2%	63.1%	8.3%	1.4%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1460	2633	273	45	4411	
		비율	33.1%	59.7%	6.2%	1.0%	100.0%	
전체		사례수	2265	4503	520	86	7374	
		비율	30.7%	61.1%	7.1%	1.2%	100.0%	

구 분			학교생활 선호 정도				전체	x^2
			꼭 다니고 싶다	다닐 만하다	어쩔 수 없이 다닌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사례수	395	1005	148	23	1571	68.576***
		비율	25.1%	64.0%	9.4%	1.5%	100.0%	
	201~400 만원이하	사례수	839	1898	204	34	2975	
		비율	28.2%	63.8%	6.9%	1.1%	100.0%	
	401~600 만원이하	사례수	617	1210	146	25	1998	
		비율	30.9%	60.6%	7.3%	1.3%	100.0%	
	601만원 이상	사례수	464	665	81	19	1229	
		비율	37.8%	54.1%	6.6%	1.5%	100.0%	
전체		사례수	2315	4778	579	101	7773	
		비율	29.8%	61.5%	7.4%	1.3%	100.0%	
부직업	있음	사례수	2731	5612	667	108	9118	9.126*
		비율	30.0%	61.5%	7.3%	1.2%	100.0%	
	없음	사례수	67	151	26	7	251	
		비율	26.7%	60.2%	10.4%	2.8%	100.0%	
전체		사례수	2798	5763	693	115	9369	
		비율	29.9%	61.5%	7.4%	1.2%	100.0%	
모직업	있음	사례수	1842	4001	502	84	6429	15.672**
		비율	28.7%	62.2%	7.8%	1.3%	100.0%	
	없음	사례수	933	1752	184	33	2902	
		비율	32.2%	60.4%	6.3%	1.1%	100.0%	
전체		사례수	2775	5753	686	117	9331	
		비율	29.7%	61.7%	7.4%	1.3%	10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사례수	2581	5214	608	93	8496	37.389***
		비율	30.4%	61.4%	7.2%	1.1%	100.0%	
	어머니와 동거	사례수	169	432	60	16	677	
		비율	25.0%	63.8%	8.9%	2.4%	100.0%	
	아버지와 동거	사례수	65	179	31	6	281	
		비율	23.1%	63.7%	11.0%	2.1%	100.0%	
	동거부모 없음	사례수	68	142	25	7	242	
		비율	28.1%	58.7%	10.3%	2.9%	100.0%	
전체		사례수	2883	5967	724	122	9696	
		비율	29.7%	61.5%	7.5%	1.3%	100.0%	

〈부록 표 Ⅲ-2-6〉 배경변수별 학교생활 선호 정도(중학생)

구 분			학교생활 선호 정도				전체	χ^2
			꼭 다니고 싶다	다닐 만하다	어쩔 수 없이 다닌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지역 규모	특별시	사례수	798	2183	330	55	3366	88.222***
		비율	23.7%	64.9%	9.8%	1.6%	100.0%	
	광역시	사례수	926	3311	633	88	4958	
		비율	18.7%	66.8%	12.8%	1.8%	100.0%	
	중소 도시	사례수	1490	5729	1133	180	8532	
		비율	17.5%	67.1%	13.3%	2.1%	100.0%	
	읍면	사례수	317	1235	267	35	1854	
		비율	17.1%	66.6%	14.4%	1.9%	100.0%	
전체		사례수	3531	12458	2363	358	18710	
		비율	18.9%	66.6%	12.6%	1.9%	100.0%	
학년	1학년	사례수	1404	4201	699	105	6409	77.745***
		비율	21.9%	65.5%	10.9%	1.6%	100.0%	
	2학년	사례수	1084	4154	806	128	6172	
		비율	17.6%	67.3%	13.1%	2.1%	100.0%	
	3학년	사례수	1043	4079	855	125	6102	
		비율	17.1%	66.8%	14.0%	2.0%	100.0%	
전체		사례수	3531	12434	2360	358	18683	
		비율	18.9%	66.6%	12.6%	1.9%	100.0%	
성별	남자	사례수	1915	6175	1104	192	9386	37.400***
		비율	20.4%	65.8%	11.8%	2.0%	100.0%	
	여자	사례수	1599	6210	1243	164	9216	
		비율	17.4%	67.4%	13.5%	1.8%	100.0%	
전체		사례수	3514	12385	2347	356	18602	
		비율	18.9%	66.6%	12.6%	1.9%	100.0%	
성적 수준	하	사례수	959	4559	1252	204	6974	563.465***
		비율	13.8%	65.4%	18.0%	2.9%	100.0%	
	중	사례수	881	3464	564	71	4980	
		비율	17.7%	69.6%	11.3%	1.4%	100.0%	
	상	사례수	1622	4203	530	81	6436	
		비율	25.2%	65.3%	8.2%	1.3%	100.0%	
전체		사례수	3462	12226	2346	356	18390	
		비율	18.8%	66.5%	12.8%	1.9%	100.0%	
부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987	4510	989	128	6614	182.465***
		비율	14.9%	68.2%	15.0%	1.9%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2068	5907	974	157	9106	
		비율	22.7%	64.9%	10.7%	1.7%	100.0%	
전체		사례수	3055	10417	1963	285	15720	
		비율	19.4%	66.3%	12.5%	1.8%	100.0%	

구 분			학교생활 선호 정도				전체	χ^2
			꼭 다니고 싶다	다닐 만하다	어쩔 수 없이 다닌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모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1261	5368	1140	144	7913	156.250***
		비율	15.9%	67.8%	14.4%	1.8%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1800	5058	819	138	7815	
		비율	23.0%	64.7%	10.5%	1.8%	100.0%	
전체		사례수	3061	10426	1959	282	15728	
		비율	19.5%	66.3%	12.5%	1.8%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사례수	495	2058	483	60	3096	93.148***
		비율	16.0%	66.5%	15.6%	1.9%	100.0%	
	201~400 만원이하	사례수	1149	4363	819	119	6450	
		비율	17.8%	67.6%	12.7%	1.8%	100.0%	
	401~600 만원이하	사례수	795	2432	446	74	3747	
		비율	21.2%	64.9%	11.9%	2.0%	100.0%	
	601만원 이상	사례수	571	1527	259	54	2411	
		비율	23.7%	63.3%	10.7%	2.2%	100.0%	
전체		사례수	3010	10380	2007	307	15704	
		비율	19.2%	66.1%	12.8%	2.0%	100.0%	
부직업	있음	사례수	3336	11747	2192	330	17605	4.697
		비율	18.9%	66.7%	12.5%	1.9%	100.0%	
	없음	사례수	100	388	86	15	589	
		비율	17.0%	65.9%	14.6%	2.5%	100.0%	
전체		사례수	3436	12135	2278	345	18194	
		비율	18.9%	66.7%	12.5%	1.9%	100.0%	
모직업	있음	사례수	2232	8313	1620	245	12410	26.860***
		비율	18.0%	67.0%	13.1%	2.0%	100.0%	
	없음	사례수	1182	3752	646	99	5679	
		비율	20.8%	66.1%	11.4%	1.7%	100.0%	
전체		사례수	3414	12065	2266	344	18089	
		비율	18.9%	66.7%	12.5%	1.9%	10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사례수	3089	10783	1922	294	16088	68.998***
		비율	19.2%	67.0%	11.9%	1.8%	100.0%	
	어머니와 동거	사례수	244	903	209	38	1394	
		비율	17.5%	64.8%	15.0%	2.7%	100.0%	
	아버지와 동거	사례수	119	441	137	18	715	
		비율	16.6%	61.7%	19.2%	2.5%	100.0%	
	동거부모 없음	사례수	79	331	95	8	513	
		비율	15.4%	64.5%	18.5%	1.6%	100.0%	
전체		사례수	3531	12458	2363	358	18710	
		비율	18.9%	66.6%	12.6%	1.9%	100.0%	

〈부록 표 Ⅲ-2-7〉 배경변수별 학교생활 선호 정도(일반고학생)

구 분			학교생활 선호 정도				전체	χ^2
			꼭 다니고 싶다	다닐 만 하다	어쩔 수 없이 다닌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지역 규모	특별시	사례수	650	2007	555	80	3292	98.564***
		비율	19.7%	61.0%	16.9%	2.4%	100.0%	
	광역시	사례수	701	3475	930	153	5259	
		비율	13.3%	66.1%	17.7%	2.9%	100.0%	
	중소 도시	사례수	1437	5669	1519	233	8858	
		비율	16.2%	64.0%	17.1%	2.6%	100.0%	
	읍면	사례수	342	1077	223	31	1673	
		비율	20.4%	64.4%	13.3%	1.9%	100.0%	
전체		사례수	3130	12228	3227	497	19082	
		비율	16.4%	64.1%	16.9%	2.6%	100.0%	
학년	1학년	사례수	1091	4182	1022	157	6452	12.251
		비율	16.9%	64.8%	15.8%	2.4%	100.0%	
	2학년	사례수	1047	4047	1093	163	6350	
		비율	16.5%	63.7%	17.2%	2.6%	100.0%	
	3학년	사례수	987	3982	1106	177	6252	
		비율	15.8%	63.7%	17.7%	2.8%	100.0%	
전체		사례수	3125	12211	3221	497	19054	
		비율	16.4%	64.1%	16.9%	2.6%	100.0%	
성별	남자	사례수	1721	6662	1671	299	10353	15.103**
		비율	16.6%	64.3%	16.1%	2.9%	100.0%	
	여자	사례수	1395	5534	1536	196	8661	
		비율	16.1%	63.9%	17.7%	2.3%	100.0%	
전체		사례수	3116	12196	3207	495	19014	
		비율	16.4%	64.1%	16.9%	2.6%	100.0%	
성적 수준	하	사례수	846	4443	1672	281	7242	639.227***
		비율	11.7%	61.4%	23.1%	3.9%	100.0%	
	중	사례수	975	4140	923	115	6153	
		비율	15.8%	67.3%	15.0%	1.9%	100.0%	
	상	사례수	1278	3500	602	98	5478	
		비율	23.3%	63.9%	11.0%	1.8%	100.0%	
전체		사례수	3099	12083	3197	494	18873	
		비율	16.4%	64.0%	16.9%	2.6%	100.0%	
부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1209	5204	1386	211	8010	25.049***
		비율	15.1%	65.0%	17.3%	2.6%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1782	6336	1622	252	9992	
		비율	17.8%	63.4%	16.2%	2.5%	100.0%	
전체		사례수	2991	11540	3008	463	18002	
		비율	16.6%	64.1%	16.7%	2.6%	100.0%	

구 분			학교생활 선호 정도				전체	χ^2
			꼭 다니고 싶다	다닐 만 하다	어쩔 수 없이 다닌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모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1572	6880	1821	257	10530	52.727***
		비율	14.9%	65.3%	17.3%	2.4%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1402	4662	1177	206	7447	
		비율	18.8%	62.6%	15.8%	2.8%	100.0%	
전체		사례수	2974	11542	2998	463	17977	
		비율	16.5%	64.2%	16.7%	2.6%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이하	사례수	442	1780	493	69	2784	55.766***
		비율	15.9%	63.9%	17.7%	2.5%	100.0%	
	201~400만원이하	사례수	1167	4931	1240	164	7502	
		비율	15.6%	65.7%	16.5%	2.2%	100.0%	
	401~600만원이하	사례수	754	2775	686	131	4346	
		비율	17.3%	63.9%	15.8%	3.0%	100.0%	
	601만원 이상	사례수	496	1476	466	78	2516	
		비율	19.7%	58.7%	18.5%	3.1%	100.0%	
전체		사례수	2859	10962	2885	442	17148	
		비율	16.7%	63.9%	16.8%	2.6%	100.0%	
부직업	있음	사례수	2938	11524	3018	457	17937	5.960
		비율	16.4%	64.2%	16.8%	2.5%	100.0%	
	없음	사례수	131	444	125	27	727	
		비율	18.0%	61.1%	17.2%	3.7%	100.0%	
전체		사례수	3069	11968	3143	484	18664	
		비율	16.4%	64.1%	16.8%	2.6%	100.0%	
모직업	있음	사례수	2074	8169	2184	335	12762	2.905
		비율	16.3%	64.0%	17.1%	2.6%	100.0%	
	없음	사례수	989	3797	956	148	5890	
		비율	16.8%	64.5%	16.2%	2.5%	100.0%	
전체		사례수	3063	11966	3140	483	18652	
		비율	16.4%	64.2%	16.8%	2.6%	10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사례수	2705	10590	2684	406	16385	55.898***
		비율	16.5%	64.6%	16.4%	2.5%	100.0%	
	어머니와 동거	사례수	253	967	316	42	1578	
		비율	16.0%	61.3%	20.0%	2.7%	100.0%	
	아버지와 동거	사례수	104	389	115	19	627	
		비율	16.6%	62.0%	18.3%	3.0%	100.0%	
	동거부모 없음	사례수	68	282	112	30	492	
		비율	13.8%	57.3%	22.8%	6.1%	100.0%	
전체		사례수	3130	12228	3227	497	19082	
		비율	16.4%	64.1%	16.9%	2.6%	100.0%	

〈부록 표 Ⅲ-2-8〉 배경변수별 학교생활 선호 정도(특성화고학생)

구 분			학교생활 선호 정도				전체	χ^2
			꼭 다니고 싶다	다닐만 하다	어쩔 수 없이 다닌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지역 규모	특별시	사례수	247	953	317	39	1556	11.113
		비율	15.9%	61.2%	20.4%	2.5%	100.0%	
	광역시	사례수	485	2004	666	99	3254	
		비율	14.9%	61.6%	20.5%	3.0%	100.0%	
	중소 도시	사례수	772	3184	947	130	5033	
		비율	15.3%	63.3%	18.8%	2.6%	100.0%	
	읍면	사례수	379	1380	460	69	2288	
		비율	16.6%	60.3%	20.1%	3.0%	100.0%	
전체		사례수	1883	7521	2390	337	12131	
		비율	15.5%	62.0%	19.7%	2.8%	100.0%	
학년	1학년	사례수	660	2689	771	128	4248	32.790***
		비율	15.5%	63.3%	18.1%	3.0%	100.0%	
	2학년	사례수	549	2378	860	113	3900	
		비율	14.1%	61.0%	22.1%	2.9%	100.0%	
	3학년	사례수	674	2444	752	96	3966	
		비율	17.0%	61.6%	19.0%	2.4%	100.0%	
전체		사례수	1883	7511	2383	337	12114	
		비율	15.5%	62.0%	19.7%	2.8%	100.0%	
성별	남자	사례수	1084	3839	1082	169	6174	64.220***
		비율	17.6%	62.2%	17.5%	2.7%	100.0%	
	여자	사례수	791	3656	1298	167	5912	
		비율	13.4%	61.8%	22.0%	2.8%	100.0%	
전체		사례수	1875	7495	2380	336	12086	
		비율	15.5%	62.0%	19.7%	2.8%	100.0%	
성적 수준	하	사례수	582	2574	1204	187	4547	333.257***
		비율	12.8%	56.6%	26.5%	4.1%	100.0%	
	중	사례수	501	2230	613	65	3409	
		비율	14.7%	65.4%	18.0%	1.9%	100.0%	
	상	사례수	791	2666	552	84	4093	
		비율	19.3%	65.1%	13.5%	2.1%	100.0%	
전체		사례수	1874	7470	2369	336	12049	
		비율	15.6%	62.0%	19.7%	2.8%	100.0%	
부학력	고졸이하	사례수	1128	4802	1494	217	7641	19.430***
		비율	14.8%	62.8%	19.6%	2.8%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551	1821	579	79	3030	
		비율	18.2%	60.1%	19.1%	2.6%	100.0%	
전체		사례수	1679	6623	2073	296	10671	
		비율	15.7%	62.1%	19.4%	2.8%	100.0%	

구 분			학교생활 선호 정도				전체	x^2
			꼭 다니고 싶다	다닐만 하다	어쩔 수 없이 다닌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모학력	고졸이하	사례수	1252	5263	1660	225	8400	17.273**
		비율	14.9%	62.7%	19.8%	2.7%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412	1337	431	68	2248	
		비율	18.3%	59.5%	19.2%	3.0%	100.0%	
전체		사례수	1664	6600	2091	293	10648	
		비율	15.6%	62.0%	19.6%	2.8%	100.0%	
월평균소득	200만원 이하	사례수	608	2378	790	103	3879	66.521***
		비율	15.7%	61.3%	20.4%	2.7%	100.0%	
	201~400 만원이하	사례수	660	2992	934	114	4700	
		비율	14.0%	63.7%	19.9%	2.4%	100.0%	
	401~600 만원이하	사례수	288	965	279	47	1579	
		비율	18.2%	61.1%	17.7%	3.0%	100.0%	
	601만원 이상	사례수	132	338	108	37	615	
		비율	21.5%	55.0%	17.6%	6.0%	100.0%	
전체		사례수	1688	6673	2111	301	10773	
		비율	15.7%	61.9%	19.6%	2.8%	100.0%	
부직업	있음	사례수	1639	6597	2076	285	10597	4.321
		비율	15.5%	62.3%	19.6%	2.7%	100.0%	
	없음	사례수	144	554	166	34	898	
		비율	16.0%	61.7%	18.5%	3.8%	100.0%	
전체		사례수	1783	7151	2242	319	11495	
		비율	15.5%	62.2%	19.5%	2.8%	100.0%	
모직업	있음	사례수	1283	5117	1630	233	8263	.324
		비율	15.5%	61.9%	19.7%	2.8%	100.0%	
	없음	사례수	508	2023	637	86	3254	
		비율	15.6%	62.2%	19.6%	2.6%	100.0%	
전체		사례수	1791	7140	2267	319	11517	
		비율	15.6%	62.0%	19.7%	2.8%	10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사례수	1368	5466	1664	235	8733	18.591*
		비율	15.7%	62.6%	19.1%	2.7%	100.0%	
	어머니와 동거	사례수	266	1038	384	55	1743	
		비율	15.3%	59.6%	22.0%	3.2%	100.0%	
	아버지와 동거	사례수	132	604	205	21	962	
		비율	13.7%	62.8%	21.3%	2.2%	100.0%	
	동거부모 없음	사례수	117	413	137	26	693	
		비율	16.9%	59.6%	19.8%	3.8%	100.0%	
전체		사례수	1883	7521	2390	337	12131	
		비율	15.5%	62.0%	19.7%	2.8%	100.0%	

〈부록 표 Ⅲ-3-1〉 배경변수별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초등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1872	3.6052	0.808	43.205***	a〉b, a〉c a〉d, b〉c d〉c
	광역시(b)	2662	3.4612	0.777		
	중소 도시(c)	4650	3.3678	0.756		
	읍면	564	3.4672	0.714		
합계		9748	3.4447	0.775		
성별	남자(a)	4988	3.4685	0.782	9.405**	a〉b
	여자(b)	4710	3.4203	0.764		
합계		9698	3.4451	0.774		
성적수준	하(a)	1321	3.1758	0.77	136.787***	a〈b a〈c b〈c
	중(b)	4260	3.4174	0.734		
	상(c)	3869	3.5704	0.795		
합계		9450	3.4463	0.775		
부학력	고졸이하(a)	2451	3.4149	0.75	12.666***	a〈b
	2년제대졸이상(b)	4862	3.4836	0.792		
합계		7313	3.4606	0.779		
모학력	고졸이하(a)	2978	3.4014	0.763	27.770***	a〈b
	2년제대졸이상(b)	4429	3.4986	0.789		
합계		7407	3.4595	0.78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1584	3.3617	0.748	8.217***	a〈b, a〈c a〈d, b〈c b〈d
	201~400만원 이하(b)	2991	3.4632	0.748		
	401~600만원 이하(c)	2007	3.4659	0.792		
	601만원 이상(d)	1234	3.4862	0.859		
합계		7816	3.4469	0.779		
부직업	있음(a)	9159	3.4501	0.772	1.333	
	없음(b)	259	3.3938	0.821		
합계		9418	3.4485	0.773		
모직업	있음(a)	6463	3.4413	0.769	1.474	
	없음(b)	2916	3.4622	0.779		
합계		9379	3.4478	0.772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534	3.4585	0.772	7.647***	a〈b
	어머니와 동거(b)	688	3.329	0.78		
	아버지와 동거(c)	282	3.3747	0.798		
	동거부모 없음(d)	244	3.3661	0.806		
합계		9748	3.4447	0.775		

〈부록 표 Ⅲ-3-2〉 배경변수별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중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377	2.92	0.775	42.943***	a〉c, b〉c, c〈d
	광역시(b)	4968	2.97	0.780		
	중소 도시(c)	8572	2.84	0.758		
	읍면(d)	1864	2.98	0.770		
합계		18781	2.90	0.771		
학년	1학년(a)	6433	3.14	0.761	532.080***	a〉b, a〉c, b〉c
	2학년(b)	6196	2.85	0.744		
	3학년(c)	6125	2.71	0.743		
합계		18754	2.90	0.771		
성별	남자(a)	9438	2.99	0.783	230.605***	a〉b
	여자(b)	9235	2.82	0.749		
합계		18673	2.90	0.771		
성적수준	하(a)	7012	2.79	0.750	179.203***	a〈b, a〈c, b〈c
	중(b)	5000	2.89	0.745		
	상(c)	6444	3.04	0.792		
합계		18456	2.90	0.771		
부학력	고졸이하(a)	6639	2.88	0.742	10.241**	a〈b
	2년제대졸이상(b)	9124	2.92	0.794		
합계		15763	2.91	0.773		
모학력	고졸이하(a)	7942	2.87	0.747	28.348***	a〈b
	2년제대졸이상(b)	7832	2.94	0.795		
합계		15774	2.90	0.772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109	2.92	0.743	.813	
	201~400만원 이하(b)	6473	2.90	0.753		
	401~600만원 이하(c)	3762	2.91	0.784		
	601만원 이상(d)	2415	2.92	0.852		
합계		15759	2.91	0.774		
부직업	있음(a)	17663	2.90	0.770	2.931	
	없음(b)	592	2.96	0.798		
합계		18255	2.90	0.771		
모직업	있음(a)	12456	2.90	0.766	1.751	
	없음(b)	5697	2.91	0.777		
합계		18153	2.90	0.77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145	2.91	0.773	4.394**	a〉b
	어머니와 동거(b)	1401	2.84	0.748		
	아버지와 동거(c)	717	2.86	0.762		
	동거부모 없음(d)	518	2.87	0.771		
합계		18781	2.90	0.771		

〈부록 표 Ⅲ-3-3〉 배경변수별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일반고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305	2.54	0.753	20.562***	a〈b, a〈d, b〈d, c〈d
	광역시(b)	5271	2.58	0.719		
	중소 도시(c)	8880	2.56	0.726		
	읍면(d)	1679	2.70	0.734		
합계		19135	2.57	0.731		
학년	1학년(a)	6475	2.71	0.723	233.146***	a〉b, a〉c, b〉c
	2학년(b)	6362	2.58	0.727		
	3학년(c)	6269	2.43	0.716		
합계		19106	2.57	0.731		
성별	남자(a)	10387	2.59	0.747	4.801*	a〉b
	여자(b)	8679	2.56	0.711		
합계		19066	2.57	0.731		
성적수준	하(a)	7267	2.42	0.712	334.666***	a〈b, a〈c, b〈c
	중(b)	6166	2.59	0.706		
	상(c)	5491	2.75	0.739		
합계		18924	2.57	0.730		
부학력	고졸이하(a)	8029	2.57	0.716	2.604	
	2년제대졸이상(b)	10015	2.58	0.744		
합계		18044	2.58	0.732		
모학력	고졸이하(a)	10551	2.56	0.721	17.793***	a〈b
	2년제대졸이상(b)	7466	2.60	0.745		
합계		18017	2.58	0.731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2795	2.57	0.738	1.020	
	201~400만원 이하(b)	7519	2.59	0.712		
	401~600만원 이하(c)	4357	2.58	0.741		
	601만원 이상(d)	2520	2.57	0.774		
합계		17191	2.58	0.733		
부직업	있음(a)	17985	2.58	0.728	.361	
	없음(b)	730	2.56	0.794		
합계		18715	2.58	0.731		
모직업	있음(a)	12797	2.56	0.733	11.462**	a〈b
	없음(b)	5905	2.60	0.726		
합계		18702	2.58	0.731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430	2.58	0.729	7.480***	a〉b
	어머니와 동거(b)	1582	2.50	0.736		
	아버지와 동거(c)	628	2.56	0.733		
	동거부모 없음(d)	495	2.50	0.751		
합계		19135	2.57	0.731		

〈부록 표 Ⅲ-3-4〉 배경변수별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특성화고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1562	2.82	0.755	4.524**	a>c
	광역시(b)	3266	2.79	0.806		
	중소 도시(c)	5058	2.75	0.785		
	읍면(d)	2299	2.76	0.768		
합계		12185	2.77	0.784		
학년	1학년(a)	4264	2.87	0.767	57.552***	a>b a>c b>c
	2학년(b)	3915	2.74	0.784		
	3학년(c)	3989	2.69	0.792		
합계		12168	2.77	0.784		
성별	남자(a)	6209	2.81	0.792	36.595***	a>b
	여자(b)	5930	2.73	0.773		
합계		12139	2.77	0.784		
성적수준	하(a)	4577	2.63	0.779	137.409***	b>a c>a c>b
	중(b)	3423	2.81	0.757		
	상(c)	4103	2.90	0.787		
합계		12103	2.77	0.785		
부학력	고졸이하(a)	7670	2.76	0.775	8.810**	b>a
	2년제대졸이상(b)	3045	2.81	0.819		
합계		10715	2.77	0.788		
모학력	고졸이하(a)	8436	2.75	0.782	23.311***	b>a
	2년제대졸이상(b)	2254	2.84	0.815		
합계		10690	2.77	0.79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893	2.78	0.781	3.652*	c>b
	201~400만원 이하(b)	4726	2.76	0.764		
	401~600만원 이하(c)	1582	2.83	0.825		
	601만원 이상(d)	620	2.76	0.900		
합계		10821	2.78	0.788		
부직업	있음(a)	10642	2.77	0.784	2.923	
	없음(b)	903	2.82	0.773		
합계		11545	2.78	0.784		
모직업	있음(a)	8299	2.77	0.781	.132	
	없음(b)	3269	2.78	0.789		
합계		11568	2.77	0.783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776	2.78	0.780	4.028**	a>b
	어머니와 동거(b)	1748	2.71	0.802		
	아버지와 동거(c)	962	2.77	0.763		
	동거부모 없음(d)	699	2.77	0.814		
합계		12185	2.77	0.784		

〈부록 표 Ⅲ-3-5〉 배경변수별 수업방법에 대한 인식(초등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1863	3.45	0.797	28.923***	a〉b, a〉c, a〉d, b〉c
	광역시(b)	2652	3.36	0.795		
	중소 도시(c)	4640	3.26	0.763		
	읍면(d)	563	3.27	0.742		
합계		9718	3.33	0.781		
성별	남자(a)	4969	3.33	0.796	.114	
	여자(b)	4702	3.32	0.764		
합계		9671	3.33	0.780		
성적수준	하(a)	1315	3.11	0.736	95.366***	a〈b, a〈c, b〈c
	중(b)	4249	3.29	0.743		
	상(c)	3861	3.44	0.818		
합계		9425	3.32	0.781		
부학력	고졸이하(a)	2446	3.28	0.756	23.640***	a〈b
	2년제대졸이상(b)	4848	3.37	0.808		
합계		7294	3.34	0.792		
모학력	고졸이하(a)	2971	3.28	0.762	26.034***	a〈b
	2년제대졸이상(b)	4418	3.38	0.805		
합계		7389	3.34	0.789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1582	3.23	0.767	13.323***	a〈b, a〈c, a〈d
	201~400만원 이하(b)	2984	3.33	0.763		
	401~600만원 이하(c)	2003	3.36	0.783		
	601만원 이상(d)	1228	3.40	0.866		
합계		7797	3.33	0.788		
부직업	있음(a)	9135	3.33	0.780	1.865	
	없음(b)	259	3.26	0.778		
합계		9394	3.33	0.780		
모직업	있음(a)	6448	3.31	0.773	4.859*	a〈b
	없음(b)	2906	3.35	0.794		
합계		9354	3.33	0.779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513	3.33	0.779	4.554**	a〉b
	어머니와 동거(b)	684	3.22	0.794		
	아버지와 동거(c)	280	3.30	0.798		
	동거부모 없음(d)	241	3.29	0.762		
합계		9718	3.33	0.781		

〈부록 표 Ⅲ-3-6〉 배경변수별 수업방법에 대한 인식(중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376	2.85	0.745	57.808***	a〈b, a〉c, b〉c, c〈d
	광역시(b)	4965	2.90	0.748		
	중소 도시(c)	8559	2.74	0.721		
	읍면(d)	1863	2.87	0.736		
합계		18763	2.82	0.737		
학년	1학년(a)	6420	3.02	0.729	383.231***	a〉b, a〉c, b〉c
	2학년(b)	6194	2.75	0.716		
	3학년(c)	6122	2.68	0.724		
합계		18736	2.82	0.738		
성별	남자(a)	9424	2.85	0.769	34.132***	a〉b
	여자(b)	9231	2.79	0.704		
합계		18655	2.82	0.738		
성적수준	하(a)	7004	2.76	0.710	41.808***	a〈b, a〈c, b〈c
	중(b)	4994	2.83	0.719		
	상(c)	6442	2.87	0.777		
합계		18440	2.82	0.738		
부학력	고졸이하(a)	6632	2.81	0.716	.033	
	2년제대졸이상(b)	9119	2.82	0.759		
합계		15751	2.82	0.741		
모학력	고졸이하(a)	7938	2.80	0.717	7.502**	a〈b
	2년제대졸이상(b)	7825	2.83	0.763		
합계		15763	2.82	0.741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109	2.84	0.715	1.429	
	201~400만원 이하(b)	6465	2.81	0.718		
	401~600만원 이하(c)	3758	2.81	0.753		
	601만원 이상(d)	2413	2.80	0.828		
합계		15745	2.82	0.744		
부직업	있음(a)	17647	2.82	0.738	1.214	
	없음(b)	591	2.85	0.738		
합계		18238	2.82	0.738		
모직업	있음(a)	12447	2.80	0.732	11.918**	a〈b
	없음(b)	5690	2.85	0.750		
합계		18137	2.82	0.738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131	2.82	0.739	2.966	
	어머니와 동거(b)	1401	2.77	0.714		
	아버지와 동거(c)	715	2.80	0.745		
	동거부모 없음(d)	516	2.78	0.744		
합계		18763	2.82	0.737		

〈부록 표 Ⅲ-3-7〉 배경변수별 수업방법에 대한 인식(일반고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302	2.46	0.740	38.146***	a〈d, b〉c, b〈d, c〈d
	광역시(b)	5269	2.48	0.698		
	중소 도시(c)	8873	2.44	0.697		
	읍면(d)	1679	2.64	0.697		
합계		19123	2.47	0.707		
학년	1학년(a)	6473	2.64	0.693	481.586***	a〉b, a〉c, b〉c
	2학년(b)	6356	2.50	0.675		
	3학년(c)	6265	2.27	0.701		
합계		19094	2.47	0.707		
성별	남자(a)	10382	2.47	0.718	.259	
	여자(b)	8673	2.47	0.692		
합계		19055	2.47	0.707		
성적수준	하(a)	7265	2.46	0.687	1.516	
	중(b)	6160	2.47	0.694		
	상(c)	5488	2.48	0.746		
합계		18913	2.47	0.707		
부학력	고졸이하(a)	8027	2.48	0.684	5.062*	a〉b
	2년제대졸이상(b)	10006	2.46	0.725		
합계		18033	2.47	0.707		
모학력	고졸이하(a)	10547	2.47	0.690	.423	
	2년제대졸이상(b)	7459	2.47	0.730		
합계		18006	2.47	0.707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2795	2.49	0.685	4.957**	a〉d, b〉d
	201~400만원 이하(b)	7516	2.49	0.700		
	401~600만원 이하(c)	4355	2.45	0.715		
	601만원 이상(d)	2517	2.44	0.761		
합계		17183	2.47	0.711		
부직업	있음(a)	17974	2.47	0.706	.156	
	없음(b)	730	2.46	0.731		
합계		18704	2.47	0.707		
모직업	있음(a)	12791	2.47	0.707	2.812	
	없음(b)	5900	2.48	0.707		
합계		18691	2.47	0.707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419	2.48	0.707	4.381**	a〉b, b〈d
	어머니와 동거(b)	1582	2.42	0.719		
	아버지와 동거(c)	628	2.47	0.677		
	동거부모 없음(d)	494	2.52	0.682		
합계		19123	2.47	0.707		

〈부록 표 Ⅲ-3-8〉 배경변수별 수업방법에 대한 인식(특성화고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1561	2.64	0.679	6.823***	a〉c b〉c d〉c
	광역시(b)	3265	2.62	0.725		
	중소 도시(c)	5057	2.57	0.717		
	읍면(d)	2299	2.63	0.720		
합계		12182	2.60	0.715		
학년	1학년(a)	4262	2.68	0.694	32.177***	a〉b a〉c
	2학년(b)	3914	2.57	0.715		
	3학년(c)	3989	2.56	0.732		
합계		12165	2.61	0.715		
성별	남자(a)	6206	2.64	0.725	35.597***	a〉b
	여자(b)	5930	2.57	0.702		
합계		12136	2.61	0.715		
성적수준	하(a)	4575	2.57	0.709	9.648***	b〉a c〉a
	중(b)	3424	2.64	0.694		
	상(c)	4101	2.61	0.736		
합계		12100	2.60	0.715		
부학력	고졸이하(a)	7670	2.59	0.696	3.967*	b〉a
	2년제대졸이상(b)	3044	2.62	0.766		
합계		10714	2.60	0.717		
모학력	고졸이하(a)	8434	2.58	0.703	20.572***	b〉a
	2년제대졸이상(b)	2254	2.66	0.759		
합계		10688	2.60	0.716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891	2.60	0.704	1.486	
	201~400만원 이하(b)	4725	2.59	0.703		
	401~600만원 이하(c)	1583	2.62	0.758		
	601만원 이상(d)	619	2.64	0.848		
합계		10818	2.60	0.721		
부직업	있음(a)	10640	2.61	0.716	.954	
	없음(b)	902	2.63	0.724		
합계		11542	2.61	0.716		
모직업	있음(a)	8296	2.60	0.714	.265	
	없음(b)	3269	2.61	0.712		
합계		11565	2.61	0.713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775	2.61	0.712	3.919**	a〉b
	어머니와 동거(b)	1747	2.55	0.709		
	아버지와 동거(c)	961	2.62	0.705		
	동거부모 없음(d)	699	2.63	0.778		
합계		12182	2.60	0.715		

〈부록 표 Ⅲ-3-9〉 배경변수별 학교규칙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중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356	3.47	1.062	19.445***	a〉b, a〉c, a〉d, b〈c, b〈d
	광역시(b)	4948	3.28	1.117		
	중소 도시(c)	8521	3.36	1.106		
	읍면(d)	1859	3.37	1.111		
합계		18684	3.36	1.103		
학년	1학년(a)	6392	3.57	1.066	171.450***	a〉b, a〉c, b〉c
	2학년(b)	6169	3.29	1.091		
	3학년(c)	6097	3.23	1.123		
합계		18658	3.36	1.103		
성별	남자(a)	9365	3.46	1.104	149.549***	a〉b
	여자(b)	9213	3.26	1.093		
합계		18578	3.36	1.103		
성적수준	하(a)	6975	3.25	1.136	81.924***	a〈b, a〈c, b〈c
	중(b)	4975	3.35	1.073		
	상(c)	6410	3.49	1.080		
합계		18360	3.36	1.104		
부학력	고졸이하(a)	6606	3.31	1.114	13.823***	a〈b
	2년제대졸이상(b)	9074	3.38	1.096		
합계		15680	3.35	1.104		
모학력	고졸이하(a)	7906	3.33	1.115	7.359**	a〈b
	2년제대졸이상(b)	7787	3.38	1.087		
합계		15693	3.35	1.101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099	3.40	1.118	2.805*	a〉d
	201~400만원 이하(b)	6438	3.36	1.098		
	401~600만원 이하(c)	3739	3.34	1.093		
	601만원 이상(d)	2402	3.31	1.142		
합계		15678	3.35	1.108		
부직업	있음(a)	17573	3.36	1.102	.380	
	없음(b)	589	3.39	1.164		
합계		18162	3.36	1.104		
모직업	있음(a)	12395	3.34	1.108	26.643***	a〈b
	없음(b)	5666	3.43	1.088		
합계		18061	3.36	1.103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066	3.37	1.098	3.726*	a〉b
	어머니와 동거(b)	1396	3.28	1.124		
	아버지와 동거(c)	713	3.31	1.189		
	동거부모 없음(d)	509	3.32	1.090		
합계		18684	3.36	1.103		

〈부록 표 Ⅲ-3-10〉 배경변수별 학교규칙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일반고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296	3.37	1.113	56.716***	a〉b, a〉c, a〈d, b〈c, b〈d, c〈d
	광역시(b)	5261	3.15	1.106		
	중소 도시(c)	8852	3.25	1.099		
	읍면(d)	1671	3.50	1.071		
합계		19080	3.26	1.106		
학년	1학년(a)	6447	3.29	1.125	3.691*	a〉b
	2학년(b)	6344	3.24	1.105		
	3학년(c)	6260	3.27	1.084		
합계		19051	3.27	1.105		
성별	남자(a)	10350	3.24	1.133	16.281***	a〈b
	여자(b)	8662	3.30	1.070		
합계		19012	3.27	1.105		
성적수준	하(a)	7244	3.12	1.139	114.816***	a〈b, a〈c, b〈c
	중(b)	6148	3.31	1.074		
	상(c)	5480	3.41	1.074		
합계		18872	3.27	1.106		
부학력	고졸이하(a)	8004	3.27	1.102	.414	
	2년제대졸이상(b)	9991	3.26	1.110		
합계		17995	3.27	1.106		
모학력	고졸이하(a)	10521	3.27	1.103	.222	
	2년제대졸이상(b)	7447	3.26	1.115		
합계		17968	3.27	1.108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2788	3.35	1.097	14.148***	a〉c, a〉d, b〉c, b〉d
	201~400만원 이하(b)	7502	3.29	1.092		
	401~600만원 이하(c)	4346	3.23	1.106		
	601만원 이상(d)	2514	3.17	1.163		
합계		17150	3.27	1.108		
부직업	있음(a)	17938	3.26	1.105	13.237***	a〈b
	없음(b)	726	3.41	1.124		
합계		18664	3.27	1.106		
모직업	있음(a)	12765	3.25	1.109	5.634*	a〈b
	없음(b)	5886	3.29	1.097		
합계		18651	3.26	1.106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388	3.27	1.103	1.833	
	어머니와 동거(b)	1573	3.25	1.129		
	아버지와 동거(c)	626	3.31	1.124		
	동거부모 없음(d)	493	3.16	1.100		
합계		19080	3.26	1.106		

〈부록 표 Ⅲ-3-11〉 배경변수별 학교규칙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특성화고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1553	3.16	1.176	3.252*	
	광역시(b)	3257	3.15	1.161		
	중소 도시(c)	5043	3.08	1.163		
	읍면(d)	2289	3.12	1.153		
합계		12142	3.12	1.163		
학년	1학년(a)	4248	3.18	1.163	21.171***	a〉b c〉b
	2학년(b)	3901	3.02	1.168		
	3학년(c)	3976	3.15	1.151		
합계		12125	3.12	1.162		
성별	남자(a)	6183	3.23	1.172	119.338***	a〉b
	여자(b)	5913	3.00	1.139		
합계		12096	3.12	1.162		
성적수준	하(a)	4557	2.96	1.176	75.830***	b〉a c〉a c〉b
	중(b)	3413	3.15	1.140		
	상(c)	4092	3.26	1.145		
합계		12062	3.12	1.163		
부학력	고졸이하(a)	7646	3.11	1.163	.658	
	2년제대졸이상(b)	3034	3.13	1.166		
합계		10680	3.11	1.164		
모학력	고졸이하(a)	8406	3.11	1.160	.836	
	2년제대졸이상(b)	2246	3.14	1.175		
합계		10652	3.12	1.164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881	3.18	1.158	7.213***	a〉b a〉d b〉d
	201~400만원 이하(b)	4707	3.10	1.154		
	401~600만원 이하(c)	1579	3.10	1.201		
	601만원 이상(d)	616	2.97	1.220		
합계		10783	3.12	1.167		
부직업	있음(a)	10605	3.11	1.166	1.071	
	없음(b)	900	3.15	1.170		
합계		11505	3.11	1.166		
모직업	있음(a)	8270	3.10	1.167	3.386	
	없음(b)	3256	3.15	1.155		
합계		11526	3.12	1.164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748	3.13	1.164	3.448*	a〉d
	어머니와 동거(b)	1737	3.12	1.155		
	아버지와 동거(c)	960	3.13	1.168		
	동거부모 없음(d)	697	2.98	1.152		
합계		12142	3.12	1.163		

〈부록 표 Ⅲ-3-12〉 배경변수별 학교규칙의 규제 수준에 대한 인식(중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360	3.22	0.721	13.978***	a〈b, b〉c, b〉d
	광역시(b)	4955	3.30	0.712		
	중소 도시(c)	8537	3.22	0.755		
	읍면(d)	1862	3.21	0.712		
합계		18714	3.24	0.734		
학년	1학년(a)	6404	3.22	0.722	11.575***	a〈b, b〉c
	2학년(b)	6180	3.28	0.741		
	3학년(c)	6103	3.22	0.738		
합계		18687	3.24	0.734		
성별	남자(a)	9389	3.21	0.781	24.801***	a〈b
	여자(b)	9218	3.27	0.682		
합계		18607	3.24	0.734		
성적수준	하(a)	6988	3.28	0.773	20.414***	a〉c, b〉c
	중(b)	4982	3.25	0.703		
	상(c)	6419	3.20	0.717		
합계		18389	3.24	0.736		
부학력	고졸이하(a)	6620	3.25	0.720	.003	
	2년제대졸이상(b)	9087	3.25	0.738		
합계		15707	3.25	0.730		
모학력	고졸이하(a)	7921	3.24	0.720	1.162	
	2년제대졸이상(b)	7798	3.26	0.740		
합계		15719	3.25	0.73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103	3.21	0.719	8.884***	a〈d, b〈d
	201~400만원 이하(b)	6446	3.23	0.714		
	401~600만원 이하(c)	3752	3.25	0.753		
	601만원 이상(d)	2405	3.31	0.807		
합계		15706	3.24	0.740		
부직업	있음(a)	17601	3.24	0.733	3.382	
	없음(b)	590	3.19	0.756		
합계		18191	3.24	0.734		
모직업	있음(a)	12418	3.25	0.736	9.999**	a〉b
	없음(b)	5672	3.22	0.728		
합계		18090	3.24	0.733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091	3.24	0.733	1.266	
	어머니와 동거(b)	1396	3.26	0.718		
	아버지와 동거(c)	714	3.28	0.757		
	동거부모 없음(d)	513	3.21	0.778		
합계		18714	3.24	0.734		

〈부록 표 Ⅲ-3-13〉 배경변수별 학교규칙의 규제 수준에 대한 인식(일반고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298	3.11	0.705	56.234***	a〈b, a〈c, a〉d, b〉c, b〉d, c〉d
	광역시(b)	5263	3.21	0.655		
	중소 도시(c)	8857	3.15	0.655		
	읍면(d)	1672	2.98	0.634		
합계		19090	3.15	0.665		
학년	1학년(a)	6456	3.23	0.665	111.017***	a〉b, a〉c, b〉c
	2학년(b)	6345	3.14	0.669		
	3학년(c)	6260	3.06	0.649		
합계		19061	3.15	0.665		
성별	남자(a)	10358	3.20	0.703	145.675***	a〉b
	여자(b)	8664	3.08	0.611		
합계		19022	3.15	0.665		
성적수준	하(a)	7246	3.24	0.686	120.287***	a〉b, a〉c, b〉c
	중(b)	6152	3.12	0.635		
	상(c)	5483	3.06	0.657		
합계		18881	3.15	0.665		
부학력	고졸이하(a)	8006	3.13	0.651	5.379*	a〈b
	2년제대졸이상(b)	9998	3.16	0.676		
합계		18004	3.15	0.665		
모학력	고졸이하(a)	10526	3.13	0.650	10.968**	a〈b
	2년제대졸이상(b)	7451	3.17	0.681		
합계		17977	3.15	0.663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2788	3.10	0.664	12.804***	a〈b, a〈c, a〈d, b〈c, b〈d
	201~400만원 이하(b)	7505	3.14	0.634		
	401~600만원 이하(c)	4348	3.18	0.683		
	601만원 이상(d)	2515	3.19	0.738		
합계		17156	3.15	0.668		
부직업	있음(a)	17948	3.15	0.665	2.604	
	없음(b)	727	3.11	0.686		
합계		18675	3.15	0.666		
모직업	있음(a)	12772	3.16	0.667	13.447***	a〉b
	없음(b)	5889	3.12	0.660		
합계		18661	3.15	0.665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398	3.15	0.662	1.029	
	어머니와 동거(b)	1573	3.13	0.686		
	아버지와 동거(c)	626	3.15	0.686		
	동거부모 없음(d)	493	3.19	0.693		
합계		19090	3.15	0.665		

〈부록 표 Ⅲ-3-14〉 배경변수별 학교규칙의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특성화고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1553	3.30	0.710	12.695***	a>b a>d b>d c>d
	광역시(b)	3261	3.24	0.750		
	중소 도시(c)	5052	3.28	0.773		
	읍면(d)	2290	3.18	0.769		
합계		12156	3.25	0.759		
학년	1학년(a)	4252	3.28	0.740	33.547***	a>c b>c
	2학년(b)	3906	3.30	0.743		
	3학년(c)	3981	3.17	0.788		
합계		12139	3.25	0.759		
성별	남자(a)	6190	3.23	0.784	13.288***	b>a
	여자(b)	5920	3.28	0.729		
합계		12110	3.25	0.758		
성적수준	하(a)	4564	3.33	0.764	52.436***	a>b a>c b>c
	중(b)	3417	3.25	0.740		
	상(c)	4094	3.17	0.760		
합계		12075	3.25	0.759		
부학력	고졸이하(a)	7654	3.25	0.749	1.809	
	2년제대졸이상(b)	3037	3.28	0.779		
합계		10691	3.26	0.758		
모학력	고졸이하(a)	8414	3.26	0.750	.005	
	2년제대졸이상(b)	2250	3.26	0.786		
합계		10664	3.26	0.758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885	3.23	0.739	4.798**	c>a
	201~400만원 이하(b)	4711	3.26	0.756		
	401~600만원 이하(c)	1579	3.30	0.772		
	601만원 이상(d)	618	3.31	0.894		
합계		10793	3.26	0.761		
부직업	있음(a)	10617	3.26	0.759	.283	
	없음(b)	901	3.24	0.772		
합계		11518	3.25	0.760		
모직업	있음(a)	8278	3.25	0.762	.343	
	없음(b)	3262	3.25	0.754		
합계		11540	3.25	0.76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756	3.24	0.755	4.957**	d>a
	어머니와 동거(b)	1743	3.26	0.759		
	아버지와 동거(c)	962	3.27	0.763		
	동거부모 없음(d)	695	3.35	0.805		
합계		12156	3.25	0.759		

〈부록 표 Ⅲ-3-15〉 배경변수별 교사의 태도에 대한 인식(초등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1862	3.96	0.763	14.535***	a〉b, a〉c, a〉d
	광역시(b)	2650	3.83	0.781		
	중소 도시(c)	4642	3.84	0.750		
	읍면(d)	562	3.81	0.716		
합계		9716	3.86	0.761		
성별	남자(a)	4966	3.82	0.776	27.997***	a〈b
	여자(b)	4702	3.90	0.742		
합계		9668	3.86	0.761		
성적수준	하(a)	1312	3.69	0.759	69.870***	a〈b, a〈c, b〈c
	중(b)	4249	3.82	0.735		
	상(c)	3860	3.96	0.776		
합계		9421	3.86	0.761		
부학력	고졸이하(a)	2442	3.83	0.748	5.815*	a〈b
	2년제대졸이상(b)	4847	3.88	0.774		
합계		7289	3.86	0.766		
모학력	고졸이하(a)	2966	3.82	0.756	19.515***	a〈b
	2년제대졸이상(b)	4418	3.90	0.765		
합계		7384	3.87	0.762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1580	3.83	0.757	.822	
	201~400만원 이하(b)	2984	3.87	0.739		
	401~600만원 이하(c)	2000	3.85	0.762		
	601만원 이상(d)	1229	3.85	0.839		
합계		7793	3.86	0.765		
부직업	있음(a)	9130	3.86	0.760	.014	
	없음(b)	259	3.85	0.765		
합계		9389	3.86	0.761		
모직업	있음(a)	6446	3.85	0.755	1.347	
	없음(b)	2904	3.87	0.773		
합계		9350	3.86	0.761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510	3.86	0.760	.351	
	어머니와 동거(b)	683	3.85	0.755		
	아버지와 동거(c)	280	3.86	0.756		
	동거부모 없음(d)	243	3.81	0.797		
합계		9716	3.86	0.761		

〈부록 표 Ⅲ-3-16〉 배경변수별 교사의 태도에 대한 인식(중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363	3.26	0.672	75.874***	a〈b, a〉c, a〈d, b〉c, c〈d
	광역시(b)	4950	3.34	0.685		
	중소 도시(c)	8537	3.19	0.677		
	읍면(d)	1862	3.39	0.695		
합계		18712	3.26	0.684		
학년	1학년(a)	6405	3.42	0.694	250.926***	a〉b, a〉c
	2학년(b)	6172	3.17	0.670		
	3학년(c)	6108	3.20	0.661		
합계		18685	3.26	0.684		
성별	남자(a)	9388	3.29	0.704	21.096***	a〉b
	여자(b)	9217	3.24	0.663		
합계		18605	3.26	0.685		
성적수준	하(a)	6988	3.17	0.674	166.507***	a〈b, a〈c, b〈c
	중(b)	4982	3.24	0.661		
	상(c)	6418	3.38	0.699		
합계		18388	3.26	0.685		
부학력	고졸이하(a)	6624	3.26	0.674	1.230	
	2년제대졸이상(b)	9087	3.27	0.697		
합계		15711	3.26	0.687		
모학력	고졸이하(a)	7922	3.25	0.681	5.445*	a〈b
	2년제대졸이상(b)	7802	3.28	0.691		
합계		15724	3.26	0.686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103	3.32	0.670	10.222***	a〉b, a〉c, a〉d
	201~400만원 이하(b)	6451	3.27	0.678		
	401~600만원 이하(c)	3755	3.24	0.682		
	601만원 이상(d)	2398	3.23	0.747		
합계		15707	3.26	0.689		
부직업	있음(a)	17601	3.26	0.685	2.524	
	없음(b)	590	3.31	0.697		
합계		18191	3.26	0.685		
모직업	있음(a)	12420	3.25	0.685	9.915**	a〈b
	없음(b)	5672	3.29	0.684		
합계		18092	3.26	0.685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090	3.26	0.687	1.128	
	어머니와 동거(b)	1398	3.23	0.656		
	아버지와 동거(c)	713	3.28	0.668		
	동거부모 없음(d)	511	3.28	0.695		
합계		18712	3.26	0.684		

〈부록 표 Ⅲ-3-17〉 배경변수별 교사의 태도에 대한 인식(일반고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294	3.10	0.637	29.868***	a〈d, b〈d, c〈d
	광역시(b)	5258	3.12	0.632		
	중소 도시(c)	8856	3.10	0.618		
	읍면(d)	1671	3.25	0.620		
합계		19079	3.12	0.627		
학년	1학년(a)	6450	3.14	0.635	11.902***	a〉c, b〉c
	2학년(b)	6342	3.12	0.616		
	3학년(c)	6258	3.09	0.626		
합계		19050	3.12	0.626		
성별	남자(a)	10351	3.11	0.647	8.215**	a〈b
	여자(b)	8660	3.13	0.600		
합계		19011	3.12	0.626		
성적수준	하(a)	7241	3.00	0.620	326.288***	a〈b, a〈c, b〈c
	중(b)	6146	3.12	0.595		
	상(c)	5483	3.28	0.634		
합계		18870	3.12	0.627		
부학력	고졸이하(a)	8004	3.11	0.603	1.468	
	2년제대졸이상(b)	9993	3.13	0.650		
합계		17997	3.12	0.629		
모학력	고졸이하(a)	10524	3.11	0.610	4.442*	a〈b
	2년제대졸이상(b)	7446	3.13	0.654		
합계		17970	3.12	0.628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2786	3.12	0.621	1.837	
	201~400만원 이하(b)	7501	3.13	0.607		
	401~600만원 이하(c)	4348	3.12	0.644		
	601만원 이상(d)	2515	3.09	0.689		
합계		17150	3.12	0.631		
부직업	있음(a)	17937	3.12	0.624	2.856	
	없음(b)	726	3.16	0.649		
합계		18663	3.12	0.625		
모직업	있음(a)	12763	3.11	0.631	8.059**	a〈b
	없음(b)	5887	3.14	0.619		
합계		18650	3.12	0.627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390	3.12	0.625	3.349*	a〉d
	어머니와 동거(b)	1570	3.10	0.638		
	아버지와 동거(c)	626	3.11	0.656		
	동거부모 없음(d)	493	3.04	0.603		
합계		19079	3.12	0.627		

〈부록 표 Ⅲ-3-18〉 배경변수별 교사의 태도에 대한 인식(특성화고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1553	3.14	0.592	11.342***	a〉c b〉c d〉c
	광역시(b)	3260	3.13	0.618		
	중소 도시(c)	5052	3.07	0.620		
	읍면(d)	2291	3.15	0.629		
합계		12156	3.11	0.618		
학년	1학년(a)	4254	3.15	0.618	11.321***	a〉b a〉c
	2학년(b)	3904	3.08	0.602		
	3학년(c)	3981	3.11	0.633		
합계		12139	3.11	0.618		
성별	남자(a)	6191	3.14	0.626	30.422***	a〉b
	여자(b)	5919	3.08	0.608		
합계		12110	3.11	0.618		
성적수준	하(a)	4561	3.01	0.604	127.233***	b〉a c〉a c〉b
	중(b)	3417	3.12	0.615		
	상(c)	4096	3.22	0.619		
합계		12074	3.11	0.619		
부학력	고졸이하(a)	7653	3.11	0.608	5.539*	b〉a
	2년제대졸이상(b)	3038	3.14	0.648		
합계		10691	3.11	0.620		
모학력	고졸이하(a)	8413	3.10	0.613	12.619***	b〉a
	2년제대졸이상(b)	2251	3.15	0.648		
합계		10664	3.11	0.621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884	3.13	0.620	2.231	
	201~400만원 이하(b)	4711	3.11	0.604		
	401~600만원 이하(c)	1580	3.12	0.666		
	601만원 이상(d)	618	3.06	0.693		
합계		10793	3.12	0.624		
부직업	있음(a)	10617	3.11	0.616	.000	
	없음(b)	901	3.11	0.659		
합계		11518	3.11	0.619		
모직업	있음(a)	8276	3.11	0.619	.805	
	없음(b)	3264	3.12	0.621		
합계		11540	3.11	0.62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756	3.12	0.616	3.272*	a〉b
	어머니와 동거(b)	1742	3.07	0.629		
	아버지와 동거(c)	962	3.11	0.607		
	동거부모 없음(d)	696	3.10	0.633		
합계		12156	3.11	0.618		

〈부록 표 Ⅲ-3-19〉 배경변수별 교우관계에 대한 인식(초등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1853	4.26	0.705	12.366***	a〉b, a〉c, a〉d, b〉d
	광역시(b)	2634	4.20	0.708		
	중소 도시(c)	4631	4.16	0.701		
	읍면(d)	561	4.09	0.730		
합계		9679	4.19	0.707		
성별	남자(a)	4942	4.20	0.717	2.608	
	여자(b)	4688	4.17	0.694		
합계		9630	4.19	0.706		
성적수준	하(a)	1303	3.90	0.805	197.663***	a〈b, a〈c, b〈c
	중(b)	4234	4.15	0.686		
	상(c)	3846	4.33	0.652		
합계		9383	4.19	0.705		
부학력	고졸이하(a)	2435	4.15	0.700	21.805***	a〈b
	2년제대졸이상(b)	4828	4.23	0.691		
합계		7263	4.20	0.695		
모학력	고졸이하(a)	2960	4.16	0.699	26.263***	a〈b
	2년제대졸이상(b)	4396	4.24	0.688		
합계		7356	4.21	0.694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1571	4.02	0.770	43.727***	a〈b, a〈c, a〈d, b〈d
	201~400만원 이하(b)	2980	4.20	0.694		
	401~600만원 이하(c)	1994	4.24	0.670		
	601만원 이상(d)	1219	4.30	0.667		
합계		7764	4.19	0.706		
부직업	있음(a)	9095	4.20	0.697	16.861***	a〉b
	없음(b)	256	4.01	0.875		
합계		9351	4.19	0.703		
모직업	있음(a)	6424	4.18	0.714	12.756***	a〈b
	없음(b)	2888	4.23	0.675		
합계		9312	4.19	0.703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471	4.20	0.693	12.676***	a〉b, a〉c, a〉d
	어머니와 동거(b)	685	4.10	0.776		
	아버지와 동거(c)	280	4.06	0.747		
	동거부모 없음(d)	243	4.02	0.848		
합계		9679	4.19	0.707		

〈부록 표 Ⅲ-3-20〉 배경변수별 교우관계에 대한 인식(중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363	4.08	0.712	14.631***	a〉c, a〉d, b〉c, b〉d
	광역시(b)	4953	4.06	0.691		
	중소 도시(c)	8530	4.01	0.702		
	읍면(d)	1861	3.98	0.727		
합계		18707	4.03	0.704		
학년	1학년(a)	6402	4.05	0.718	8.407***	a〉b, b〈c
	2학년(b)	6172	4.00	0.704		
	3학년(c)	6106	4.04	0.689		
합계		18680	4.03	0.704		
성별	남자(a)	9385	4.03	0.728	.001	
	여자(b)	9215	4.03	0.678		
합계		18600	4.03	0.704		
성적수준	하(a)	6985	3.92	0.738	167.433***	a〈b, a〈c, b〈c
	중(b)	4980	4.06	0.684		
	상(c)	6419	4.14	0.663		
합계		18384	4.03	0.704		
부학력	고졸이하(a)	6621	4.00	0.702	36.069***	a〈b
	2년제대졸이상(b)	9087	4.07	0.701		
합계		15708	4.04	0.702		
모학력	고졸이하(a)	7919	4.01	0.695	28.639***	a〈b
	2년제대졸이상(b)	7802	4.07	0.707		
합계		15721	4.04	0.702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104	3.89	0.750	65.027***	a〈b, a〈c, a〈d, b〈c, b〈d
	201~400만원 이하(b)	6447	4.04	0.684		
	401~600만원 이하(c)	3754	4.09	0.675		
	601만원 이상(d)	2399	4.13	0.729		
합계		15704	4.04	0.707		
부직업	있음(a)	17597	4.04	0.700	24.093***	a〉b
	없음(b)	589	3.90	0.764		
합계		18186	4.04	0.703		
모직업	있음(a)	12416	4.03	0.701	1.744	
	없음(b)	5670	4.05	0.703		
합계		18086	4.04	0.702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083	4.05	0.698	21.842***	a〉b, a〉c, a〉d
	어머니와 동거(b)	1398	3.95	0.719		
	아버지와 동거(c)	714	3.91	0.733		
	동거부모 없음(d)	512	3.90	0.756		
합계		18707	4.03	0.704		

〈부록 표 Ⅲ-3-21〉 배경변수별 교우관계에 대한 인식(일반고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295	4.06	0.656	7.146***	a〉d, b〉c, b〉d, c〉d
	광역시(b)	5260	4.07	0.641		
	중소 도시(c)	8855	4.04	0.653		
	읍면(d)	1672	3.99	0.665		
합계		19082	4.04	0.652		
학년	1학년(a)	6454	4.04	0.660	1.716	
	2학년(b)	6342	4.04	0.653		
	3학년(c)	6257	4.06	0.643		
합계		19053	4.04	0.652		
성별	남자(a)	10352	4.04	0.688	.729	
	여자(b)	8662	4.05	0.605		
합계		19014	4.05	0.652		
성적수준	하(a)	7241	3.97	0.677	104.385***	a〈b, a〈c, b〈c
	중(b)	6150	4.06	0.629		
	상(c)	5482	4.13	0.631		
합계		18873	4.04	0.652		
부학력	고졸이하(a)	8004	4.03	0.641	18.085***	a〈b
	2년제대졸이상(b)	9994	4.07	0.655		
합계		17998	4.05	0.649		
모학력	고졸이하(a)	10525	4.04	0.639	7.797**	a〈b
	2년제대졸이상(b)	7446	4.07	0.661		
합계		17971	4.05	0.648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2786	3.93	0.670	49.084***	a〈b, a〈c, a〈d, b〈c, b〈d
	201~400만원 이하(b)	7503	4.04	0.628		
	401~600만원 이하(c)	4348	4.10	0.653		
	601만원 이상(d)	2515	4.11	0.683		
합계		17152	4.05	0.652		
부직업	있음(a)	17940	4.05	0.648	8.478**	a〉b
	없음(b)	726	3.98	0.691		
합계		18666	4.05	0.650		
모직업	있음(a)	12765	4.05	0.649	1.760	
	없음(b)	5888	4.04	0.652		
합계		18653	4.05	0.65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394	4.05	0.649	10.253***	a〉c, a〉d
	어머니와 동거(b)	1570	4.01	0.650		
	아버지와 동거(c)	625	3.96	0.676		
	동거부모 없음(d)	493	3.94	0.699		
합계		19082	4.04	0.652		

〈부록 표 Ⅲ-3-22〉 배경변수별 교우관계에 대한 인식(특성화고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1554	3.94	0.647	8.755***	a〉c a〉d b〉d c〉d
	광역시(b)	3258	3.90	0.694		
	중소 도시(c)	5051	3.88	0.708		
	읍면(d)	2291	3.83	0.714		
합계		12154	3.88	0.699		
학년	1학년(a)	4253	3.87	0.696	4.358*	c〉b
	2학년(b)	3905	3.87	0.694		
	3학년(c)	3979	3.91	0.706		
합계		12137	3.88	0.699		
성별	남자(a)	6187	3.86	0.733	15.256***	b〉a
	여자(b)	5921	3.91	0.660		
합계		12108	3.88	0.699		
성적수준	하(a)	4560	3.81	0.718	50.507***	b〉a c〉a c〉b
	중(b)	3417	3.91	0.686		
	상(c)	4096	3.95	0.679		
합계		12073	3.88	0.699		
부학력	고졸이하(a)	7651	3.89	0.688	2.093	
	2년제대졸이상(b)	3039	3.91	0.713		
합계		10690	3.90	0.695		
모학력	고졸이하(a)	8411	3.89	0.685	2.724	
	2년제대졸이상(b)	2252	3.92	0.723		
합계		10663	3.90	0.694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884	3.83	0.705	16.896***	b〉a c〉a
	201~400만원 이하(b)	4710	3.91	0.673		
	401~600만원 이하(c)	1580	3.96	0.715		
	601만원 이상(d)	618	3.89	0.785		
합계		10792	3.89	0.699		
부직업	있음(a)	10617	3.89	0.697	4.426*	a〉b
	없음(b)	899	3.84	0.696		
합계		11516	3.89	0.697		
모직업	있음(a)	8275	3.89	0.694	.454	
	없음(b)	3263	3.88	0.703		
합계		11538	3.89	0.697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754	3.90	0.692	4.492**	a〉c
	어머니와 동거(b)	1742	3.85	0.694		
	아버지와 동거(c)	962	3.83	0.728		
	동거부모 없음(d)	696	3.86	0.751		
합계		12154	3.88	0.699		

〈부록 표 Ⅲ-3-23〉 배경변수별 학교풍토에 대한 인식(초등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1857	2.73	0.966	4.652**	a〈b, b〉c, b〉d
	광역시(b)	2642	2.81	0.880		
	중소 도시(c)	4619	2.76	0.887		
	읍면(d)	558	2.70	0.859		
합계		9676	2.76	0.900		
성별	남자(a)	4940	2.79	0.914	5.891*	a〉b
	여자(b)	4689	2.74	0.884		
합계		9629	2.76	0.900		
성적수준	하(a)	1311	2.82	0.878	2.949	
	중(b)	4230	2.76	0.861		
	상(c)	3846	2.75	0.951		
합계		9387	2.76	0.901		
부학력	고졸이하(a)	2433	2.74	0.892	2.774	
	2년제대졸이상(b)	4828	2.78	0.918		
합계		7261	2.77	0.910		
모학력	고졸이하(a)	2954	2.75	0.885	1.420	
	2년제대졸이상(b)	4401	2.78	0.928		
합계		7355	2.77	0.911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1572	2.76	0.880	3.733*	b〈d
	201~400만원 이하(b)	2976	2.74	0.884		
	401~600만원 이하(c)	1990	2.78	0.907		
	601만원 이상(d)	1225	2.84	0.974		
합계		7763	2.77	0.904		
부직업	있음(a)	9096	2.76	0.901	.372	
	없음(b)	259	2.80	0.877		
합계		9355	2.77	0.900		
모직업	있음(a)	6420	2.77	0.893	.202	
	없음(b)	2894	2.76	0.919		
합계		9314	2.76	0.901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477	2.76	0.897	1.458	
	어머니와 동거(b)	682	2.75	0.924		
	아버지와 동거(c)	279	2.77	0.928		
	동거부모 없음(d)	238	2.88	0.892		
합계		9676	2.76	0.900		

〈부록 표 Ⅲ-3-24〉 배경변수별 학교풍토에 대한 인식(중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356	3.18	0.856	41.085***	a〈c, a〉d, b〈c, b〉d, c〉d
	광역시(b)	4953	3.18	0.898		
	중소 도시(c)	8525	3.25	0.882		
	읍면(d)	1863	3.00	0.869		
합계		18697	3.20	0.883		
학년	1학년(a)	6399	2.98	0.857	326.395***	a〈b, a〈c, b〈c
	2학년(b)	6169	3.26	0.882		
	3학년(c)	6102	3.35	0.868		
합계		18670	3.20	0.884		
성별	남자(a)	9380	3.15	0.903	49.058***	a〈b
	여자(b)	9210	3.24	0.861		
합계		18590	3.19	0.884		
성적수준	하(a)	6980	3.19	0.882	.262	
	중(b)	4975	3.20	0.862		
	상(c)	6418	3.20	0.903		
합계		18373	3.20	0.884		
부학력	고졸이하(a)	6618	3.19	0.877	8.379**	a〈b
	2년제대졸이상(b)	9078	3.23	0.892		
합계		15696	3.22	0.886		
모학력	고졸이하(a)	7917	3.20	0.876	3.086	
	2년제대졸이상(b)	7792	3.23	0.892		
합계		15709	3.22	0.884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100	3.11	0.862	18.063***	a〈b, a〈c, a〈d, b〈d
	201~400만원 이하(b)	6443	3.20	0.885		
	401~600만원 이하(c)	3749	3.23	0.873		
	601만원 이상(d)	2403	3.28	0.948		
합계		15695	3.20	0.889		
부직업	있음(a)	17589	3.20	0.885	1.749	
	없음(b)	589	3.15	0.877		
합계		18178	3.20	0.885		
모직업	있음(a)	12406	3.20	0.888	1.175	
	없음(b)	5671	3.19	0.877		
합계		18077	3.20	0.884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080	3.20	0.883	1.178	
	어머니와 동거(b)	1392	3.21	0.879		
	아버지와 동거(c)	715	3.18	0.889		
	동거부모 없음(d)	510	3.13	0.885		
합계		18697	3.20	0.883		

〈부록 표 Ⅲ-3-25〉 배경변수별 학교풍토에 대한 인식(일반고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296	3.37	0.878	98.838***	a〈b, a〉d, b〉c, b〉d, c〉d
	광역시(b)	5260	3.51	0.854		
	중소 도시(c)	8852	3.41	0.857		
	읍면(d)	1672	3.10	0.865		
합계		19080	3.40	0.867		
학년	1학년(a)	6454	3.31	0.880	61.970***	a〈b, a〈c
	2학년(b)	6340	3.44	0.857		
	3학년(c)	6257	3.47	0.856		
합계		19051	3.40	0.867		
성별	남자(a)	10351	3.46	0.884	90.363***	a〉b
	여자(b)	8661	3.34	0.842		
합계		19012	3.40	0.867		
성적수준	하(a)	7246	3.41	0.879	1.925	
	중(b)	6148	3.39	0.848		
	상(c)	5477	3.41	0.873		
합계		18871	3.40	0.867		
부학력	고졸이하(a)	8002	3.37	0.856	35.519***	a〈b
	2년제대졸이상(b)	9993	3.45	0.876		
합계		17995	3.41	0.868		
모학력	고졸이하(a)	10521	3.39	0.859	23.902***	a〈b
	2년제대졸이상(b)	7447	3.45	0.881		
합계		17968	3.41	0.869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2788	3.30	0.863	28.496***	a〈b, a〈c, a〈d, b〈c, b〈d, c〈d
	201~400만원 이하(b)	7500	3.39	0.847		
	401~600만원 이하(c)	4344	3.45	0.879		
	601만원 이상(d)	2515	3.51	0.919		
합계		17147	3.41	0.871		
부직업	있음(a)	17940	3.41	0.867	4.428*	a〉b
	없음(b)	726	3.34	0.871		
합계		18666	3.41	0.867		
모직업	있음(a)	12768	3.42	0.872	4.070*	a〉b
	없음(b)	5884	3.39	0.860		
합계		18652	3.41	0.868		
부모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390	3.40	0.866	.588	
	어머니와 동거(b)	1573	3.42	0.873		
	아버지와 동거(c)	625	3.38	0.885		
	동거부모 없음(d)	492	3.37	0.881		
합계		19080	3.40	0.867		

〈부록 표 Ⅲ-3-26〉 배경변수별 학교풍토에 대한 인식(특성화고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1552	3.21	0.868	4.746**	c〉d
	광역시(b)	3257	3.22	0.881		
	중소 도시(c)	5048	3.25	0.859		
	읍면(d)	2288	3.17	0.858		
합계		12145	3.22	0.866		
학년	1학년(a)	4248	3.13	0.837	40.734***	b〉a c〉a
	2학년(b)	3901	3.27	0.871		
	3학년(c)	3979	3.28	0.884		
합계		12128	3.22	0.866		
성별	남자(a)	6184	3.15	0.877	83.333***	b〉a
	여자(b)	5915	3.30	0.846		
합계		12099	3.22	0.865		
성적수준	하(a)	4557	3.24	0.877	2.617	
	중(b)	3414	3.20	0.829		
	상(c)	4092	3.22	0.884		
합계		12063	3.22	0.866		
부학력	고졸이하(a)	7649	3.23	0.860	.377	
	2년제대졸이상(b)	3036	3.24	0.891		
합계		10685	3.23	0.869		
모학력	고졸이하(a)	8408	3.24	0.860	.221	
	2년제대졸이상(b)	2249	3.23	0.900		
합계		10657	3.24	0.868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884	3.22	0.856	2.212	
	201~400만원 이하(b)	4707	3.23	0.864		
	401~600만원 이하(c)	1576	3.21	0.882		
	601만원 이상(d)	618	3.31	0.944		
합계		10785	3.23	0.869		
부직업	있음(a)	10609	3.22	0.865	.430	
	없음(b)	900	3.24	0.884		
합계		11509	3.22	0.867		
모직업	있음(a)	8270	3.23	0.865	2.648	
	없음(b)	3260	3.20	0.869		
합계		11530	3.22	0.866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747	3.21	0.862	5.478**	b〉a
	어머니와 동거(b)	1742	3.30	0.880		
	아버지와 동거(c)	962	3.23	0.857		
	동거부모 없음(d)	694	3.22	0.890		
합계		12145	3.22	0.866		

〈부록 표 Ⅳ-1-1〉 배경변수별 부모와의 관계(초등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1852	3.90	0.789	6.650***	a〉c, a〉d, b〉d
	광역시(b)	2636	3.87	0.764		
	중소 도시(c)	4628	3.83	0.772		
	읍면(d)	560	3.75	0.771		
합계		9676	3.85	0.774		
성별	남자(a)	4942	3.79	0.774	68.977***	a〈b
	여자(b)	4685	3.92	0.769		
합계		9627	3.85	0.774		
성적수준	하(a)	1303	3.57	0.785	164.675***	a〈b, a〈c, b〈c
	중(b)	4231	3.81	0.751		
	상(c)	3847	4.00	0.764		
합계		9381	3.85	0.774		
부학력	고졸이하(a)	2434	3.79	0.776	53.886***	a〈b
	2년제대졸이상(b)	4828	3.93	0.772		
합계		7262	3.88	0.776		
모학력	고졸이하(a)	2960	3.80	0.775	53.795***	a〈b
	2년제대졸이상(b)	4395	3.93	0.769		
합계		7355	3.88	0.774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1570	3.69	0.794	35.462***	a〈b, a〈c, a〈d, b〈d
	201~400만원 이하(b)	2978	3.86	0.757		
	401~600만원 이하(c)	1993	3.91	0.770		
	601만원 이상(d)	1220	3.97	0.772		
합계		7761	3.86	0.775		
부직업	있음(a)	9093	3.86	0.771	12.965***	a〉b
	없음(b)	256	3.69	0.753		
합계		9349	3.86	0.771		
모직업	있음(a)	6419	3.83	0.770	23.473***	a〈b
	없음(b)	2890	3.92	0.771		
합계		9309	3.86	0.771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469	3.88	0.766	25.614***	a〉b, a〉c, b〉c, c〈d
	어머니와 동거(b)	684	3.72	0.763		
	아버지와 동거(c)	280	3.54	0.863		
	동거부모 없음(d)	243	3.74	0.826		
합계		9676	3.85	0.774		

〈부록 표 Ⅳ-1-2〉 배경변수별 부모와의 관계(중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361	3.56	0.781	9.084***	a〉d, b〉c, b〉d
	광역시(b)	4940	3.58	0.781		
	중소 도시(c)	8517	3.52	0.779		
	읍면(d)	1854	3.49	0.782		
합계		18672	3.54	0.781		
학년	1학년(a)	6384	3.64	0.786	81.801***	a〉b, a〉c, b〉c
	2학년(b)	6161	3.51	0.784		
	3학년(c)	6100	3.47	0.761		
합계		18645	3.54	0.781		
성별	남자(a)	9364	3.48	0.764	122.143***	a〈b
	여자(b)	9202	3.61	0.792		
합계		18566	3.54	0.780		
성적수준	하(a)	6970	3.39	0.778	271.600***	a〈b, a〈c, b〈c
	중(b)	4966	3.53	0.778		
	상(c)	6412	3.70	0.755		
합계		18348	3.54	0.781		
부학력	고졸이하(a)	6602	3.49	0.774	94.361***	a〈b
	2년제대졸이상(b)	9073	3.61	0.790		
합계		15675	3.56	0.785		
모학력	고졸이하(a)	7895	3.51	0.776	66.450***	a〈b
	2년제대졸이상(b)	7793	3.61	0.788		
합계		15688	3.56	0.783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092	3.42	0.793	43.781***	a〈b, a〈c, a〈d, b〈d, c〈d
	201~400만원 이하(b)	6435	3.55	0.769		
	401~600만원 이하(c)	3748	3.59	0.781		
	601만원 이상(d)	2395	3.65	0.823		
합계		15670	3.55	0.788		
부직업	있음(a)	17564	3.55	0.780	14.953***	a〉b
	없음(b)	585	3.42	0.810		
합계		18149	3.55	0.781		
모직업	있음(a)	12394	3.54	0.780	7.380**	a〈b
	없음(b)	5655	3.57	0.780		
합계		18049	3.55	0.78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055	3.57	0.775	80.319***	a〉b, a〉c, a〉d, b〉c, b〉d
	어머니와 동거(b)	1395	3.47	0.782		
	아버지와 동거(c)	711	3.20	0.783		
	동거부모 없음(d)	511	3.27	0.784		
합계		18672	3.54	0.781		

〈부록 표 Ⅳ-1-3〉 배경변수별 부모와의 관계(일반고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296	3.53	0.770	2.423	
	광역시(b)	5249	3.56	0.740		
	중소 도시(c)	8848	3.53	0.749		
	읍면(d)	1674	3.56	0.744		
합계		19067	3.54	0.750		
학년	1학년(a)	6448	3.52	0.763	14.718***	a〈c, b〈c
	2학년(b)	6339	3.53	0.753		
	3학년(c)	6251	3.58	0.731		
합계		19038	3.54	0.750		
성별	남자(a)	10347	3.45	0.730	329.686***	a〈b
	여자(b)	8653	3.65	0.760		
합계		19000	3.54	0.750		
성적수준	하(a)	7234	3.41	0.765	206.991***	a〈b, a〈c, b〈c
	중(b)	6147	3.57	0.721		
	상(c)	5476	3.68	0.735		
합계		18857	3.54	0.750		
부학력	고졸이하(a)	8000	3.50	0.732	74.944***	a〈b
	2년제대졸이상(b)	9984	3.60	0.761		
합계		17984	3.55	0.750		
모학력	고졸이하(a)	10518	3.52	0.735	47.491***	a〈b
	2년제대졸이상(b)	7438	3.60	0.768		
합계		17956	3.56	0.75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2789	3.42	0.765	39.388***	a〈b, a〈c, a〈d, b〈c, b〈d
	201~400만원 이하(b)	7494	3.54	0.728		
	401~600만원 이하(c)	4342	3.59	0.753		
	601만원 이상(d)	2512	3.63	0.781		
합계		17137	3.55	0.751		
부직업	있음(a)	17921	3.55	0.747	37.762***	a〉b
	없음(b)	729	3.38	0.776		
합계		18650	3.54	0.749		
모직업	있음(a)	12747	3.55	0.747	.042	
	없음(b)	5889	3.55	0.754		
합계		18636	3.55	0.749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376	3.57	0.742	77.705***	a〉b, a〉c, a〉d, b〉c, b〉d, c〈d
	어머니와 동거(b)	1575	3.46	0.769		
	아버지와 동거(c)	625	3.17	0.770		
	동거부모 없음(d)	491	3.34	0.765		
합계		19067	3.54	0.750		

〈부록 표 Ⅳ-1-4〉 배경변수별 부모와의 관계(특성화고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1559	3.44	0.756	3.211*	d〉b
	광역시(b)	3244	3.39	0.749		
	중소 도시(c)	5034	3.42	0.751		
	읍면(d)	2286	3.45	0.751		
합계		12123	3.42	0.751		
학년	1학년(a)	4238	3.39	0.760	26.631***	c〉a c〉b
	2학년(b)	3894	3.39	0.736		
	3학년(c)	3974	3.49	0.751		
합계		12106	3.42	0.751		
성별	남자(a)	6167	3.35	0.708	110.806***	b〉a
	여자(b)	5910	3.50	0.786		
합계		12077	3.42	0.751		
성적수준	하(a)	4554	3.33	0.751	64.113***	b〉a c〉a c〉b
	중(b)	3406	3.45	0.740		
	상(c)	4082	3.50	0.749		
합계		12042	3.42	0.751		
부학력	고졸이하(a)	7639	3.41	0.743	30.648***	b〉a
	2년제대졸이상(b)	3034	3.50	0.773		
합계		10673	3.44	0.753		
모학력	고졸이하(a)	8406	3.43	0.745	8.416**	b〉a
	2년제대졸이상(b)	2243	3.49	0.780		
합계		10649	3.44	0.753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877	3.36	0.776	22.877***	b〉a c〉a d〉a c〉b
	201~400만원 이하(b)	4710	3.45	0.721		
	401~600만원 이하(c)	1577	3.53	0.757		
	601만원 이상(d)	612	3.46	0.787		
합계		10776	3.43	0.752		
부직업	있음(a)	10596	3.44	0.747	18.753***	a〉b
	없음(b)	898	3.33	0.783		
합계		11494	3.43	0.751		
모직업	있음(a)	8268	3.44	0.743	.712	
	없음(b)	3251	3.43	0.770		
합계		11519	3.44	0.75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737	3.47	0.735	70.866***	a〉b a〉c a〉d b〉c b〉d
	어머니와 동거(b)	1743	3.41	0.756		
	아버지와 동거(c)	959	3.16	0.791		
	동거부모 없음(d)	684	3.21	0.776		
합계		12123	3.42	0.751		

〈부록 표 Ⅳ-1-5〉 배경변수별 부모의 교육지원(초등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1853	3.92	0.846	29.497***	a〉b, a〉c, a〉d, b〉c, b〉d
	광역시(b)	2638	3.82	0.835		
	중소 도시(c)	4629	3.73	0.831		
	읍면(d)	559	3.66	0.829		
합계		9679	3.79	0.839		
성별	남자(a)	4938	3.82	0.827	15.234***	a〉b
	여자(b)	4693	3.75	0.848		
합계		9631	3.79	0.838		
성적수준	하(a)	1305	3.42	0.863	262.465***	a〈b, a〈c, b〈c
	중(b)	4232	3.72	0.812		
	상(c)	3848	3.99	0.803		
합계		9385	3.79	0.838		
부학력	고졸이하(a)	2435	3.64	0.845	157.280***	a〈b
	2년제대졸이상(b)	4829	3.90	0.819		
합계		7264	3.81	0.837		
모학력	고졸이하(a)	2958	3.66	0.842	169.143***	a〈b
	2년제대졸이상(b)	4399	3.92	0.814		
합계		7357	3.81	0.834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1572	3.57	0.859	69.559***	a〈b, a〈c, a〈d, b〈c, b〈d, c〈d
	201~400만원 이하(b)	2974	3.78	0.821		
	401~600만원 이하(c)	1996	3.89	0.823		
	601만원 이상(d)	1223	3.99	0.825		
합계		7765	3.80	0.841		
부직업	있음(a)	9095	3.80	0.835	12.182***	a〉b
	없음(b)	257	3.61	0.910		
합계		9352	3.79	0.837		
모직업	있음(a)	6420	3.74	0.836	65.768***	a〈b
	없음(b)	2891	3.89	0.829		
합계		9311	3.79	0.837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474	3.81	0.832	35.759***	a〉b, a〉c, b〉c, c〈d
	어머니와 동거(b)	684	3.61	0.826		
	아버지와 동거(c)	280	3.38	0.896		
	동거부모 없음(d)	241	3.71	0.856		
합계		9679	3.79	0.839		

〈부록 표 Ⅳ-1-6〉 배경변수별 부모의 교육지원(중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363	3.47	0.830	39.692***	a〉c, a〉d, b〉c, b〉d, c〉d
	광역시(b)	4941	3.45	0.836		
	중소 도시(c)	8517	3.38	0.817		
	읍면(d)	1856	3.24	0.801		
합계		18677	3.40	0.825		
학년	1학년(a)	6385	3.57	0.834	239.271***	a〉b, a〉c, b〉c
	2학년(b)	6164	3.36	0.816		
	3학년(c)	6101	3.26	0.794		
합계		18650	3.40	0.825		
성별	남자(a)	9365	3.45	0.811	70.746***	a〉b
	여자(b)	9206	3.35	0.836		
합계		18571	3.40	0.825		
성적수준	하(a)	6973	3.21	0.809	378.368***	a〈b, a〈c, b〈c
	중(b)	4965	3.41	0.802		
	상(c)	6415	3.59	0.813		
합계		18353	3.40	0.825		
부학력	고졸이하(a)	6605	3.25	0.796	447.326***	a〈b
	2년제대졸이상(b)	9075	3.53	0.825		
합계		15680	3.41	0.825		
모학력	고졸이하(a)	7897	3.28	0.804	445.663***	a〈b
	2년제대졸이상(b)	7796	3.55	0.822		
합계		15693	3.42	0.824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092	3.17	0.814	156.629***	a〈b, a〈c, a〈d, b〈c, b〈d, c〈d
	201~400만원 이하(b)	6438	3.39	0.811		
	401~600만원 이하(c)	3749	3.48	0.813		
	601만원 이상(d)	2395	3.63	0.863		
합계		15674	3.40	0.832		
부직업	있음(a)	17567	3.41	0.822	47.909***	a〉b
	없음(b)	586	3.17	0.844		
합계		18153	3.41	0.824		
모직업	있음(a)	12397	3.37	0.818	84.736***	a〈b
	없음(b)	5658	3.49	0.829		
합계		18055	3.41	0.824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058	3.44	0.815	130.159***	a〉b, a〉c, a〉d, b〉c
	어머니와 동거(b)	1396	3.19	0.825		
	아버지와 동거(c)	712	2.98	0.825		
	동거부모 없음(d)	511	3.11	0.848		
합계		18677	3.40	0.825		

〈부록 표 Ⅳ-1-7〉 배경변수별 부모의 교육지원(일반고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298	3.27	0.800	17.506***	a〉c, a〉d, b〉c, b〉d, c〉d
	광역시(b)	5249	3.29	0.750		
	중소 도시(c)	8847	3.22	0.774		
	읍면(d)	1674	3.15	0.790		
합계		19068	3.24	0.774		
학년	1학년(a)	6450	3.29	0.771	16.402***	a〉b, a〉c
	2학년(b)	6338	3.22	0.776		
	3학년(c)	6251	3.22	0.774		
합계		19039	3.24	0.774		
성별	남자(a)	10349	3.26	0.758	8.681**	a〉b
	여자(b)	8652	3.22	0.793		
합계		19001	3.24	0.774		
성적수준	하(a)	7234	3.09	0.766	274.333***	a〈b, a〈c, b〈c
	중(b)	6148	3.26	0.738		
	상(c)	5477	3.41	0.787		
합계		18859	3.24	0.774		
부학력	고졸이하(a)	8002	3.09	0.748	611.677***	a〈b
	2년제대졸이상(b)	9984	3.37	0.771		
합계		17986	3.25	0.774		
모학력	고졸이하(a)	10517	3.14	0.751	544.050***	a〈b
	2년제대졸이상(b)	7440	3.41	0.778		
합계		17957	3.25	0.774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2789	2.98	0.765	218.405***	a〈b, a〈c, a〈d, b〈c, b〈d, c〈d
	201~400만원 이하(b)	7495	3.20	0.751		
	401~600만원 이하(c)	4341	3.36	0.747		
	601만원 이상(d)	2513	3.46	0.814		
합계		17138	3.24	0.776		
부직업	있음(a)	17922	3.26	0.770	78.815***	a〉b
	없음(b)	729	3.00	0.810		
합계		18651	3.25	0.773		
모직업	있음(a)	12748	3.22	0.768	60.265***	a〈b
	없음(b)	5889	3.31	0.779		
합계		18637	3.25	0.773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377	3.29	0.762	163.531***	a〉b, a〉c, a〉d, b〉c, b〉d, c〈d
	어머니와 동거(b)	1575	3.05	0.774		
	아버지와 동거(c)	625	2.77	0.764		
	동거부모 없음(d)	491	2.92	0.835		
합계		19068	3.24	0.774		

〈부록 표 Ⅳ-1-8〉 배경변수별 부모의 교육지원(특성화고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1559	3.00	0.740	5.309**	d〉a d〉b
	광역시(b)	3242	3.03	0.786		
	중소 도시(c)	5033	3.05	0.771		
	읍면(d)	2287	3.09	0.781		
합계		12121	3.04	0.773		
학년	1학년(a)	4236	3.05	0.770	5.567**	c〉b
	2학년(b)	3897	3.01	0.761		
	3학년(c)	3971	3.07	0.788		
합계		12104	3.04	0.773		
성별	남자(a)	6164	3.11	0.754	81.932***	a〉b
	여자(b)	5911	2.98	0.786		
합계		12075	3.04	0.773		
성적수준	하(a)	4554	2.96	0.757	50.597***	b〉a c〉a c〉b
	중(b)	3405	3.07	0.761		
	상(c)	4081	3.12	0.790		
합계		12040	3.04	0.773		
부학력	고졸이하(a)	7640	2.99	0.756	166.728***	b〉a
	2년제대졸이상(b)	3034	3.20	0.799		
합계		10674	3.05	0.775		
모학력	고졸이하(a)	8404	3.01	0.755	123.301***	b〉a
	2년제대졸이상(b)	2245	3.21	0.811		
합계		10649	3.06	0.772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877	2.92	0.771	84.428***	b〉a c〉a d〉a c〉b d〉b
	201~400만원 이하(b)	4708	3.05	0.740		
	401~600만원 이하(c)	1577	3.24	0.781		
	601만원 이상(d)	613	3.25	0.876		
합계		10775	3.04	0.774		
부직업	있음(a)	10596	3.06	0.773	25.735***	a〉b
	없음(b)	897	2.93	0.784		
합계		11493	3.05	0.774		
모직업	있음(a)	8266	3.05	0.771	.577	
	없음(b)	3252	3.06	0.774		
합계		11518	3.05	0.771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739	3.11	0.757	101.246***	a〉b a〉c a〉d b〉c d〉c
	어머니와 동거(b)	1742	2.94	0.749		
	아버지와 동거(c)	958	2.72	0.809		
	동거부모 없음(d)	682	2.89	0.829		
합계		12121	3.04	0.773		

〈부록 표 Ⅳ-2-1〉 배경변수별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초등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1849	2.09	0.855	3.496*	b〈d
	광역시(b)	2635	2.03	0.785		
	중소 도시(c)	4620	2.07	0.785		
	읍면(d)	555	2.13	0.786		
합계		9659	2.06	0.799		
성별	남자(a)	4928	2.12	0.794	45.470***	a〉b
	여자(b)	4683	2.01	0.802		
합계		9611	2.06	0.800		
성적수준	하(a)	1300	2.24	0.837	53.465***	a〉b, a〉c, b〉c
	중(b)	4224	2.08	0.779		
	상(c)	3841	1.98	0.794		
합계		9365	2.06	0.798		
부학력	고졸이하(a)	2429	2.09	0.801	7.163**	a〉b
	2년제대졸이상(b)	4821	2.04	0.806		
합계		7250	2.05	0.805		
모학력	고졸이하(a)	2952	2.08	0.808	7.686**	a〉b
	2년제대졸이상(b)	4391	2.03	0.800		
합계		7343	2.05	0.803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1569	2.10	0.791	2.189	
	201~400만원 이하(b)	2970	2.04	0.796		
	401~600만원 이하(c)	1990	2.08	0.798		
	601만원 이상(d)	1221	2.04	0.830		
합계		7750	2.06	0.801		
부직업	있음(a)	9077	2.06	0.799	4.155*	a〈b
	없음(b)	256	2.16	0.806		
합계		9333	2.06	0.800		
모직업	있음(a)	6404	2.09	0.803	21.272***	a〉b
	없음(b)	2888	2.00	0.790		
합계		9292	2.06	0.8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457	2.05	0.792	8.200***	a〈b, a〈d
	어머니와 동거(b)	682	2.16	0.832		
	아버지와 동거(c)	279	2.13	0.820		
	동거부모 없음(d)	241	2.22	0.899		
합계		9659	2.06	0.799		

〈부록 표 Ⅳ-2-2〉 배경변수별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중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352	2.54	0.841	3.178*	
	광역시(b)	4930	2.50	0.844		
	중소 도시(c)	8504	2.52	0.838		
	읍면(d)	1850	2.48	0.811		
합계		18636	2.51	0.838		
학년	1학년(a)	6377	2.38	0.846	136.695***	a〈b, a〈c, b〈c
	2학년(b)	6148	2.53	0.815		
	3학년(c)	6084	2.63	0.834		
합계		18609	2.51	0.838		
성별	남자(a)	9346	2.48	0.795	21.381***	a〈b
	여자(b)	9185	2.54	0.879		
합계		18531	2.51	0.838		
성적수준	하(a)	6949	2.57	0.841	30.420***	a〉b, a〉c, b〉c
	중(b)	4957	2.50	0.830		
	상(c)	6407	2.46	0.836		
합계		18313	2.51	0.838		
부학력	고졸이하(a)	6589	2.51	0.817	1.375	
	2년제대졸이상(b)	9063	2.53	0.856		
합계		15652	2.52	0.840		
모학력	고졸이하(a)	7880	2.52	0.816	.453	
	2년제대졸이상(b)	7783	2.53	0.861		
합계		15663	2.52	0.839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086	2.48	0.828	2.863*	a〈b
	201~400만원 이하(b)	6427	2.53	0.825		
	401~600만원 이하(c)	3743	2.52	0.838		
	601만원 이상(d)	2391	2.52	0.891		
합계		15647	2.52	0.839		
부직업	있음(a)	17535	2.51	0.838	3.310	
	없음(b)	584	2.45	0.862		
합계		18119	2.51	0.839		
모직업	있음(a)	12370	2.53	0.835	15.640***	a〉b
	없음(b)	5650	2.48	0.841		
합계		18020	2.51	0.837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027	2.51	0.838	1.310	
	어머니와 동거(b)	1390	2.55	0.837		
	아버지와 동거(c)	711	2.52	0.826		
	동거부모 없음(d)	508	2.55	0.851		
합계		18636	2.51	0.838		

〈부록 표 Ⅳ-2-3〉 배경변수별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일반고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282	2.66	0.819	9.625***	a〉d, b〉d, c〉d
	광역시(b)	5236	2.66	0.797		
	중소 도시(c)	8814	2.65	0.802		
	읍면(d)	1665	2.55	0.781		
합계		18997	2.65	0.802		
학년	1학년(a)	6429	2.69	0.815	27.967***	a〉b, a〉c, b〉c
	2학년(b)	6315	2.66	0.790		
	3학년(c)	6224	2.59	0.797		
합계		18968	2.65	0.802		
성별	남자(a)	10301	2.64	0.788	5.059*	a〈b
	여자(b)	8629	2.66	0.818		
합계		18930	2.65	0.802		
성적수준	하(a)	7193	2.71	0.800	46.475***	a〉b, a〉c, b〉c
	중(b)	6131	2.64	0.787		
	상(c)	5464	2.57	0.814		
합계		18788	2.65	0.802		
부학력	고졸이하(a)	7973	2.62	0.782	13.483***	a〈b
	2년제대졸이상(b)	9950	2.67	0.817		
합계		17923	2.65	0.802		
모학력	고졸이하(a)	10478	2.63	0.789	7.711**	a〈b
	2년제대졸이상(b)	7415	2.67	0.819		
합계		17893	2.65	0.802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2775	2.59	0.797	7.269***	a〈b, a〈c, a〈d
	201~400만원 이하(b)	7470	2.65	0.786		
	401~600만원 이하(c)	4328	2.66	0.797		
	601만원 이상(d)	2504	2.68	0.869		
합계		17077	2.65	0.804		
부직업	있음(a)	17855	2.65	0.802	3.104	
	없음(b)	728	2.60	0.804		
합계		18583	2.65	0.803		
모직업	있음(a)	12690	2.65	0.800	.042	
	없음(b)	5877	2.65	0.809		
합계		18567	2.65	0.803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322	2.66	0.803	4.646	
	어머니와 동거(b)	1570	2.61	0.786		
	아버지와 동거(c)	620	2.59	0.800		
	동거부모 없음(d)	485	2.56	0.812		
합계		18997	2.65	0.802		

〈부록 표 Ⅳ-2-4〉 배경변수별 정보통신기기 사용 정도(특성화고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1539	2.58	0.789	1.967	
	광역시(b)	3228	2.54	0.792		
	중소 도시(c)	4986	2.58	0.798		
	읍면(d)	2267	2.56	0.791		
합계		12020	2.57	0.794		
학년	1학년(a)	4207	2.62	0.802	22.370***	a>b a>c b>c
	2학년(b)	3865	2.56	0.781		
	3학년(c)	3931	2.51	0.793		
합계		12003	2.57	0.794		
성별	남자(a)	6097	2.58	0.775	3.562	
	여자(b)	5878	2.55	0.811		
합계		11975	2.57	0.793		
성적수준	하(a)	4506	2.60	0.798	7.971***	a>b a>c
	중(b)	3374	2.55	0.779		
	상(c)	4060	2.54	0.798		
합계		11940	2.57	0.793		
부학력	고졸이하(a)	7566	2.56	0.784	12.034**	b>a
	2년제대졸이상(b)	3008	2.62	0.814		
합계		10574	2.58	0.793		
모학력	고졸이하(a)	8322	2.56	0.789	13.048***	b>a
	2년제대졸이상(b)	2229	2.63	0.821		
합계		10551	2.57	0.796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839	2.53	0.795	4.807**	b>a
	201~400만원 이하(b)	4659	2.59	0.786		
	401~600만원 이하(c)	1563	2.59	0.788		
	601만원 이상(d)	612	2.62	0.870		
합계		10673	2.57	0.795		
부직업	있음(a)	10495	2.57	0.793	.048	
	없음(b)	889	2.57	0.810		
합계		11384	2.57	0.794		
모직업	있음(a)	8198	2.57	0.790	1.088	
	없음(b)	3215	2.58	0.804		
합계		11413	2.57	0.794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658	2.58	0.797	3.296*	
	어머니와 동거(b)	1729	2.55	0.782		
	아버지와 동거(c)	952	2.52	0.781		
	동거부모 없음(d)	681	2.51	0.793		
합계		12020	2.57	0.794		

〈부록 표 Ⅳ-2-5〉 배경변수별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경험(중학생)

구 분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경험		전체	χ^2
		있음	없음		
		사례수(비율)	사례수(비율)		
지역 규모	특별시	181(5.4)	3141(94.6)	3322(100)	46.817***
	광역시	168(3.4)	4734(96.6)	4902(100)	
	중소 도시	339(4.0)	8112(96.0)	8451(100)	
	읍면	124(6.7)	1716(93.3)	1840(100)	
전체		812(4.4)	17703(95.6)	18515(100)	
학년	1학년	99(1.6)	6226(98.4)	6325(100)	271.432***
	2학년	250(4.1)	5866(95.9)	6116(100)	
	3학년	460(7.6)	5588(92.4)	6048(100)	
전체		809(4.4)	17680(95.6)	18489(100)	
성별	남자	393(4.3)	8852(95.7)	9245(100)	.391
	여자	407(4.4)	8762(95.6)	9169(100)	
전체		800(4.3)	17614(95.7)	18414(100)	
성적 수준	하	443(6.4)	6437(93.6)	6880(100)	120.543***
	중	191(3.9)	4741(96.1)	4932(100)	
	상	166(2.6)	6219(97.4)	6385(100)	
전체		800(4.4)	17397(95.6)	18197(100)	
부학력	고졸 이하	348(5.3)	6206(94.7)	6554(100)	25.554***
	2년대졸 이상	328(3.6)	8689(96.4)	9017(100)	
전체		676(4.3)	14895(95.7)	15571(100)	
모학력	고졸 이하	404(5.1)	7443(94.9)	7847(100)	25.957***
	2년대졸 이상	270(3.5)	7470(96.5)	7740(100)	
전체		674(4.3)	14913(95.7)	15587(1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50(4.9)	2923((95.1)	3073(100)	3.202
	201~400만원 이하	271(4.2)	6130(95.8)	6401(100)	
	401~600만원 이하	180(4.9)	3526(95.1)	3706(100)	
	601만원 이상	104(4.4)	2267(95.6)	2371(100)	
전체		705(4.5)	14846(95.5)	15551(100)	
부직업	있음	739(4.2)	16683(95.8)	17422(100)	5.262*
	없음	36(6.2)	544(93.8)	580(100)	
전체		775(4.3)	17227(95.7)	18002(100)	
모직업	있음	590(4.8)	11705(95.2)	12295(100)	16.499***
	없음	194(3.5)	5414(96.5)	5608(100)	
전체		784(4.4)	17119(95.6)	17903(1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619(3.9)	15304(96.1)	15923(100)	67.557***
	어머니와 동거	105(7.6)	1283(92.4)	1388(100)	
	아버지와 동거	50(7.1)	652(92.9)	702(100)	
	동거부모 없음	38(7.6)	464(92.4)	502(100)	
전체		812(4.4)	17703(95.6)	18515(100)	

〈부록 표 Ⅳ-2-6〉 배경변수별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경험(일반고학생)

구 분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경험		전체	χ^2
		있음	없음		
		사례수(비율)	사례수(비율)		
지역 규모	특별시	539(16.4)	2747(83.6)	3286(100)	181.917***
	광역시	494(9.4)	4738(90.6)	5232(100)	
	중소 도시	1303(14.8)	7510(85.2)	8813(100)	
	읍면	354(21.3)	1308(78.7)	1662(100)	
전체		2690(14.2)	16303(85.8)	18993(100)	
학년	1학년	718(11.2)	5701(88.8)	6419(100)	70.339***
	2학년	992(15.7)	5328(84.3)	6320(100)	
	3학년	974(15.6)	5251(84.4)	6225(100)	
전체		2684(14.2)	16280(85.8)	18964(100)	
성별	남자	1479(14.4)	8819(85.6)	10298(100)	.968
	여자	1196(13.9)	7432(86.1)	8628(100)	
전체		2675(14.1)	16251(85.9)	18926(100)	
성적 수준	하	1563(21.7)	5632(78.3)	7195(100)	561.700***
	중	674(11.0)	5452(89.0)	6126(100)	
	상	433(7.9)	5030(92.1)	5463(100)	
전체		2670(14.2)	16114(85.8)	18784(100)	
부학력	고졸 이하	1370(17.2)	6593(82.8)	7963(100)	137.238***
	2년대졸 이상	1108(11.1)	8851(88.9)	9959(100)	
전체		2478(13.8)	15444(86.2)	17922(100)	
모학력	고졸 이하	1667(15.9)	8806(84.1)	10473(100)	92.631***
	2년대졸 이상	807(10.9)	6613(89.1)	7420(100)	
전체		2474(13.8)	15419(86.2)	17893(1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565(20.3)	2216(79.7)	2781(100)	114.247***
	201~400만원 이하	1035(13.9)	6428(86.1)	7463(100)	
	401~600만원 이하	495(11.4)	3831(88.6)	4326(100)	
	601만원 이상	335(13.4)	2170(86.6)	2505(100)	
전체		2430(14.2)	14645(85.8)	17075(100)	
부직업	있음	2458(13.8)	15395(86.2)	17853(100)	21.319***
	없음	144(19.8)	582(80.2)	726(100)	
전체		2602(14.0)	15977(86.0)	18579(100)	
모직업	있음	1916(15.1)	10790(84.9)	12706(100)	35.248***
	없음	693(11.8)	5169(88.2)	5862(100)	
전체		2609(14.1)	15959(85.9)	18568(1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2055(12.6)	14256(87.4)	16311(100)	253.138***
	어머니와 동거	336(21.4)	1234(78.6)	1570(100)	
	아버지와 동거	179(28.9)	441(71.1)	620(100)	
	동거부모 없음	120(24.4)	372(75.6)	492(100)	
전체		2690(14.2)	16303(85.8)	18993(100)	

〈부록 표 Ⅳ-2-7〉 배경변수별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경험(특성화고학생)

구 분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경험		전체	x^2
		있음	없음		
		사례수(비율)	사례수(비율)		
지역 규모	특별시	696(44.8)	856(55.2)	1552(100)	32.195***
	광역시	1177(36.4)	2055(63.6)	3232(100)	
	중소 도시	1915(38.3)	3086(61.7)	5001(100)	
	읍면	883(39.0)	1382(61.0)	2265(100)	
전체		4671(38.8)	7379(61.2)	12050(100)	
학년	1학년	1126(26.7)	3095(73.3)	4221(100)	406.615**
	2학년	1696(43.9)	2168(56.1)	3864(100)	
	3학년	1843(46.7)	2106(53.3)	3949(100)	
전체		4665(38.8)	7369(61.2)	12034(100)	
성별	남자	2350(38.4)	3765(61.6)	6115(100)	.676
	여자	2307(39.2)	3584(60.8)	5891(100)	
전체		4657(38.8)	7349(61.2)	12006(100)	
성적 수준	하	2019(44.7)	2497(55.3)	4516(100)	132.305***
	중	1307(38.5)	2087(61.5)	3394(100)	
	상	1324(32.6)	2738(67.4)	4062(100)	
전체		4650(38.8)	7322(61.2)	11972(100)	
부학력	고졸 이하	3121(41.1)	4477(58.9)	7598(100)	37.227***
	2년대졸 이상	1044(34.7)	1968(65.3)	3012(100)	
전체		4165(39.3)	6445(60.7)	10610(100)	
모학력	고졸 이하	3415(40.8)	4945(59.2)	8360(100)	41.777***
	2년대졸 이상	741(33.3)	1483(66.7)	2224(100)	
전체		4156(39.3)%	6428(60.7)	10584(1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632(42.4)	2221(57.6)	3853(100)	28.553***
	201~400만원 이하	1799(38.4)	2885(61.6)	4684(100)	
	401~600만원 이하	553(35.2)	1017(64.8)	1570(100)	
	601만원 이상	226(37.4)	379(62.6)	605(100)	
전체		4210(39.3)	6502(60.7)	10712(100)	
부직업	있음	4036(38.3)	6497(61.7)	10533(100)	10.395**
	없음	389(43.8)	499(56.2)	888(100)	
전체		4425(38.7)	6996(61.3)	11421(100)	
모직업	있음	3252(39.6)	4965(60.4)	8217(100)	4.672*
	없음	1208(37.4)	2023(62.6)	3231(100)	
전체		4460(39.0)	6988(61.0)	11448(1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3119(35.9)	5564(64.1)	8683(100)	110.227***
	어머니와 동거	818(47.3)	912(52.7)	1730(100)	
	아버지와 동거	443(46.4)	512(53.6)	955(100)	
	동거부모 없음	291(42.7)	391(57.3)	682(100)	
전체		4671(38.8)	7379(61.2)	12050(100)	

〈부록 표 Ⅳ-2-8〉 배경변수별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기간(중학생)

구 분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기간			전체	χ^2
			1~3개월	4~12개월	13~24개월		
지역 규모	특별시	사례수	144	16	3	163	12.568
		비율	88.3%	9.8%	1.8%	100.0%	
	광역시	사례수	118	25	5	148	
		비율	79.7%	16.9%	3.4%	100.0%	
	중소 도시	사례수	273	29	14	316	
		비율	86.4%	9.2%	4.4%	100.0%	
	읍면	사례수	86	18	7	111	
		비율	77.5%	16.2%	6.3%	100.0%	
전체		사례수	621	88	29	738	
		비율	84.1%	11.9%	3.9%	100.0%	
학년	1학년	사례수	65	17	9	91	15.696**
		비율	71.4%	18.7%	9.9%	100.0%	
	2학년	사례수	196	22	7	225	
		비율	87.1%	9.8%	3.1%	100.0%	
	3학년	사례수	357	49	13	419	
		비율	85.2%	11.7%	3.1%	100.0%	
전체		사례수	618	88	29	735	
		비율	84.1%	12.0%	3.9%	100.0%	
성별	남자	사례수	291	44	21	356	6.806*
		비율	81.7%	12.4%	5.9%	100.0%	
	여자	사례수	319	44	8	371	
		비율	86.0%	11.9%	2.2%	100.0%	
전체		사례수	610	88	29	727	
		비율	83.9%	12.1%	4.0%	100.0%	
성적 수준	하	사례수	335	47	11	393	3.206
		비율	85.2%	12.0%	2.8%	100.0%	
	중	사례수	149	19	10	178	
		비율	83.7%	10.7%	5.6%	100.0%	
	상	사례수	128	20	7	155	
		비율	82.6%	12.9%	4.5%	100.0%	
전체		사례수	612	86	28	726	
		비율	84.3%	11.8%	3.9%	100.0%	
부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271	34	12	317	1.024
		비율	85.5%	10.7%	3.8%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248	40	11	299	
		비율	82.9%	13.4%	3.7%	100.0%	
전체		사례수	519	74	23	616	
		비율	84.3%	12.0%	3.7%	100.0%	

구 분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기간			전체	x^2
			1~3개월	4~12개월	13~24개월		
모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312	38	15	365	1.708
		비율	85.5%	10.4%	4.1%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208	34	8	250	
		비율	83.2%	13.6%	3.2%	100.0%	
전체		사례수	520	72	23	615	
		비율	84.6%	11.7%	3.7%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사례수	112	14	7	133	7.892
		비율	84.2%	10.5%	5.3%	100.0%	
	201~400 만원이하	사례수	214	32	4	250	
		비율	85.6%	12.8%	1.6%	100.0%	
	401~600 만원이하	사례수	135	21	10	166	
		비율	81.3%	12.7%	6.0%	100.0%	
	601만원 이상	사례수	83	9	6	98	
		비율	84.7%	9.2%	6.1%	100.0%	
전체		사례수	544	76	27	647	
		비율	84.1%	11.7%	4.2%	100.0%	
부직업	있음	사례수	567	83	26	676	2.853
		비율	83.9%	12.3%	3.8%	100.0%	
	없음	사례수	23	4	3	30	
		비율	76.7%	13.3%	10.0%	100.0%	
전체		사례수	590	87	29	706	
		비율	83.6%	12.3%	4.1%	100.0%	
모직업	있음	사례수	449	65	23	537	.517
		비율	83.6%	12.1%	4.3%	100.0%	
	없음	사례수	151	19	6	176	
		비율	85.8%	10.8%	3.4%	100.0%	
전체		사례수	600	84	29	713	
		비율	84.2%	11.8%	4.1%	10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사례수	472	67	23	562	3.028
		비율	84.0%	11.9%	4.1%	100.0%	
	어머니와 동거	사례수	85	9	2	96	
		비율	88.5%	9.4%	2.1%	100.0%	
	아버지와 동거	사례수	37	6	2	45	
		비율	82.2%	13.3%	4.4%	100.0%	
	동거부모 없음	사례수	27	6	2	35	
		비율	77.1%	17.1%	5.7%	100.0%	
전체		사례수	621	88	29	738	
		비율	84.1%	11.9%	3.9%	100.0%	

〈부록 표 Ⅳ-2-9〉 배경변수별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기간(일반고학생)

구 분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기간			전체	χ^2
			1~3개월	4~12개월	13~24개월		
지역 규모	특별시	사례수	362	119	22	503	26.456***
		비율	72.0%	23.7%	4.4%	100.0%	
	광역시	사례수	352	91	16	459	
		비율	76.7%	19.8%	3.5%	100.0%	
	중소 도시	사례수	954	194	53	1201	
		비율	79.4%	16.2%	4.4%	100.0%	
	읍면	사례수	222	68	26	316	
		비율	70.3%	21.5%	8.2%	100.0%	
전체		사례수	1890	472	117	2479	
		비율	76.2%	19.0%	4.7%	100.0%	
학년	1학년	사례수	541	91	21	653	36.299***
		비율	82.8%	13.9%	3.2%	100.0%	
	2학년	사례수	714	172	37	923	
		비율	77.4%	18.6%	4.0%	100.0%	
	3학년	사례수	630	209	59	898	
		비율	70.2%	23.3%	6.6%	100.0%	
전체		사례수	1885	472	117	2474	
		비율	76.2%	19.1%	4.7%	100.0%	
성별	남자	사례수	1046	260	66	1372	.255
		비율	76.2%	19.0%	4.8%	100.0%	
	여자	사례수	835	210	48	1093	
		비율	76.4%	19.2%	4.4%	100.0%	
전체		사례수	1881	470	114	2465	
		비율	76.3%	19.1%	4.6%	100.0%	
성적 수준	하	사례수	1062	308	73	1443	12.998*
		비율	73.6%	21.3%	5.1%	100.0%	
	중	사례수	494	104	24	622	
		비율	79.4%	16.7%	3.9%	100.0%	
	상	사례수	316	60	18	394	
		비율	80.2%	15.2%	4.6%	100.0%	
전체		사례수	1872	472	115	2459	
		비율	76.1%	19.2%	4.7%	100.0%	
부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937	257	69	1263	6.017*
		비율	74.2%	20.3%	5.5%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807	182	41	1030	
		비율	78.3%	17.7%	4.0%	100.0%	
전체		사례수	1744	439	110	2293	
		비율	76.1%	19.1%	4.8%	100.0%	

구 분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기간			전체	χ^2
			1~3개월	4~12개월	13~24개월		
모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1174	295	69	1538	.181
		비율	76.3%	19.2%	4.5%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574	140	36	750	
		비율	76.5%	18.7%	4.8%	100.0%	
전체		사례수	1748	435	105	2288	
		비율	76.4%	19.0%	4.6%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사례수	373	115	33	521	17.821**
		비율	71.6%	22.1%	6.3%	100.0%	
	201~400 만원이하	사례수	745	188	31	964	
		비율	77.3%	19.5%	3.2%	100.0%	
	401~600 만원이하	사례수	356	81	22	459	
		비율	77.6%	17.6%	4.8%	100.0%	
	601만원 이상	사례수	237	48	22	307	
		비율	77.2%	15.6%	7.2%	100.0%	
전체		사례수	1711	432	108	2251	
		비율	76.0%	19.2%	4.8%	100.0%	
부직업	있음	사례수	1728	436	104	2268	2.622
		비율	76.2%	19.2%	4.6%	100.0%	
	없음	사례수	96	24	10	130	
		비율	73.8%	18.5%	7.7%	100.0%	
전체		사례수	1824	460	114	2398	
		비율	76.1%	19.2%	4.8%	100.0%	
모직업	있음	사례수	1348	340	84	1772	.346
		비율	76.1%	19.2%	4.7%	100.0%	
	없음	사례수	488	116	28	632	
		비율	77.2%	18.4%	4.4%	100.0%	
전체		사례수	1836	456	112	2404	
		비율	76.4%	19.0%	4.7%	10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사례수	1464	339	83	1886	19.616**
		비율	77.6%	18.0%	4.4%	100.0%	
	어머니와 동거	사례수	243	59	14	316	
		비율	76.9%	18.7%	4.4%	100.0%	
	아버지와 동거	사례수	111	46	10	167	
		비율	66.5%	27.5%	6.0%	100.0%	
	동거부모 없음	사례수	72	28	10	110	
		비율	65.5%	25.5%	9.1%	100.0%	
전체		사례수	1890	472	117	2479	
		비율	76.2%	19.0%	4.7%	100.0%	

〈부록 표 Ⅳ-2-10〉 배경변수별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기간(특성화고학생)

구 분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기간			전체	χ^2
			1~3개월	4~12개월	13~24개월		
지역 규모	특별시	사례수	358	215	77	650	39.235***
		비율	55.1%	33.1%	11.8%	100.0%	
	광역시	사례수	710	322	97	1129	
		비율	62.9%	28.5%	8.6%	100.0%	
	중소 도시	사례수	1157	494	149	1800	
		비율	64.3%	27.4%	8.3%	100.0%	
	읍면	사례수	564	171	75	810	
		비율	69.6%	21.1%	9.3%	100.0%	
전체		사례수	2789	1202	398	4389	
		비율	63.5%	27.4%	9.1%	100.0%	
학년	1학년	사례수	836	174	43	1053	219.362***
		비율	79.4%	16.5%	4.1%	100.0%	
	2학년	사례수	1046	429	127	1602	
		비율	65.3%	26.8%	7.9%	100.0%	
	3학년	사례수	902	598	228	1728	
		비율	52.2%	34.6%	13.2%	100.0%	
전체		사례수	2784	1201	398	4383	
		비율	63.5%	27.4%	9.1%	100.0%	
성별	남자	사례수	1416	584	208	2208	2.604
		비율	64.1%	26.4%	9.4%	100.0%	
	여자	사례수	1368	611	188	2167	
		비율	63.1%	28.2%	8.7%	100.0%	
전체		사례수	2784	1195	396	4375	
		비율	63.6%	27.3%	9.1%	100.0%	
성적 수준	하	사례수	1171	539	193	1903	12.551*
		비율	61.5%	28.3%	10.1%	100.0%	
	중	사례수	768	342	112	1222	
		비율	62.8%	28.0%	9.2%	100.0%	
	상	사례수	837	318	92	1247	
		비율	67.1%	25.5%	7.4%	100.0%	
전체		사례수	2776	1199	397	4372	
		비율	63.5%	27.4%	9.1%	100.0%	
부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1857	810	273	2940	1.613
		비율	63.2%	27.6%	9.3%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644	257	84	985	
		비율	65.4%	26.1%	8.5%	100.0%	
전체		사례수	2501	1067	357	3925	
		비율	63.7%	27.2%	9.1%	100.0%	

구 분			최근 2년 간 아르바이트 기간			전체	χ^2
			1~3개월	4~12개월	13~24개월		
모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2044	885	302	3231	3.407
		비율	63.3%	27.4%	9.3%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454	186	50	690	
		비율	65.8%	27.0%	7.2%	100.0%	
전체		사례수	2498	1071	352	3921	
		비율	63.7%	27.3%	9.0%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사례수	913	463	160	1536	17.153**
		비율	59.4%	30.1%	10.4%	100.0%	
	201~400 만원이하	사례수	1120	445	143	1708	
		비율	65.6%	26.1%	8.4%	100.0%	
	401~600 만원이하	사례수	344	132	39	515	
		비율	66.8%	25.6%	7.6%	100.0%	
	601만원 이상	사례수	129	59	20	208	
		비율	62.0%	28.4%	9.6%	100.0%	
전체		사례수	2506	1099	362	3967	
		비율	63.2%	27.7%	9.1%	100.0%	
부직업	있음	사례수	2431	1017	344	3792	2.848
		비율	64.1%	26.8%	9.1%	100.0%	
	없음	사례수	216	110	36	362	
		비율	59.7%	30.4%	9.9%	100.0%	
전체		사례수	2647	1127	380	4154	
		비율	63.7%	27.1%	9.1%	100.0%	
모직업	있음	사례수	1958	822	284	3064	.576
		비율	63.9%	26.8%	9.3%	100.0%	
	없음	사례수	714	314	99	1127	
		비율	63.4%	27.9%	8.8%	100.0%	
전체		사례수	2672	1136	383	4191	
		비율	63.8%	27.1%	9.1%	10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사례수	1897	769	253	2919	11.539
		비율	65.0%	26.3%	8.7%	100.0%	
	어머니와 동거	사례수	479	233	67	779	
		비율	61.5%	29.9%	8.6%	100.0%	
	아버지와 동거	사례수	253	123	45	421	
		비율	60.1%	29.2%	10.7%	100.0%	
	동거부모 없음	사례수	160	77	33	270	
		비율	59.3%	28.5%	12.2%	100.0%	
전체		사례수	2789	1202	398	4389	
		비율	63.5%	27.4%	9.1%	100.0%	

〈부록 표 Ⅳ-2-11〉 배경변수별 PC방 출입 정도(초등학생)

구 분			PC방 출입					전체	χ^2
			가본적 없음	거의 가지 않음	가끔 감	자주 가는 편임	매우 자주 감		
지역 규모	특별시	사례수	871	534	288	91	61	1845	66.410***
		비율	47.2%	28.9%	15.6%	4.9%	3.3%	100.0%	
	광역시	사례수	1047	854	522	157	62	2642	
		비율	39.6%	32.3%	19.8%	5.9%	2.3%	100.0%	
	중소 도시	사례수	1894	1427	850	328	112	4611	
		비율	41.1%	30.9%	18.4%	7.1%	2.4%	100.0%	
	읍면	사례수	183	190	131	37	15	556	
		비율	32.9%	34.2%	23.6%	6.7%	2.7%	100.0%	
전체		사례수	3995	3005	1791	613	250	9654	
		비율	41.4%	31.1%	18.6%	6.3%	2.6%	100.0%	
성별	남자	사례수	1117	1641	1394	544	227	4923	1907.775***
		비율	22.7%	33.3%	28.3%	11.1%	4.6%	100.0%	
	여자	사례수	2859	1351	389	64	19	4682	
		비율	61.1%	28.9%	8.3%	1.4%	.4%	100.0%	
전체		사례수	3976	2992	1783	608	246	9605	
		비율	41.4%	31.2%	18.6%	6.3%	2.6%	100.0%	
성적 수준	하	사례수	361	422	319	132	64	1298	252.092***
		비율	27.8%	32.5%	24.6%	10.2%	4.9%	100.0%	
	중	사례수	1638	1372	833	271	112	4226	
		비율	38.8%	32.5%	19.7%	6.4%	2.7%	100.0%	
	상	사례수	1869	1127	584	187	70	3837	
		비율	48.7%	29.4%	15.2%	4.9%	1.8%	100.0%	
전체		사례수	3868	2921	1736	590	246	9361	
		비율	41.3%	31.2%	18.5%	6.3%	2.6%	100.0%	
부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838	808	516	186	78	2426	117.393***
		비율	34.5%	33.3%	21.3%	7.7%	3.2%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2268	1432	770	251	96	4817	
		비율	47.1%	29.7%	16.0%	5.2%	2.0%	100.0%	
전체		사례수	3106	2240	1286	437	174	7243	
		비율	42.9%	30.9%	17.8%	6.0%	2.4%	100.0%	
모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1086	974	604	208	77	2949	78.481***
		비율	36.8%	33.0%	20.5%	7.1%	2.6%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2059	1297	698	237	99	4390	
		비율	46.9%	29.5%	15.9%	5.4%	2.3%	100.0%	
전체		사례수	3145	2271	1302	445	176	7339	
		비율	42.9%	30.9%	17.7%	6.1%	2.4%	100.0%	

구 분			PC방 출입					전체	χ^2
			가본적 없음	거의 가지 않음	가끔 감	자주 가는 편임	매우 자주 감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사례수	587	516	324	93	44	1564	39.077***
		비율	37.5%	33.0%	20.7%	5.9%	2.8%	100.0%	
	201~400 만원이하	사례수	1185	917	569	219	80	2970	
		비율	39.9%	30.9%	19.2%	7.4%	2.7%	100.0%	
	401~600 만원이하	사례수	844	617	356	124	47	1988	
		비율	42.5%	31.0%	17.9%	6.2%	2.4%	100.0%	
	601만원 이상	사례수	569	362	179	73	33	1216	
		비율	46.8%	29.8%	14.7%	6.0%	2.7%	100.0%	
전체		사례수	3185	2412	1428	509	204	7738	
		비율	41.2%	31.2%	18.5%	6.6%	2.6%	100.0%	
부직업	있음	사례수	3806	2818	1659	568	220	9071	19.558**
		비율	42.0%	31.1%	18.3%	6.3%	2.4%	100.0%	
	없음	사례수	80	82	62	20	13	257	
		비율	31.1%	31.9%	24.1%	7.8%	5.1%	100.0%	
전체		사례수	3886	2900	1721	588	233	9328	
		비율	41.7%	31.1%	18.4%	6.3%	2.5%	100.0%	
모직업	있음	사례수	2427	2056	1290	451	182	6406	130.339***
		비율	37.9%	32.1%	20.1%	7.0%	2.8%	100.0%	
	없음	사례수	1436	828	424	138	54	2880	
		비율	49.9%	28.8%	14.7%	4.8%	1.9%	100.0%	
전체		사례수	3863	2884	1714	589	236	9286	
		비율	41.6%	31.1%	18.5%	6.3%	2.5%	10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사례수	3665	2588	1520	502	184	8459	158.523***
		비율	43.3%	30.6%	18.0%	5.9%	2.2%	100.0%	
	어머니와 동거	사례수	207	230	141	64	34	676	
		비율	30.6%	34.0%	20.9%	9.5%	5.0%	100.0%	
	아버지와 동거	사례수	64	94	77	29	16	280	
		비율	22.9%	33.6%	27.5%	10.4%	5.7%	100.0%	
	동거부모 없음	사례수	59	93	53	18	16	239	
		비율	24.7%	38.9%	22.2%	7.5%	6.7%	100.0%	
전체		사례수	3995	3005	1791	613	250	9654	
		비율	41.4%	31.1%	18.6%	6.3%	2.6%	100.0%	

〈부록 표 Ⅳ-2-12〉 배경변수별 노래방 출입 정도(초등학생)

구 분			노래방 출입					전체	χ^2
			가본적 없음	거의 가지 않음	가끔 감	자주 가는 편임	매우 자주 감		
지역 규모	특별시	사례수	494	743	462	103	39	1841	24.804*
		비율	26.8%	40.4%	25.1%	5.6%	2.1%	100.0%	
	광역시	사례수	699	1042	706	159	33	2639	
		비율	26.5%	39.5%	26.8%	6.0%	1.3%	100.0%	
	중소 도시	사례수	1144	1773	1338	262	72	4589	
		비율	24.9%	38.6%	29.2%	5.7%	1.6%	100.0%	
	읍면	사례수	128	245	139	37	9	558	
		비율	22.9%	43.9%	24.9%	6.6%	1.6%	100.0%	
전체		사례수	2465	3803	2645	561	153	9627	
		비율	25.6%	39.5%	27.5%	5.8%	1.6%	100.0%	
성별	남자	사례수	1656	2121	943	131	40	4891	754.773***
		비율	33.9%	43.4%	19.3%	2.7%	.8%	100.0%	
	여자	사례수	795	1666	1687	428	111	4687	
		비율	17.0%	35.5%	36.0%	9.1%	2.4%	100.0%	
전체		사례수	2451	3787	2630	559	151	9578	
		비율	25.6%	39.5%	27.5%	5.8%	1.6%	100.0%	
성적 수준	하	사례수	310	516	350	84	29	1289	32.288***
		비율	24.0%	40.0%	27.2%	6.5%	2.2%	100.0%	
	중	사례수	1005	1660	1232	259	58	4214	
		비율	23.8%	39.4%	29.2%	6.1%	1.4%	100.0%	
	상	사례수	1070	1517	983	203	60	3833	
		비율	27.9%	39.6%	25.6%	5.3%	1.6%	100.0%	
전체		사례수	2385	3693	2565	546	147	9336	
		비율	25.5%	39.6%	27.5%	5.8%	1.6%	100.0%	
부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560	938	712	159	46	2415	13.253*
		비율	23.2%	38.8%	29.5%	6.6%	1.9%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1285	1857	1316	277	76	4811	
		비율	26.7%	38.6%	27.4%	5.8%	1.6%	100.0%	
전체		사례수	1845	2795	2028	436	122	7226	
		비율	25.5%	38.7%	28.1%	6.0%	1.7%	100.0%	
모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685	1131	881	195	50	2942	21.269***
		비율	23.3%	38.4%	29.9%	6.6%	1.7%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1194	1708	1165	246	68	4381	
		비율	27.3%	39.0%	26.6%	5.6%	1.6%	100.0%	
전체		사례수	1879	2839	2046	441	118	7323	
		비율	25.7%	38.8%	27.9%	6.0%	1.6%	100.0%	

구 분			노래방 출입					전체	χ^2
			가본적 없음	거의 가지 않음	가끔 감	자주 가는 편임	매우 자주 감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사례수	412	604	439	81	22	1558	5.993
		비율	26.4%	38.8%	28.2%	5.2%	1.4%	100.0%	
	201~400 만원이하	사례수	749	1154	837	176	44	2960	
		비율	25.3%	39.0%	28.3%	5.9%	1.5%	100.0%	
	401~600 만원이하	사례수	500	768	556	123	37	1984	
		비율	25.2%	38.7%	28.0%	6.2%	1.9%	100.0%	
	601만원 이상	사례수	314	478	321	79	22	1214	
		비율	25.9%	39.4%	26.4%	6.5%	1.8%	100.0%	
전체		사례수	1975	3004	2153	459	125	7716	
		비율	25.6%	38.9%	27.9%	5.9%	1.6%	100.0%	
부직업	있음	사례수	2308	3559	2507	529	145	9048	1.133
		비율	25.5%	39.3%	27.7%	5.8%	1.6%	100.0%	
	없음	사례수	63	108	65	14	4	254	
		비율	24.8%	42.5%	25.6%	5.5%	1.6%	100.0%	
전체		사례수	2371	3667	2572	543	149	9302	
		비율	25.5%	39.4%	27.6%	5.8%	1.6%	100.0%	
모직업	있음	사례수	1536	2525	1840	376	109	6386	28.358***
		비율	24.1%	39.5%	28.8%	5.9%	1.7%	100.0%	
	없음	사례수	825	1128	722	162	39	2876	
		비율	28.7%	39.2%	25.1%	5.6%	1.4%	100.0%	
전체		사례수	2361	3653	2562	538	148	9262	
		비율	25.5%	39.4%	27.7%	5.8%	1.6%	10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사례수	2158	3349	2318	474	135	8434	17.592
		비율	25.6%	39.7%	27.5%	5.6%	1.6%	100.0%	
	어머니와 동거	사례수	169	279	169	49	10	676	
		비율	25.0%	41.3%	25.0%	7.2%	1.5%	100.0%	
	아버지와 동거	사례수	78	90	82	24	6	280	
		비율	27.9%	32.1%	29.3%	8.6%	2.1%	100.0%	
	동거부모 없음	사례수	60	85	76	14	2	237	
		비율	25.3%	35.9%	32.1%	5.9%	.8%	100.0%	
전체		사례수	2465	3803	2645	561	153	9627	
		비율	25.6%	39.5%	27.5%	5.8%	1.6%	100.0%	

〈부록 표 Ⅳ-2-13〉 배경변수별 PC방 출입 정도(중학생)

구 분			PC방 출입					전체	χ^2
			가본적 없음	거의 가지 않음	가끔 감	자주 가는 편임	매우 자주 감		
지역 규모	특별시	사례수	755	1067	911	436	171	3340	102.672***
		비율	22.6%	31.9%	27.3%	13.1%	5.1%	100.0%	
	광역시	사례수	969	1664	1442	612	244	4931	
		비율	19.7%	33.7%	29.2%	12.4%	4.9%	100.0%	
	중소 도시	사례수	1545	2672	2503	1276	475	8471	
		비율	18.2%	31.5%	29.5%	15.1%	5.6%	100.0%	
	읍면	사례수	304	698	573	182	82	1839	
		비율	16.5%	38.0%	31.2%	9.9%	4.5%	100.0%	
전체		사례수	3573	6101	5429	2506	972	18581	
		비율	19.2%	32.8%	29.2%	13.5%	5.2%	100.0%	
학년	1학년	사례수	1683	1993	1737	692	248	6353	410.934***
		비율	26.5%	31.4%	27.3%	10.9%	3.9%	100.0%	
	2학년	사례수	1093	1995	1835	853	350	6126	
		비율	17.8%	32.6%	30.0%	13.9%	5.7%	100.0%	
	3학년	사례수	794	2102	1851	957	371	6075	
		비율	13.1%	34.6%	30.5%	15.8%	6.1%	100.0%	
전체		사례수	3570	6090	5423	2502	969	18554	
		비율	19.2%	32.8%	29.2%	13.5%	5.2%	100.0%	
성별	남자	사례수	628	1990	3579	2214	896	9307	4989.077***
		비율	6.7%	21.4%	38.5%	23.8%	9.6%	100.0%	
	여자	사례수	2931	4068	1822	278	68	9167	
		비율	32.0%	44.4%	19.9%	3.0%	.7%	100.0%	
전체		사례수	3559	6058	5401	2492	964	18474	
		비율	19.3%	32.8%	29.2%	13.5%	5.2%	100.0%	
성적 수준	하	사례수	907	2211	2255	1054	495	6922	477.357***
		비율	13.1%	31.9%	32.6%	15.2%	7.2%	100.0%	
	중	사례수	915	1628	1457	727	216	4943	
		비율	18.5%	32.9%	29.5%	14.7%	4.4%	100.0%	
	상	사례수	1660	2148	1647	694	246	6395	
		비율	26.0%	33.6%	25.8%	10.9%	3.8%	100.0%	
전체		사례수	3482	5987	5359	2475	957	18260	
		비율	19.1%	32.8%	29.3%	13.6%	5.2%	100.0%	
부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932	2237	2056	987	366	6578	245.938***
		비율	14.2%	34.0%	31.3%	15.0%	5.6%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2173	2925	2416	1096	427	9037	
		비율	24.0%	32.4%	26.7%	12.1%	4.7%	100.0%	
전체		사례수	3105	5162	4472	2083	793	15615	
		비율	19.9%	33.1%	28.6%	13.3%	5.1%	100.0%	

구 분			PC방 출입					전체	χ^2
			가본적 없음	거의 가지 않음	가끔 감	자주 가는 편임	매우 자주 감		
모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1219	2725	2368	1139	418	7869	206.396***
		비율	15.5%	34.6%	30.1%	14.5%	5.3%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1907	2474	2091	924	362	7758	
		비율	24.6%	31.9%	27.0%	11.9%	4.7%	100.0%	
전체		사례수	3126	5199	4459	2063	780	15627	
		비율	20.0%	33.3%	28.5%	13.2%	5.0%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사례수	527	1115	929	360	149	3080	59.982***
		비율	17.1%	36.2%	30.2%	11.7%	4.8%	100.0%	
	201~400 만원이하	사례수	1149	2130	1887	915	334	6415	
		비율	17.9%	33.2%	29.4%	14.3%	5.2%	100.0%	
	401~600 만원이하	사례수	735	1126	1100	546	219	3726	
		비율	19.7%	30.2%	29.5%	14.7%	5.9%	100.0%	
	601만원 이상	사례수	499	721	690	327	153	2390	
		비율	20.9%	30.2%	28.9%	13.7%	6.4%	100.0%	
전체		사례수	2910	5092	4606	2148	855	15611	
		비율	18.6%	32.6%	29.5%	13.8%	5.5%	100.0%	
부직업	있음	사례수	3400	5745	5093	2348	899	17485	8.274
		비율	19.4%	32.9%	29.1%	13.4%	5.1%	100.0%	
	없음	사례수	91	190	179	87	39	586	
		비율	15.5%	32.4%	30.5%	14.8%	6.7%	100.0%	
전체		사례수	3491	5935	5272	2435	938	18071	
		비율	19.3%	32.8%	29.2%	13.5%	5.2%	100.0%	
모직업	있음	사례수	2146	4107	3671	1734	671	12329	100.568***
		비율	17.4%	33.3%	29.8%	14.1%	5.4%	100.0%	
	없음	사례수	1328	1818	1552	689	252	5639	
		비율	23.6%	32.2%	27.5%	12.2%	4.5%	100.0%	
전체		사례수	3474	5925	5223	2423	923	17968	
		비율	19.3%	33.0%	29.1%	13.5%	5.1%	10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사례수	3241	5296	4587	2079	776	15979	169.294***
		비율	20.3%	33.1%	28.7%	13.0%	4.9%	100.0%	
	어머니와 동거	사례수	209	464	420	203	92	1388	
		비율	15.1%	33.4%	30.3%	14.6%	6.6%	100.0%	
	아버지와 동거	사례수	54	195	255	139	66	709	
		비율	7.6%	27.5%	36.0%	19.6%	9.3%	100.0%	
	동거부모 없음	사례수	69	146	167	85	38	505	
		비율	13.7%	28.9%	33.1%	16.8%	7.5%	100.0%	
전체		사례수	3573	6101	5429	2506	972	18581	
		비율	19.2%	32.8%	29.2%	13.5%	5.2%	100.0%	

〈부록 표 Ⅳ-2-14〉 배경변수별 노래방 출입 정도(중학생)

구 분			노래방 출입					전체	χ^2
			가본적 없음	거의 가지 않음	가끔 감	자주 가는 편임	매우 자주 감		
지역 규모	특별시	사례수	372	991	1285	520	168	3336	53.247***
		비율	11.2%	29.7%	38.5%	15.6%	5.0%	100.0%	
	광역시	사례수	528	1447	1868	830	257	4930	
		비율	10.7%	29.4%	37.9%	16.8%	5.2%	100.0%	
	중소 도시	사례수	957	2601	3202	1342	355	8457	
		비율	11.3%	30.8%	37.9%	15.9%	4.2%	100.0%	
	읍면	사례수	228	652	670	220	72	1842	
		비율	12.4%	35.4%	36.4%	11.9%	3.9%	100.0%	
전체		사례수	2085	5691	7025	2912	852	18565	
		비율	11.2%	30.7%	37.8%	15.7%	4.6%	100.0%	
학년	1학년	사례수	911	2232	2238	746	220	6347	330.661***
		비율	14.4%	35.2%	35.3%	11.8%	3.5%	100.0%	
	2학년	사례수	677	1790	2332	1005	317	6121	
		비율	11.1%	29.2%	38.1%	16.4%	5.2%	100.0%	
	3학년	사례수	495	1659	2445	1158	313	6070	
		비율	8.2%	27.3%	40.3%	19.1%	5.2%	100.0%	
전체		사례수	2083	5681	7015	2909	850	18538	
		비율	11.2%	30.6%	37.8%	15.7%	4.6%	100.0%	
성별	남자	사례수	1738	3931	2593	723	295	9280	3082.627***
		비율	18.7%	42.4%	27.9%	7.8%	3.2%	100.0%	
	여자	사례수	331	1728	4395	2173	552	9179	
		비율	3.6%	18.8%	47.9%	23.7%	6.0%	100.0%	
전체		사례수	2069	5659	6988	2896	847	18459	
		비율	11.2%	30.7%	37.9%	15.7%	4.6%	100.0%	
성적 수준	하	사례수	768	1921	2621	1194	409	6913	137.076***
		비율	11.1%	27.8%	37.9%	17.3%	5.9%	100.0%	
	중	사례수	527	1483	1900	821	210	4941	
		비율	10.7%	30.0%	38.5%	16.6%	4.3%	100.0%	
	상	사례수	743	2204	2377	847	220	6391	
		비율	11.6%	34.5%	37.2%	13.3%	3.4%	100.0%	
전체		사례수	2038	5608	6898	2862	839	18245	
		비율	11.2%	30.7%	37.8%	15.7%	4.6%	100.0%	
부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688	1953	2516	1071	347	6575	15.596**
		비율	10.5%	29.7%	38.3%	16.3%	5.3%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1021	2754	3475	1413	371	9034	
		비율	11.3%	30.5%	38.5%	15.6%	4.1%	100.0%	
전체		사례수	1709	4707	5991	2484	718	15609	
		비율	10.9%	30.2%	38.4%	15.9%	4.6%	100.0%	

구 분			노래방 출입					전체	χ^2
			가본적 없음	거의 가지 않음	가끔 감	자주 가는 편임	매우 자주 감		
모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779	2283	3048	1352	402	7864	42.298***
		비율	9.9%	29.0%	38.8%	17.2%	5.1%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916	2431	2938	1152	320	7757	
		비율	11.8%	31.3%	37.9%	14.9%	4.1%	100.0%	
전체		사례수	1695	4714	5986	2504	722	15621	
		비율	10.9%	30.2%	38.3%	16.0%	4.6%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사례수	378	947	1136	461	153	3075	30.217**
		비율	12.3%	30.8%	36.9%	15.0%	5.0%	100.0%	
	201~400 만원이하	사례수	736	1973	2440	993	270	6412	
		비율	11.5%	30.8%	38.1%	15.5%	4.2%	100.0%	
	401~600 만원이하	사례수	367	1100	1463	621	173	3724	
		비율	9.9%	29.5%	39.3%	16.7%	4.6%	100.0%	
	601만원 이상	사례수	283	764	848	363	131	2389	
		비율	11.8%	32.0%	35.5%	15.2%	5.5%	100.0%	
전체		사례수	1764	4784	5887	2438	727	15600	
		비율	11.3%	30.7%	37.7%	15.6%	4.7%	100.0%	
부직업	있음	사례수	1942	5353	6653	2729	794	17471	8.039
		비율	11.1%	30.6%	38.1%	15.6%	4.5%	100.0%	
	없음	사례수	78	192	197	86	33	586	
		비율	13.3%	32.8%	33.6%	14.7%	5.6%	100.0%	
전체		사례수	2020	5545	6850	2815	827	18057	
		비율	11.2%	30.7%	37.9%	15.6%	4.6%	100.0%	
모직업	있음	사례수	1308	3706	4672	2030	600	12316	36.345***
		비율	10.6%	30.1%	37.9%	16.5%	4.9%	100.0%	
	없음	사례수	693	1799	2133	791	221	5637	
		비율	12.3%	31.9%	37.8%	14.0%	3.9%	100.0%	
전체		사례수	2001	5505	6805	2821	821	17953	
		비율	11.1%	30.7%	37.9%	15.7%	4.6%	10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사례수	1775	4926	6088	2473	704	15966	25.557*
		비율	11.1%	30.9%	38.1%	15.5%	4.4%	100.0%	
	어머니와 동거	사례수	155	404	502	243	80	1384	
		비율	11.2%	29.2%	36.3%	17.6%	5.8%	100.0%	
	아버지와 동거	사례수	84	223	247	122	34	710	
		비율	11.8%	31.4%	34.8%	17.2%	4.8%	100.0%	
	동거부모 없음	사례수	71	138	188	74	34	505	
		비율	14.1%	27.3%	37.2%	14.7%	6.7%	100.0%	
전체		사례수	2085	5691	7025	2912	852	18565	
		비율	11.2%	30.7%	37.8%	15.7%	4.6%	100.0%	

〈부록 표 Ⅳ-2-15〉 배경변수별 PC방 출입 정도(일반고학생)

구 분			PC방 출입					전체	×2
			가본적 없음	거의 가지 않음	가끔 감	자주 가는 편임	매우 자주 감		
지역 규모	특별시	사례수	348	1323	976	484	155	3286	114.728***
		비율	10.6%	40.3%	29.7%	14.7%	4.7%	100.0%	
	광역시	사례수	501	2238	1540	742	219	5240	
		비율	9.6%	42.7%	29.4%	14.2%	4.2%	100.0%	
	중소 도시	사례수	758	3588	2674	1301	501	8822	
		비율	8.6%	40.7%	30.3%	14.7%	5.7%	100.0%	
	읍면	사례수	193	820	448	146	56	1663	
		비율	11.6%	49.3%	26.9%	8.8%	3.4%	100.0%	
전체		사례수	1800	7969	5638	2673	931	19011	
		비율	9.5%	41.9%	29.7%	14.1%	4.9%	100.0%	
학년	1학년	사례수	612	2380	2047	1026	368	6433	185.806***
		비율	9.5%	37.0%	31.8%	15.9%	5.7%	100.0%	
	2학년	사례수	541	2648	1863	943	321	6316	
		비율	8.6%	41.9%	29.5%	14.9%	5.1%	100.0%	
	3학년	사례수	643	2936	1714	700	240	6233	
		비율	10.3%	47.1%	27.5%	11.2%	3.9%	100.0%	
전체		사례수	1796	7964	5624	2669	929	18982	
		비율	9.5%	42.0%	29.6%	14.1%	4.9%	100.0%	
성별	남자	사례수	275	2414	4240	2490	889	10308	6228.816***
		비율	2.7%	23.4%	41.1%	24.2%	8.6%	100.0%	
	여자	사례수	1523	5521	1374	178	39	8635	
		비율	17.6%	63.9%	15.9%	2.1%	.5%	100.0%	
전체		사례수	1798	7935	5614	2668	928	18943	
		비율	9.5%	41.9%	29.6%	14.1%	4.9%	100.0%	
성적 수준	하	사례수	496	2866	2204	1178	461	7205	212.072***
		비율	6.9%	39.8%	30.6%	16.3%	6.4%	100.0%	
	중	사례수	608	2643	1819	835	229	6134	
		비율	9.9%	43.1%	29.7%	13.6%	3.7%	100.0%	
	상	사례수	663	2364	1558	646	232	5463	
		비율	12.1%	43.3%	28.5%	11.8%	4.2%	100.0%	
전체		사례수	1767	7873	5581	2659	922	18802	
		비율	9.4%	41.9%	29.7%	14.1%	4.9%	100.0%	
부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628	3458	2400	1112	381	7979	48.213***
		비율	7.9%	43.3%	30.1%	13.9%	4.8%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1083	4110	2889	1402	470	9954	
		비율	10.9%	41.3%	29.0%	14.1%	4.7%	100.0%	
전체		사례수	1711	7568	5289	2514	851	17933	
		비율	9.5%	42.2%	29.5%	14.0%	4.7%	100.0%	

구 분			PC방 출입					전체	x2
			가본적 없음	거의 가지 않음	가끔 감	자주 가는 편임	매우 자주 감		
모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855	4600	3108	1442	487	10492	67.833***
		비율	8.1%	43.8%	29.6%	13.7%	4.6%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858	3000	2130	1064	363	7415	
		비율	11.6%	40.5%	28.7%	14.3%	4.9%	100.0%	
전체		사례수	1713	7600	5238	2506	850	17907	
		비율	9.6%	42.4%	29.3%	14.0%	4.7%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사례수	241	1281	795	348	121	2786	69.165***
		비율	8.7%	46.0%	28.5%	12.5%	4.3%	100.0%	
	201~400 만원이하	사례수	666	3180	2240	1056	323	7465	
		비율	8.9%	42.6%	30.0%	14.1%	4.3%	100.0%	
	401~600 만원이하	사례수	435	1711	1295	667	228	4336	
		비율	10.0%	39.5%	29.9%	15.4%	5.3%	100.0%	
	601만원 이상	사례수	262	971	741	361	169	2504	
		비율	10.5%	38.8%	29.6%	14.4%	6.7%	100.0%	
전체		사례수	1604	7143	5071	2432	841	17091	
		비율	9.4%	41.8%	29.7%	14.2%	4.9%	100.0%	
부직업	있음	사례수	1717	7486	5307	2503	858	17871	8.731
		비율	9.6%	41.9%	29.7%	14.0%	4.8%	100.0%	
	없음	사례수	51	296	221	113	44	725	
		비율	7.0%	40.8%	30.5%	15.6%	6.1%	100.0%	
전체		사례수	1768	7782	5528	2616	902	18596	
		비율	9.5%	41.8%	29.7%	14.1%	4.9%	100.0%	
모직업	있음	사례수	1118	5349	3803	1815	645	12730	25.938***
		비율	8.8%	42.0%	29.9%	14.3%	5.1%	100.0%	
	없음	사례수	643	2457	1702	792	261	5855	
		비율	11.0%	42.0%	29.1%	13.5%	4.5%	100.0%	
전체		사례수	1761	7806	5505	2607	906	18585	
		비율	9.5%	42.0%	29.6%	14.0%	4.9%	10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사례수	1604	6859	4853	2227	784	16327	51.294***
		비율	9.8%	42.0%	29.7%	13.6%	4.8%	100.0%	
	어머니와 동거	사례수	132	680	439	242	79	1572	
		비율	8.4%	43.3%	27.9%	15.4%	5.0%	100.0%	
	아버지와 동거	사례수	30	244	189	120	40	623	
		비율	4.8%	39.2%	30.3%	19.3%	6.4%	100.0%	
	동거부모 없음	사례수	34	186	157	84	28	489	
		비율	7.0%	38.0%	32.1%	17.2%	5.7%	100.0%	
전체		사례수	1800	7969	5638	2673	931	19011	
		비율	9.5%	41.9%	29.7%	14.1%	4.9%	100.0%	

〈부록 표 Ⅳ-2-16〉 배경변수별 노래방 출입 정도(일반고학생)

구 분			노래방 출입					전체	×2
			가본적 없음	거의 가지 않음	가끔 감	자주 가는 편임	매우 자주 감		
지역 규모	특별시	사례수	171	922	1501	568	123	3285	49.489***
		비율	5.2%	28.1%	45.7%	17.3%	3.7%	100.0%	
	광역시	사례수	220	1378	2420	988	233	5239	
		비율	4.2%	26.3%	46.2%	18.9%	4.4%	100.0%	
	중소 도시	사례수	419	2206	4119	1673	405	8822	
		비율	4.7%	25.0%	46.7%	19.0%	4.6%	100.0%	
	읍면	사례수	77	472	818	260	40	1667	
		비율	4.6%	28.3%	49.1%	15.6%	2.4%	100.0%	
전체		사례수	887	4978	8858	3489	801	19013	
		비율	4.7%	26.2%	46.6%	18.4%	4.2%	100.0%	
학년	1학년	사례수	338	1524	2843	1370	358	6433	222.905***
		비율	5.3%	23.7%	44.2%	21.3%	5.6%	100.0%	
	2학년	사례수	257	1576	2995	1224	266	6318	
		비율	4.1%	24.9%	47.4%	19.4%	4.2%	100.0%	
	3학년	사례수	289	1866	3013	891	174	6233	
		비율	4.6%	29.9%	48.3%	14.3%	2.8%	100.0%	
전체		사례수	884	4966	8851	3485	798	18984	
		비율	4.7%	26.2%	46.6%	18.4%	4.2%	100.0%	
성별	남자	사례수	753	3251	4155	1674	472	10305	840.228***
		비율	7.3%	31.5%	40.3%	16.2%	4.6%	100.0%	
	여자	사례수	132	1705	4675	1802	326	8640	
		비율	1.5%	19.7%	54.1%	20.9%	3.8%	100.0%	
전체		사례수	885	4956	8830	3476	798	18945	
		비율	4.7%	26.2%	46.6%	18.3%	4.2%	100.0%	
성적 수준	하	사례수	279	1635	3313	1561	423	7211	228.351***
		비율	3.9%	22.7%	45.9%	21.6%	5.9%	100.0%	
	중	사례수	293	1691	2947	1019	183	6133	
		비율	4.8%	27.6%	48.1%	16.6%	3.0%	100.0%	
	상	사례수	305	1600	2492	876	187	5460	
		비율	5.6%	29.3%	45.6%	16.0%	3.4%	100.0%	
전체		사례수	877	4926	8752	3456	793	18804	
		비율	4.7%	26.2%	46.5%	18.4%	4.2%	100.0%	
부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345	2015	3816	1470	335	7981	12.925*
		비율	4.3%	25.2%	47.8%	18.4%	4.2%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473	2706	4536	1824	415	9954	
		비율	4.8%	27.2%	45.6%	18.3%	4.2%	100.0%	
전체		사례수	818	4721	8352	3294	750	17935	
		비율	4.6%	26.3%	46.6%	18.4%	4.2%	100.0%	

구 분			노래방 출입					전체	$\chi 2$
			가본적 없음	거의 가지 않음	가끔 감	자주 가는 편임	매우 자주 감		
모학력	고졸 이하	사례수	441	2669	5001	1950	433	10494	21.406***
		비율	4.2%	25.4%	47.7%	18.6%	4.1%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377	2039	3339	1346	313	7414	
		비율	5.1%	27.5%	45.0%	18.2%	4.2%	100.0%	
전체		사례수	818	4708	8340	3296	746	17908	
		비율	4.6%	26.3%	46.6%	18.4%	4.2%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사례수	142	705	1334	485	120	2786	35.938***
		비율	5.1%	25.3%	47.9%	17.4%	4.3%	100.0%	
	201~400 만원이하	사례수	376	1995	3436	1387	276	7470	
		비율	5.0%	26.7%	46.0%	18.6%	3.7%	100.0%	
	401~600 만원이하	사례수	158	1135	2020	829	194	4336	
		비율	3.6%	26.2%	46.6%	19.1%	4.5%	100.0%	
	601만원 이상	사례수	119	655	1125	465	139	2503	
		비율	4.8%	26.2%	44.9%	18.6%	5.6%	100.0%	
전체		사례수	795	4490	7915	3166	729	17095	
		비율	4.7%	26.3%	46.3%	18.5%	4.3%	100.0%	
부직업	있음	사례수	827	4693	8312	3293	750	17875	3.753
		비율	4.6%	26.3%	46.5%	18.4%	4.2%	100.0%	
	없음	사례수	41	183	343	121	35	723	
		비율	5.7%	25.3%	47.4%	16.7%	4.8%	100.0%	
전체		사례수	868	4876	8655	3414	785	18598	
		비율	4.7%	26.2%	46.5%	18.4%	4.2%	100.0%	
모직업	있음	사례수	571	3255	5905	2433	565	12729	23.569***
		비율	4.5%	25.6%	46.4%	19.1%	4.4%	100.0%	
	없음	사례수	291	1605	2755	987	218	5856	
		비율	5.0%	27.4%	47.0%	16.9%	3.7%	100.0%	
전체		사례수	862	4860	8660	3420	783	18585	
		비율	4.6%	26.2%	46.6%	18.4%	4.2%	10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사례수	770	4377	7574	2947	664	16332	45.847***
		비율	4.7%	26.8%	46.4%	18.0%	4.1%	100.0%	
	어머니와 동거	사례수	65	349	742	344	70	1570	
		비율	4.1%	22.2%	47.3%	21.9%	4.5%	100.0%	
	아버지와 동거	사례수	26	136	304	111	44	621	
		비율	4.2%	21.9%	49.0%	17.9%	7.1%	100.0%	
	동거부모 없음	사례수	26	116	238	87	23	490	
		비율	5.3%	23.7%	48.6%	17.8%	4.7%	100.0%	
전체		사례수	887	4978	8858	3489	801	19013	
		비율	4.7%	26.2%	46.6%	18.4%	4.2%	100.0%	

〈부록 표 Ⅳ-2-17〉 배경변수별 PC방 출입 정도(특성화고학생)

구 분			PC방 출입					전체	×2
			가본적 없음	거의 가지 않음	가끔 감	자주 가는 편임	매우 자주 감		
지역 규모	특별시	사례수	99	765	425	203	55	1547	183.181***
		비율	6.4%	49.5%	27.5%	13.1%	3.6%	100.0%	
	광역시	사례수	152	1122	1180	553	230	3237	
		비율	4.7%	34.7%	36.5%	17.1%	7.1%	100.0%	
	중소 도시	사례수	243	1793	1726	866	393	5021	
		비율	4.8%	35.7%	34.4%	17.2%	7.8%	100.0%	
	읍면	사례수	161	905	781	282	153	2282	
		비율	7.1%	39.7%	34.2%	12.4%	6.7%	100.0%	
전체		사례수	655	4585	4112	1904	831	12087	
		비율	5.4%	37.9%	34.0%	15.8%	6.9%	100.0%	
학년	1학년	사례수	244	1507	1477	674	323	4225	36.266***
		비율	5.8%	35.7%	35.0%	16.0%	7.6%	100.0%	
	2학년	사례수	186	1455	1340	630	279	3890	
		비율	4.8%	37.4%	34.4%	16.2%	7.2%	100.0%	
	3학년	사례수	224	1617	1289	598	227	3955	
		비율	5.7%	40.9%	32.6%	15.1%	5.7%	100.0%	
전체		사례수	654	4579	4106	1902	829	12070	
		비율	5.4%	37.9%	34.0%	15.8%	6.9%	100.0%	
성별	남자	사례수	109	1075	2585	1644	736	6149	3361.939***
		비율	1.8%	17.5%	42.0%	26.7%	12.0%	100.0%	
	여자	사례수	540	3493	1516	254	91	5894	
		비율	9.2%	59.3%	25.7%	4.3%	1.5%	100.0%	
전체		사례수	649	4568	4101	1898	827	12043	
		비율	5.4%	37.9%	34.1%	15.8%	6.9%	100.0%	
성적 수준	하	사례수	239	1613	1591	724	371	4538	34.999***
		비율	5.3%	35.5%	35.1%	16.0%	8.2%	100.0%	
	중	사례수	176	1352	1150	514	208	3400	
		비율	5.2%	39.8%	33.8%	15.1%	6.1%	100.0%	
	상	사례수	235	1591	1345	654	245	4070	
		비율	5.8%	39.1%	33.0%	16.1%	6.0%	100.0%	
전체		사례수	650	4556	4086	1892	824	12008	
		비율	5.4%	37.9%	34.0%	15.8%	6.9%	100.0%	
부학력	고졸이하	사례수	372	2986	2594	1176	489	7617	23.429***
		비율	4.9%	39.2%	34.1%	15.4%	6.4%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201	1104	996	479	235	3015	
		비율	6.7%	36.6%	33.0%	15.9%	7.8%	100.0%	
전체		사례수	573	4090	3590	1655	724	10632	
		비율	5.4%	38.5%	33.8%	15.6%	6.8%	100.0%	

구 분			PC방 출입					전체	$\chi 2$
			가본적 없음	거의 가지 않음	가끔 감	자주 가는 편임	매우 자주 감		
모학력	고졸이하	사례수	436	3330	2831	1245	536	8378	34.352***
		비율	5.2%	39.7%	33.8%	14.9%	6.4%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147	777	734	385	187	2230	
		비율	6.6%	34.8%	32.9%	17.3%	8.4%	100.0%	
전체		사례수	583	4107	3565	1630	723	10608	
		비율	5.5%	38.7%	33.6%	15.4%	6.8%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사례수	216	1592	1329	494	233	3864	89.681***
		비율	5.6%	41.2%	34.4%	12.8%	6.0%	100.0%	
	201~400 만원이하	사례수	221	1763	1587	797	324	4692	
		비율	4.7%	37.6%	33.8%	17.0%	6.9%	100.0%	
	401~600 만원이하	사례수	87	550	523	284	127	1571	
		비율	5.5%	35.0%	33.3%	18.1%	8.1%	100.0%	
	601만원 이상	사례수	41	175	217	110	66	609	
		비율	6.7%	28.7%	35.6%	18.1%	10.8%	100.0%	
전체		사례수	565	4080	3656	1685	750	10736	
		비율	5.3%	38.0%	34.1%	15.7%	7.0%	100.0%	
부직업	있음	사례수	569	4012	3574	1682	722	10559	2.247
		비율	5.4%	38.0%	33.8%	15.9%	6.8%	100.0%	
	없음	사례수	50	323	311	140	70	894	
		비율	5.6%	36.1%	34.8%	15.7%	7.8%	100.0%	
전체		사례수	619	4335	3885	1822	792	11453	
		비율	5.4%	37.9%	33.9%	15.9%	6.9%	100.0%	
모직업	있음	사례수	450	3124	2783	1319	559	8235	2.454
		비율	5.5%	37.9%	33.8%	16.0%	6.8%	100.0%	
	없음	사례수	173	1259	1102	484	226	3244	
		비율	5.3%	38.8%	34.0%	14.9%	7.0%	100.0%	
전체		사례수	623	4383	3885	1803	785	11479	
		비율	5.4%	38.2%	33.8%	15.7%	6.8%	10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사례수	498	3358	2892	1386	573	8707	38.631***
		비율	5.7%	38.6%	33.2%	15.9%	6.6%	100.0%	
	어머니와 동거	사례수	85	668	625	239	114	1731	
		비율	4.9%	38.6%	36.1%	13.8%	6.6%	100.0%	
	아버지와 동거	사례수	48	327	332	167	83	957	
		비율	5.0%	34.2%	34.7%	17.5%	8.7%	100.0%	
	동거부모 없음	사례수	24	232	263	112	61	692	
		비율	3.5%	33.5%	38.0%	16.2%	8.8%	100.0%	
전체		사례수	655	4585	4112	1904	831	12087	
		비율	5.4%	37.9%	34.0%	15.8%	6.9%	100.0%	

〈부록표 Ⅳ-2-18〉 배경변수별 노래방 출입 정도(특성화고학생)

구 분			노래방 출입					전체	×2
			가본적 없음	거의 가지 않음	가끔 감	자주 가는 편임	매우 자주 감		
지역 규모	특별시	사례수	47	280	715	401	109	1552	84.204***
		비율	3.0%	18.0%	46.1%	25.8%	7.0%	100.0%	
	광역시	사례수	150	606	1418	802	264	3240	
		비율	4.6%	18.7%	43.8%	24.8%	8.1%	100.0%	
	중소 도시	사례수	193	944	2258	1180	447	5022	
		비율	3.8%	18.8%	45.0%	23.5%	8.9%	100.0%	
	읍면	사례수	111	505	1117	407	141	2281	
		비율	4.9%	22.1%	49.0%	17.8%	6.2%	100.0%	
전체		사례수	501	2335	5508	2790	961	12095	
		비율	4.1%	19.3%	45.5%	23.1%	7.9%	100.0%	
학년	1학년	사례수	200	752	1801	1099	378	4230	82.348***
		비율	4.7%	17.8%	42.6%	26.0%	8.9%	100.0%	
	2학년	사례수	128	752	1792	896	322	3890	
		비율	3.3%	19.3%	46.1%	23.0%	8.3%	100.0%	
	3학년	사례수	171	826	1909	793	259	3958	
		비율	4.3%	20.9%	48.2%	20.0%	6.5%	100.0%	
전체		사례수	499	2330	5502	2788	959	12078	
		비율	4.1%	19.3%	45.6%	23.1%	7.9%	100.0%	
성별	남자	사례수	412	1433	2546	1241	515	6147	407.315***
		비율	6.7%	23.3%	41.4%	20.2%	8.4%	100.0%	
	여자	사례수	84	889	2948	1542	441	5904	
		비율	1.4%	15.1%	49.9%	26.1%	7.5%	100.0%	
전체		사례수	496	2322	5494	2783	956	12051	
		비율	4.1%	19.3%	45.6%	23.1%	7.9%	100.0%	
성적 수준	하	사례수	207	760	2011	1109	452	4539	79.660***
		비율	4.6%	16.7%	44.3%	24.4%	10.0%	100.0%	
	중	사례수	128	669	1610	762	236	3405	
		비율	3.8%	19.6%	47.3%	22.4%	6.9%	100.0%	
	상	사례수	157	887	1855	906	266	4071	
		비율	3.9%	21.8%	45.6%	22.3%	6.5%	100.0%	
전체		사례수	492	2316	5476	2777	954	12015	
		비율	4.1%	19.3%	45.6%	23.1%	7.9%	100.0%	
부학력	고졸이하	사례수	294	1434	3556	1761	578	7623	10.507*
		비율	3.9%	18.8%	46.6%	23.1%	7.6%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121	563	1322	746	266	3018	
		비율	4.0%	18.7%	43.8%	24.7%	8.8%	100.0%	
전체		사례수	415	1997	4878	2507	844	10641	
		비율	3.9%	18.8%	45.8%	23.6%	7.9%	100.0%	

구 분			노래방 출입					전체	x2
			가본적 없음	거의 가지 않음	가끔 감	자주 가는 편임	매우 자주 감		
모학력	고졸이하	사례수	311	1550	3894	2003	626	8384	16.170**
		비율	3.7%	18.5%	46.4%	23.9%	7.5%	100.0%	
	2년대졸 이상	사례수	103	426	977	514	211	2231	
		비율	4.6%	19.1%	43.8%	23.0%	9.5%	100.0%	
전체		사례수	414	1976	4871	2517	837	10615	
		비율	3.9%	18.6%	45.9%	23.7%	7.9%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사례수	194	768	1772	839	296	3869	51.054***
		비율	5.0%	19.9%	45.8%	21.7%	7.7%	100.0%	
	201~400 만원이하	사례수	166	863	2130	1180	354	4693	
		비율	3.5%	18.4%	45.4%	25.1%	7.5%	100.0%	
	401~600 만원이하	사례수	59	309	691	370	141	1570	
		비율	3.8%	19.7%	44.0%	23.6%	9.0%	100.0%	
	601만원 이상	사례수	23	95	272	143	78	611	
		비율	3.8%	15.5%	44.5%	23.4%	12.8%	100.0%	
전체		사례수	442	2035	4865	2532	869	10743	
		비율	4.1%	18.9%	45.3%	23.6%	8.1%	100.0%	
부직업	있음	사례수	426	2002	4814	2481	845	10568	5.350
		비율	4.0%	18.9%	45.6%	23.5%	8.0%	100.0%	
	없음	사례수	48	181	398	196	71	894	
		비율	5.4%	20.2%	44.5%	21.9%	7.9%	100.0%	
전체		사례수	474	2183	5212	2677	916	11462	
		비율	4.1%	19.0%	45.5%	23.4%	8.0%	100.0%	
모직업	있음	사례수	335	1554	3750	1965	637	8241	5.969
		비율	4.1%	18.9%	45.5%	23.8%	7.7%	100.0%	
	없음	사례수	135	630	1496	710	274	3245	
		비율	4.2%	19.4%	46.1%	21.9%	8.4%	100.0%	
전체		사례수	470	2184	5246	2675	911	11486	
		비율	4.1%	19.0%	45.7%	23.3%	7.9%	10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사례수	370	1712	4021	1972	639	8714	33.877**
		비율	4.2%	19.6%	46.1%	22.6%	7.3%	100.0%	
	어머니와 동거	사례수	72	304	744	439	173	1732	
		비율	4.2%	17.6%	43.0%	25.3%	10.0%	100.0%	
	아버지와 동거	사례수	38	170	429	232	88	957	
		비율	4.0%	17.8%	44.8%	24.2%	9.2%	100.0%	
	동거부모 없음	사례수	21	149	314	147	61	692	
		비율	3.0%	21.5%	45.4%	21.2%	8.8%	100.0%	
전체		사례수	501	2335	5508	2790	961	12095	
		비율	4.1%	19.3%	45.5%	23.1%	7.9%	100.0%	

〈부록 표 Ⅳ-3-1〉 배경변수별 자아존중감(초등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 규모	특별시(a)	1852	4.05	0.843	21.915***	a〉b, a〉c, a〉d
	광역시(b)	2646	3.92	0.841		
	중소 도시(c)	4613	3.88	0.849		
	읍면(d)	559	3.81	0.874		
합계		9670	3.92	0.850		
성별	남자(a)	4929	3.95	0.859	16.599***	a〉b
	여자(b)	4692	3.88	0.840		
합계		9621	3.92	0.850		
성적 수준	하(a)	1297	3.43	0.918	494.593***	a〈b, a〈c, b〈c
	중(b)	4232	3.82	0.820		
	상(c)	3846	4.19	0.759		
합계		9375	3.92	0.852		
부학력	고졸이하(a)	2429	3.82	0.850	82.170***	a〈b
	2년제대졸이상(b)	4828	4.01	0.833		
합계		7257	3.95	0.843		
모학력	고졸이하(a)	2951	3.85	0.846	76.750***	a〈b
	2년제대졸이상(b)	4401	4.02	0.834		
합계		7352	3.95	0.844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1566	3.73	0.912	48.486***	a〈b, a〈c, a〈d, b〈d, c〈d
	201~400만원 이하(b)	2977	3.93	0.822		
	401~600만원 이하(c)	1990	3.99	0.843		
	601만원 이상(d)	1220	4.09	0.818		
합계		7753	3.93	0.853		
부직업	있음(a)	9087	3.93	0.842	13.116***	a〉b
	없음(b)	257	3.73	0.992		
합계		9344	3.92	0.847		
모직업	있음(a)	6418	3.90	0.855	19.650***	a〈b
	없음(b)	2884	3.98	0.832		
합계		9302	3.92	0.849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471	3.93	0.840	10.018***	a〉b, a〉c
	어머니와 동거(b)	678	3.79	0.908		
	아버지와 동거(c)	280	3.78	0.907		
	동거부모 없음(d)	241	3.79	0.899		
합계		9670	3.92	0.850		

〈부록 표 Ⅳ-3-2〉 배경변수별 자아존중감(중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345	3.64	0.871	18.207***	a〉c, a〉d, b〉c, b〉d
	광역시(b)	4937	3.63	0.851		
	중소 도시(c)	8479	3.55	0.858		
	읍면(d)	1846	3.51	0.866		
합계		18607	3.58	0.860		
학년	1학년(a)	6358	3.65	0.867	34.643***	a〉b, a〉c
	2학년(b)	6140	3.53	0.862		
	3학년(c)	6082	3.56	0.848		
합계		18580	3.58	0.860		
성별	남자(a)	9315	3.65	0.869	111.028***	a〉b
	여자(b)	9185	3.52	0.845		
합계		18500	3.58	0.860		
성적수준	하(a)	6938	3.33	0.863	653.716***	a〈b, a〈c, b〈c
	중(b)	4951	3.61	0.821		
	상(c)	6397	3.85	0.803		
합계		18286	3.59	0.860		
부학력	고졸이하(a)	6586	3.51	0.851	161.420***	a〈b
	2년제대졸이상(b)	9046	3.68	0.853		
합계		15632	3.61	0.856		
모학력	고졸이하(a)	7880	3.52	0.853	176.977***	a〈b
	2년제대졸이상(b)	7765	3.70	0.847		
합계		15645	3.61	0.855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084	3.42	0.865	99.278***	a〈b, a〈c, a〈d, b〈c, b〈d, c〈d
	201~400만원 이하(b)	6425	3.57	0.842		
	401~600만원 이하(c)	3730	3.68	0.843		
	601만원 이상(d)	2391	3.80	0.885		
합계		15630	3.60	0.861		
부직업	있음(a)	17506	3.59	0.857	4.262*	a〉b
	없음(b)	587	3.52	0.876		
합계		18093	3.59	0.858		
모직업	있음(a)	12343	3.58	0.858	5.856*	a〈b
	없음(b)	5649	3.61	0.855		
합계		17992	3.59	0.858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5999	3.61	0.855	31.786***	a〉b, a〉c, a〉d
	어머니와 동거(b)	1390	3.46	0.867		
	아버지와 동거(c)	712	3.37	0.866		
	동거부모 없음(d)	506	3.48	0.926		
합계		18607	3.58	0.860		

〈부록 표 Ⅳ-3-3〉 배경변수별 자아존중감(일반고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3287	3.63	0.824	3.482*	c>d
	광역시(b)	5242	3.66	0.800		
	중소 도시(c)	8835	3.66	0.817		
	읍면(d)	1669	3.59	0.838		
합계		19033	3.65	0.816		
학년	1학년(a)	6439	3.64	0.823	1.972	
	2학년(b)	6323	3.63	0.803		
	3학년(c)	6242	3.66	0.820		
합계		19004	3.65	0.815		
성별	남자(a)	10320	3.68	0.828	41.072***	a>b
	여자(b)	8645	3.60	0.798		
합계		18965	3.65	0.815		
성적수준	하(a)	7217	3.41	0.840	652.122***	a<b, a<c, b<c
	중(b)	6141	3.68	0.760		
	상(c)	5466	3.92	0.753		
합계		18824	3.64	0.816		
부학력	고졸이하(a)	7986	3.58	0.806	133.139***	a<b
	2년제대졸이상(b)	9967	3.72	0.813		
합계		17953	3.66	0.813		
모학력	고졸이하(a)	10503	3.60	0.811	136.411***	a<b
	2년제대졸이상(b)	7425	3.74	0.809		
합계		17928	3.66	0.813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2786	3.46	0.826	102.939***	a<b, a<c, a<d, b<c, b<d, c<d
	201~400만원 이하(b)	7479	3.63	0.802		
	401~600만원 이하(c)	4341	3.73	0.792		
	601만원 이상(d)	2505	3.82	0.846		
합계		17111	3.66	0.817		
부직업	있음(a)	17893	3.66	0.811	33.392***	a>b
	없음(b)	725	3.48	0.873		
합계		18618	3.65	0.814		
모직업	있음(a)	12745	3.65	0.816	.149	
	없음(b)	5862	3.65	0.808		
합계		18607	3.65	0.814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347	3.67	0.807	36.626***	a>b, a>c, a>d
	어머니와 동거(b)	1573	3.52	0.838		
	아버지와 동거(c)	623	3.45	0.842		
	동거부모 없음(d)	490	3.47	0.893		
합계		19033	3.65	0.816		

〈부록 표 Ⅳ-3-4〉 배경변수별 자아존중감(특성화고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규모	특별시(a)	1552	3.50	0.804	.571	
	광역시(b)	3241	3.50	0.837		
	중소 도시(c)	5028	3.49	0.832		
	읍면(d)	2286	3.47	0.818		
합계		12107	3.49	0.827		
학년	1학년(a)	4234	3.48	0.833	8.173***	c〉a c〉b
	2학년(b)	3893	3.46	0.820		
	3학년(c)	3963	3.53	0.826		
합계		12090	3.49	0.827		
성별	남자(a)	6152	3.54	0.839	48.158***	a〉b
	여자(b)	5911	3.44	0.810		
합계		12063	3.49	0.826		
성적수준	하(a)	4544	3.29	0.834	273.374***	b〉a c〉a c〉b
	중(b)	3408	3.52	0.784		
	상(c)	4075	3.69	0.799		
합계		12027	3.49	0.826		
부학력	고졸이하(a)	7627	3.47	0.813	36.022***	b〉a
	2년제대졸이상(b)	3021	3.58	0.847		
합계		10648	3.50	0.824		
모학력	고졸이하(a)	8388	3.48	0.813	36.190***	b〉a
	2년제대졸이상(b)	2235	3.60	0.859		
합계		10623	3.50	0.825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872	3.41	0.839	38.946***	b〉a c〉a d〉a c〉b d〉b
	201~400만원 이하(b)	4693	3.51	0.800		
	401~600만원 이하(c)	1576	3.63	0.849		
	601만원 이상(d)	612	3.69	0.875		
합계		10753	3.50	0.830		
부직업	있음(a)	10576	3.50	0.822	6.653*	a〉b
	없음(b)	894	3.43	0.846		
합계		11470	3.50	0.825		
모직업	있음(a)	8247	3.50	0.824	.123	
	없음(b)	3248	3.49	0.827		
합계		11495	3.50	0.825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722	3.51	0.819	6.721***	a〉c
	어머니와 동거(b)	1734	3.47	0.837		
	아버지와 동거(c)	957	3.39	0.826		
	동거부모 없음(d)	694	3.49	0.896		
합계		12107	3.49	0.827		

〈부록 표 Ⅳ-3-5〉 배경변수별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초등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 규모	특별시(a)	1850	2.28	1.011	5.315**	a〈d, b〈d, c〈d
	광역시(b)	2645	2.26	0.938		
	중소 도시(c)	4613	2.30	0.920		
	읍면(d)	559	2.43	0.948		
합계		9667	2.30	0.945		
성별	남자(a)	4927	2.32	0.965	9.652**	a〉b
	여자(b)	4691	2.27	0.924		
합계		9618	2.30	0.945		
성적 수준	하(a)	1296	3.04	0.969	972.200***	a〉b, a〉c, b〉c
	중(b)	4231	2.43	0.869		
	상(c)	3845	1.89	0.810		
합계		9372	2.29	0.945		
부학력	고졸이하(a)	2429	2.41	0.944	110.820***	a〉b
	2년제대졸이상(b)	4825	2.16	0.918		
합계		7254	2.25	0.934		
모학력	고졸이하(a)	2950	2.37	0.930	88.256***	a〉b
	2년제대졸이상(b)	4400	2.16	0.930		
합계		7350	2.25	0.935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1565	2.53	0.980	57.691***	a〉b, a〉c, a〉d, b〉c, b〉d, c〉d
	201~400만원 이하(b)	2976	2.29	0.923		
	401~600만원 이하(c)	1990	2.20	0.918		
	601만원 이상(d)	1219	2.09	0.960		
합계		7750	2.28	0.950		
부직업	있음(a)	9084	2.28	0.937	17.164***	a〈b
	없음(b)	257	2.53	1.095		
합계		9341	2.29	0.942		
모직업	있음(a)	6416	2.33	0.947	31.898***	a〉b
	없음(b)	2884	2.21	0.934		
합계		9300	2.29	0.945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470	2.26	0.932	26.724***	a〈b, a〈c, a〈d
	어머니와 동거(b)	677	2.49	1.007		
	아버지와 동거(c)	280	2.59	1.056		
	동거부모 없음(d)	240	2.53	0.959		
합계		9667	2.30	0.945		

〈부록 표 Ⅳ-3-6〉 배경변수별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중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 규모	특별시(a)	3343	2.83	1.011	9.214***	a〉b, b〈c, b〈d, c〈d
	광역시(b)	4937	2.76	1.001		
	중소 도시(c)	8475	2.82	0.973		
	읍면(d)	1846	2.89	0.957		
합계		18601	2.81	0.986		
학년	1학년(a)	6354	2.68	0.970	85.964***	a〈b, a〈c
	2학년(b)	6139	2.87	0.991		
	3학년(c)	6081	2.89	0.985		
합계		18574	2.81	0.986		
성별	남자(a)	9312	2.78	1.002	15.367***	a〈b
	여자(b)	9182	2.84	0.970		
합계		18494	2.81	0.986		
성적 수준	하(a)	6934	3.22	0.928	1447.829***	a〉b, a〉c, b〉c
	중(b)	4950	2.82	0.900		
	상(c)	6396	2.36	0.918		
합계		18280	2.81	0.987		
부학력	고졸이하(a)	6585	2.91	0.956	171.509***	a〉b
	2년제대졸이상(b)	9044	2.70	1.004		
합계		15629	2.79	0.989		
모학력	고졸이하(a)	7877	2.88	0.972	152.309***	a〉b
	2년제대졸이상(b)	7765	2.69	0.996		
합계		15642	2.79	0.989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082	3.01	0.960	95.386***	a〉b, a〉c, a〉d, b〉c, b〉d, c〉d
	201~400만원 이하(b)	6423	2.83	0.965		
	401~600만원 이하(c)	3729	2.70	0.978		
	601만원 이상(d)	2390	2.60	1.072		
합계		15624	2.80	0.993		
부직업	있음(a)	17500	2.80	0.984	20.532***	a〈b
	없음(b)	587	2.99	1.046		
합계		18087	2.81	0.987		
모직업	있음(a)	12340	2.83	0.980	13.352***	a〉b
	없음(b)	5646	2.77	0.996		
합계		17986	2.81	0.985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5994	2.78	0.984	41.669***	a〈b, a〈c, a〈d
	어머니와 동거(b)	1389	2.99	0.978		
	아버지와 동거(c)	712	3.09	0.963		
	동거부모 없음(d)	506	2.94	0.993		
합계		18601	2.81	0.986		

〈부록 표 Ⅳ-3-7〉 배경변수별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일반고)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 규모	특별시(a)	3286	3.01	1.025	4.479**	a>b, a>c
	광역시(b)	5242	2.95	1.036		
	중소 도시(c)	8835	2.95	1.012		
	읍면(d)	1669	3.01	0.993		
합계		19032	2.97	1.019		
학년	1학년(a)	6439	2.99	1.007	21.778***	a>c, b>c
	2학년(b)	6323	3.01	1.008		
	3학년(c)	6241	2.90	1.039		
합계		19003	2.97	1.019		
성별	남자(a)	10320	2.98	1.037	5.384*	a>b
	여자(b)	8644	2.95	0.998		
합계		18964	2.97	1.019		
성적 수준	하(a)	7217	3.32	0.999	1074.713***	a>b, a>c, b>c
	중(b)	6141	2.95	0.937		
	상(c)	5465	2.52	0.955		
합계		18823	2.97	1.020		
부학력	고졸이하(a)	7986	3.04	0.997	98.266***	a>b
	2년제대졸이상(b)	9967	2.89	1.034		
합계		17953	2.96	1.020		
모학력	고졸이하(a)	10503	3.03	0.999	149.105***	a>b
	2년제대졸이상(b)	7425	2.84	1.040		
합계		17928	2.95	1.021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2786	3.18	0.993	94.433***	a>b, a>c, a>d, b>c, b>d, c>d
	201~400만원 이하(b)	7478	3.00	0.988		
	401~600만원 이하(c)	4341	2.87	1.025		
	601만원 이상(d)	2505	2.75	1.099		
합계		17110	2.96	1.023		
부직업	있음(a)	17893	2.96	1.017	11.364**	a<b
	없음(b)	724	3.09	1.058		
합계		18617	2.96	1.019		
모직업	있음(a)	12744	2.96	1.019	.034	
	없음(b)	5862	2.96	1.021		
합계		18606	2.96	1.019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16346	2.95	1.015	17.042***	a<b, a<c
	어머니와 동거(b)	1573	3.07	1.030		
	아버지와 동거(c)	623	3.17	1.024		
	동거부모 없음(d)	490	3.07	1.071		
합계		19032	2.97	1.019		

〈부록 표 Ⅳ-3-8〉 배경변수별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특성화고학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 간 차이
지역 규모	특별시(a)	1552	3.02	0.967	2.059	
	광역시(b)	3241	2.96	0.961		
	중소 도시(c)	5025	2.97	0.948		
	읍면(d)	2286	3.00	0.957		
합계		12104	2.98	0.956		
학년	1학년(a)	4233	2.99	0.939	28.364***	b〉a a〉c b〉c
	2학년(b)	3893	3.05	0.953		
	3학년(c)	3961	2.89	0.970		
합계		12087	2.98	0.956		
성별	남자(a)	6152	2.98	0.963	.002	
	여자(b)	5908	2.98	0.949		
합계		12060	2.98	0.956		
성적수준	하(a)	4545	3.27	0.948	475.676***	a〉b a〉c b〉c
	중(b)	3404	2.98	0.870		
	상(c)	4075	2.66	0.929		
합계		12024	2.98	0.956		
부학력	고졸이하(a)	7625	3.00	0.946	23.217***	a〉b
	2년제대졸이상(b)	3021	2.90	0.981		
합계		10646	2.97	0.957		
모학력	고졸이하(a)	8386	2.99	0.953	29.123***	a〉b
	2년제대졸이상(b)	2235	2.87	0.974		
합계		10621	2.97	0.959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a)	3870	3.05	0.966	18.255***	a〉b a〉c a〉d b〉d
	201~400만원 이하(b)	4694	2.95	0.934		
	401~600만원 이하(c)	1574	2.89	0.970		
	601만원 이상(d)	612	2.81	1.055		
합계		10750	2.97	0.961		
부직업	있음(a)	10573	2.97	0.955	1.436	
	없음(b)	894	3.01	0.961		
합계		11467	2.98	0.956		
모직업	있음(a)	8244	2.97	0.960	.158	
	없음(b)	3248	2.98	0.948		
합계		11492	2.98	0.957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a)	8721	2.97	0.952	2.273	
	어머니와 동거(b)	1733	3.00	0.980		
	아버지와 동거(c)	957	3.04	0.952		
	동거부모 없음(d)	693	3.01	0.944		
합계		12104	2.98	0.956		

연구보고 RR 2012－05

학생의 학교 부적응 진단과 대책(Ⅰ)

발　　행　2012년　12월
발 행 인　백 순 근
발 행 처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1길 35(우면동)
전화 : (02) 3460-0114
FAX : (02) 3460-0121
http://www.kedi.re.kr
등록번호　1973. 6. 13. 제16-35호
인 쇄 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ＩＳＢＮ　978-89-6113-870-3　93370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